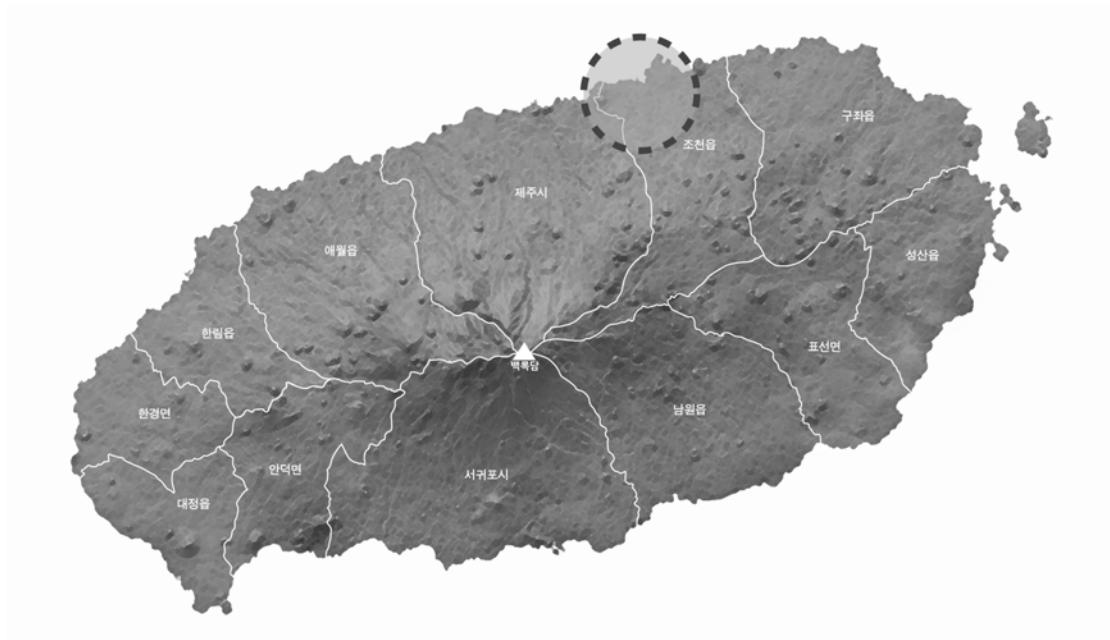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55-01

#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26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안민희  
조사지점: 조천읍 신촌리





##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6

## 목 차

###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7
1.2. 사업 기간 .....	7
1.3. 조사 참여자 .....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	9
1.5. 기대 효과 .....	10

### 제2장 조친읍 신촌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	11
2.2. 조사 기간 .....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	11
2.4. 전사 .....	13
2.5. 장비 .....	13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	14	2. 제보자 일생 .....	36
3. 밭일 .....	60	4. 들일 .....	126
5. 바다일 .....	155	6. 의생활 .....	176
7. 식생활 .....	186	8. 주생활 .....	247
10. 세시풍속 .....	249	11. 놀이 .....	249
11. 통화의례 .....	250	12. 민간요법 .....	275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280		

#### 제2절 어휘

1. 인체 .....	283	2. 육아 .....	289
3. 친족 .....	296	4. 의복 .....	300
5. 음식 .....	305	6. 가옥 .....	314
7. 생업 .....	319	8. 수와 단위 .....	331
9. 민속 .....	334	10. 신앙 .....	337
11. 자연 .....	337	12. 동물 .....	345
13. 식물 .....	355		



# 제1장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 1.3. 조사 참여자

###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돌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존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제2장 조천읍 신촌리 조사 내용

### 2.1. 제보자

김옥녀(여, 1928년생)

이명헌(남, 1924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과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김옥녀	00:25:37	○
	구술 1. 조사 마을	김옥녀	00:17:18	○
	구술 1. 조사 마을	이명헌	00:56:04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김옥녀	00:29:20	○
	구술 2. 제보자 일생	김옥녀	00:06:41	○
	구술 2. 제보자 일생(신혼살림)	김옥녀	00:17:26	○
	구술 2. 제보자 일생	이명헌	02:10:28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	김옥녀	01:41:48	○
	구술 3-1. 보리 농사	이명헌	00:57:18	○
	구술 3-2. 조 농사	김옥녀	00:42:31	○
	구술 3-2. 콩 농사	김옥녀	00:07:40	○
	구술 3-2.콩, 산디 농사	이명헌	00:23:18	○
	구술 3-3. 밭벼 농사	김옥녀	00:13:58	○
	구술 3-4.고구마 농사	김옥녀	00:22:10	○
	구술 3-5 기타 농사	김옥녀	00:12:32	○

	구술 3-5 기타 농사	이명헌	00:07:54	○
4. 들일	구술 4. 들일1(소)	김옥녀	00:39:10	○
	구술 4. 들일2(말)	김옥녀	00:11:25	○
	구술 4. 들일1(소, 말)	이명헌	00:17:50	○
	구술 4. 들일2(소, 말)	이명헌	00:22:43	○
	구술 4. 들일3(먹이, 땀감, 사냥)	김옥녀	00:14:40	○
	구술 4들일(먹이, 땀감, 사냥)	이명헌	00:22:54	○
	구술 4들일(먹이, 땀감, 사냥)	이명헌	00:22:54	○
	구술 5. 바다일	김옥녀	00:59:29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1	이명헌	00:24:22	○
	구술 5. 바다일2	이명헌	00:22:16	○
	구술 6. 의생활(옷감, 신발, 모자)	김옥녀	00:23:37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옷감, 신발, 모자)	김옥녀	01:32:47	○
	구술 6. 의생활(신발, 모자)	이명헌	00:06:23	○
	구술 6. 의생활(신발, 모자)	이명헌	00:04:06	○
	구술 7. 식생활(밥)	김옥녀	00:18:16	○
7. 식생활	구술 7.식생활(국~김치)	김옥녀	01:04:50	○
	구술 7.식생활	김옥녀	00:23:37	○
	구술7.식생활(장아찌~떡-상웨떡)	김옥녀	00:18:35	○
	구술 7.식생활(떡~별식)	김옥녀	01:18:07	○
	구술 7.식생활(별식-엿~)	김옥녀	01:08:02	○
	구술 7. 식생활	이명헌	00:14:59	○
	구술 7. 식생활	이명헌	00:06:05	○
	구술 8. 주생활	김옥녀	00:35:52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이명헌	00:14:50	○
	구술 8. 주생활	이명헌	00:04:01	○
	구술 9. 신앙	김옥녀	00:57:35	×
9. 신앙	구술 9. 신앙	이명헌	00:14:25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김옥녀	00:15:46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이명헌	00:20:38	×
11. 놀이	구술 11. 놀이1	김옥녀	00:13:11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출생, 혼례)	김옥녀	00:58:49	○
12. 통과례	구술 12.통과례(상례, 제례)	김옥녀	00:45:04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김옥녀	00:22:40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김옥녀	00:22:44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김옥녀	00:19:44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이명헌	00:46:54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도깨비)	이명헌	00:23:22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1	김옥녀	00:58:58	○
2. 육아	어휘 2. 육아	김옥녀	00:59:42	○
3. 친족	어휘 3. 친족	김옥녀	00:16:54	○
4. 의복	어휘 4. 의복	김옥녀	00:31:28	○

5. 음식	어휘 5. 음식	김옥녀	00:08:19	○
5. 음식	어휘 5. 음식	김옥녀	01:18:06	○
6. 가옥	어휘 6. 가옥	김옥녀	00:52:24	○
7. 생업	어휘 7. 생업	김옥녀	01:13:17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김옥녀	00:13:53	○
9. 민속	어휘 9. 민속	김옥녀	00:14:42	○
10. 신앙	어휘 10. 신앙	김옥녀	00:02:02	○
11. 자연	어휘 11. 자연	김옥녀	00:26:29	○
12. 동물	어휘 12. 동물1	김옥녀	00:49:36	○
13. 식물	어휘 13. 식물	김옥녀	00:14:20	○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 제3장 전사 자료

### 제1절 구술

(@: 안민희, #1: 김옥녀, #2: 이명현)

#### 1. 조사 마을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01001 #1 옛날엔 숙군이엔 해 숙군 숙군인디 이젠 신촌이렌

101001 @ 숙군이예?

101001 #1 응. 옛날은 신촌 ㄱ라 숙군해서. 신촌이엔 안 헨 숙군, 마을이숙어지니까 숙군,

101001 @ 아, 마을이 숙어지니까 숙군?

101001 #1 이 신촌이 어디가도 보이질 안혀. 동산에 가도 함덕 조천은 다 보이는디 신촌은 안 보여. 그니까 숙어지니까 숙군,

101001 @ 숙어지니까 숙군? 그믄 숙군이엇을때는 조천에 들어가랏수과? 조천읍 숙군리?

101001 #1 응 조천, 옛날은 조천면이렌 해나서. 이젠 읍이엔 허는디, 이젠 읍이고 옛날엔 조천 면이엔해나서. 숙꾼

101001 @ 이 마을은 신촌이잖아예.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졌수과?

101001 #2 옛날은 저 이 신촌마을이 저 여디 잇냐면 웃ㅁ실지경 부락이 이 우에, 그러다가 해변가까이 내려와서 사는디 부락이 쭉뚝이 아니고 수군이랏어. 수군 머리수자 수, 수군 그걸 놔서 여러사람이 말썽이 많았었는데 거기 있었던 모양이예요. 신촌이 숙꾼 향사가 동부에선 전부 협력해가지고 문화재가 웬겁니다.이 신촌 향사가 계난 옛날시대에는 이 수군이라고 했죠. 수군 머리수자 수군,

101001 @ 원래 웃뜨리 머 와홀이나 대홀에서 분파되어 왔수과? 조천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수군이 있었고,

101001 #2 문화재 향사는 구좌읍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은 것이 향합니다.

101001 @ 조천옆에 수군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101001 #2 수군이라고 현 것을 보통사람이 쭉뚝 난 수군이라고 머리 고을이다 수군이다 문장이 많이 낮고, 옛날도 신촌에서가 문장이 많이 낮고,

101001 @ 똑똑헌 사람이 많이났구나예

101001 #2 그렇죠. 그 지금 중간에 와서는 강칩, 흥칩이 아주 굉장한 권세가들이 살았죠, 편안 강씨허고 흥씨허고 권세 지금은 아주 몰락해가지고 뭐 허허, 축하나 쓰젠해도 날 빌어가야돼. 흥칩 강칩이가 으뜸이라났주. 신촌에선섯동네가민 조씨가

조금 많았고 조씨,

101001 @ 그든 원래 신촌이라는 이름은 언제쯤 만들어져신고예?

101001 #2 그거는 그건 기억을 못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101001 @ 조천이름 옆이 새로 만든 촌이난 신촌이렌 해신가예?

101001 #2 그저 옛날은 수군 숙군허다가 숙군 숙군허다가 이 해변가로 부락이 형성되면서 아마 신촌으로 뻗을 겁니다.

101001 @ 그든 조천에 소속되진 안했구나예 원래예?

101001 #2 그렇쥬 딱 흔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101001 @ 경계가 있었구나예. 삼양까지 딱 시넨데 신촌부터가 딱 북제주군으로 들어갓잖아예

101001 #2 믇음대로 헐거니까. 웬당봉으로 돌아가지고 웬당봉 서쪽으로는 시관래고, 동쪽으로는 이 조천읍 관래고, 반은 웬당봉이 삼양이고 반은 신촌거쥬.

101002 @ 이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1001 #1 고씨가 하난데 이젠 양씨는 조금배기 어서저불언. 막 어서저불언. 멧사름어서.,

101002 @ 아아, 이 마을은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처럼 강칩, 홍칩, 처음예?

101002 #2 그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쥬. 함덕ㄱ튼딘 함씨 함덕이라고 해서 함덕이라고 했덴 허는 말이 있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1002 @ 신촌에는 성이 무신 성이 많아낫수과? 강칩, 홍칩 처

101002 #2 고씨도 김씨도 많고 거 그 성씨야 상당히 많쥬.

101002 @ 주로 많이 있는 성씨는 옛날부터 신촌하면 강칩, 홍칩

101002 #2 권세는 강칩, 홍칩 권세

101002 @ 권세는예. 권세가 있다는 것은 부자다는 것도 있고, 학문을 했다는 것도 있고,

101002 #2 정의원도 허고 강주사도 허고 그런 벼슬했쥬.

101002 @ 벼슬예?

101002 #2 게니까 이 강칩이 그 뭐 저 종살이 허던 여자가 이 저 열녀가 되엇어요. 그 어째서 열녀가 되엇느냐? 옛날 사또가 행차허다가 물이 그리와서 아 그 저 강칩이 종사허던 그 여자가 물을 떠다드렸어요. 물을 떠다드리니까 그 사또가 흘목을 잡았어. 아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때까지 이거 저 고운 호다리로 감듯 감아서 아무도 만지지 못허게 그래서 열녀가 잇엇쥬. 그래서 열녀가 잇엇쥬. 그런 열녀가 손 한번 잡아서 흘목 잡아 사또가 문직어 준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

101002 @ 그건 좀 심허다예. 시집도 안가신가예?

101002 #2 시집도 안가고 허니까 열녀비석이 잇엇어요. 열녀문,

101002 @ 그건 좀 너무 심하다예. 시집도 안가 일생으로 봐서는 불쌍허지 앓허

파?

101002 #2 그렇죠. 일생으로 봐서는 불쌍하죠.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1003 #1 에, 해녀는 해녀만행 살코이, 또 농사짓는 사람은 이제나 미깥이주 조, 콩, 보리, 옛날엔 것배끼 고구마, 그런 것만 행 살아서. 이제는 굴나니까 굴을 해도 옛날은 그것만 행 살아서. 보리, 조, 콩, 고구마 옛날엔 그것만 행,

101003 #2 주로 농사죠. 이 신촌이 마을 이 조천 읍 관래에서도 제일 땅이 농토가 좋아요. 널고 농토가 좋아요.

101003 @ 무슨 농사를 지어신고예?

101003 #2 나 아 나는 뭐 한다는 거 다 해봤어.

101003 @ 주로 신촌에 잘 되는 농사는 무슨 농사였수과? 또 바당 어부도 잇지예? 바다

101003 #2 어부들도 많죠. 어부들도 많고 농사 잘되는 건 옛날엔 먹는 조 보리조 뭐. 조하고 보리, 그것도 제주사람 먹는 것이 제주사람은 저 좁쌀하고 보리쌀하고만 먹고 살았으니까, 하하하

101003 @ 옛날 옛날 보리가 나오기 전엔 좁쌀만 먹고예? 보리가 삼춘 어렸을 때부터 보리는 잇었지예

101003 #2 우리 어렸을 적에 보리를 많이 먹었어요. 보리배끼.

101003 @ 바다에 어부를 보재기렌 험니까? 어부도 많이 잇었수과? 라고 멧명정도

101003 #2 그렇죠. 많이 있었죠.

101003 @ 거의 남자분들은 어부라고 합니까? 바다에 어부라고 멧명정도?

101003 #2 그렇죠.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잇고, 어부도 잇고 마 이 바당영업허는게 위험허니까 바다 기상예보가 없기 때문에 옛날은 피해가 많았어요. 으응 그 우리 어렸을때만 봐도 사냥배 여기 와서 뒤집어져가지고 사람 너인가 탄디 다 죽은 걸 봤어요.

101003 @ 아 어릴때도예. 해녀들도 많이 이섯수과 해녀줍녀?

101003 #2 해녀도 많이 있었죠.

101003 @ 오십명 넘고?

101003 #2 그렇죠. 해녀는 먹을 거 메역도 즈물아 먹고, 뭐 구쟁기도 즈물아 먹고, 지금은 멧 안 남앗지만 하엿튼 이 해녀가 상당히 세력이 좋죠 지금도

101003 @ 어머니도 해녀섯수과?

101003 #2 아니예요. 우리집엔 해녀가 없었어요.

101003 @ 제주도 말로 곶아줍서예.

101004 @ 이 마을에는 주변에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1004 #1 여기는 어서. 저레 대섬이렌 현 저, 조천광 신촌 양사이에 대섬이 잇어.



101004 @ 아, 그거는 신촌에 소속돼 잇는?

101004 #1 조천반 신촌반, 반씩 대섬이,

101004 @ 신촌반?

101004 #1 반씩 대섬이 조천도 반 아사불곡 신촌도 반, 원래 신촌이 많이 붙은디 그때는 조천이 셋어. 신촌보다. 거니까 자기네가 많이 빼앗아. 옛날 조천이엔허민 일본놈도 못 이긴디라. “아다마노 좇땡”, 일본말이 아다마노 좇땡,허민 머리세덴허여.

101004 @ “아다마노 좇땡” 뭐?

101004 #1 일본말로, 조천사람이, 머리 좋은 조천이엿, 머리가 일본말로 아다마, 머리뺏 좋은 조천, 게난 아다마노 좇땡!헨, 일본놈도 춤 정 간 디라. 조천사람 덜앞이, 일본제국때에도, 게난 “아다마노 좇땡!” 일본말로 “아다마노 좇땡!”

101004 @ 오름, 냇창, 내창은 엇수와 신촌에?

101004 #1 내창은 엇고 저 셋까름은 가면은 거기 내창이 이실꺼라. 서부론가민 그 내창이 막 커난디, 저딜로 웬당알로 돌려신가? 경 안해시민 그 내가 이번에 우리 다 죽어. 그 그 내가 이레 담아들건디 그 널 웬당알로 돌려분거야. 그레 돌리니까 살앗주. 경 안해시민 이레 막 들어와.

101004 @ 그렇구나예? 뭐 굴이라든가 바당엔 엇수와? 굴?

101004 #1 바당에? 바당에 굴?

101004 @ 굴, 동굴?

101004 #1 어서 고기집이엔 헨디 이서.

101004 @ 신촌에? 동굴 님은 거?

101004 #1 으 바로 이디.

101004 @ 동굴 님은 거?

101004 #1 거기는 완전히 굴이라. 건디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이. 이 머리로 행 들어가. 건디 나올때는 그디가 널르니까 이렇게 돌아아지고 나와. 거기에 생복 타레 가잖아. 거기 굴소곶에다가. 이 천장 문직으면서 그렇게 해녀들이 힘들어.

101004 @ 물도 들엇다 나왔다 허는디로구나 거기가?

101004 #1 거기도 물, 이 물 싸민 싸고, 들민 들고, 들면은 막 짚으고 수심이, 싸민 앞은텐 허대. 고기집이엔 헨디 거기가, 고기덜만 놀아. 완전히 굴이라. 건디 그 우리는 거기 무서운디, 옛날 어른들은 거기 생복, 전복 땡 나오는디라. 들어갈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 들어가고, 나올때는 굴 님은디 널러서 이렇게 제로로 들어가. 들어갈 때는 영 행 들어가 좁으니까. 거긴 고기덜만 사는데.

101004 @ 지금도 물 쌀 때 영 갈 수 이서마씨?

101004 #1 막 짚어. 거기는.

101004 @ 짚으네 해녀들만 가는디로구나?

101004 #1 그냥 사람덜은 못가.

101004 @ 거기 이름 고기집이라마씨?

101004 #1 옛날은 옛날 할망덜, 해녀할망덜이 한청이렌허매. 고기한청이라고.  
101004 @ 고기한청?  
101004 #1 거기가 막 고기만 고기떼죽으로 사는디. 고기집, 고기집.  
101004 @ 야, 바위 이런 큰 돌맹이 이런 것도 고냉이 바위여 무신 바위일름?  
101004 #1 그런 건 없고, 저 이 여이름은 잇어. 여 이름  
101004 @ 무슨이름? 검은여여?  
101004 #1 아니 안쫓각여  
101004 @ 안쫓각여.  
101004 #1 응. 세쫓각여  
101004 @ 세쫓각여?  
101004 #1 세 가운데.  
101004 @ 세쫓각여  
101004 #1 바쫓각여 그다음엔 안빨여,  
101004 @ 안빨여?  
101004 #1 응. 또 그다음엔 밧빨여  
101004 @ 빨여가 뭇짜?  
101004 #1 그 이름이 그렇지.  
101004 @ 아아 안쪽에 불여 밧쪽에?  
101004 #1 안빨여, 밧불여, 셋쫓각여, 곤빌레  
101004 @ 곤빌레는 빌레라는 거 아니?  
101004 #1 응. 이 돌이 빌레라도 깨끗하니까 곤빌레.  
101004 @ 고운빌레?  
101004 #1 응. 여기서 말하면 이쁜빌레라고 허는거지. 곤빌레, 옛날할망덜,(전화)  
101004 @ 바위 바위가?  
101004 #1 여기는 바위가 없고,  
101004 @ 이쁜빌레 곤빌레? (전화)  
101004 #1 바당일름이야 그거 안쫓각여 밧쫓각여 거 바당이름, 그거, 거기는 이제 해녀가 들어갈 수 잇고이. 그 나머진 너무 수심 짚어가지고 못들어가. 그렇게 빌레만 좇으면서 이제 해녀질을 해여. 나도 12미터 보통 들어가나서. 전복만 떼어. 생복베끼 안 떼어. 소라도 안허고,  
101004 @ 상군이엇구나예.  
101004 #1 응. 막 배겼디, 이디 그 줄 이서. 나 해난 줄, 아사오건 보젠?  
101004 @ 아아, 나중에, 나중에랑 보게예.  
101004 #1 막 짚은 열두발, 12미터,  
101004 @ 지금은 물질 안햐수과?  
101004 #1 아이고, 걷지 못행 못해여.  
101004 @ 거난 위험허여.

101004 #1 이제도 바당에만 가면은 허는데, 걷지 못행, 내려정, 다리가 말안들언,  
 101004 @ 내려정예?  
 101004 #1 경만 안허믄 뭐 허지.  
 101004 @ 게도 굿디서 무슨 뭐 주스레가곡 정도 안허곡?  
 101004 #1 내려정,  
 101004 @ 내려정 안돼여.  
 101004 #1 이디 갓다가 이디 몬딱 다쳐어.  
 101004 @ 큰일나.  
 101004 #1 자빠전 계난 못다녀. 내려정.  
 101004 @ 안웁니다게.  
 101004 #1 이 발이 말안들언. 흥끄민 그냥 막 자빠전, 거넌 무서왕 못  
 뎡기크라. 내려전, 팔십세까지 물질했주마는 이젠 못해여.  
 101004 @ 안돼여. 팔십세까지예.  
 101004 @ 신촌엔 오름이 없지예? 이 근방에  
 101004 #2 웬당봉배끼 없쥬.  
 101004 @ 오름 웬당봉예. 웬당봉 받은 신촌소속이고. 다음 냇창은?  
 101004 #2 냇창은 이 저 종인내라고 해가지고 저 우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므루까지 내려가쥬.  
 101004 @ 닥므루도 이섯수와 여기?  
 101004 #2 닥므루가 잇고, 이 웬당알 아주 고기가 많이 나고, 지금도 낙시질을  
 많이 갑니다. 웬당알을  
 101004 @ 그 웬당알은 신촌 구역이파? 바당?  
 101004 #2 그렇쥬  
 101004 @ 삼양이 아니고?  
 101004 #2 아 삼양하고부터 연결되어잇주마는 지금 저 한경으로 저쪽으로삼양이  
 고, 대정 이쪽은 신촌이쥬.  
 101004 @ 아 고기가 많이 나고예? 거기 그 웬당알이 닥므루가 잇수와?  
 101004 #2 아 닥므루 신촌부락에 붙엇어요  
 101004 @ 아아 그 닥므루? 꼬꼬댁허는 닥므루파?  
 101004 #2 닥므루 예 닥므루,  
 101004 @ 진드르에 있는 진드르로 들어가는 디지예. 무사 닥므루허고 진드르  
 엔 해신고  
 101004 #2 진드르는 bait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허엿고 진드르는 닥므루 닭형치  
 ㄴ치 생겨서 닥므루가민 경치가 썩 좋쥬. 또 닥므루 닭머리ㄴ치 생긴디도  
 잇고 괴석이 많습니다.  
 101004 @ 괴석예? 아름다운 돌덜이 거기 많이 잇지예? 닥므루말고도 다른 모  
 양 이름있는 바위도 잇수와? 고냉이여 무신?

101004 #2 아니 닭형치 닭무루 구경도 많이 오고 웬당알이 이 저 어종이 풍부  
해가지고 어족이 풍부해서 없는 고기가 없고 수심이 깊고 그러니까 ,

101004 @ 굴도 엿수과? 굴 바당에 동굴

101004 #2 굴이 있어도 알 수가 있나? 이거 저 자동 옛날 거리레 갔다가 자동 바  
당속에 굴이 있는데 그물이그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거부러. 그런디가 잇어요.

101004 @ 그물이 굴속으로예?

101004 #2 그물이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빼냈다는 말이 있는데,

101004 @ 계난 그게 고기굴이렌 험니까? 고기집?

101004 #2 그렇쥬. 고기가 그 굴 속에 살앗쥬. 자리도 살고

101004 @ 거기가 저 웬당알에 잇수과 그것도?

101004 #2 예. 한경옆에 잇어요.

101004 @ 한경옆에예. 삼춘 그 구멍에 들어가봤수과 어릴 때?

101004 #2 아이 사람 못들어가쥬. 바닷속에

101004 @ 해녀들은 들어갓텐험디다. 영 해영 알로 영 들어간?

101004 #2 아 그물이 저 이 지반이 넓은 건데, 그놈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빼내  
지 못해가지고 그,

101004 @ 그런 이야기가 잇구나예.

101004 #2 한경옆에

101004 @ 한경옆에 고깃집예. 아 그것도 재미잇는건데 그냥 물싸면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구나예. 바닷속에 굴이 잇다는거지예.

101004 #2 아니 바닷속이니까.

101005 @ 계난 이 마을에 노인당은 세 개나 잇텐험디다예?

101005 #1 세 개, 거 서봐 아, 동부, 저 대수동은 노인당 어서. 이레 다 합쳐부러  
실거라.

101005 @ 경로당 동부, 서부?

101005 #1 응, 노인당은 세바면디 질 큰더레 물렸네. 여기 동동, 중동,

101005 @ 동동이 크짜?

101005 #1 응. 크지 마을이 질 커, 신촌에서, 이 동부락이 최고 큰디라.

101005 @ 노인회장님도 잘도 똑똑하십디다예?

101005 #1 이장만 10년 해 먹은 사람이라. 마을에 이장님만 10년 현 사람이라 이  
사람, 그렇게 잘허니까 10년을 했지. 게도 요만큼 안먹으니까 먹어시민 전더나가지  
못해. 깨끗허게 이장질 현 사람 이 사람, 요 10년 해도 원 요 바늘틈만이 먹은 거  
없어. 고정쩍허니까. 상 줄만헌 사람이여 이 사람, 10년,

101005 @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101005 #2 기관이라고 하면 뭐 사무소하고 농협이나허고 뭐 마을금고나허고 그  
렇쥬 뭐

101005 @ 노인당 경로당

101005 #2 예 노인당은 각 동마다 다 잇어요.

101005 @ 각 동마다 멧개? 셋까름 동까름 이렇게?

101005 #2 셋동 상동 동동도 잇고 여기 중동에도 잇고 대수동에도 잇고

101005 @ 이제는 통합행 두군데배끼 엇텐헙디다. 옛날엔?

101005 #2 아 옛날엔 두군데 각 동마다 다 지엇어요.

101005 @ 경헛수과? 여기는 동동이고 셋동 구군데만 이신줄 알아신디 대수동 잇고 상동에 잇고 중동도 잇구나예

101005 #2 대수동 잇고 중동엔 엇고 상동에 잇고,

101006 @ 옛날에는 여기에 무슨 접이나 계 어촌계는 언제 삼촌 어릴때부터 이서 낫수과?

101006 #1 어촌계엔 현거는이 이 나건디가 어촌계엔 헨 나건디가 멧년 안뉘서. 그 전인이 이 해너ㄴ라 줌수엔 해나서. 이거 저 어촌계 나건딘 멧년 안뉘서. 어촌계일제때부터 허긴 헛주마는 일제때부터 나와서 이 해너덜은.

101006 @ 무슨 접이여 계여, 상여계여, 상여접이여,

101006 #1 건 셋까름, 상여계여 뭐여 셋똥가민 알아. 셋똥해녀들, 여기는 아까 곧듯

101006 @ 그릇제여 뭐?

101006 #1 아니, 여기는 뭐 아까 곧듯 뭐 아니, 안쪼각여 밧쪼각여, 곧빌레, 안뿔여 밧뿔여 그거. 건디 그거 나배끼 몰라 똥 사람은 몰라. 짚은 디 안강이. 요디서만 허는디 나는 전복만 테기 덕분에 다 알아. 숨 질텐, 전복만 테주, 소라굴은 건 안해여.

101006 @ 무사 돈이 뉘니까?

101006 #1 돈 뉘것만 흥나라도 좇앙 떼젠허주. 소라는 안해. 소라 허는거믄 벌써 다른 거 보젠 허지. 경허니까 전복배끼 안떼 난, 소라굴은 건 안해. 12미터 보통 들어가. 이제 저디,

101006 @ 12미터민 나키보다 멧배는?

101006 #1 이 발로다가 노손 발로 12발,

101006 @ 12발 들어간다는거예?

101006 #1 어, 저디 잇어. 노손, 야 어머어마헌디 들어가갓드라. 이젠보니까,

101006 @ 바당에 들어가믄 뭐가 제일 무서와마씨?

101006 #1 무서운 것이 엇지. 이 숨 쪼랑 죽는 것이 무섭지. 것이 무섭지. 이제 그 옛날엔 돌고래 그거 떼죽 물려와가믄 줌 막습지. 그 조름에는 상어가 조차 오라.

101006 @ 정말마씨?

101006 #1 그렇지. 곰세기막 그냥 뛰곡대곡허단이 상어가 또갓망에 조친똥 행그것이 막습지. 뭐 무싱거 그 저 곰세기는 ㄴ치 안앙 둥굴어.

101006 @ 아아 곰세기는 ㄴ치 안앙 둥굴어, 경 착해마씨?

101006 #1 착해여. 거이 와가민이 “배알로 배알로” 알로 썰썰, 어떻 말을 잘 알아

듣는 줄 아나. 사람보다 희안해여 거 “배알로 배알로” 와작작와작작허당이, 배알로 배알로 허민 살살살살 허민 “곰베마니 튀라 마께마니 튀라.” 빨죽빨죽 튀고, 말 잘 알아듣는거라 거.

101006 @ “곰베마니 튀라” 허면 발작발작 튀고?

101006 #1 “곰베마니 튀라 마께마니 허민 곰베 요마니, 마께마니 이만씩 튀곡” 허민 이만씩 튀고. “배알로 배알로”허민 알로 살살살살 거 말 잘 알아들어.

101006 @ 아, 가까이서도 봐놔수과?

101006 #1 가까이서도 허곡 또 먼디강도 보이고 그거 날 우치젠허민 잘 텅겨. 비나 바람이나 불젠허민, 이젠이 하지 앓애 옛날은 떼죽으로 텅겨져. 무서와.

101006 @ 떼죽으로 텅건예?

101006 #1 주둥이광 꼬짝해둬서 그냥 석석석석허멍,

101006 @ 무섭지 안으면서 무서와햐수다예 상어때문예?

101006 #1 아니, 상어가 또 7망에 조참시카부텐 곰세기는 2치 안양 둥굴어. 그거는이 아뿔도 안해. 상어가 무섭지. 상어는이 옛날은 짚은딜로만 텅겨. 상어가, 건디 여자는 맨스 오잖아. 그 맨스 온 사람 신디만 더 조차간텐 허난. 핏내나가지고. 켜디 이젠 그런 상어에 사람 죽엇젠 말은 어서.

101006 @ 옛날은 이서예. 종달리에도 보난 우도영화에 나오는 거 보난,

101006 #1 아이구 상어이 이런 거 끓어 먹어부러. 물착물착,

101006 @ 어렸을 때 봐 본 적은 없지예? 신촌에서?

101006 #1 상어는 안봐봤지. 그 곰세기 빨룩빨룩 뛰는 거. 그런 거는 계속 보지.

101006 @ 경해가민 일단 불턱으로 돌아옵니까? 그런 거 보여가면?

101006 #1 그게 왜냐허면 날 우치젠 허민은 그게 낭 텅겨. 바람이나 낭 텅겨. 일기,

101006 @ 날 우치젠 허민예, 신촌에 듬북, 감태도 많이 나옵니까?

101006 #1 이젠 없어. 오염이, 웬당알 잇잖아. 저 발전소,

101006 @ 발전소 웬당알이렌 헉니까?

101006 #1 그디 웬당알, 거기 뜨거운 물을 막 내려노니까 바당이 헤양했잖아. 하나 하도 뜨거운 물을 막 내려노니까 감태고 뭐 소라고 윈 없어.

101006 @ 바당이 헤양해부런마씨?

101006 #1 그렇지. 완전히 이 색깔이엔허난. 저 냉장고 색깔, 헤양케 게난 즈녀곡지 ㅁ사부럿잖아. 저 그 웬당알 ,그 발전소 물 막 뜨거완,

101006 @ 뭘 ㅁ사부런마씨?

101006 #1 발전소 물 잇잖아? 막 뜨겁지. 그걸 바다더레 내치니까 물이 다 뜨거우니까 여가 다 감태도 못나, 헤양해부런, 그전이 우리 생복탈땐 막, 국제기, 감태, 실갱이, 막 이서나서. 이젠 뭘 노랑쟁이, 아무것도 어서. 이젠, 웬당알 그 발전소물, 뜨거운 물 내려와부난, 그것만 아니것때민 즈녀덜 팬찬을 건디, 저디로 행 즈녀덜 망쫄,

101006 @ 발전손 언제 생겼수과?

101006 #1 저 발전소가 아맹해도 혼 20년 넘어 닳아뵈여. 나 생각에,

101006 @ 발전소가 뭘 허는딛과?

101006 #1 전기 잇잖아. 이 전기가 거기서 물 돌아가명 이 발전, 글로 발전소 이 거게 전기발전소,

101006 @ 전기발전소가 필요하긴 헌건데?

101006 #1 필요헌디 줌녀는 막 그냥 손 들렀지. 막 뜨거운 물 내려노니까 듄 북도 안난텐 허난, 막 뜨거운 물이니까 바당이 익헛젠허난, 바당이 익혀불언.

101006 @ 바당이 익혀불언예?

101006 #1 이 바당이 저 듄북들 나는 바당이 못나. 뜨거운 물 내려와부니까, 이런 여가 죽어부러가지고 뜨거운 물, 사람이 뜨거운 거 이제 ㄴ트민 저 사람도 폐적 나잖아. 바당도 마찬가지로야. 꼭 사람하고 같아.

101006 @ 듄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햇수과?

101006 #1 거 우리 일제팬데 옛날에 나가 그때 멧술에 물질해져신고허며는 허면은 열일곱인가? 하엿튼 열일곱 열여덟 그 사이에 헌디, 허믄 소군, 중군, 상군 세가지로 뽑아 이. 경허면은 이 우리끼리 세금을 받아. 상군아핀 곱받고 중군은 조금 받고, 또 하질은 아주 헛줄만 받고, 거 우린 항상 상군질에 놓잖아. 그 어린 때도, 그난 원간 숨이 질어노니까 경헛 허여서.

101006 @ 어릴 때부터 경?

101006 #1 열 식솔에부터,

101006 @ 열식솔에?

101006 #1 열식솔에서부터 영 해엄치잖아. 근디 우리 할머니가 요만이헌 태와 해주곡, 막 이 미역으로 옛날은 해녀덜이 메역으로 살잖아게. 막 그걸 즈물어오렌 허여. 어린때부터. 할마니 옛날은이 이젠 고무옷 입으난 해도 옛날은 속옷입엿 헛잖아. 달달달달 추워, 그믄 추웁 안가켄허민 우리 할마님이 막 “가라가라” 체얌은이 아무것도 못해 나오고, 또 두 번첸 “가라가라” 허니까 짚은디 메역 깔렷이 짚은디 조금 들어가지 못허난 깔렷이 꿇엿 또 가렌 허난, 이번엔 곱으로 강 꿇어 완, “느 이제 물질허켜” 우리 할마님이 시험 받아봐 “느 물질헌다 느. 상군된다” 그렇게 헛 우리 해났어. 에이고 춤말로 이젿 아이덜은 공부나 헛췌. 옛날엔 맨 발에다가 벌락벌락 춤말로 삶인지 죽음인지 “옷이 어디셔?” 땃땃 주멍 입으멍,

101006 @ 할머니가 배와췌구나예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물질은?

101006 #1 내냥으로주 어멍이 어떻게 ㄴ르쳐?

101006 @ 어머니도 해녀, 줌수?

101006 #1 어머니도 줌넨디 줌네 안해여. 우리 어머니 나 허는 거 안 봐. 내가 큰 후제는 우리 어머니 물질허는 거 안 보니까 헛충 몰른거고, 우리 이모님은 잘해여. 켜디 우리 어머님은 나 켜 보난 물질허는 거 안 봐. 우리 이모님은 잘허지. 우리 어머니는 물질,

101006 @ 할머니한테 배운거와? 이모님한테 배운거와?

101006 #1 아 이거는 누구아피 뽕지 안허여. 자기 스스로 허는 거지.

101006 @ 그래도 할머니가 막 해오라 해오라 허니까 해 온거 아니?

101006 #1 해 오랜 막 몽둥이들렁 막 아니가켄 뚜들명 따올리니까 저 때에 믱스워서 갓지. 체암엔 아무것도 못행 얼 추워가지고 이제 또 따올리니까 가난 요만이헌 메역 끌랭이를 허난 텃젠 또 세 번쨌가니까 하나 비어온거라. 게니까넌 상군웨겠다. 경허드라.

101006 @ 할머니 경 굽데가?

101006 #1 “너는 상군웨겠다. 메역 끓어온 거 보난” 경 골아나서. 우린 수심깊은델로만 땡겨 전복허레, 이제 저디 닷줄이서. 나 해난거.

101006 @ 듬북 감태도 다 여기 많이 나뉘수과?

101006 #1 하이고 많이 나는 디 나 이디 구경도 못해. 저 발전소 물로 막 그냥 뜨거운 물로,

101006 @ 옛날에는?

101006 #1 옛날에는 감태, 뽕 감태, 국췌기 실갱이 막 나와. 노랑쟁이,

101006 @ 국췌기는 뭇과?

101006 #1 국췌기, 국췌기란 헌 듬북이 터박터박헌디 보리왓디 들이민은 그것이 걸름웨어. 보리가 막 잘웨어. 그 국췌기가, 다른 이제 듬북은 베랑 안헌디 이 국췌기듬북이 걸어. 그것이 썩어가민이 소 늘추럭궂치 질질허잖아 그 국췌기가.

101006 @ 소 늘추럭이 뭇과?

101006 #1 소가 니치름 질질 나잖아. 그런 걸 나와. 이 저 국췌기가,

101006 @ 썩어가민,

101006 #1 어, 썩어가민, 잘잘, 감태는 베랑 걸름 안웨고 국췌기 국췌기, 우리 국췌기 해당으네 옛날은 국췌기 즈문 사람은 밧 빌려주곡, 그런 거 안 헌사람은 밧도 안 빌려줘. 우리는 그걸 주로 줌으니까 밧은 얼마든지 빌영 홀수 이서. 그거 들어야 밧이 걸름 땡 풀어지난게. 거난 듬북들인 사람은 밧을 잘 빌어. 듬북어신 사람 밧 빌기 힘들어. 경 안허문 소걸름 물걸름 웨지걸름 그런 거 안허는 사람은 바당에 국췌길 즈물어야. 막 놀로 놀어. 바당에, 막 국췌길 놀로 놀어. 일제팬이 감태 몰라와근에 태와. 그걸, 태우민이 혼딩어리 웨어. 일제때 우리 거 해드렌 행 다 술앙 가멧이 싸그네 다 공출로 허렌, 일제때,

101006 @ 아아 태워서 마씨?

101006 #1 그게 감태잇고 국췌기가 잇어. 감태가 영양가치 잇는거야. 거난일본놈덜이 거 폭탄만드는 거야. 거 감태가. 술앙으네이 그거 재로 오고생이해여 그네 아래 가멧이 바쨌, 다 호황바쨌나서. 우리 잘도 고생해나서. 일제때에, 고사리 공출이여, 뽕 고구마 공출, 보리공출, 조공출 먹는거라헌 건 다 아사가 일본놈덜. 헌 사람이 벌영 못먹어 다 가져가부런, 그렇게 해도 배고파 다 가져가부니까, 좀 자기



네 이제 멘쭈거니 난 사람은 침 밧이 열섬날 거민 반을 주는 사람은,  
101006 #2 섯동네에도 그 혼군데 그냥 잇어요.  
101006 @ 예. 게문 어촌계도 있고, 어촌계는 막 옛날에 잇엇던 건 아니지예?  
101006 #2 어촌계라는 것이 중간에 생긴건데 이 뭐 저 이 해녀덜 위허는거지 다른 해녀덜이 돈 많이 나니까 거기서 돈 트더먹자고 우뭇가사리니 무신 소라니 메역이니 뭐 하영튼 해녀가 돈은 많이 벌어.  
101006 @ 응, 이 마을에는 어떤 계(=집)들이 있습니까? 어천계가 잇고 또 상여계나 옛날에 이섯수과? 그릇제  
101006 #2 계가 성창이주게. 상여계도 잇고,  
101006 @ 상여할 때 그 집지어 가지고 집 그런거 만드는 동네서  
101006 #2 소방산이라고 사람 죽어서 메어가는 그 다 계가 잇엇어요.  
101006 @ 무엇을 위해서 상여계가 만들어지는것과?  
101006 #2 사람 죽으면은 곱게 저  
101006 @ 호상웃 입히고  
101006 #2 저 꽃 꽃고 장지까지 모사갈 때 허는 그거 저 상여계주. 상여계 거 나도 그걸 해방후가 아니라 4·3사건후에 나 가와서 계를 조직해가지고 거 만들엇던건데 거 없어졌어요 허허,  
101006 @ 언제쯤 없어졌수과 새마을 운동허명? 4·3사건 나명?  
101006 #2 장의사나고 뭐 없어진거죠. 사람이 죽으면 옛날엔 동네가 총 출동해가지고 그 행상메어서 소리하면서 모셔갔는데, 지금은 뭐 그런 옛날은 좋앗죠. 추도니저 멩경이니 해가지고 막 그냥 거 지고 메어가지고 막 메고덜 행상허곡 소리덜(전화)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은 듣기도 좋고,  
101006 @ 이 소리를 삼춘은  
101006 #2 상당히 많았어요. 노래도 나도 소리 했어요 나 노래 잘합니다  
101006 @ 아 기파 노래 다 녹음해해쿠다. 진토파는 소리 집에서 불르면 안돼마썬?  
101006 #2 불려도 나 다른 노래 부르죠. 옛날노래 부르죠.  
101006 @ 상여계, 옛날노래예 중간중간 농사 짓는거 나와가민 해줍서예.상여계 여자덜은 그릇제  
101006 #2 그릇제, 쓸제도 잇고,  
101006 @ 쓸제는 뭐에 쓰는것파? 멩절에 제사때?  
101006 #2 아 그 저 돈도 계를 허고, 그자 재산 모이는 쓸도 허고 옛날은 그러다가 망허는 사람도 잇고, 계주가 먹고 도망가불민 계주가 먹고  
101006 @ 그런것도 이섯구나예. 봉개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여났던 그 집 그런것도 아직도 잇텐 험디다.  
101006 #2 지금도 여기도 멩군데 이섯어요.지금도 멩군데 이서.  
101006 @ 지금도 상여집 잇수과? 개인땅이파? 막살이같은 초막

101006 #2 건디 바닷가에 개인땅이 아니고 그자 나라의 땅이겠지 뭐  
 101006 @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지었으네 꽃상여 그런식으로예,  
 101006 #2 다 없어졌죠.  
 101006 @ 그런것들이 이제는 점점에 삼춘 역사다예.  
 101006 #2 지금은 이웃집이 죽어도 아주 딴 판이죠. 그냥 사람이 죽으면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옛날은 다 도와주고 물어주고  
 101006 @ 세상이 너무 바뀐지예.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1 이 마을에? 이 마을에는이, 옛날은 해녀굿을 해서이. 굿을 해난디 설러 불었네 돈 당허지 못해연. 이젠 포제가 이서. 므을 포제  
 101007 @ 포제가 해녀굿이 언제 설러분지 기억남수과?  
 101007 #1 아이구 막 오래여서 설러분지,  
 101007 @ 오래여 메인심방 누구엿수과?  
 101007 #1 죽어부렀네. 그 심방  
 101007 @ 신촌에 살아났수과 그 심방?  
 101007 #1 시에 심방 와났수과?  
 101007 @누군지 기억남수과?  
 101007 #1 한일 화속이엔 허는 할망인디 죽어부러서 근디 막 오래연,  
 101007 @ 함덕할망 빌어당 햄십디다예?  
 101007 #1 여기는 시엿 할망 와난디 죽어부러서 설러부러서  
 101007 @ 시엿 할망 누군지 기억남수과?  
 101007 #1 한일 화속이주. 그 저 부두에 가민 한일 화속이엔 간판 써서. 그디 할 망.  
 101007 @ 불르는 이름은 엿고?  
 101007 #1 응 한일 화속이엔만, 그 할망네가 하속을 봐서. 하르방 성이 한가라부 난이 한일화속.  
 101007 @ 하르방도 심방?  
 101007 #1 아니 아니, 할망만,  
 101007 @ 할망 성은 뭔지 모르고?  
 101007 #1 김가 김씨, 김썰거라. 나 알기에는,  
 101007 @ 이름은 모르고예? 거길 멧년을 이 즈수굿을 담당을 해신고예? 그 할머니는  
 101007 #1 응. 굿 멧년 못했지. 이 마을에 좀 동네가 말이 있어서, 계난 허당 확 설러부런.  
 101007 @ 그 전에는?  
 101007 #1 그 전에 저 굿허다가 해녀가 죽어부러서계. 계난 그걸 못허게 허연. 사람 죽는디 그 말도 맞지. 기도해영 사람도 사람덜 잃어 가는다.

101007 @ 해녀 죽으민 물긔이렌 허영 더 크게도 험디다마는 조천리는,  
 101007 #1 죽어부난에이 이 사람덜 편안허게 해도렌 마무리로 해서. 경해똥 다시  
 곳 안허연. 절로 설러부런.  
 101007 @ 옛날 할머니 어렸을 때 다시 안해부런, 신촌에도 큰 심방  
 101007 #1 심방 핫지.  
 101007 @ 옛날엔? 줌수긔은 신촌  
 101007 #1 응, 정두샘이도 있고이. 그 심방이름이 정두삼이,  
 101007 @ 정두삼이? 그 분이 신촌?  
 101007 #1 신촌, 본래 신촌사람, 심방 핫지 정두샘이도 있고  
 101007 @ 신촌 분, 거기도 영등긔 해나고?  
 101007 #1 응 영등긔 잘허여. 큰 심방이니까 그 사람넌이, 대 느리는 심방, 겐디  
 그 사람네 이제 어서부난 대 끊어져불언, 또시 만택이엔 허는 와홀 사람, 그 사람  
 이제 신촌 완 집 빌영 왕 살당 집 산 살명 그 사람 큰 곳허고,  
 101007 @ 무슨 만택인지 몰르고예?  
 101007 #1 몰라, 성 몰르컨게.  
 101007 @ 만택이가 하단 또?  
 101007 #1 허단 설러부렀네.  
 101007 @ 설러불고 김씨할망이 허단 설러불고?  
 101007 #1 김씨할망 영등긔 해나고, 만택이는 동네서 곳허고, 저 만택이엔 현 사  
 람 와홀당 잇잔아이? 그 사람 와홀 사람,  
 101007 @ 본향당은 어디 잇수과?  
 101007 #1 일뤼당 있는디 요디, 쪼끌락헌디.  
 101007 @ 집도 있고예  
 101007 #1 집 어서. 그냥 요마니 현 세멘으로 담 다왕,  
 101007 @ 삼촌도 거기 가낫수과?  
 101007 #1 땡기당이 고해부렀지. 여녕이 하부니까. 브레지 맵쎈 허영,  
 101007 @ 지금도 다니는 사람 이신가예?  
 101007 #1 그디 가끔 잇는 생이라. 그 밥 영 올레 걸여 놓는 거 보민, 즈준 엇  
 고 가끔,  
 101007 @ 일뤼할망당예? 무슨 날 간 거 기억 안남수과?  
 101007 #1 일뤼날, 일뤼당이엔 허여. 일뤼할망당이라고 “어디 감시니?” 허민 일뤼  
 에 감젠.  
 101007 @ 정월 일뤼날 가진 앓고?  
 101007 #1 아니 아무 때라도,  
 101007 @ 아이덜 잘뤼렌예?  
 101007 #1 아이덜 거기는이 거기는이, 줌 종기가 나잖아. 종기가 나오민 그디 가  
 오민 좋아부러. 줌 회안허지. 이젠 안텡겨 아무도, 이젠이 저 새 사람덜 나가니

까 그런 거 좋아 안허여,  
 101007 @ 신촌에 보민 집 닭은 또 당도 헛나 잇수게?  
 101007 #1 거 섯까름.  
 101007 @ 섯까름, 진 무신 당?  
 101007 #1 그 당이 무신 당이엔 허더라마는 나도 몰라. 뭐 무신 당이렌 곶앗  
 어.  
 101007 @ 크게 보이던데 요 동카름 사람덜은 섯까름 안가?  
 101007 #1 안 가 안 가. 거긴 섯까름 사름배끼 안가. 여기 굿헐때는 거기 가. 굿헐  
 때는 무당덜 왕 헐때는 거기 갔다 와. 여기 사람 그디 안가. 요 동네사름, 동네도  
 안헐기는 생이라. 영 보니까 텅기는 냥이 어선.  
 101007 @ 거기도 메인 심방은 정두샘이나 만택씨?  
 101007 #1 만택이는 동네 굿헐 때 사람 죽으민 질 치잖아. 그런 거 헐때 허는 사  
 람, 정두샘이는 이녁 고향사람이니까 아무 때라도 빌어당 허여.  
 101007 @ 거른 섯까름에 당은 메인 심방은 누구라낫수과?  
 101007 #1 그디 심방은 난 몰라. 섯동네라부난 몰라. 일루 섯동네 일은 모르지.  
 101007 @ 거른 삼촌네 요기 당은 정두삼씨가 메인심방이라낫수과?  
 101007 #1 정두삼이네도 안됐고, 우리 곶은 사람이 이 건강하게 해줍센헤영  
 이 노인덜 가주. 기추룩 와쌍바쌍은 안 허여. 심방은 안 빌어.  
 101007 @ 심방은 안 빌어? 본향당은 아니로구나 일헛당?  
 101007 #1 심방 안 빌어 경허매. 일헛당 그자 동네에 운동헐 때 동네에 운동 믇  
 을 운동이 이서. 그럴 때 가고 경허매.  
 101007 @ 종기나면예.  
 101007 #1 종기나면은 그디 가오곡,  
 101007 @ 삼촌은 멧살까지 거기 일헛당에 갓다는말이지예?  
 101007 #1 종기나면은 그디 가오곡,  
 101007 @ 영등곶은 4·3 지낭도 했는데 삼촌 한 멧살 때?  
 101007 #1 그렇지, 그때가 멧살때냐허든? 흐 욱십덴가? 욱십, 팔십, 구십, 욱십  
 때도 아주 넘어신게.  
 101007 @ 이십 팔년 전 1900년도?  
 101007 #1 욱십덴가 욱십대도 아주 넘어신게.  
 101007 @ 1900년도?  
 101007 #1 응. 나가 이제 여든 아홉이 남서. 거즘 흐 욱십대쯤 해실거라. 이디  
 신촌 영등 곶이. 욱십대 욱십안에 이쪽저쪽이라.  
 101007 @ 영등곶 기억남수과? 배방선도 허곡,  
 101007 #1 거 기억나지.  
 101007 @ 해녀들이 멧명 그때 이서신고예?  
 101007 #1 그때 해녀덜이 막 여라명이라난디 이제는 늙고, 죽고 해부난 여기도 멧

명 없어.

101007 @ 오십명은 댕수과?

101007 #1 여기 오십명 당추 안돼여. 사름 혼 댕사름배끼 안돼여.

101007 @ 옛날엔?

101007 #1 옛날은 이제 미역을 해다 풀아서 쓸도 받아먹고 혈때는 해녀  
덜이 막 하나서. 우리 그때에 댕슬인고 허면은 열다섯, 열여섯 ㄱ리에 그  
때는 막.

101007 @ 오십명정도 이션?

101007 #1 오십명정도는 어서도 혼 이십명쯤은 보통 이서 나서.

101007 @ 신촌에예? 동카름, 섯카름 다 합청?

101007 #1 아니 아니, 동카름만,

101007 @ 동카름만,

101007 #1 겐디 이제 줌녀덜이 어서. 젊은 아이덜이 안해부니까. 우리 딱  
래허당 설러부난 옛네. 어서. 여기 허긴 햏자, 댕사람 햏지, 겐디 배겐디 안허여. 요  
기서만 허지. 배겐딘 안 나가.

101007 @ 음, 게민 일뿔햏망당에서 햏수과? 어디, 그 영등궂을 어디서 햏수과?

101007 #1 바당에,

101007 @ 바당 밖에서 그냥 질 천 거기서?

101007 #1 거기 집 이서난디 집 트더불어서. 왜냐허믄 거기서 마을포제 햏나서.  
그 집이서, 겐현디 그 땅이 리에 땅이 동카름땅이 아니라 개인 땅이라부난 그 집은  
트더불언. 트더 된 이젠 이 동카름 딱로 포제햏는 집이 이서. 거는 이 바당 햏신  
제라고, 정월나민 허매.

101007 @ 햏신제예? 정월햏신제 원래는 그겔 당궂으로,

101007 #1 당궂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도 몰룬디, 그냥 바다에 고기허레가민 풍파  
난 겔속 죽어가니까 그 포젤햏가난 겐 안햏렌. 옛날 햏아버지덜이.

101007 @ 포제전에는 영등햏망한디,

101007 #1 아니, 포제전에는 사람이 겔속 죽었젠, 대풍에 고기 낚으레 갔당, 현디  
그디 그 포젤햏가난 포제현 후제는 풍파가 어섯텐. 그 옛날 어른덜이. 겔는 거  
들었지 나 겔는 거.

101007 @ 햏신제는 누구 심방도 안오고 유교식으로?

101007 #1 그냥 햏신제는 ㅁ을에,

101007 @ 생고기들 올리고?

101007 #1 응. 큰 도세기 생차로 올리궂, ㅁ을에 제관 뿔젠허민 이. 이 부배간도  
즘 안자고, 딱로 거기 강 제관덜이 자. 이제도 겐 햏서, 이제도 정월달은 이  
제도 겐 햏서.

101007 @ 영등궂 끝나명 햏신제로 더?

101007 #1 아니, 영등궂은 우리 햏녀덜 우렁현거고

101007 @ 어부들이영 해녀들이영,  
101007 #1 어부허고 해녀디 이젠 믋을이라노난 믋을에서 해신제 해여.  
101007 @ 해신제로예?  
101007 #1 응 이디허곡 또 저 리에 이, 이제 상두거리이. 거기 집이 기와집 이서.  
거기서 또 큰 이 믋을 펜안허게 거기서 제 지내고 이 해신제 왕 제 지내고, 해신  
젠 바당에 가는 사름 우렁 허는거지.  
101007 @ 옛날에 영등곳은 그 아까 포제집 잇엇던데서 했다는거지예?  
101007 #1 응. 허당 트더불어서.  
101007 @ 거기에 그 바당에 할망당이 있지 안해시카?  
101007 #1 어서.  
101007 @ 바당에도 보면 영등곳허는텐 다 당이 이십디다.  
101007 #1 당이 이딛거 거닐이주. 이디 이서. 이디  
101007 @ 이딛건디 바당에 강 허는구나.  
101007 #1 아니 거기 곳 허젠허민 “여기 곳허염수다”해영 밥 아저당으네 손님질  
허듯 경만허여.  
101007 @ 경해영 거기 강 허는구나예?  
101007 #1 크게는 안허여. 왕 거닐어 섯까름엔 막 크게 허메. 당이라도,  
101007 @ 음 섯까름에도 크게 허고예. 그 집 잇는디 거기서 험니까?  
101007 #1 그 집이 안순옥이 살암실거라..  
101007 @ 바당도 아난디 거기서 안순옥이가 누구파?  
101007 #1 섯까름 사름이지.  
101007 @ 무사 집이 어시난 그 당집을 빌영 살암수파?  
101007 #1 본래 지네 집이라난생이란게.  
101007 @ 심방은 아니고?  
101007 #1 응. 그 집두깁에 그 할망 그 어른네 집구칸에 당 이서.  
101007 @ 개인이?  
101007 #1 개인이지 믋을에 믋을, 마을포제 갔다와. 거뿐이라. 일년에 혼  
번,  
101007 @ 거기도 할망당이지예?  
101007 #1 몰라. 할망당인지 하르방당인지. 건 몰르고 믋을포제허민 갔다오메.  
“영 햄수다” 행 인사로,  
101007 @ 거기가 본향당답다예 큰 당이다예?  
101007 #1 거시 본향당 답아 이. 신촌에서는이. 이 심방들 여기서 험 때 그 당을  
거닐이더라고. 그디 갔다 오고, 이 당은 안 텅기고 이딛 당은.  
101007 @ 신촌 김윤수선생은 칠머리 당곳 거기 강?  
101007 #1 윤수는 요디 살지. 그 사람은 여기서 안 빌어. 동네에서도 안 빌고. 칠  
머리당만 강허덴. 동네에서도 안 빌어. 외방은 강 빌어와도,

101007 @ 원래 신촌은 아닌가부다?

101007 #1 아니 저 사람덜, 원래 신촌은 아니라, 뜬디서 오래서 오건디, 저 사람덜 오건딘.

101007 @ 함덕 할머니 뵈니까 잇수게?

101007 #1 함덕 그 저 인호누인 잘 빌어당 허메. 그 아덜도 허고. 맞아 인호누이, 요디 살암서. 그 저 오라방이.

101007 @ 아아 오라방이?.

101007 #1 게난 그 할망도 큰 심방이라. 시집이부터 그 심방이라. 아덜도 물려받고, 가이도 아니허젠허난 막 아판. 너미 못전던 정 햄서. 윤수 알로 들어왔지. 야이가 그 알로 들어실거라. 이 저 윤수알로,

101007 @ 게난예, 심방팔자가예?

101007 #1 심방팔재 줌녀팔재 기박허지.

101007 @ 기박허여예?

101007 #1 그렇지. 줌녀나 심방이나 똑같지. 줌녀도 그날 올라와야 올라오느네. 생명 걸어 낱 작업헌텐허난 오닐 흐낌만 뜨게 나왔당 그냥 생명 가부러. 위험한 병이라 저 이제 사람덜은이 요디 쫄락쫄락 나오지. 우린 열두발허는디 들어가거든. 그런 디 허는 사람 위험허지. 우린 전복배끼 없어. 그런 딴 짚은디는,

101007 @ 짚은디가 전복 잇구나예?(전화)

101007 #1 게난 여기선 나가 질 숨 질텐 허지. 질 짚은 디 나가부니까. 그런디 나가는 사름 어서 두 사름인디 혼 사름은 죽언. 이제 나배끼 안남아서이. 이제 겐디 이제 난 늙어부난 이제 바당에 못 텅겨. 걸어댕기지 못해. 내려전. 이젠이 다 요런디서만 해여.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소개할 만한 풍습 옛날에?

101007 #2 옛날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도 지으면 믯을 사람덜이 다 가서 같이 일해서 집도 지어주고, 고지에 가서 나무도 해다 집을 지어주고 했쥬. 지금 세상은 판판입니다.

101007 @ 고지 나무는 엔 허민 원당봉이파?

101007 #2 산에 가몬 바농벵디 바농벵디 더 가야쥬. 바농벵디 넘어가야 그 곳속에 가야 좋은 나무 끈어다가 집도 짓고,

101007 @ 곳속에 강 곳속이라는 건 한라산을 말하는거지예?

101007 #2 그렇쥬. 여기선 바른디가 바농오름 잇는데니까 바농오름굽으로 올라강,

101007 @ 바농오름으로 올라강 바농오름은 지금 와홀에 잇수과 어디? 봉개에 잇수과?

101007 #2 여기서도 날 좋으민 보이는데 저 그 마을이 없어요. 거기 제일 가까운 믯을이 저 물터진골,

101007 @ 물터진골?

101007 #2 물터진골이엔 헌디가 그 저 바농오름 제일 가까운 디 잇는디입니다.

101007 @물터진골 마을 이름이 선홀이라던가 이런,

101007 #2 선홀은 그 동쪽이고 그 보필뱅이라고 퀘뜨르라고 해가지고 퀘뜨르, 저 그 보통 많이 목초도 비레 가고, 새왓도 허고 그 퀘뜨르 지형에 가서,

101007 @ 거기 강 새왓도 허고예,

101007 #2 대홀 우이쥬.

101007 @ 대홀 우에예 바농오름 잇구나. 신촌허고 관계가 잇다예. 마을에 풍습 생각나는 거 잇수과?

101007 #2 풍습 밥을 못해먹는다. 동네에서 연기가 쏠이 없영 밥을 못 해 먹는다. 연기가 메칠동안 안나는거쥬. 동네에서 연기가 안나쥬

101007 @풍습이런 هنگ 향교런 هنگ 그 어릴 때 옛날에도 신촌에도 이섯수과? 기우제, 무싱거 지내는 것파? 포제? 그것이 유명허파?

101007 #2 지금도 하쥬.

101007 @ 옛날에도 했수과?

101007 #2 용왕제, 마을 토신제, 나가 짐계제축을 몇해 했어.

101007 @ 삼촌 어릴 때 멧살부터 이걸 봤수과?

101007 #2 난 예순뉘어야 제관으로 나갔어. 나가 어렸을때는 우리 부모네가 아주 빈곤해가지고 우리가 스남매가 컸는데 나가 일곱술에 서당에 가니까, 저 멘동지 고선생안티 가니까, 천자로부터 동몽서지, 개명서지까지 일곱술에 읽엇어요. 아 그러니까 동네사람이 깜짝 놀래언 이제 ㄱ트민 천재가 낫다고 هنگ, 건디 천자 훈권도 3년뉘도 못 읽는 사람이 천지예요. 나는 1년에 천자문 동몽서지, 개명서지까지 읽으니까, 동네사람덜이 깜짝 놀랫어요. 그래서 집이 가난허니 아버지가 일본에 가버리니 여덟술 아홉술은 그냥 놀아버렸어. 그냥 놀아버리니까 일곱술에 글 읽어난 거 같지가 않쥬. 어머니가 잇으니까, 어머니가 날더러 아이덜 동생덜 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는 밧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여덟술 아홉술은 공부를 못했쥬. 10술 뉘니까 아버지가 일본서 와서, “어떻게 명헌이 서당에 안보내느냐”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부족할뿐 아니라 할수없이 아이들 동생들 봐야뉘니까, 못갓다고 해서, 10술부터 저 강원재 선생안티 가서 글을 읽는데 일사천리로 글을 읽엇쥬. 뽕뽕뽕 또 천자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동문서지, 개몽편, 명심보감, 소학까지 그니까 열두술 두 해반을 읽으니까 그 선생이 나가 아는 건 다 ㄱ르쳐 줏으니까 다른 선생을 좇아가라고 허니까 다른 선생을 좇앙뎡겨도 안뉘디다. 다른 선생덜도 많이 잇었는데 건디, 화북에 임비후 선생, 그 선생 신디 9개월 배와신디 월등하게 배왓어요. 그 선생이 제일 훌륭한 선생이랴고,

101007 @ 쥬 그 분은 다 돌아가시고?

101007 #2 글쥬 죽엇는지 살앗는지 4·3스건에 어떻게 뉘엇을 거야. 찻간에서 한번 만났는데 해방뉘어가지고, 그 임비호 선생이 지금에선 화북에서 날 “인민위원장인가 하라고 해서 내가 했네”, 게니까 인민위원장 했으면 죽엇쥬. 그 스건에 죽엇는



지 그냥 죽었는지 노인 늙어서 죽었는지 잘 몰라요. 하영튼 홀륭헌 분이셨어.

101007 @ 삼촌 그때가 열살때마씨?

101007 #2 그때가 15살 때,

101007 @ 그분은 댁살이엇수과?

101007 #2 그분이 혼 60이상이랏쥬

101007 @ 삼촌이 15살 때, 그분이 60이상, 아이고 기록이 남아잇쿠과 예? 참 그때 거기 가보민 자식이 이십디가?

101007 #2 가보지 못했어요.

101007 @ 어디서 배웠수과? 그믄 그 집이 강 배운 게 아니고 화북?

101007 #2 여기 향사에서 와가지고 선생님이 와서 배와 쥬어요.

101007 @ 그분이 선생님이로 향사에 왔엇구나예. 여기 향사가 중요헌디 뵤다예. 삼촌 태어나도 여기 향사가 이십디가?

101007 #2 잇쥬.

101007 @ 조천만 그 학자들이 많다고 들엇거든예?

101007 #2 그러니까 이 저 동문밖에선 제일 기와집 지은 것이 저 신촌이예요, 그 문화제 조천 연북정이니 뭐니 지어도 다 그 후에 지은 집덜이고 제일 옛날 지은 건 이 신촌향사예요. 그러니까 수군, 그 저 옛날 법에서 수군이라고 해가지고 주접사 까지 와서 조력해서 지엇다고 하니까,

101007 @ 그믄 이 향사에 삼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학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네예?

101007 #2 그렇쥬.

101007 @ 향사의 의미는 뭇파? 향교, 공부허는곳도 아니고, 유교를 허는 사당?

101007 #2 회기도 하고 부락에서 모여서 회기도 허고 뭇도 허고도 했는데 리사무소ㄴ지도 쓰고 했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는 제단ㄴ쥬 뵤엇어. 마을제를 거기서 지내고 잇어요. 마을젤,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8 #1 특산물 배랑 어실거라.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1008 #2 여기 특산물이라는데 별로 없어요. 저 하영튼 이식량이 보리 조가 많이 낫쥬.

101008 @ 배추도 유명허지 안했수과? 배추 수박?

101008 #2 아, 배추도 수박도 많이 나고 나도 무갈아서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무갈아서 많은 수확을 봤어요.

101008 @ 땅이 좋으난 영 수박도 허고 무도 했구나예?

101008 #2 수박도 해보고 웨도 나보고 허허,

101008 @ 무가 제일 잘뵤디가?삼촌은

101008 #2 무 해서 생기리도 허고 나가 신촌리 땅이 농토가 넓다고 해도 땅 혼평이 업섯어요. 서른다숫ㄴ지 없엇어. 땅 혼평이, 혼평도 남의 밭 빌어서도 허고 때밭

도 지어서 허고 농스지으면서 내가 만평을 샀어. 땅을, 더러 팔려부렀지만. 열심히 했어.

101008 @ 특산물로는 신촌에는 그래도 이런 옛날에는 조, 보리, 콩인디,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를 심어서 특산물로 재배를 했다는 거다예? 켄디 여기 혼동 안 수박허단 이젠 신엄만 허고 여기 수박 별로 안허는거 다했어?

101008 #2 허는 사람이 드물어.

101008 @ 무는 험니까 아직까지? 미깡으로 많이 돌아신가?

101008 #2 미깡으로 많이 돌아부니까헌디 무는 지금도 가는 사람들은 갈아.

101008 @ 미깡으로 저 유명해진진 미깡을 언제쯤부터 싱거신고예?

101008 #2 여기 미깡 싱근지는 제일 이 북군관리에선 화북에 문수창이네가 질 시초로 심었지 아마. 계곡, 신촌에 처음 싱근 사람이 저 이문행, 동수동 강학수 나보다 두나 밀이라도 므녀 심었어.,

101008 @ 이문행, 동수동 강학수씨가 화북에 문수창씨 보명 잘웨난, 다른사람덜이,

101008 #2 수확이 돈 마니 나니까 그루후제 난 그 사람덜로해서 10년 뒤에나 심었는데, 나가 쉬혼 슬부터 심었어. 마흔 생기리해서 버니까 샀어.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101009 #1 없어. 자랑거리가 무신, 자랑거리 자랑할 일이 하나토 어서

ㅁ을 포제나배끼 허는 거 어실거여. 일년에 혼 번 ㅁ을 포제 ㅁ을에 편안하게 해 드렌 정월달에 허여. 음력정월달에. 정월도이 열흘안에 허메 포제가.

101009 @ 똑똑헌 사람들 많이 나오지

101009 #1 똑똑 이덕구 나왓당 4,3사건에 죽었지. 엮은 사람 그 사람이,

101009 @ 여기가 고향?

101009 #1 고향계. 이디서 큰 사람이지. 신촌사람이라 그 사람.

101009 @ 그렇구나. 그 이외에 똑똑허고 유명한 사람은 나온 사람은 엇수과?

101009 #1 엇지. 어서. 4,3사건에 다 죽었어. 똑똑헌 사람은 다 죽었어. 그 사람덜은 대통령자격덜이라 죽은 사람덜은,

101009 @ 뭐 대섬이라든가 마을,

101009 #1 대섬은 요기.

101009 @ 토지가 좋거나 뭐 경치 좋거나 뭐 이런 건 엇수과?

101009 #1 어서. 대섬배깁.

101009 @ 조천보다 신촌이 좋다허는 건 뭐파?

101009 #1 신촌허고 조천허고 반반 대섬이.

101009 @ 음, 거기 대섬이 이시민 뭐가 좀니까?

101009 #1 대섬이 거기 가민 노는 사람덜허곡, 고기 바당에서 ㅁ들로 강 ㅁ으는 사람덜허고,

101009 @ 자랑거리에 들어가?

101009 #1 으응 자랑거리? 그것이 발전됐건디 데모해부난 완전히 거기 발전됐갈 건디 멧사름 강 데모해부난 데모헌디 주나게 아니주지.

101009 @ 거기 발전해되민 발전소처럼 돼불어.

101009 #1 어 경혈건디 이디 멧사름 들어내 강 데모해부니까 안줘. 이제 발전을 못해여.

101009 @ 발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101009 #1 그때는 발전허민이 외국사람덜 막 담아진덴 허드라고. 노인덜이, 이제 죽어 분 어른덜, 여기 발전됐가든 외국사람덜 들어온덴. 할망덜 죽어부렀네 그 할망덜. 그렇게 허드라고.

101009 @ 이마을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09 #2 신촌에 이기빈이가 리사무소 지어주엇어.,

101009 @ 사람말고 또 자랑거리허민 뭘, 인심은 좋앗수과?

101009 #2 인심 좋앗지 옛날은, 신촌에 옛날도 양반이 많이 살앗어. 신촌에 문장도 많이 낫고 이유력이 제주도에 최고 문장이엇어. 제주도적으로 상당한 문장이엇어.

101010 @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가까운디 이름이 뭘렌햇수과 요전에 물?

101010 #1 가마물, 통물, 돈물, 다 매와부러서 이제. 가마물 흥나 남안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허는 물, 여자 안댕겨.

101010 @ 여자만 허는 목욕허는 물은?

101010 #1 가마물, 다 뜰로, 경허당 남자 쫄락가나 여자가 쫄락가나 허잖아. 물이 뜰로뜰로해야,

101010 @ 무사 가마물인가예?

101010 #1 옛날어른덜이 일름을 너는 큰년 죽은년 허듯 물도 가마물, 통물, 돈물,

101010 @ 제일 물이 맛좋은딘 무슨 물이엇수과?

101010 #1 가마물이 맛좋지. 돈물은 깨끗해도 짹짹허여.

101010 @ 가마물은 물 걸이는 물하고 목욕허는 물이 따로 잇엇구나?

101010 #1 목욕허는 물 뜰로고 먹는 물 뜰나. 먹는 물에 강 목욕햇당 이제 난리나.

101010 @ 거른 동카름 사람은 무조건 가마물에 걸영 먹고, 서카름사람이 올 수도 잇수과

101010 #1 큰물에, 서카름사람은 큰물에 일로 가민,

101010 @ 어느 물이 좋다는 건 어서?

101010 #1 큰물,

101010 @ 큰물이 좋아.

101010 #1 큰물도 이제 오히려 물빠부난 물살이 죽엇덴, 창창창창 느려. 그 물

이,

101010 @ 그른 옛날에 삼촌들, 멀긴 해도 큰물에 도강 물 떠와도 뭐렌 안헨마씨?

101010 #1 아니, 여기서도 즈꿏디서 질여당 먹주, 큰물까지 안가. 즈꿏디 먼 먼헌 디 질레 가나? 즈꿏디, 큰물이 좋아. 이딧물은 곱어. 우린 즈꿏디서 탕겨 멀어서, 큰 물이 좋긴 헌디 그디 안가.

101010 @ 살아오면서 신촌마을이 뭐가 좋앗수과?

101010 #2 신촌에 물이 좋고,

101010 @무슨 물이파 여기는?

101010 #2 큰물 뵈어요? 큰물 오죽 좋아요. 제주시로 동쪽으로 와서는 이 신촌 큰 물만이한 물이 없을거야

101010 @ 함덕이나 조천도 물이 잇잖아예?

101010 #2 잇지만은 당추 여기 십분지 일 만큼도 안해여. 군데군데 다 나오는 물이 있어. 봉천수가 다 잇는데 큰물은 아파 삼양 감수동이 물이 좋다고 지금 어려올리고 잇지만 신촌 큰물이 상당이 좋아. 목욕 여자목욕탕이나 남자목욕탕이나 시에 서도 해 와.

101010 @ 옛날엔 더 좋앗다예, 동카름에는 무슨 물이 이섯수과?

101010 #2 동카름엔 감은물, 든물 통물,

101010 @ 무사 감은물, 든물, 통물이렌 이름이 지어져신고예?

101010 #2 여기는 즈반물

101010 @ 즈반물이 무슨 뜻이파?

101010 #2 글쎄, 건 몰라. 즈반물이라고 허니까 중동에 붙엇는디 대수동중동, “여기서 봐지는 딴디.” 거 물 좋아

101010 @ 즈반물? 지금도 잇수과? 먹는 물이고예, 이쪽동네는 감은물, 든물, 통물, 감은물은 무슨? 이름이 감은 물?

101010 #2 감은 들감자 낫지.

101010 @ 아아 들감, 단물이다. 든물은?

101010 #2 든물은 어서져불엇어. 통물도 몰라버리고,

101010 @ 신촌 대단허구나예 이렇게 마을마다 물이 다 일름이 틀리고, 물이 얼마나 좋아시민 큰물이렌 해시쿠과게.

101010 #2 신촌 큰물이 물이 광광하게 쏟아오는디 지금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 다 따로따로 잇고, 하영튼 큰물에 물이 막 쏟아지는게 내 느리는 것 같으니까,

## 2. 제보자 일생

102001 @ 자 이젠에 삼촌이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1 나? 나는이 신촌에서 나고 여기서 나고 크고 원 어디 가보질 안헨어.

90, 88년도를 나, 팔십팔년도를 팔십팔년을 산거여 이동에 배꼈디 나가보지도 못허고

102001 @ 친구백 뗏년생이파?

102001 #1 나가 29년생

102001 @ 1929녀생, 뗏 번째 첫 번째 딸로

102001 #1 나가 큰딸.

102001 @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사섯수과?

102001 #1 아버지는 각시 얻영 딱로 살아불고, 아버지는 브름둥이라. 각시 여러두개 해노난 우리는

102001 @ 신촌에 살고?

102001 #1 아니 저 조천에 살았지. 겐디 우리는 이제 웨할망네 집이 살았지. 집이 어서부니까.

102001 @ 웨삼춘도 그림 이섯고?

102001 #1 웨삼춘은 엇고, 이모, 우리 어머니 아시, 동생,

102001 @ ㄴ찌 살았구나예?

102001 #1 응 ㄴ찌 살았지.

102001 @ 이모도 시집가지 안헐?

102001 #1 시집 간 후에는 우리도 이제 시집가불고허난 이모가 거기 살다가 이모가 그 집 돌아부렀지. 이모가 돌아먹은거야. 거난 풀른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난,

102001 @ 웨할머니는 딸이 둘?

102001 #1 딸이 셋인데 혼 사람은 저 일제때에 그 미국놈덜 완 폭발해부난 거기가 무신 오사까옌허메, 오사까? 대판, 거기서이 미국놈덜...

102001 @ 히로시마 뭐 이런데서,

102001 #1 어 히로시마! 거기 살단이. 원자폭탄이 해난 그 ㄴ루답은 거 뿌려부난 영영허멍 그냥 ㄴ짜ㄴ짜 사부난 텐노헤이까 침 손들러부렀네. 그냥 광광허는 건 아니헐건디 ㄴ루답은 거 허난 그냥 영영 허멍 ㄴ짜ㄴ짜해부난 손들러부러세. 우리 셋이모네 경헐 죽어부렀네. 서이새끼가, 아방 어떻게 아덜에,

102001 @ 직접 피해자로구나예

102001 #1 피해자지. 4월 식계가 4월 스무날일거라. 우리 셋이모가. 게 얼마 어성 해방웨드라고. 우리 셋이모네 죽영 얼마어성 해방웨언.

102001 @ 할머니가 막 속상헐겐다예

102001 #1 우리 할머니 죽젠이 저 웬당알로 막 물에 빠정 죽젠해도 안죽어전 할망이,

102001 @ 할아버진 없엇고?

102001 #1 웨할아버진 막 우리 어머님네 어릴 때 돌아갓텐허여.

102001 @ 아덜은 어섯수과?

102001 #1 아덜은 어서. 딸만 우리 할마님 세 개, 겐디 하난 일본엔 공습에

죽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아팠 죽고, 우리 작은 이모도 이제사 죽건지가 혼 4  
년,

102001 @ 그 이모가 더 의지했구나 어머니보다?

102001 #1 이모가 어떻ㄴ치 우리어머니가 어릴 때 죽어부니까 그 이모가 어떻  
역할 행 키웠지.

102001 @ 아고야 게른 어머니는 딸을 큰딸허곡 멧 낭으네?

102001 #1 서오누이. 나 우리 밑에 아시 잇고 동생 이신디 동생은 죽어불고, 아팠  
죽어불고,

102001 @ 삼촌 멧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션마씨?

102001 #1 나가 스물둘에, 우리 오래비는 열식슬엔가 죽고, 우리 아시는 열일  
곱엔가 열요섯엔가 죽고, 나팠 우리 아시 차이가.

102001 @ 어머니가 한이 멧혀시킨게

102001 #1 하이고, 나보다 그 어린 동생덜이 불쌍허여. 나는 결혼해분때라. 스물둘  
에 계난 아방은 군인 지원행 해병대로 가불곡, 겨난 우리아시넨 어떻 어릴 때 죽어  
부난 막 한이 맥현. 말도 몰르게 고생해서 우리.

102001 @ 켄디 오래살지 못했구나예?

102001 #1 우리어머니? 아덜 켄들에 돌아간, 어멍이 켄들에 죽으난 아 우리 오래  
비도 켄들에 죽어라.

102001 @ 멧넌 살아도 어션?

102001 #1 결혼헨디 애기 어션. 멧넌 살아도 자식이 어션.

102001 @ 아이고 옛날에도 경헛구나예?

102001 #1 여자가 어신 애기,

102001 @ 겨른 아이고 겨른 결국은 씨가 어섯구나.

102001 #1 씨가 어서져부런. 어서져부런. 우리오래비 와 간 혼적이 어서불언. 얼마  
나 한이 멧현, 그 우리 오래비 우리어머니가 그때 당시는 보리밥 먹기가 힘들서이.  
헌디 똑 그 아덜은 지름밥허멍 맥이더라고. 약떡허멍 그 아덜만, 우리는 안취. 그  
아덜만,

102001 @ 멧살차이가 뛴는것과?

102001 #1 우리 오래비가 켄들에 죽고,

102001 @ 거의 아홉 살차이 삼촌이영?

102001 #1 우리 아시가 이제 요든 넷,

102001 @ 계난 여동생 요든 넷이고?

102001 #1 난 요든 아홉, 아홉채 들언. 이제 여든여덟. 네 살 차이,

102001 @ 남자동생은 돌아가신 멧살차이엿수과? 터울이?

102001 #1 나영 가이영은 우리 아시허곡 세살차이. 여섯살차이. 그 남동  
생허곡. 이제 살아시민 우리 아시가 요든 넷이나네 여든 하나쫘 뛴거라

102001 @ 그쵸록 공들영키와신디?

102001 #1 은이여 금이여 했지. 경허단 보난 죽어불언.  
 102001 @ 계도 의는 좋앗수과? 삼촌하고도 이모하고도?  
 102001 #1 가이가 일본 살았지.  
 102001 @ 아이고,  
 102001 #1 죽으난 여기이 신장으로 완.  
 102001 @ 아이고!  
 102001 #1 보지도 못 해서.  
 102001 @ 태왕으네 읍니까? 태와서 시체를?  
 102001 #1 아니, 그냥 신장으로 와 .신장으로 왕 묻어서.  
 102001 @ 경도 험니까?  
 102001 #1 응. 일본서 신장으로 왔드라고. 이제 죽건디가 멧십년이라게.  
 102001 @ 일본서 살당?  
 102001 #1 응, 일본서 죽언,  
 102001 @ 무사 일본까지 가신고예?  
 102001 #1 돈벌레,  
 102001 @ 아, 신춘도 일본 많이 갓구나예?  
 102001 #1 아이구 많이 갓어. 돈 벌레 갓당 자식도 엇고 돈은 번 건 각시가 다 아  
 산 탕기당 각시도 죽고, 아무것도 애기도 엇고,  
 102001 @ 그 집은 누가?  
 102001 #1 봉가온 딸, 가이만 복덩이라.  
 102001 @ 양녀렌 험니까? 어디서 외로완,  
 102001 #1 어린 때에 주서당 키운거.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2 늘그막엔 농사 지었지,  
 102003 @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2 신춘, 강씨,  
 102004 @ 어릴땐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02004 #2 모치기도 허고, 연날리기도 허고, 윗놀이굴은것도 안해보고, 빠차치  
 긴 했어. 팽이치기도 허고, 돈 낱 구녕치기, ㅎㅎ  
 102004 #1 나? 낮인 흑교허고 밤인 탕건허고,  
 102004 @ 일만 했수과? 놀 때 곱을락이여 무신 베들락이여?  
 102004 #1 건 어릴 때  
 102004 @ 어떤 놀이?  
 102004 #1 어릴땐 베들락허고 이렇게 영 헤영으네이 영 둘이 췌연 그른 영 이렇  
 게 막 뛰지, 이렇게 둘이 고무줄 잇잖아. 게른 고무줄로 막,  
 102004 @ 고무줄놀이? 아아 노래라도 불렀수과?  
 102004 #1 거 이, “이찌게즈람뽕 하루스시데”허멍 일본말로, 무시거 이제 그ㄱ

지배끼 몰라.

102004 @ 생각행 놔둬서. 일본말로 고무줄놀이 했고, 또 공기를 뒤편 했수과? 돌멩이?

102004 #1 돌멩이ㄴ라 공기렌배끼 더허여, 공기놀이, 그거 이 다숫쟁가 멧개? 또 그 영 튀우는 거 오지다마엔 현 거, 그거이 콩이나 보리솔이나 땡 이 이렇게 막 올리잖아.

102004 @ 오지다마 오재미렌 안행 오지다마?

102004 #1 오지다마가, 오재민가? 세개 네 개ㄴ진 우리 올려나서. 경허믄 고무줄해가민 남혹생덜 빼가불고 공믹는 거 빼가불곡 그것떡분 싹고, 하이고 얼마나 남자혹생허고 싸왕 만날 빼가불고 공허믄 공 빼가불고이. 아 그렇게 허드라고.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1 공출허민 우리 어린때난 몰라. 공출에 대행은이 우리 이모님네 어멍덜 알주. 우리 어린때 어멍행 아냐?

102005 @ 뭐 바치고 바치고 이런 거?

102005 #1 어린때지 학생, 혼 2혹년때쫘, 근데이 맨발에 텅겨서. 신 어시니까

102005 @ 야, 학교 갈때도?

102005 #1 학교 갈때도 신 사줘네 신 아까왕 손에 잡앙가.

102005 @ 고무신, 검은 것파? 흰것파?

102005 #1 검은 반나신, 책 가방이 어딘나. 가방에 영 낫당 영 묶엉, 필통도 어서. 이런 기지로 해영으네 영 확 호루쌍 그런 걸로 허곡, 에이구 고무 잇잖아. 영 것도 어성이 흰고무신 다 끈어진거이 뒤척이 해당 끈어당 그걸로 막 밀고, 이걸로 하행 영 밀곡 아이고 공책 하나민 멧번 쓰냐? 연필로 써낭 그 다음은, 필통 거 저 무신?

102005 @ 볼펜, 숏검정, 볼펜?

102005 #1 볼펜, 그런 걸로 써낭, 세번쨌 먹으로 써. 공책 하나에 그렇게 힘들어. 공책사기도 힘들어. 우리 때 얼마나 고생헌 줄 알았나 이젯아이덜은 연필, 벨거 다, 에이고 책포도 터쳐가민 주어. 포다리에 포따리 쌍 이렇게 묶엉, 이제 허는 거 우리 해난거

102005 @ 드라마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보믄예?

102005 #1 삶인지 죽음인지 그런 시절이 돌아오랑 다덜 죽어불주. 살앙 무시것헤여 힘들고.

102005 @ 젠디 아버지도 생각은 하는구나예?

102005 #1 아버지이? 생각은 무신 놈의 생각? 각시만 쳐 얻엉,

102005 @ 계도 4·3때 삼촌 계도 그렇게 해서?

102005 #1 4·3때 조천 가난 살았지. 이덕구 세계난 몬딱 심어당 죽여불어.



102005 @ 아버지가 이시난 게도.

102005 #1 아버지 조천에 시난, 든든해영, 심으레도 안가. 아방이, 국민학교이저 무싱거라 그 국민학교 그 집 트더져가민 우리 아버지가 못수해당 고치고, 다 고치고, 학교 위원장, 막을에 이장, 이장아니라 구장이옴허매, 췌게 아방이 놀아나노난, 아방이 췌게 게난 아방뻘으로

102005 @ 살아놓고 뭘해도

102005 @ 삼촌 뭘 뻘구나

102005 #1 게른 어떻허나? 이녁어떻 내불어똥 이녁이 살젠허난

102005 @ 그렇지. 살아놓고 뭘해야주게.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 일제시대때가 삼촌이 땃살 뿔 철이파? 1919년이니까?

102005 #2 스물흔술에 해방뿔어. 스물흔술에, 게 이 고구마 썰엿 절간공출, 돼지공출, 뿔야지 통시에 기르는데도 다 부쳐간 뿔야지공출, 뿔 왕으네 항굽 다 드러낸 곡식 잡곡이나 이시민 다 털어가고 왜놈덜말이야, 이 조천읍사무소 상당히 심했어 그때. 게 고경찬이 해방뿔니까 행방불명뿔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하얏튼 고경찬이 면장때말이어, 조천면민들은 상당히 못전뿔어. 절간해가지고 공출허기,

102005 @ 고경찬이 면장해가지고 못뿔짓해부난 나중엔 해방뿔난 행방불명뿔뿔언 마췌?

102005 #2 어디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소식이 없어 그 사람,

102005 @ 보리, 조, 이런 거 다 공출?

102005 #2 곡식 보리,조, 막 놀굽을 다, 놀굽을 더듬으고 이 조천면민들을 상당히 못전디게 굴었어.

102005 @ 어머니도 막스와했겟다예? 아버지가 일헌것덜 다 빼사갓단 말이잖아예? 소, 말 이런 것들 뿔?

102005 #2 소도 공출허고 했주만은 우린 소가 없었으니까 돼지공출은 했어요. 집 집마다 통시에 돼지 길루왔거든. 그때는 집집마다, 일본순사덜 칼찬 것도 보고 말탕 다니는 것도 봐뿔수과?

102005 #2 스물흔술에 해방뿔었어.

102005 @ 45년도니까 땃년에 태어났수과?

102005 #2 대정13년에,

102005 @ 13년이른 일제시대다예 한일합방이 1910년이난,

102005 #2 소화가 나보다 혼나 밑에랏어. 소화 20년도에 해방뿔어.

102005 @ 게른 일본말도 잘 알겟다예?

102005 #2 췌금 알앗지뿔.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꺾엇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 그 동창덜은 다 어디갓수과?

102006 #1 하나토 어서 다 죽언. 이제. 4·3사건에 다 죽어불언.  
 102006 @ 4·3때 세상에?  
 102006 #1 하나토 어서 이제, 다 죽어불언  
 102006 @ 아이고야 막 울어져시쿠다예. 친구들, 어쨌든 어릴 때 친구들 다 돌아가  
 셤?  
 102006 #1 원 하나토 엇텐허난, 다 죽어불언,  
 102006 @ 다 4·3때?  
 102006 #1 4·3때도허고 아광도 죽고 일본도 가고, 외국도 가고 다 빠져서 불언,  
 102006 @ 한 두 명 재수 좋게 산 사람도 4·3때 산 사람도 잇긴 이섯지예?  
 102006 #1 4·3때 남자 다 죽여불언. 이덕구세계라노난. 여자도 다 심어당 다 죽인  
 때라. 우리 오죽행 곱지못행 이 살지 못헐,  
 102006 @ 여자덜도 너무 고와도 안웨시쿠다?  
 102006 #1 고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상이 틀리잖아. 그 사람덜은 빨갱이 아  
 나.  
 102006 @ 너무 고와도 순경이 그걸 뭐해가지고 점찍영 놔두민,  
 102006 #1 허이구 말 말라. 조천 아방이 조천사니까 하도 이덕구세계니까 심으레  
 오난 아방네 집이 곱으레 가서. 밤인이 근무허곡 폭도 들어오카부텐 낮인 성잇잖아  
 성, 그거 싸고, 코오피, 그 순간엔 나무허당 밤이 불 땔거, 우리 놀아본줄 알았다?  
 경허당 허깁허민 훈련, 훈련,  
 102006 @ 산엔 안가봤수과?  
 102006 #1 산엔 안 가왔지. 산엔 폭도나 가지.산에 안가고 안에서만,  
 102006 @ 곱으레,  
 102006 #1 산엔 안 가오고, 여기서 이 안에서만,  
 102006 @ 조천에도  
 102006 #1 조천엔 곱으레 안 텅겨. 이덕구 세계니까 신촌이,  
 102006 @ 그믐 신촌에 사람덜이 조천으로 많이 가기도 헛겟다예?  
 102006 #1 조천으로 우린 아방이 지난 가곡, 흙불로 안줘. 난 아방이 시니까.  
 아방이,  
 102006 @ 그니까 동생이영 같이 갓수과? 세명이?  
 102006 #1 아니 우리 아신 어릴 때난,  
 102006 @ 잠깐 쉬게예.  
 102006 #1 우리 나는 열일곱, 네솔차이, 다솔솔 차인가 허난 나는 열  
 일곱, 우리 동생은 혼 열두솔인가 열 혼솔인가, 가이넌 안 심어가.  
 우리덜만 심어가.  
 102006 @ 삼촌네가 무섭주게. 여자덜이,  
 102006 #1 아이구 뛰는 걸 잘 뛰어노니까이 경허난 조천 도망가부럿지. 경안허민  
 이 산에 끄서가분텐허난. 뛰는 거 잘 뛰어부난 아니가민 그냥 잡혀간텐, 산에서, 뛰

는 걸 워낙 소문나게 뛰어부니까, “비니जू”, 일본말로, “제트기 비 29”, 벨로가, 우리 36반까지 체조헌 사람이라. 일제편 “본께교다이쇼” 이마니헌 낱칼, 우리이 사람 죽이는 건만 연습했젠허난 이마니헌 낱칼이 50전인가 얼마쥬 산, 겐 “만나까” 일본말로 “만나칸” 저 “가운디”, “구비”허민 “야게”, 끄느렌허고, “만나까” “아다마” 허렌 “아다마” 이거 막 그런 것만 배웠젠허난, 큰아덜은 “우리 어머니 옛날엔 순 사람 죽이는 것만 해서” 경 곤넨허난, 저 큰아덜, 그런거배끼 시국을 그런 시국에 나노니까,

102006 @ 큰 아들은 뭇살마씨?

102006 #1 야이가 쥬 허난 쥬 넷인가 쥬 다숫인가. 큰 딸이 예순허 나디 예순둘인디,

102006 @ 모르주게. 우리도 왁왁이주. 4:3애기허든?

102006 #1 에이구 4:3 스건 걸려보라. 다 그냥 약먹으멍 죽주, 살지 안허여. 4:3 스건에,

102006 @ 4:3 스건때 소개등 생활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6 #1 4:3 스건에?

102006 @ 열일곱살이구나?

102006 #1 거 4:3 스건에 우리 그때가 열여섯인가 열여섯에서부터 거 이디 영 행 으네 빗게 사렌헨이 “빗게”엔 허매. 빗게사렌 헨, 우리 어릴때난 시키는 데로만허거 든. 사람이 경찰ㄱ란 검은개엔허곡 그 군인ㄱ란 노랑개엔허고 막 그거 허렌허여 어 린 때.

102006 @ 군인이 주둔헌디가 어딘디 여기 신촌만 들영만 막 이덕구때문에?

102006 #1 신촌은 이덕구세계라노니까 빨갱이 다 물들엇젠 행 이디만 헨 조천은 어떻 안해연. 조천 함덕ㄱ튼딘, 북촌은 전멸해서.

102006 @ 그난 북촌은 전멸헸덴에. 남자덜 다?

102006 #1 빨갱이 북촌은 전멸시켜부런.

102006 @ 무사 북촌은 경 해신고예?

102006 #1 거기가 빨갱이가 하부니까

102006 @ 똑똑헌 사람이 꽤 이쨌나보다예.

102006 #1 똑똑헌 사람도 잇주마는 빨갱이가 많은 고장인가 막 그냥 습격행 다 심어당 막 집에 불캐와불고,

102006 @ 게난 북촌 때문에 조천이나 함덕은 그래도 헝깁 영?

102006 #1 조천 아무중도 안허연. ㄱ딱도 안허영 북촌만. 북촌은 집이 죽으 니까 단체가 좋거든, 거난 집 한딘 단체가 엇거든. 경허니까 북촌은 전멸해부런

102006 @ 삼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봤겟다예 불태우는 거영?

102006 #1 헝곡이 빨갱이가죽은 집단생활해여이 집단생활허면은 그 살당으네 죽이게 돼면은 다 심어당이, 줄쥬이 해영 기관총 딱 대영 다다다다다 다 허멍 다 죽여불어. 게민 그믄 우리냥으로 가멩이 해당 더끄고. 영장에

102006 @ 삼촌도 해봐?

102006 #1 거 더껏지. 더끄렌 허민 안 더꺼지나 거기.

102006 @ 누구 아는 사람도 어신디도 간?

102006 #1 우린 그 그때는 왜냐허든 막 지킬 때, 우리 그런 거 다 봐나난이 진절머리가,

102006 @ 열일곱살이면 끄찍했겠다예?

102006 #1 김일성이 봐가든 막 징그러완. 저놈의 새끼덜, 저놈의 새끼덜아니민 왜 이디 넘어왕으네 그사람덜 넘어왕 경 허나.

102006 @ 그놈덜도 나쁜일은 많이 헛헛헛디다게. 멀쩡헌 사람덜 어쨌든 다 죽이는 것도 무체주게. 무식한 사람도 많앗덴 헛디다.

102006 #1 일름 곱아도 심어당 죽어불고이 일름곱아도, 빨갱이 물에 들엉 일름곱으민이 일름곱으민 그거 행 심어당 먹알로 심어당 죽어. 일름곱아도

102006 @ 채수어시 걸리민?

102006 #1 그렇지? 에 근디 특히나 이덕구세계라노난 다른딘 어뎡안해여.이디 신촌만,

102006 @ 삼촌네 친구들 똑똑헌 친구들 이서낫수과??

102006 #1 똑똑헌 아이덜 다 죽엇네. 4·3스건에

102006 @ 다 산에 올라갓수과?

102006 #1 산에도 올라가고 심어당도 다 죽어불고, 어서.

102006 @ 삼촌 좋아해난 남자아이는 어섯수과?

102006 #1 야이 좋아해난 남자가 어딿나? 정신빠진 아기야 야야.

102006 @ 아니, 학교다닐때부터 그런 친구들?

102006 #1 남혹생 여혹생 딱딱 뜯로 안찌부러. 남자여자 저 남자나 여자나 이추룩 말 곱으민“와갓다 와갓다” 아노 히또 누구누구 막 그냥 남혹생이엔 좋아헛젠 “와갓다 와갓다” “알앗찌 알앗찌”남혹생허곡 ㄴ찌 놀도 안허여 뜯로뜯로.

102006 @ 아이고 무서웠다예? 동네아이덜 게도 생각날 때가 옛날 생각덜?

102006 #1 옛날 생각 나는 사람덜 다 죽어불언. 하나 안 살안. 맨딱 죽어불언. 나만 살안.

102006 @ 여자들은?

102006 #1 여자덜도 죽고, 남자덜도 죽고

102006 @ 여자덜도 4·3때 죽고?

102006 #1 아팡도 죽고, 4·3스건에 올라강도 죽고, 게난 어서.

102006 @ 삼촌은 안 올라갓다예?

102006 #1 응. 난 안 올라 간. 난 아방뻑으로 조천 강 살아부럿주. 게안해시민 ㄴ치 잡혀가.

102006 @ 멧년간 살앗수과? 조천에 간 멧년,1년?

102006 #1 막 오래 살아서.

102006 @ 새어머니랑 같이 잇엇겟네?

102006 #1 큰어명, 우리 어머니가 죽은 어명,

102006 @ 큰어명 막 구박하고 그렇지 않고?

102006 #1 아니, 구박하게 했나? 오줌잇잖아? 오줌 항에 진 거, 그거 다 지어당  
 밧디다가 나가 보리에 뿌리고, 나가 검질메고, 다듬이 허고 나가 다 해서,

102006 @ 일했구나?

102006 #1 일했지. 또 옛날은 그 우리 아버지가 유지자니까이 옷은 잘 입으니까  
 두루막 그런 것도 다듬이 허고 나, 다 해서.

102006 @ 그때 아버지 처음 많이 밧구나.

102006 #1 곱으레 간 살았지. 가기 실러도 이덕구세계라노난, 심으레 데너가니까,

102006 @ 몇년? 2, 3년?

102006 #1 흐 1년 넘어가난 좀 끔끔해가니까 와불엇지. 밋을이 좀 잔잔해  
 지니까, 이덕구도 심어단 해가고허니까 이제 그냥 와불엇지.

102006 @ 거기서는 자식이 엇텐햇수과? 오빠도 잇고 거기?

102006 #1 그디 어머니는 6남매, 우리 어머니는 삼남매,

102006 @ 켜 그디 6남매랑 같이 살명?

102006 #1 아니 그 나 우에 사람은 서울로 공부허레 대학허레 가불고, 또 김녕은  
 김녕 시집가불고 또 우에는 일본서덜 시집 강 살고 다 흠어전,

102006 @ 흠어전? 지금 공부허레 간 사람도 돌아가시고 다?

102006 #1 죽엇지. ㅓ자 잇나? 북한 넘어 강 죽엇지. 저이 서울서이 공부허노렌  
 허난 6.25때 막 몰아가부런네게. 그때 몰아가부런 공부허는 아이를,그때,  
 그때

102006 @ 운명이예?

102006 #1 그 오라방만 이서시민 이것이 대장이주. 공부도 잘허고, 그냥 몰아  
 가부난 거기서 죽엇네. 시국 아이고 환장허여. 큰어명 난 아기난 어명이 돌아부런.  
 큰어명이, 작산 아덜게

102006 @ 4:3 지나고 나서?

102006 #1 그냥 심어가부런. 몰아간. 6.25때 몰아가부런.

102006 @ 6.25때 몰아가부런. 아버지랑 큰어머니 큰 충격을 받았겟다예?

102006 #1 그렇지. 계난 아방은 남자니까 어명은 충격받앙 죽어불언. 오래 안 살  
 안, 화로 막 옷 다 벗곡이 냉수로만 먹고 야 그 작산아덜 경 해보라. 켜디 공부허는  
 디 6.25때 터정으네 흑생덜 다 몰아가부런네.

102006 @ 사상이라부난예?

102006 #1 게 몰아가부니까 와보지도 못허고 죽어불엇주.

102006 @ 밑에 동생덜도 이실건디 너무 큰아덜만 기대를 했구나?

102006 #1 큰아덜만 아덜 두 개, 공부허레 갓당 북한 몰아가불고, 어서. 우리

어머니도 서오누이 낳단 오래비 죽어부난 성제 매기, 동생덜도 잇쥬. .

102006 @ 참 서로가덜 왜 그렇게?

102006 #1 우리 4·3사건 만남이 에이구 얼마나 힘들었냐.

102006 @ 빗게도 사보고 나중에 4·3 쫓냥 이렇게 마을에 성도 쌓아놔수과?

102006 #1 우린 조천 도망가부난 조천서 만세동산 잇잖아. 거 우리가 그디 강 싸  
앗어. 이만씩헌 돌, 그 마다리 푸대로이,

102006 @ 그게 다 4·3스건에 쌓은거로구나

102006 #1 그래. 4·3스건에 폭도 못 들어오게, 산에 들어간 폭도덜이 막 들어와.  
거난 거 못 들어오게끔, 폭도이 사람해영 민보단 해영이 저 전달시켜. 9시민 9시 전  
달, 9시 전달, 전달허곡 경허멍 살앗쥬. 밤인 그 성굽이서 불 초고, 파썩 열어. 경헨  
또 요만이헌 막 지성 거긴 줌 1시간에 하나씩 교대, 경 자당으네 혼시간 웨민 일리  
민 깨어 낭 가고,

102006 @ 젊은 아이덜만 헌거과 민보단이? 멧살부터 경 헌거라? 어른덜은 안하  
고?

102006 #1 응. 어른덜 누게가 시키나? 뛰어야 헐꺼 아니야, 밤이라도 폭도가 와가  
민 뛰어사.

102006 @ 삼촌, 여자 혼자데 무섭지 안헐디가?

102006 #1 우리 딱래 다 이신디.

102006 @ 멧명씩 보초사?

102006 #1 남자 하나에, 여자 전달은 폭도덜이 여펜 살암젠이 여자헐젠 나무라  
카부덴 전달은 남자가 시키고 “멧슬 전달” 전달허는걸로 여덱시민 여덱시에 전  
달, 열두시민 열두시에 전달,

102006 @ 만세동산에?

102006 #1 에이고 우리일제때로부터 4·3스건으로부터, 얼마나 힘들어시. 일제 우  
리딱래가 다 힘들게 나서. 일제때는 일제때데로, “구쇼게이” 무신 게이까이가이쥬여  
구쇼허면은이 저 미국놈덜이 미국허고 일본 싸왔네. 우린 그난 일본썩이라. “구쇼”  
허민 이 저 미국놈덜이 들어왓따허는거라. “구쇼게이”허민 바로 들어와. “가이쥬”  
허민 나가젠허고, 일본말로, 우리 조선말 못써봐서. “오마이 조센고 스가따”, 거 과  
로 내렌허여. 돈으로, 게난 조선말 헝깁도 못해. 일본말만,

102006 @옛날에는 신촌 향사가 학자들이 왔다갔다 헛던 곳이구나예. 4·3때 피해  
는 없엇다예 ? 불타거나?

102006 #2 4·3때에 그 춤 난 잘 모르겠어요. 난 떠나버리니까

102006 @ 아 경허니까 삼촌이 살앗구나

102006 #2 게난 나가 살앗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냥 보면 쏘아 죽이니까 나가  
그냥 춤 재수가 좋앗지, 이 배도 바닷길도 막아버리고 원 어디 꿈썩 못허게 해  
서 그냥 총으로 해서 막 죽여노니까 여자, 남자, 아이, 어른 훌 것 어시 만나민  
쏘아 죽이기 시작허니까 어찌어찌해서 시에 들어가서 저 육지가는 배를 조사해 보

니까, 아무배도 업서. 주정공장 청주환이라고 주정공장배가 이십디다.

102006 @ 주정공장은 뭐파?

102006 #2 저 그 옛날 그 동부두 우에 주정공장이 잇었쥬. 동부두에

102006 @ 예. 고구마감재쭈시로 주정공장 아?

102006 #2 거기 청주환이라는 배가 잇었는데 그 배가 인천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102006 @ 인천, 아이고야?

102006 #2 아 가서 그냥 선장안티 막 절을 허고 날 좀 같이 태와달라고, 그래서 어찌어찌 그 배를 타서 난 가버렸쥬,

102006 @ 아무도 아는 사람도 어신디 무조건 살려고?

102006 #2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막 사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춤 그때 놓쳤으면 죽었어, 못갓으면 죽어. 그때가 스물세살인디,

102006 @ 세상에, 겐 땃년을 숨영 살당 왓수과?

102006 #2 아 인천에 가서 인천에 가가지고 5년 살았어요

102006 @ 돌아와보난 뭇렌 허는 사람 어섯수과?

102006 #2 6.25나니까 왓쥬. 6.25때 또 죽을뻔 했어요. 인천서,

102006 @ 군인 갓당?

102006 #2 아 군인 안 가고 그냥 셋어멍, 셋아방이 잇었는데 스물다섯에 셋어멍 죽어, 셋아방 죽어, 우리 동생하나가 이제 소년 형무소에 갇 죽어, 아 그냥 두 둘새에 장사를 세 번 나노니까 정신이 잇겄어요. 아무도 식구는 아무도 엇고, 우리 스촌 동생 열두슬짜리허고 열흔슬짜리허고, 저 누이허고 열두슬짜리 동생허고 셋아방 아들하나 딸 하나 잇었는데 거 데리고 잇다가 그냥 6.25만나가지고 그냥 그 뭇 재산도 아무것도 엇고, 저당가옥이고 그러니까 그냥 싹 불태와가지고 월미도 살다가,

102006 @ 월미도? 그 아이덜은마씨 사촌?

102006 #2 어찌어찌해가지고 맹호동생은 미리 제주도 보내고 어멍, 아방 죽으니까 누이동생은 아는 사람안티 줘두고 그래서 나도 그냥 함마 죽을 뻔 거기서 그냥 했쥬 . 뭇 그냥 우리나라사람덜 사람죽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함마터민 그자,

102006 @ 무사마씨? 잘못헌것도 어신디?

102006 #2 제주도니까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102006 @ 아아 세상에, 아이고야,

102006 #2 동생이 셋동생은 나가 데리고 가서 혈일 없으니까 군인보내부니까 살고,

102006 @ 아이고 세상에

102006 #2 하영틀 날 잡아다가 갇혀서 먹을 걸 안줘노니까 이십일만에 변소한변 뵈어요.

102006 @ 게도 어땡 잘나왓다예? 하늘에 뜻으로

102006 #2 120만에 군인 간 형무소 그레저레허니까 나가 빨갱이 노릇은 안헛단말이여. 결국은 43일 갇형, 그 영창에 노니까 나오니까 그냥 콕콕 박아져서 사람이

아주 그냥 저 세발자국을 놓지못해. 그냥 박아져서, 굵고게 먹을꺼 안주니까 굵고,  
 102006 @ 그때가 스물뫼살때다예 젊은 나이에?  
 102006 #2 스물여섯살 때,  
 102006 @ 아이고 세상에  
 102006 #2 스물다섯에 셋어멍, 셋아방, 우리 동생, 서이가 다 죽고, 아 이제 스물여섯살에 6.25가 낫단 말이야. 6.25가 나가지고 바다에 빠정도 흐룻 밤 살고, 무서워서 그냥, 비행기가 폭격을 하고, 그냥 총쏘고 그냥 집나오니까 기름불로 썩 불태워버리고 집도, 거 사람덜이 겐 그 인민군 들어와가지고 흐 3개월 지났지. 아마, 인천서 다 인민군 점령햇드랫어.  
 102006 @ 제주도로 와집디가? 군인갓수과?  
 102006 #2 여기서 인천상륙햇거든 여기 군인덜이, 영창에 빨갱이라고 뭘 했는테 어찌어찌해서 상륙한후에 빨갱이라고 죽일라고 했는테 어찌어지허다가 훈련받으렐 허는 걸 아광 죽어지겐다고 허니까 제대증 줘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니까 부산엔 아는 사람이 많이 잇엇어요. 거기서  
 102006 @ 거기서 회복하고 군인은 안갓수과?  
 102006 #2 스물아홉에 군인갓어요. 군인가서 경리학교 나오고, 육군경리학교 군인 육군하사관 경리학교도 나왔고,  
 102006 @ 결혼 안하고?  
 102006 #2 서른하나에 제대햇쥬.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어머니가 잇엇는데 고생을 많이 햇쥬  
 102006 @ 큰아덜이고예  
 102006 #2 큰아덜이고 출세도 못허고 내가 공부는 한문을 읽어도 남만은 허긴 했는데 써먹을때가 없어. 그니까 학교 뎡것으면 했는데 졸업장도 없어노니까 공무원도 못들어가고 공부는 한문은 신촌마을에서 한문은 나만헌 사람 없엇을꺼예요.  
 102006 @ 세상에 어머니 뫼살까지?  
 102006 #2 나가 쥌 일곱에 아흔 네술에 돌아가섯어. 아흔 네술까지 살앗어.  
 102006 @ 아흔 네술 장수허시긴 했다예. 자식들은 그 한명만 형무소에 돌아가섯다 살앗수과?  
 102006 #2 아신 잘살고 누이동생 지금도 살아잇고 아흔뫼일건데 시에, 삼촌은 아예 모르는구나 어머니안티  
 4.3스건 일어나젠허니까 시에 총 검속이 잇엇는데 전부 잡아가는데 난 안잡아갓어. 고문받고 벨거 다 허는디  
 102006 @ 무사 삼촌은 안잡혀가신고예? 뻥도 어신디,  
 102006 #2 아니 그냥 봐져야 잡아가지 곱아분디?  
 102006 @ 어디 저 동굴이나 곱자왈 그런디 곱앗수과?  
 102006 #2 아니 집안이 잇어도 난 해당이 안웨언, 그러니까 그놈덜이 나가 이제



인천 살다가 왔거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가지고 인천갓다가 나가 미군부대에 두들동안 다녔어. 다니니까 미군 카바 옷 혼벌 번쩍헌거 가지고 잇다가, 아 4·3스건 나기 전인디, 총검속 해영 심영 아 그냥 서북청년 그렇게 까다로왔거든 또. 보는데로 잡아가는데 4·3스건 난 후에로구나. 4·3스건 난 후에 나가 이제 우리 부엌에서저 그때 저 웬당 밧 혼 여덟말지기가 농스질게 잇엇는디 그걸 갈아달라고 허니까 소를 요집에서 빌엇어. 젠디 밧갈레 갈려고 조반을 먹는디, 아 그 의용댄가 무슨댄가 경찰덜이 팍 담아져가지고 말이야. 담아져서 아이고 그냥 어디 강 우리 어머니도 팍팍 떨어져서 “어디 강 곱으라 곱으라” 허는디 에이 난 아시날 이발을 싹하고 그 미군 카바 옷을 우알로 싹 입영 부엌에 아장 밥을 먹언.

102006 @ 무사 그 옷을 입언? 밧갈레 갈건디,

102006 #2 아니 폭도가

102006 @ 폭도 아니라는걸 증명허젠?

102006 #2 증명허젠, 게니까 순경이 그냥 들어완 나보니까 탁 허게 실탄 탁 장영 허면서 “야 너 산에 갓다 왔지”난 대답을 못허고 저쪽문으로 어머니가 “아이고 이 사람 육지서 와부난 아무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 해연, “육지 어디서 왔어?”, “저 인천서 왔습시다.” 겨난 “이제 곧 또 인천 갈 겁니다” 겨난 순경이 그냥 가부린, 순경이

102006 @ 아이고 삼촌이 살젠허난 진짜, 옷이라도 증거가 이시난 헛구나.

102006 #2 게난 썬 잇는 집이 강 썬이끄고 잠대지고 곧 그 문간 나오기 전에 그냥 총소리가 콩볶으는소리가 “바닥바닥바닥”그 앞이 골목 집이서. 겨니까 저 뒤으로 물러사지도 못허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허고 잠대지고 썬이쫓는디 “에이 죽어도 그냥 가자고”해가지고

102006 @ 군인복 입언?

102006 #2 확 옷 갈아입어지 소리가 잠대지고 썬이끄고 해연에 저 웬당 종민이네 집 그 저 집까지 가는디까지 재미새끼 헛나 못봐. 간 그날 강 그 밧을 다 갈앗어.

102006 @ 대답허다예

102006 #2 게니까 스방에서 총소린 팡팡나지. 스방에서, 그집 엉덕이 잇는디 그 엉덕에 강 고만이 아갓당 또 그 밧을 다 갈고 돌아와서 뒷날 아침 그냥 시더레 행 와불엇지

102006 @ 시로 강 또 인천에 갓수과?

102006 #2 시에 가서 혼 보름동안을 그냥 그때 딱신탈때니까이 그냥 밖에서 자고 아는 사람보면 밥 좀 달라고 해서 먹고, 그 어디 켤당침도 없고, 시에 갓자 어디 의지할때가 원 없엇어. 그래서 그래도 그자,

102006 @ 신촌이 무서와웨니까 그때가 뭇년도파?

102006 #2 그때가 4·3스건 나는 해에,

102006 @ 1948년 게난 삼촌이 아직 인천에 갓당 웨할머니 댁에 왔구나

102006 #2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혼번 왔기 때문에  
 102006 @ 아이고 것도 한번 더 죽을뻔했구나  
 102006 #2 죽을뻔 했어. 4·3스건을 봤지. 그냥 할머니가 안 죽었으면 4·3스건을 그냥 인천 살아부렸으면 4·3스건을 모를건디 할머니 돌아가신 덕분에 왔다가 저 게서 뒷날은 맛갈아뒀 완 새벽이,  
 102006 #2 15일간을 살았어. 그냥 얻어먹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청주환 배가 저 여객선도 없고 아무배도 없으니까 저 육지갈 엄두를 내지 못하겠어. 겐 어떻게뎡행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인천간다는 그 청주환 배 간 막 옆드령 절허고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육지사람이 선장이대. 아이 무서운사람이더라고, 날 살려줬어.  
 102006 @그 후 만나지 못했지예?  
 102006 #2 만나지 못했어.  
 102006 @ 야 인연이란게 신기하다예.  
 102006 #2 사람이 살젠허니까 그 먹음이, 게니까 그루후제 막 악화웨니까 그때 보니까 시에 북국민학교 응원대덜이 짝들어차어.,  
 102006 @ 북국민학교예, 삼촌 어디 제주시 숨언잇언?  
 102006 #2 4·3스건 곧 낮을뎡 저 이 촌에나 그냥 보민 총으로 쏘 죽이고 했지. 시에는 그렇지 안허대  
 102006 @ 조천, 함덕보다 신촌이 피해가 많앗텐예  
 102006 #2 아이고 피해가 신촌이 제일 많아. 나가 잇을 때 여러사람이 죽고, 여기 골목 집이서도 여러사람이 총맞고  
 102006 @ 할머니 메칠 이섯수과?  
 102006 #2 혼 뎡들 잇엇어. 겐디 할머니가 9월뎡에 돌아가시니까 게난 4·3 터지기전해, 47년 9월달에 왔는데 오니까 그 뒷해에는 4·3스건이 난거라. 9월달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9월말쯤에 왔지. 그때가 나가 뎡슬인ㄹ허니까 저 그때가 스물세슬 나던헐디 할머니 죽어서 뒷해에 4·3스건이 발생헐거라  
 102007 @ 중매결혼을 하셧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셧습니까?  
 102007 #1 중매, 우리이 신랑 얼굴도 안뵈, 결혼헌 후에야 얼굴봤지. 안뵈뵈서. 어떤 사람이던지 겐디 아방은 나 보ㄹ렌, 조천서 혼런 받았지. 얼굴 안 뵈 결혼허나? 경골으뎡, 진 보고 난 아 뵈서. 진 보ㄹ렌.  
 102007 @ 겐 어디서 결혼헧수과?  
 102007 #1 조천서, 아방,  
 102007 @ 아방집으로 갑니까?  
 102007 #1 아방집이서 폴안, 아방 조천 사난,  
 102007 @ 마당에서 초례청?  
 102007 #1 그냥이 옛날도이 멘사포 썩 영 걸어오데. 아방이 조천 살아나난 조천서 결연,  
 102007 @ 말탕으네 가마탕 그런게?

102007 #1 4·3끝나니까 이 4,3사건 끝나니까 뭐가 말이 있나. 무신 가마가 있나? 우리이 우리ㄴ치 고생허멍 산 사람 어서. 시국도 그렇게 못만나고게 부모도 가난하고,

102007 @ 4·3끝나난 살아있는 사람끼리 결혼헌거네?

102007 #1 그렇지. 야! 제주도논이 남자흐나에 여자 네 개라도 여자가 남아돌았지. 우리도 아방뻑으로 자이네 아방신디 시집가서. 거난 우리 아버지가 흑교에 조천서 대장이니까 므을에서 대장이니까이 막 중매 들어오대. 원호선생까라 군인까라, 경찰까라 농부하닌 자이네 아방 흐나, 우리 어머니신디 저 오랜헐 가난 “무사 오랜 헐헐 허난 저딘 각시연영 살아부난, 딸이 중매가 들어왓시난 어떤디 폴턴? 우리아버지가 나가 키운 딸골으민 나 므음대로 풀주마는 어디 아이고 원호선생도 오고, 군인도 오고, 조천 경찰도 오고, 또 농부하니 야이네 아방도 오곡허난, 어디 폴턴? 허난 나 우리 딸 폐안해주는 농부하니 아피 허난 자이네 아방, 원호선생도 들어가곡 경찰도 들어가곡헌디 아이구 농부하니한티 아이구 무식허게,

102007 @ 어머니가?

102007 #1 그렇지

102007 @ 어머니가 뽑은 거?

102007 #1 어머니가 뽑은거라. 이제 이서시민 막 싸울 거 막 싸와.

102007 @ 것 때문에

102007 #1 것 때문에 씹지게

102007 @ 나중에 결혼해영?

102007 #1 결국해여네 스물둘에 결혼해연 자이네 아방은 해병대로 군인 지원헐 가부런. 3월달에 결혼해헐 결국 군인 가부런,

102007 @ 그런 얘기 들어지난 또 어머니안티 뭐렌 헛구나?

102007 #1 막 어멍ㄴ라 뭐예 뭐예 막, “야 선생은 가민 나무래고, 요 무싱거 군인은 어째고, 경찰은 어째고 농부하니가 편안허여” 허멍 그렇게 말하더라. 농부하니가 편안허헐, 경흐난 옛날 할망덜 무식헌 허여. 원호선생은이 이 우리 아버지네 집에 사니까 흑교에 위원장이니까 그 선생이 나보레 오는 중은 모르고 아방이 위원장이난 뭐 일 이시난 완주 물 걸어다 드렌 허믈 물 영 걸어가고, 말제보난 사람보레 텅기는 거게. 아이구 이제 생각허믈 그렇게 멍청도 있나? 물 걸어다 드렌 허믈 물, 선생이니까,아방춧앙 오는줄,

102007 @ 얼굴 잘생견마씨?

102007 #1 원호선생? 지레 조그만해도 영리한 사람 독똑해,

102007 @ 운명이예?

102007 #1 한림사람, 죽어실거라. 으이구 저 우리 어멍으로해연이. 아이구우리 딸 펜안허젠허민 농부하니!

102007 @ 농부?

102007 #1 농부하니!

102007 @ 아이고 진짜 재미있다예

102007 #1 저 어떻게해연이 으이구, 나 곁으민 선생안티

102007 @ 경해도 아덜이영 딸이영게 봉가지난 경 또,

102007 #1 너무 힘들게 사니까 밧 토지도 엇고 이제사 밧 샅지, 옛날은 늬의 밧 빌영 뽕작해먹엇잖아. 열심을 갈라야 닷섬 이넉직시라.

102007 @ 학교선생도 좋은디,

102007 #1 우리 딸 펜안허젠허민 농부하니! 아이고, 겨난 무식헌 할망이지, 에이구 우리 아버지 곁아, 느네 어멍이 멍청해부난 혈 수가 엇다. 아방이 풀젠해도 어멍이 경 딸 펜안헌디만 풀켄허난 어떻게느니?

102007 @ 계도 아버지가 그런 의논을 잘도 뭐허다예?

102007 #1 의논해연, 영영헌디서 세밧디서 들어오난 어디 풀티 허난 “우리딸 펜안허젠허민 농부하니” 아이고 아방이 아이고, 계난 당신 안키와부난 믇음대로 못허켄,

102007 @ 겐디 다 일일이 보고 결정을 해야돼는데예,

102007 #1 계난 그 원호 선생이 한림 사람이라. 잘도 똑똑해여. 원호 선생,

102007 @ 참 추적해보고 싶다예, 어떻 살아신지?

102007 #1 죽어실거라. 죽어실거라. 여녕이 죽을 여녕 돼엇네. 죽은 겐로 알아져. 막 똑똑해여. 그 원호 선생, 아 겨난 나 보젠 물 겐여다 드렌허는 거, 난 아방이 영 친헌 물 겐여드렌헌겐 계속 물만 드렌헌, 아이 말제라가난 기분이 나빠가. 생각해보라게 메칠에 혼번씩 왕 물만 드렌헌 기분이나빠지 안허냐, 말제엔 물 드렌 허난 자기냥으로 겐여당 먹으렌, “알앗젠 경허문”, 처얌엔 모르난 겐여다드렌냥,

102007 @ 결혼식날 남편을 처음 본 거 아니예, 아저씨를?

102007 #1 응. 아니, 결혼헌 날도 안봐서.

102007 @ 이거 사진도 찍고?

102007 #1 응. 부끄러와서이 남자보난 부끄러와서, 도망가부런.

102007 @ 세상에, 얼굴보난 마음에 안듭데가?

102007 #1 얼굴도 안봐네 그냥 결혼행, 메칠 이서가난 영 봤주.

102007 @ 경헌난 어떻게할거라?

102007 #1 잘 생것어. 자이네 아방, 키도 좋고, 군인 해병대로,

102007 @ 인물은 오케인게예?

102007 #1 어, 인물은 잘도 좋아. 나보단도 더 좋아. 자네 아방 인물은, 막 얼굴은 키도 크고이, 신체도 든든하고,

102007 @ 몰라 어머니가 인물을 봤을수도 잇겠다. 얼굴을?

102007 #1 우리 어머니 봤지. 아이고, 농부하니, 원호선생은 지레 죽아. 조천 경찰은 키도 커. 이마니헌 칼 찬 왓더라고,

102007 @ 인물이 좋앗나부다, 해녀 안해실건디,

102007 #1 우리 아버지는 농부하닐 안허젠헌거라. 딸 고생헌텐, 우리어머닌 아이구 나 딸 웬안허젠허믄 농부하니, 이제 살아시민 맨날 싸와실거라.택도 잘 해서 택도, 옛날은 부모가 요디 시집가렌허민 그디 가. 그디 강 살렌, 오민 akr 또 시집이 가렌 막 두드령 내쫓아.

102007 @ 거긴 씨어머니나 이런 분 어십데가?

102007 #1 씨아방도 씨어명도 잇고,

102007 @ 고생헛겄다예? 큰아덜?

102007 #1 아니 큰아덜도 아판죽고, 딸도 아판 죽고 허멍, 자네 아방 하나뿐,

102007 @ 아이고 고생헛겄네? 씨아버지 씨어머니는 어떻 괴롭히지 안헛?

102007 #1 막 늙엇더라. 60이 넘으니까, 막 늙어서.

102007 @ 밥헛 안네곡 해야 웬는 거?

102007 #1 야, 간 보난이, 4·3스건 나난 쫄이 잇냐, 보리 잇잖아 보리. 보리해당 나냥으로 그걸 이렇게 브비멍 막 해네 솟아네 널어네 푸멍 ㄱ레에 푸멍, 씨어명 씨 아방네 상한병 잇잖아. 열병, 그거 해부난 다 누난, 신촌에 우리 할마님은 난데어시 계란을 막 먹으렌허여. 말젠 그것이 사돈 상한병 걸리민 막 귀퉁곶본텐, 우리할마니 썩은 오즘에 솟안 멕인거라 나, 거난 안걸렛젠허는거라. 방법으로 먹이ㄱ렌, 거난 난데어시 나만

102007 @ 할머니가? 물질허렌 막 육헌 할머니?

102007 #1 응. 그 할머니가 방법으로 먹으렌헌거게.

102007 @ 그추록 열병걸런 다 돌아가션마씨?

102007 #1 아니 다 살안,

102007 @ 보리가 차가운 성분이주게.

102007 #1 계난 씨아방네도 그런 열병에도 살아나더라. 자이네 아방도 열병걸리고 다 걸런 다, 겐디 난 안걸런게, 그 우리 할머니 방법을 해부니까, 고찌 강 그디 강 살아도,

102007 @ 뭘 먹으난 효과가 이십데가?

102007 #1 그거 우리 할머니 말이 오즘잇잖아. 사람 썩 오즘, 그것에 그 계란을 솟양 멕이ㄱ렌, 거니까 넌 안 걸리거렌, 방법으로, 계난 그건 중 알민 나가 먹나 추접허연 안 먹엇지, “아이고 씨집이 강 살젠허난 고생헛저 마 이거 계란이”

102007 @ 뭇년을 시아버지 씨어머니 모신것파?

102007 #1 가며오며이 베랑 안 살앗지. 그자 갓다왔다,

102007 @ 아, 조천에?

102007 #1 갓다왔다만 허멍 살지 안허고, 자네 아방 군인 가불고 해부난,

102007 @ 군인 가불고 아저씨 이쪽으로 와불엇수과?

102007 #1 아저씨도 나 신촌사난 이레 와불고,

102007 @ 아 어머니 아버지 내부ړ 뵙 이레 와부런 가까우니까?

102007 #1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엇네.

102007 @ 씨어머님 씨아바지가 다 죽어불언?

102007 #1 응, 군인 간 왕보난 가시어멍덜도 두 개 죽어불고, 지네어멍, 지네아방도, 하르방 하나 살아났구나. 하르방 하나 살안 각시언영 살단에 죽어부런,

102007 @ 능력좋다예?

102007 #1 하르방 능력도 좋아원

102007 @ 각시 안 얻어시민 삼춘?

102007 #1 들앙 살아야지 그 할망이 십년을 들앙 살아서,

102007 @ 아이고야 고마운게게,

102007 #1 게난 아방 못 얻게, 다 늙은 하르방 구신 말으젠 헨젠 막 싸완, 아방이영 막 싸우난, 나가 내불렌, 가속이 가속인데 내가 해주커매 ㄱ만이 내불렌 허난 “너 떡분이여. 너 떡분이여” 원망 들었저. 거난 할망 언짢내부난 막 종안, 10년을 들안사니까, 아이고 막 펜안해연게, 난 막 펜안해연.

102007 @ 결혼을 어떻게 웬것파? 중매파? 결혼을 어떻

4.3스건에 만딱 스나이덜 막 죽고, 스물여덟에 우리집 사람을 만나서,

102007 @ 어디 신촌에서마씨? 원래 신촌여자?

102007 #2 응 신촌여자, 만나서 스물아홉에 딸을 낳고 서른둘에 아덜 낳고

102007 @그른 군대갓다왕 아덜 낳았구나예?

102007 #2 군대갓다왕 저 아덜은 낳고 군대가기전이 딸은 낳고,

102008 @ 사주는 보셨습니까?

102009 @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로는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습니까?

102010 @ 세상에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2011 @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결혼 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1 #1 그때 사진이 어딘나? 우리 사진 어서서.

102011 @ 사진 못 찍었고예.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사는 거? 신랑집이서 시집은 가서,

102011 #1 가서 그냥 신촌리더레 왔지

102011 @ 거기서 메칠 살고?

102011 #1 아니 신랑이, 저 와홀이엔 헌디 본 태생이라. 경헌디 거기서 신랑이 조천 내려왔드라고 내려왕 거기서 이제 결혼행으네 나가 이 해너라부난이, 해너라부난 바당에 종사허젠 이디 오난 신랑도 ㄱ짜 딱라왕 그냥 살아서

102011 @ 그른 바로 결혼하자마자 신촌에 왕 살았구나예?

102011 #1 결혼은 조천서 허곡, 남자가 조천이니까 조천 내려왔자나. 내려왕 헤어서 나가 해너로 물에 들젠 거길 못가서. 왜냐면 남자도 날 딱라완

102011 @ 딱라완, 그른 어머니랑 같이 산 것파? 따로 집을 빌었수파?

102011 #1 따로 집 빌어서. 남의 집 빌언

102011 @ 남의 집을 아예 하나 빌언?

102011 #1 아니 작은 방  
 102011 @ 작은 방 하나만?  
 102011 #1 집이 어딴냐? 그때 작은 방, 이 통차집이 어서서. 바끄레도 엇고이. 그  
 뎌 초가집덜이 요만씩허고, 또 방도 요만씩 허지 안나? 요만씩헌 방 저 아래 바다  
 조끄떠 빌언 살안.  
 102011 @ 늬 사는 디 옆방  
 102011 #1 으 큰 방에는 주인 살고, 우린 작은 방  
 102011 @ 주인은 혼자만 사는 사람?  
 102011 #1 아니 둘이 사는 디 신랑은 군인 가부니까,  
 102011 @ 음, 그렇게도 살았구나예?  
 102011 #1 응. 늬의 집.  
 102012 @ 게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믄 바로 3개월만에 아저씨가 군인 가  
 부난, 애기가 어시 있단,  
 102012 #1 어시, 간 온 후에,  
 102012 @ 멧년 살앙 왓수과? 간 3년 살앙 오난?  
 102012 #1 3년, 지원행 해병대로 가오랏자나.  
 102012 @ 삼촌이 그때가 스무살?  
 102012 #1 아방이 지원, 해병대로 지원행 간, 3년 살안 완, 이제 큰 딸 나앗  
 지.  
 102012 @ 큰 딸이 멧년도에 난거라?  
 102012 #1 나가 스물여섯에 나니까,  
 102012 @ 스물여섯에 큰딸 낳고, 해병대에 3년 갔다왕 여기서 바당에 일했수  
 과? 그냥 여러 가지 일들?  
 102012 #1 응. 아방은 남의 밧, 밧이 어시니까 남의 밧 빌영 농스행 밧디 가고,  
 나는 바당에 가고, 그렇게 행 살아서.  
 102012 @ 딸은 누가 돌봐쥬? 외할머니는?  
 102012 #1 그때 우리 외할머니 산때난 할머니가 봐쥬, 그렇게 힘들게 우리 살아  
 서. 죽기 아니민 살기로,  
 102012 @ 외할머니는 해녀 안했고예?  
 102012 #1 외할머니도 해녀야.  
 102012 @ 아 외할머니도 해녀 이모도 해녀?  
 102012 #1 이모도 해녀,  
 102012 @ 엄마만 해녀 아니,  
 102012 #1 엄마만 해녀 아니. 엄마 나 욱은 후젠 해녀질 허는거 안봐서. 안허고,  
 102012 @ 엄마만, 어머니 멧살에 돌아가쥬수과?  
 102012 #1 나가 스물 둘에, 스물셋에 돌아 갔구나  
 102012 @ 애기는 봐쥬쥬다. 첫애기는

102012 #1 아니 못뵈 돌아가선. 결혼해연에이,  
02012 @ 스물여섯에 큰딸을 낳아부니까  
102012 #1 스물셋에 결혼해연에 스물넷에 어머니가 돌아가부런. 스물넷이랑 마랑  
스물셋에 돌아갓구나.  
02012 @ 외할머니가 오래 살았구나예  
102012 #1 우리어머니가 스물셋에 돌아가선. 그때 당시에는 먹을것이 어서서. 겨  
른 너무 가난해영 사니까 이제 남의 밭 빌영 뺑작을 허면 반을 갈라 아사불어. 우  
리가 전부 당행은 삼분에 일 허고 또 반반 당행은 바로 갈라아사부러서. 그른 열섬  
을 벌어야 반 갈르민 닷섬이고 또 그냥허면은 혼 석섬반쯤, 임제따로 삼분패 해  
가지고.  
102012 @ 아이들은 육남매를 뒀덴했지예?  
102012 #1 응. 육남매  
102012 @ 멧술 터울, 큰딸낳고?  
102012 #1 우리 큰딸이 스물여섯에 나고  
102012 @ 두 번째 들이 ?  
102012 #1 두술ㅁ지니까 스물여덟에, 세번째는 또 세술차이라  
102012 @ 서른 헉나에 낳고,  
102012 #1 응 또 네 번째는 큰아덜, 이제 원셋, 원넷인가  
102012 @ 다섯 번째는 또 아들이파?  
102012 #1 응  
102012 @ 오십하나, 말띠.  
102012 #1 그 밑에 딸,  
102012 @ 여섯 번째가? 막내딸이?  
102012 #1 응  
102012 @ 거기가 지금 멧술마씨?  
102012 #1 이제? 이제 서른 여덟 득해치  
102012 @ 늦게 낳네.  
102012 #1 마지막  
102012 @ 계난 많이 늦게 나서.  
102012 #1 야이광 세술 차이나냐  
102012 @ 게른 마흔여덜, 서른여덜이 아니고  
102012 #1 맞아 마흔여덜, 가이가 마지막으로,  
102012 @ 지금 마흔여덟예. 삼촌이 마흔여섯에 났덴 해신가?  
102012 #1 응 경 나져실거라.  
102012 @ 아이구 세상에  
102012 #1 그 애기이, 죽어불렌 현이. 그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죽어드라게  
죽어드라게 경해도 절대 안죽어. 아파도 내불어도 살아나데. 약도 안허고 침도 안마



천. 경해도 죽으렌 막 밧가운디 강 내불민 빨강케 카도 살아난 거 아니라. 그것이 그 딸이 효자라. 삶이 삶이 아니자나. 가이가 어서시른 일이라도 다니고 바당에도 땀길건디, 여유가 어서부난게 밧디도이 애기 구덕이 헐어부니까 못 아전가난 7  
늘채 잇잖아. 검질 담양 내치국 걸름 뿌리는거. 그것에 담아그네 밧디강 내불어. 내불영 허민 이불포 해다그네 영행 청 내불민 그냥 보르르 걷어져그네 왕보른 발강케 그냥 헛득헛득 게난 이제도 까망허잔아. 그 어린때 막 케와나부난. 그렇게 힘들게 산 사름이야. 애기 봐줄 사름 어시니까

102013 @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은 조천에 이서부난.

102013 #1 우리 시어머님이 결혼헌 후에 돌아가부렀어. 허니까 씨아버지가 조천서 뜰마누라 정행 살았주. 경해도 그후에 그 마누라가 돌아가부렀나 어떻게 허니까 그 후로 우리신디 왕 살다가 또 할망 정행 뜰로 살고. 우리 씨아버지가 혼 거의 구십 난 돌아가셔실거라. 팔십팔인가 구십인가 허난 돌아가실거라. 늙언 돌아가서.

102013 @ 경허난 장례도 다 외아덜이난 다 치릿겇다예

102013 #1 다 우리가 허지 누가 있나. 우에 형 죽어부렀지, 누나 죽어부렀지, 아무도 어시니까 우리만 우리가 다 했지. 그때는 뭐 쓸이 잇나. 영장을 허젠 해도 쓸이 어시니까 이제 우리 돌아간 이모가 쓸, 근쓸 닷말 사다권 걸로 허고이, 돼지고기 살 돈도 어시니까 콩국 끌려서 거 장스했잔아.

102013 @ 콩국도 끌영 장례식도 험니까

102013 #1 야, 돼지고기 살 돈이 어시니까 콩만 혼 두관대만 골민 걸로 국끌령.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며는

102013 @ 혹시 장례식에 영 아는 사름덜 오면 콩국하고 밥을 대접했다는거?

102013 #1 아, 밥을 맥여야 그 사름덜 일헐거 아냐. 그때는 이,

102013 @ 부주허레 오는게 아니고 일단 저 장례식 치를 사름덜안테 밥을 맥여야 되니까

102013 #1 그 사름덜 맥여야지. 일허젠 허든 그 사름덜. 이제덜은 이 뉘빌영 돈 주민 그때당시엔 공짜로 일덜 허여 다, 밥만 맥여주민 공짜로 다

102013 @ 인정이잔아예.

102013 #1 인심이 좋아. 동네에 고기국 끌려도 왕 밥먹으렌 허영 막 돌아당 맥이 꼭 어여. 원 그렇게덜 인심 좋아나서. 도둑도 엇고, 그때는 이, 이만이 현 우리발로 두발은 현 냥이 있어. 거민 영 나가는 올레가 있어. 그디 딱 노민 사름 어신 집이라고 해서 근처에 가도 안해여. 그렇게 도둑도 어서.

102013 @ 나뉘먹을 줄도 알고

102013 #1 응. 거 냥이신 집은 사름 어신 집으로 알고 들어가도 안해서. 거난 성냥도 어시니까 남의 집의 연기 나가민 그디 강 불 담아다가 밥 헛잔아. 혼 밧디만 연기 나가민 다 불 담으레 와. 성냥이 어시니까. 그렇게 힘들어. 우리 맨발에 다녀 나시난.

102013 @ 뱃살까지?

102013 #1 우리가 그때는 혼 열 살을 넘어 뱃살로 땡겨서. 학교에 들어갈 때깁지. 들어간 후에사 우리 어머니 운동화 사더라고. 뱃살에 땡기단.

102013 @ 아이구 돈도 엇고예

102013 #1 야, 공책 하나 사줘이. 공책 하나민이 연필로 써 이. 체얌. 그답은 이런 볼펜으로 써잔아. 그 다음은 붓으로 씌여. 붓글 쓸때는 붓으로 걸 쓴다고. 공책 하나에다가. 이런 공책도 힘들어, 사젠 허면은. 그니까 원가 뛰는걸 잘 뛰니까 일등이면 삼등 세 번만 들른 여섯권. 거른 일년 써. 공책 세가지, 여섯권.

102013 @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예.

102013 #1 달리기는 리레이에서도 나 이 () 이십 전장허는거. 걸 벨로 쫓잔아. 뛰는걸 그렇게 잘 뛰어. 항상 일등만 허잔아. 저 조천도 강이 리레이 선수로 뽑아가고 뛰는 걸 그렇게 잘 뛰어. 이제도 뭐 우리 춘배에 낡 뛰른 내가 일등이지, 이제도. 암만 다리 아파도 그 할망덜 건지 못행

102013 @ 운동신경이 좋은거라. 경허난 바당일도 그치록 잘 허고

102013 #1 바당 십이미터 들어가. 저기 요디 잇잔아. 이렇게 현거. 기념으로 우리 작은아덜 야, 너 셋살에 영 당그민 숨 쉬어지나 못쉬주. 이거봐라. 이디 나가 들어가났다. 전복을 테어야 돈이 왕창 벌고 소라같은건 돈 안줘. 그 전복 텔라고 막 먼 델로만 땡건. 게난 아무도 밝히도 못헌게 숨 졸란. 난 숨이 질어. 십이미터 뭐 보통 들어간덴 허난.

102013 @ 씌어머니허고 싸우는 건 없고예?

102013 #2 전혀 없어. 우리집 아이 어명이 원체 순해.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다까?

102014 #1 자식들, 하이고 어떻사 현 결혼해져신가.

102014 @ 연애결혼덜 헐?

102014 #1 아니 우리 큰딸은 중매결혼이고, 셋딸은 연애결혼이고, 말쑤딸도 연애결혼이고

102014 @ 다 츠레츠레 결혼해수과?

102014 #1 어, 큰딸만 연애결혼 안행, 판것덜은 다 지대로 결혼헐 연애허연

102015 @ 사위덜은 어떻습니까? 다 좋아?

102015 #1 사우덜이 다 좋아. 아덜 담지 아년. 큰 사우도 경 좋고, 셋사우도 말쑤사우도, 말쑤사우는 경 좋은 사름 죽어불곡. 사우 네겐디 세 개배끼 안남안

102015 @ 세 번째딸

102015 #1 응, 세 번째 사우가 아판 죽어부런. 제일 항상 돈을 그 사우가 잘 줬는데. 죽어부니까 지갑도 텅텅 비고 그 사우만 살아시른 돈을 항상 지갑에 놓는다. 다른 사우덜은 자기네 먹고 바쁘니까 주고 싶어도 주질 못허지.

102015 @ 애기들도 손지방상도 어마장장 허쿠다.

102015 #1 우리? 친척도 엇지. 아방이 혼자로만 사니까. 동성도 엇곡.

102015 @ 계도 큰딸에 손지 뻘명?

102015 #1 외손지가 세명, 두 번째딸이 두 개, 세 번째 딸도 두 개, 네 번째 딸은 하나. 또 이제 큰아들은 아덜만 세 개. 작은 아들은 오누이. 저 군인 흥나에 딸 흥나 허연.

102015 @ 큰아들은 같이 계속 살았수과? 신촌에?

102015 #1 응, ㄴ치 쪽 살안

102015 @ 것도 복이우다게.

102015 #1 쪽 ㄴ찌 살안.

102015 @ 육지 보냈으네 거기 사람 만났 사는 사람도 많고

102015 #1 아니, 우리 아이들은 아덜도 제주사름만 허고, 야이도 제주사름만 허고, 딸덜만 육지사름.

102015 @ 아, 딸들은 육지사위덜?

102015 #1 세 번째 딸만 이덧사름, 그 나머진 다 육지사름. 지네냥으로덜 연애행덜 강

102015 @ 육지에서 복종게덜 좋은 제주사름덜 만났구나게.

102015 #1 복종은디, 복엇는디, 이덧 애기가 못전디어. 우리 말쑤딸이 병원에 돌아가지, 돈 당허지, 나는 뭐우파 돈은 돈대로 당허고 일은 일레도록. 어떻게 스정해야지. 거 세 번째 딸이 지일 힘들엄지. 그냥 아파가민 아이가 돌아와. 어젠가 그저게도 나 병원에 들앙간.

102015 @ 시내 살았수과?

102015 #1 응, 시내.

102015 @ 그래도 어머니가 있는게 의지가 되주게. 아무리

102015 #1 응, 막 어머니 건강해사주. 건강협생 허민 아이구 나 빨리 죽어야주 아니우다 그런말 허지맙서. 어머니 어시든 누게고라 어머니영 험니Rps 허명 아이덜이 다 착해여. 효자라, 효자. 애기덜이. 나가 자랑을 안허난 허염주. 자랑을 안허난

102015 @ 고생헌 보람이, 그 아이덜 때문에

102015 #1 뭐 대답허는 애긴 흥나토 어서. 나 대답햇당은 이 성질나쁜이 몽둥이로 무시거, 이제 늙은 아덜도 아시당 꼬자. 절대 대답못해여. 나가 그냥 신경이 날카로와가지고. 그냥 해이해질라든 신경질만 막 나난. 그것이 쿠세돼부런. 호썸허든 팔딱 팔딱허연. 야 바당에 가보라 신경 안쓰나. 그날 재수가 조면은 아니허고 아무것도 못헌 날은 신경이 막 화륙화륙. 집에 와도 마찬가지. 게난 아방이 뭐 재산이 잇나, 무신 기술이 잇나

102015 @ 걸로 살았으니까

102015 #1 거난 늙의 밧 병작허단 병작 아니되민 번쩍 손 들르꼭 그렇게헨 이 바당에서만 산거야. 바당에 강 와야 아이덜 차비도 주고 뭐 학비도 내여주고, 바당에서만 살았어.

102016 @ 이밖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3. 밭일

####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 자 이번에는 예, 밭일,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밭일 중에 보리농사에 대한 이야기우다예. 보리농사 지어봤지예? 신촌에 보리농산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얘기우다예.

103002 #1 보리가, 이제는 부넘 잇잔아. 옛날은 부넘이 어섯어.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어떤 준비가 허나. 나 보리 빼여그네이 보리빼여가지고 꼬실퀴라 헛거이서 소나무 해당 만들어그네 이렇게 꼬서가른 걸로 민짱 더껴져

103002 @ 섬피가 아니고 꼬실퀴?

103002 #1 꼬실퀴. 꼬스니까 꼬실퀴라고 해. 응 걸로 덮어. 소나무 꼬쳐다그네 만들앙 메 이만이 무경 돌이, 돌 지들환이, 막 곳잔아. 경해사 그것이 켜켄허게 보리가 묻어지지 경 안허문이 나오른 가마귀 다 좇어먹어부러.

103002 @ 아, 까마귀가예.

103002 #1 그렇지. 게문 나 보리가 안되지. 다 주워먹으른 나지 못해가지고. 게문 그걸로 더꼬잔아. 막 곱베옌 헛 것이 이서이. 걸로 병에로 막 두들고, 보리씨 이제 감추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살았다 우리.

103002 @ 보리 하나씩 질문이 틀려예.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103002 #1 이제는 그냥 잇주마는 그뎌 부넘 어서서이.

103002 @ 부넘? 부넘이 뭇과?

103002 #1 보리 부넘 잇잔아, 거르는거. 부넘 몰라? 보리왔디 들이는 부넘. 아냐냥밧디도 부넘 안들이나? 미짱밧디.

103002 @ 미짱밧디도 부넘 허여?

103002 #1 그렇지.

103002 @ 부넘이 뭇파?

103002 #1 걸름이야 걸름.

103002 @ 걸름을 부넘이랜 허여?

103002 #1 그렇지.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2 아, 첫째 뽕비쥬 뽕.

103003 @ 보리밧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부넘이랜 해예. 여기서는예.

103003 #1 경허고이, 돼지 이, 돼지 길루와그네 돼지 똥으로도 걸름허곡, 소 말 길

루왕 걸로도 걸름허고

103003 @ 걸름을 어떻게 허는 방법을..

103003 #1 무싱걸로? 돼지를 길루젠 허든 보릿대 잇잔아. 보릿낭, 그걸 막 담아놔. 담아노민 이제는 화장실 쓸. 그때는 돼지가 똥 먹었어. 돼지 질루와가지고 이제 그 돼지가 해민 이제 그 돼지 동시에 걸름 내여. 걸름 내여그네 그거 이제 좀

103003 @ 어디 놔둬?

103003 #1 이 이런디 내뒀. 응 조꼐디. 무거왕 먼디 들러가지나게. 통시에꺼 막 무거운건디.

103003 @ 거 누가 해마씨? 남자덜이?

103003 #1 아방이. 아방 산때.

103003 @ 글갱이로?

103003 #1 거 걸름이신 사람은 밧 빌려주고 경 안헌 사름은 안빌려줘. 집에 그거 뿜으네, 것도 허고 또시 바당에 곡제기 즈물아다가

103003 @ 곡제기가 감테 달믄것과?

103003 #1 감테보단 좀질아.

103003 @ 바당에 곡제기. 그것도 걸름이 되는데 그냥 생으로 헵니까? 물류왓당 거름을 헵니까?

103003 #1 늘것이 좋지만은 힘들어. 물류왕 들이지.

103003 @ 물류왕 낫당, 늘영낫당?

103003 #1 응 경했다그네 보리 갈아나쁜 그 우터레 다 낫아.

103003 @ 거름에 똥비?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03 #2 옛날에 이 우리 소 똥 메는디는 마굿간에 쓰는 똥비를 쓰고 돼야지 우리에서 또 여하튼 똥비 쓰고 돼야지 길르민 밧은 먹으면 곡식이 잘되니까.

103003 @ 삼춘은 거름을 도세기 거기 통시에 다

103003 #2 아 저 남군엔 보리가 그걸 막 마당에 놔가지고 다 남군은 보리씨 빼어서 불화가지고 허는데 그런거 잘웨민 보기 좋습니다. 아주 농사를 지어보민 자미날 때가 잇어요. 자미이실때가 잇어요. 그니까 거름을 잘하고 관리를 잘허면 춤 잘 댈 때가 잇어요.

103003 @ 그러면 밧을 갈멍 거름을 헵니까? 씨를 뿌리멍 씨를 먼저 뿌립니까? 거름을 먼저 헵니까?

103003 #2 밧 갈아 놔서 거름 막 뿌리고 씨를 우린 그자,

103003 @ 거름 뿌리고 씨를 뿌려마씨?

103003 #2 거름을 미럿 줘야주.

103003 @ 예. 거름을 미럿주고, 바로 그날에 합니까? 당일날에 밧가는 날에?

103003 #2 가까워오민 그자 이삼일전이 거름을 뿌려두고,

103003 @ 걸름도 똑같이 헵니까? 맥주보리나 술보리나?

103003 #2 그니까 똥비를 저 많이 잇으면 좋고, 뭐 이 저 화약비료만 많이 잇어도

웨긴 허는데 조끄만 해도 웨비만은 못허쥬.

103003 @ 삼촌은 보리농사 허는 걸 누구한테 배웠덴 생각했수파? 아버지, 어머니?

103003 #2 거 저 남허는 거 봐서 했쥬 뭐,

103003 @ 멧슬부터 이거를 어머니 도웨고?

103003 #2 어린 때는 농스를 전혀 아니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후에는 예일곱슬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생각을 했쥬.

103004 @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잡니까?

103004 #1 어떻게 ㄴ냐. 콩 있잔아. 거 그레 이제 보리덜 다 갈잔아. 이제 곧 시기야.

103004 @ 지금이 멧월달이파, 음력?

103004 #1 음력이 구월달 아냐? 시월 나민 보릴 갈아. 음력 시월달

103004 @ 음력 시월나면 보리 갈아예?

103004 #1 응

103004 @ 콩그루?

103004 #1 콩그루나 뭐 보리그루나 건 뭐 되는데로

103004 @ 누가, 소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남편이 잡니까?

103004 #1 그렇지. 소 길텠

103004 @ 소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잡니까?

103004 #1 아, 어떻게 가냐. 소 몰아가지고 거 밧가는 거. 거 췌가 있어. 녁작헌 거. 짓고라

103004 @ 쟁기, 잠대?

103004 #1 맞아, 잠대. 잘 알암신게 잠대, 그걸로 갈지. 소몰아 아정간

103004 @ 같은 여자들은 뭘 헉니까? 보리를 빼어?

103004 #1 여자덜은 부념도 허고

103004 @ 부념은 거름을 바로 우의로? 골체에 담양?

103004 #1 부념 잇잔아. 골체에 담양 허는 건 걸름.

103004 @ 골체에 담는 건 걸름이고

103004 #1 부념은 뭐 바구니나 세싸리나 아저당 빼는거. 부념은

103004 @ 부념은 씨 뿌리는것과?

103004 #1 아, 씨도 경행 뿌리곡 그냥 부념도 경행 뿌리곡. 부념이 웃부념 잇고 알부념 이서. 요소, 요소 부념. 알부념은

103004 @ 아, 비료 말하는 거?

103004 #1 거 부념, 걸름. 걸름은 돼지 통시에 난 것이 걸름이고,

103004 @ 부념은 비료?

103004 #1 어 비료, 비료

103004 @ 비료를 웃비념, 알비념?

103004 #1 그래. 알비념 잇고 옷비념 잇지.

103004 @ 아, 비료는 사당 허는거 아니예?

103004 #1사와야지.

103004 @ 부념은 비료구나.

103004 #1 농협에강 사다그네. 농협으로 나오잔아.

103004 @ 옛날 아주 더 옛날에는 부념 안했지예.

103004 #1 안했지. 돼지 통시켜허고 사름이 오줌 싸잔아. 그것을 허벅에다가 질어  
가지 고 세싸리에 아시다그네 검질매당 올뎐 걸로 밧디 보리더레 뿌려동 와.

103004 @ 그 진거를. 거 썩어야 되지예? 썩은거? 썩은 오줌?

103004 #1 오줌향 잇잔아. 오줌받은거 걸로 질어다가 뿌리지.

103004 @ 보리씨 뿌린 우에?

103004 #1 보리 나기 전에도 뿌리곡, 난 후에도 뿌려.

103004 @ 아, 그게 어떻 뿌립니까? 그냥 팔락팔락?

103004 #1 아니야, 이렇게 허벅 잇잔아, 오줌허벅. 부려가지고 검질매당 나올뎐 오  
줌허벅 물구덕에꺼 이레 내료왕 이레 팡팡 부어가지고 삭싹 뿌리지. 경허민 뿌려난  
딘 폐적을 허여. 왜 폐적을 허냐든 듯날 몰라. 게난 거 무신 바당에 곡제기 ㄱ뜯걸  
막아아정 갔다가 걸로 영 ㄱ리영. 경허명 살았져 야야, 그뎐 기계가 잇나? 보리 비  
영 도깨로 두들어. 드레긴가 뭔가. 그걸로 두들어놔자 말제에 돼가난 보리태작기계  
나왔주. 고 고고리 게문 쫄 어시면은 보리 익어가민이 좀 쫄이 영 벌겨가민이 그  
할마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영 ㄱ까가지고 집의왕 덕석에서 이렇게 밧로도 블  
르고 손으로 난 허는 거 밧지. 부비다가 그놈을 이젠 솟디 물냥 솔마. 솔마가지고  
건져그네 덕석 거 너는 명석 그것에 몰류와. 몰류민 이제는이, 그거 몰류민 이만이  
헌 멧돌이서 사름 대엿개 돌아져야 그걸 곶아. 것에 해다그네 몰류왕 멧돌로 영 벌  
렁 밧도 행 먹곡, 죽도 썩 먹곡 그렇게 헐.

103004 @ 익으믄예. 익기전에?

103004 #1 아니, 보리 장만해, 보리. 보리가, 쌀이 색깔이 물긋물긋 해가민 영허믄  
부허믄 그때는 이제 우의로 호미로 툭툭 해다가 할마니가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이  
제 그놈을 막 물렁 부벼가믄 빨리 물르라고 솟디 낱 솔마. 경행 건져내영 또 몰류  
왕으네 경해영 이젠 ㄱ레에강 둥글러당 몰류왕 또 돌 돌 것ㄱ라 뭐 ㄱ레 멧돌, 걸  
로 이제 곶아그네 홀근 놈은 밧행 먹곡, 준거는 죽썩먹곡,

103004 @ 보리죽?

103004 #1 응. 그렇게 해연.

103004 @ 보리죽 쫄뎐 뭐 놓지 안헐니까?

103004 #1 뭐 아무것도 안행 그냥 쭈주. 할마니가 햏주, 우린 그런거

103004 @ 보리가 어시믄 어떻 살아서예.

103004 #1 게난 이제 속아파 이런 좋은 세상에 좋은 옷에 좋은 밧에 먹단 돌아가  
시민 혈건데 먹으멍도 속이 아파.

103005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1 어떻게 뿌냐. 이렇게 그 씨 멩텅이가 이서 요만이현. 영해그네 저 산디 쪽으로 할으버지덜 요만이 허영 영 매는 것이 잇어. 메 테레 비에 안나웁. 그걸로 해여다가 삭삭, 메영 막 뿌려.

103005 @ 삼촌도 뿌립니까?

103005 #1 나 안빠여.

103005 @ 남자가?

103005 #1 아방이 뿌리주. 거 아무나 못뿌려. 가는 딴 가곡, 안가는 딴 아니가잔 아. 선수덜은 다 쪽 골르게 뿌리는데 우리는 찌룩탁 찌룩탁 허멍 가는 딴 가고 안 가는 딴 보리 안나.

103005 @ 아무나 뿌리는게 아니로구나.

103005 #1 거, 그래.

103005 @ 여자도 잘 뿌리는 사람은 잘 허고.

103005 #1 잘 뿌리는 사람 잘 뿌리고, 우린 안해, 못해.

103005 @ 해녀 일이 더 잘했다는 거지예.

103005 #1 해녀만 허니까 그런것도 잘 안허고, 아방 대목허지.

103005 @ 아저씨가 잘 했구나예

103005 #1 응. 겐디 아저씨가 검질을 못매요.

103005 @ 무산고예. 남자들은 검질을 잘 안맴디다.

103005 #1 안해, 안해여. 아취 아취 안해. 다른 일은 해도 검질은 못매젠.

103005 @ 제주도 남자덜 다?

103005 #1 어, 어, 매는 인 잘 매여. 겐디 우리집윗 애기아빠는 절대 안허젠. 못허 켜. 허리아프고 무릅 아프고 다 정허멍 햄젠 해도 들은체도 안해여. 안해 안해. 검 질 안매여봤어.

103005 @ 이삼일전이 거름을 뿌려두고 씨는 누게가 뿌립니까?

103005 #2 거 각자가 다 아무라도 뿌리주. 잘 뿌리는 사람은 골고루 꼭 나고 잘 못 뿌린 사람은 나는딘 폭삭나곡 안 나는디 안나고, (테레비 꼬쿠다예)

103005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2 보리씨도 모든 씨가 보리씨 아니라, 콩씨, 보리씨, 풋씨 뭐 다 마찬가지로 보릿방울 나가는 것을 봐서 던져야지 던진디 또 던지곡 그러면 안웨고,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 솔보리여 맥주보리여.

103006 #1 맥주보리 허고 솔보리.

103006 @ 겐보리는 뭐파?

103006 #1 겐보리가 맥주보리지.

103006 @ 아, 겐보리가 맥주보리

103006 #1 그놈의 거는 그레에 골아도 격적이 잘 벗어지질 안해여.

103006 @ 곡췌기?



103006 #1 겁적, 겁적. 벗어지질 잘 안허는데 오래 곪아야 벗어지지 술오리는 빨리 벗어지곡. 겉보리는 힘들어. 뱃기젠 허믄. 물에 그 보릴 등갓다가 곪잔아.

103006 @ 겉보린예.

103006 #1 으. 큰 맷돌 이, 혼 대여섯씩 둥글리는 거 큰 돌, 그것에서 강 곪아.

103006 @ 돌ㄴ레 아니?

103006 #1 돌 돌방엔가. 그난 돌로 ㄴ니까 돌방에로

103006 @ 돌로 ㄴ니까 돌ㄴ레엔도 허고예

103006 #1 돌방에, 돌방에

103006 @ 그믄 술보리, 맥주보리가 있었고,

103006 #1 맥주보리가 겉보리고 겉보리가 맥주보리고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103006 #2 우리가 겉보리는 잘 안갈아보고 맥주맥은 맥주맥허고 술보리.

103006 @무사 겉보리는 안갈아마씨 맥주보리는?

103006 #2 맥주보리는 주정도 허고 겉보린 겉보린데 맛도 잇고

103006 @ 밥도 해먹어마씨? 맥주맥이?

103006 #2 밥도 해먹을 수도 잇고, 저 전분으로도 헐 수 잇고, 맥주도 만들고 뭐 주정도 허고 뭐 아주,

103006 @ 술보리를 더 많이 헵니까? 맥주보리를 헵니까? 술보리는 밥 행 먹는거파?

103006 #2 술보린 식량으론 최고죠.

103006 @ 맥주보리는 풀려고 허는거고예?

103006 #2 맥주보리는 그 상인들이 사가니까,

103007 @ 예, 보리밭 밟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밭 밟는거. 겨울에, 저실 들민.

103007 #1 그게 밋으로 가지. 밋이 존 밋은 아이 불려도 되어. 나쁜 밋은 이, 불려야 혀. 경 안허민 보릿밭 다 들러부렁 죽어부러.

103007 @ 보릿밭 다 들러부렁.

103007 #1 으 폭삭폭삭허니까 밋이 존 밋은 안불려도 되곡. 뜯밋은 이, 불려야 혀.

103007 @ 뜯밋예. 신촌도 불려수과, 많이?

103007 #1 불리지. 그 뜯밋이 잇어. 존밋은 아이불려도 되고.

103007 @ 삼촌도 뽕아봐수과?

103007 #1 나는 안불려봐서. 아방이

103007 @ 막 아이덜 데령강도 불리고?

103007 #1 아이구아이구, 흑교헉젠 허믄 안들앙가고. 아방이 거 무신 물이나 무싱거 아정가곡 불리주.

103007 @ 툄 그런거 가정강예. 뽕앙왓덴 ㄴ르곡?

103007 #1 안불려도 되는디이, 밋이 나쁜 밋은 불려야. 이 보릿밭이 죽어부러.

103007 @ 눈올 때 블라? 언제 블라?

103007 #1 것이 혼 이월달 삼월달 나가믄 블러야지.

103007 @ 이월이나 삼월달에예.

103007 #1 음력으로. 난 양력 안세. 음력으로.

103007 @ 보리밭 밟는 거 겨울에 해 봤수과?

103007 #2 보리밭 밟는 거? 부락근처 보릴 갈면 그 보리밭디서 연을 떠와 막 아이덜이 모여서, 그 밟디 보리가 그렇게 잘돼어 밟으민 잘돼어..

103007 @ 정월, 겨울?

103007 #2 정월달에 보통으로는 정월브름에 연을 술아없애니까 그전에,

103007 @ 정월브름에 연 날렸던 거 다 술아부러마씨?

103007 #2 정월브름에 술아요,

103007 @ 처음보는 풍습이다예, 몰랐는데,

103007 #2 밟임자덜도 말 안해. 보리밭데 다른디 돌아댱겨도 견디 보리가 잘돼어. 사람이 블봐주면,

103007 @ 이밭 저밭 다닐수는 잇겟다예?

103007 #2 놀러 갈 수 잇는 밟이나 가지 아무 밟이나 못가지. 이 가까운디

103007 @ 그때가 뭇 살때파? 연 날리곡 혈때가?

103007 #2 일곱술로 열다섯 안이쥬.

103007 @ 일곱술로 열다섯 안, 그믐 그 연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103007 #2 아 연은 뭐 우리대로도 만들고 또 잘 만드는 사람한테 대는 잘 가까가지고 부쳐야, 그 연이 잘 뜨고, 뭐 이레도 가젠허믄 가고, 저레도 가젠허민 가고, 연도 그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잇어요. 잘 만드는 사람은 잘 만들어요.

103007 @ 삼촌은 잘 안 만들엇수과?

103007 #2 나는 잘 만들진 못허고예.

103008 @ 그럼 보리밭 검질매는 거는 몇 번 합니까?

103008 #1 두 번.

103008 @ 두 번? 초불 두불?

103008 #1 응.

103008 @ 식불은 안맵니까?

103008 #1 세불도 매는딘 맥주마는 바빵 매어져. 딱 두불 맴민 되어.

103008 @ 그럼 보리밭 검질도 맴봤수과?

103008 #2 아이 나 검질은 못매엇어. 앓아서 허는 일 허리 아파서 못해. 그 어린때부터, 그니까 검질매다가 나 도망도 가고, 아버지, 어머니 꺾치 검질매라고 허니까 밟디강 아잣다가 어머니, 아버지 못 보는 틈에 도망도 간적이 잇고

103008 @ 그럼 보리밭 검질은 몇번 맴니까 보리밭 검질?

103008 #2 두불도 메고 그거 상당히 곤란해서,

103009 @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보리밭에는  
 103009 #1 소시락쿨도 있고, 난생이검질도 있고, 또 테오리도 있고,  
 103009 @ ㄱ라지 제완지 이런건 들어봐수과?  
 103009 #1 ㄱ레조는 조 볼릴 때. 보리는 그런 거 어서. ㄱ레조 어서. 보리는 테오리, 소시락쿨, 난생이 그런거 나지.  
 103009 @ 지금은 그거 밖에 보이지 않지예? 소시락쿨 이런거 봐집니까?  
 103009 #1 새봄 나사.  
 103009 @ 뭘지 잘 몰르쿠다.  
 103009 #1 여름에는 쉼비넘이고. 이 소시락쿨이엔 현게 잘 아이 매면은 이, 그거 요물 가지민 똥글똥글 까망해 그놈의게. 밥해도 까망해 그건. 체로 아이치민 이, 밥해도 그놈의건 똑 쫓 섞은 거 ㄱ치 꺼물꺼물헛거 있어. 소시락쿨이엔 헛거. 검질 잘 아이매민 그렇게 돼불어. 검질 깨끗허게 매면 그런거 없는데 검질 두루마니 매영 그냥 초불만 땡 내불민 그런거 나와.  
 103009 @ 약해진다는 거지예. 튼실하지가 앓으니까.  
 103009 #1 약이 없어 그때 손으로만 매지. 부넘허곡, 부넘이 어시니까 오즘 허곡 곡제기 들이곡 불치, 밧 불 숨아나민 그 불치 들이곡, 오즘 들이곡, 그땐 이 부넘이 어신타라. 부넘 이신탐 이, 왕창 곡석이 많이 나지.  
 103009 @ 곡제기나 불치 오즘은 똑같은 시기에 헛니까? 씨 뿌리자마자 허는 것과, 아니면 시기가 다 잇수과?  
 103009 #1 오즘 누어가지고 오즘향이 넘어가민 이제 그냥 강 밧디 강 뿌려.  
 103009 @ 계난 씨 뿌리자 마자? 아니믄 호뎡 잇당?  
 103009 #1 오즘향이 하영 넘어가민 허곡 계아니믄 봄나가가면은 이제 검질매레 갓당 물허벅 정 가그네 올 땐 뿌려동 오곡.  
 103009 @ 봄 나민 오즘향에꺼 뿌리고 9월달부터 씨뿌령 막 오즘 놓는 건 아니고?  
 103009 #1 아니아니.  
 103009 @ 한 싹이 나서  
 103009 #1 싹 나기 전에도 뿌려. 오즘이 하영 이시믄 . 거 걸름이니까.  
 103009 @ 돛통시 걸름은 같이 갈명?  
 103009 #1 돛통시 걸름은 보리 갈명 뿌려야. 싹이 난 후젠 안갈아.  
 103009 @ 계난 어떤 사름은 마당에 저쪽 서쪽에는 마당에 무신 걸름을 행 거기에 뿌령 밧디 가져간덴 허는 사람도 십디다.  
 103009 #1 아니, 우린 경 아너난. 그냥 보리 갈기 전에 걸 뿌렸다가 이제 소로 갈 아그네 영 ㄱ실퀴로  
 103009 @ 이 땅에 먼저 걸름을 뿌린다음 또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거지예.  
 103009 #1 아니, 그게 걸름을 뿌려. 갈기 전에 뿌려. 보리씨도 그냥 ㄱ씨 뿌려불어. 경행 갈앙 그 ㄱ실퀴란 것에 영 ㄱ터부러.  
 103009 @ 뿌령 가는구나. 씨를 먼저 뿌령 갈아. 갈앙 뿌리는게 아니고.

103009 #1 갈기전엔 하나씩 뿔고 제라허게는 갈아논후에 뿌려. 헌데 보리도 여러 가지라이. 이렇게 갈아놔 골을 쳐 팽이로. 경 골보리가 있고 그냥 잡으로 아무디나 뿌려볼문 잡보리.

103009 @ 골보리가 좋아마씨, 잡보리가 좋아마씨.

103009 #1 아니 또 무시거라 똑 같다.

103009 @ 밭에 따라 함신가?

103009 #1 아니 그 골보리는 검질매기 종덴. 이 땅으로는 팽이라도 탁탁 쳐볼민 검질매민 보릿강알엿 것만 매고 잡거는 경 못허지. 그냥 쪽 ㄱ찌 보리 빼여부니까.

103009 @ 두 가질 다 했다는 거지예?

103009 #1 응

103009 @ 그른 삼촌도 검질 많이 매봤수과?

103009 #1 그렇지. 검질 아이매른 농부아니가 되나. 조팠디 검질도 매사 콩밭디 검질도 매사 보리밭디도 매사. 쪽 매잔아.

103009 @ 보리검질은 멧월달에

103009 #1 보리검질은 음력으로 이 정월들만 나가면은 매메.

103009 @ 추울건데.

103009 #1 추워도이 불 초멍. 막 눈 이신 땀 아녀곡, 눈 풀어지면은 막 그땀 뭉장잡이 잇나. 손에 막 그냥 흑 부땀으네 소락소락 아녕 눈 녹아가른 그자

103009 @ 보리가 호뭇 영 납작할 때 검질을 매주는구나.

103009 #1 응 보리가 뽕족뽕족 나잔아.

103009 @ 초불검질은 그때 매주고

103009 #1 그러게 두불 매여가면은 보리가 막 훑어가메.

103009 @ 봄되는구나예. 봄에

103009 #1 봄에 매지. 보리가 나야. 겨울에 보리 나나. 봄 나야. 아이 겐디 이 시월에 보리갈면은 보리 나.

103009 @ 눈 올 때 뽕아난 기억이 나 예.

103009 #1 우린 보리 블라보진 안해서. 거 뜬 밧디 간 사름은 블르곡 허여신디. 우린 이 밧이 엇어도 소겔름이 이시니까 존밧만 빌언. 겔름 어신 사름은 바당에 가야지. 이제 듬북즈문 사름허곡 겔름 이신 사름배끼 안빌려줘서.

103009 @ 자기네 밧 좋아지라고.

103009 #1 자기네 밧이. 우리가 돼야지 고기 먹으민 늑삭 허잔아. 밧도 그겔 맥여줘야 늑삭행 곡석이 잘나는 거라. 밧이 막 풀어진덴. 옛날엔 이, 바다에 멜 잇잔아, 멜도 뿌려.

103009 @ 막 많이 들었을 때?

103009 #1 많이덜 허. 멜 겔름.

103009 @ 생으로? 아니른 겔 겔름으로

103009 #1 생으로 밥해난 불치 잇잔아. 겔로 버무려그네

103009 @ 아이고야, 뭘하고 불치를 버무려. 게든 뭘이 막 썩혀? 썩히지 안행 그냥 썩으로?

103009 #1 썩으로.

103009 @ 냄새 막 나켜예.

103009 #1 응 썩영은 못해여. 물되어부러. 것이 이, 썩영 물 되어부러.

103009 @ 맞디 경 뿌리든 냄새났겐다예.

103009 #1 맞디는 미여지벙된 냄새 안나. 막 공기 좋은디니까 하근디, 방안에가 냄새나주 뭐 배꼇디사.

103009 @ 보리밭에는 어떤 검질들이이 자라는지 알아마씨?

103009 #2 검질이 이 보리밭데 아주 검질이 지시민 사람 막 못견더요. 나가 농사를 짓기 시작허니까 혼 뗏천평을 짓는데 보리밭데 눅을 그냥 혼 뗏십명씩 해도 검질이 남아돌아가.

103009 @ 검질이름이 대오리도 이실거고,

103009 #2 그렇쥬. 대오리도 잇고 눈 불근 사람은 대오리는 저 이파리가 짹으니까 알 수가 잇는데, 보리가 ㄹㄹ리 피어서 대오리가 그 싹이 나와야 거 들어 가서 뽑고,

103009 @ 경 안하면 몰라예, 대오리, 재완지, ㄹ라지 뭐 이런 거?

103009 #2 재완지 별별 저 검질이 다 이서

103009 @ 무슨 이름 알아지는 거 곁아봅서. 여름검질이파? 췌비늬?

103009 #2 이 췌비늬는 생전 마르지 안허는 물건이라노난 보통으론 마구잡이로 내쳐야돼어.

103009 @ 남자덜이 내쳐줍니까?

103009 #2 여자도 내치고 남자도 내치고 내치는 거야 뭐,

103010 @ 공기좋은디니까 햇볕 말르명예. 그든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건 어떻 베고, 무끄는건 어떻 무끄고.

103010 #1 야, 보리 익어야 베는거주 보리 익지도 안헌디 베냐.

103010 @ 보리가 언제 익습니까? 음력 유월? 오월?

103010 #1 아니야, 사월달에 음력 사월달에 비여.

103010 @ 익으민 호미 가정강 비여예.

103010 #1 비영 들류면 이제 산디썩 영

103010 @ 아, 비민 바로 물려야 됩니까? 묵지 안허영?

103010 #1 물려야지.

103010 @ 무끄지 안허영

103010 #1 물려야 무끌거 나. 물령 무꺼냥 놀어. 비오카부덴. 또 놀어야 해여. 놀이 돌르민 놀엇다그네 이제 시꺼당 홀타.

103010 @ 놀지 안해영 바로 무꾼 가져오민 안되어? 집의왕 놀 수도 잇고.

103010 #1 힘들지 그게 시끄는 것이. 줌 자야 것이 차분이 놀어뜨는디 왕그랑해가

지고 시끄민 시끄진 현디 안되여. 닝끼려. 겨고이 고고리 막 털어져불곡. 거 놀엇당 허민 털 털어지는데 고거 그냥 시꺼 민 바삭바삭 털어져. 고고리 좇젠 허민 힘들 주.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베는 건 어떻허고 보리 묶으는 건 어떻허고 옛날?

103010 #2 보리 묶으는건, 뭐 나 밤에도 가서 비가 올까지니까 묶어난 예가 있고, 보리를 봄에 수확해가지고 전부 홀타가지고 우리 마당이 널빤는데 그냥 오름마니 쌓아놓고 그냥 비가 와가지고 밑으로 물이 그냥 이마니 올라와부니까 전부 썩힌 일이 있지. 지금은 기계가 발달하고 다 사람덜이 영리허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어. 그때는 참 옛날이 뻬어.

103010 @ 겐 건 아예 먹지도 못헐마씨?

103010 #2 그냥 마마리 홀타논건데 아 비오니까 그냥 물이 그냥 이마니 올라오니까 그 아래 아랫건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썩어서, 게니까 내가 보리, 우리집이 널으니까 맥주맥,, 떡보리, 슬보리 세눌을 크게 늘어 있는데 거 비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오니까, 늘 눈에 보리 눈 늘 우이서 보리썩이 낫어. 썩이 낫어. 퍼렇게,

103010 @ 아이고 세상에 세눌이라는 것은 맥주맥도 늘고, 마마리만?

103010 #2 아니 아니, 남덩이차, 그 집이 와서 그 홀태로 홀타야 뉘니까,

103010 @ 아 베어온 거 그대로 묶은체, 늘을 쌓아놔두는데,

103010 #2 묶은체, 집만씩 늘엇지. 집만씩,

103010 @ 맥주맥하고, 슬보리하고 또 하나마씨?

103010 #2 떡보리,

103010 @ 떡보리, 떡보린 뉘짜?

103010 #2 떡보리 혼참 벌엇어. 검은보리 잇엇어

103010 @ 검은보리에? 아아 거는 뉘가 좋아마씨?

103010 #2 쭈쭈갈애. 떡을해도 오매기해도 차근차근허고, 저 쭈쭈오매기마씨, 떡보리가 잇엇어.

103010 @ 지금은 안하잖아예. 맛은 어떻합니까?

103010 #2 그 보리 없어젼어. 맛도 좋아.

103010 @ 슬보리에 섞엉도 밥헐 먹음니까? 걸 무사 햐신고예? 무사 쭈쭈처럼 가루로 만들젠햐신가예?

103010 #2 떡도 햐먹고 그자 바로 출떡뉘쥬.

103010 @ 떡보리로 떡을 햐구나예. 그믄 베어서 묶어서 어떻 햐빛이 나민 어떻 거를 다 햐썩?

103010 #2 그러니까 마가지니까 제주돈 마가 많이 젼어. 보리 햐때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늘에서 그 꼭대기에는 안 나지만은 그 밑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거든. 비마진건 오래 비가 오니까, 다 나가지고 말이야 제일 뉘 나는 것이 이 저

맥주맥이야. 맥주맥이, 제일 빨리 나.

103010 @ 경행 어떻 했수과 그거?

103010 #2 아 그거 뭐 쉼도 주곡, 몰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 그거 몰려가지고 저 골로 쓰기도 했어. 골, 감주 만드는 그 골,

103010 @ 어뎡이라도 씻구나예 게도 겐 다시 놀 했던거 ㄴㄴ리 또 톱앙?

103010 #2 홀태로 홀타가지고 홀태로 홀타서 마당에서 그냥 도깨로 때령도 허고 기계로 태작도 허고, 그 태작하는 기계가 그 저 군데군데 잇었어요, 그 기계 빌어다가 그냥 저 홀태로 홀타가지고,

103010 @ 뒤에 담아, 향아리에? 맥에 담아마씨 그걸?

103010 #2 그러니까 맥도 담고, 향아리에도 담고, 보리 다 해 낱 비우니까 방에다가 쌓아 놔뎸더니 놀러부터가지고 잘 안 물리워가지고 그런거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도루무짱을 저 반값 줘가지고 내 그때 도루무짱 어떻게 비싼지 말이여,(전화) 농사짓는게 상당히 고생했쥬.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비오는데도 집안에서 보리를 홀타으니까 홀태로,집안에서, 비와불민 그게 제일 문제로구나.

103010 #2 옛날엔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지면은,그 5월장마, 6월장마 지면,

103010 @ 5월장마, 6월장마예? 어떻 그거를 애쓰게 헛거 다 날라가버리면 그것땀에 탁탁허켜예?

103010 #2 그렇쥬.

103010 @먹을만큼은 놔두고 팔안마씨?

103010 #2 아 그렇쥬. 남으면 풀고,

103010 @ 뭇 향아리 먹을 걸로 나뒹니까?

103010 #2 식구에 따라서,

103010 @ 제일 중요한게 보리는 다 갈앗갬다예? 무사 도깨아덜 누가 만들언마씨?

103010 #2 도깨, 우리대로 다 맨들어 썬쥬.

103010 @ 도깨어시여, 도깨아덜이여, 무사 도깨아덜해신고예?

103010 #2 도깨아덜이엔 허고 어시는 몽둥이 ㄴ튼거 해서 낱 종류가 틀리니까 꼭 종냥을 해야 도깨어시가 돼고, 윤냥 도깨아덜로 써야돼고 그 나무가 막 때려도 질기니까, 윤냥이,

103010 @ 종냥이 뭔지, 윤누리 냥이 뭔지 알아야 것도 헛꺼 아이예? 지금 봐집니까?

그런 것쥬이야

103010 @ 윤누리 냥 도깨아덜 무사 도깨아덜이엔 이름을 지와신고예

도깨아덜은 아 이렇게 행 때리는거니까 돌리면서 삭 때리면은 거 도깨아덜

103010 @ 무사 도깨 똥이 아니고 도깨아덜이 돼신고예?

103010 #2 글썸 옛날 어른덜이 어떻게 해서,

103010 @ 도깨는 여자덜도 남자덜도 허고 마당에서 뭇 깔앙 헛니까? 멍석깔아?

103010 #2 끝지 안행 마당에서 많이 헛고, 끝젠허민 이제 ㄴ찌 가빠가 있어. 뭐 거 있어, 튀어가지 못허게 막을 수밖엔 엇주

103010 @ 덕석은 뭐고 명석이 뭇파?

103010 #2 덕석이 명석이고, 명석이 덕석이지. 명석이 덕석이고 덕석이 명석이고.

103010 @ 게른 삼촌, 예펜삼촌도 도깨질은 허고?

103010 #2 다 헛쥬,

103010 @ 도깨질이 어려웁니까? 베는 게 어려웁니까

103010 #2 마장질헛땐 마당질이라고 허는데 마장질헛땐 그 시중허는 사람이 잘해야돼어. 똥썩노민 똥썩놓고, 가르썩노민 가르썩 놓고

103010 @ 경허는 사람을 똥헛해마씨? 시중?

103010 #2 시중질, 그게 아주 잘 허는 사람이 해야 골루골루 때리고,

103010 @ 그른 똥방애나 이런거는 여기 똥개 이섯수과?

103010 #2 많이 잇엇쥬. 개인적으로 잇는디가 잇엇고, 거 똥방애는 이 저 군데군데 많이 잇엇어요.

103010 @ 이제는 아무디도 엇지에 신촌에? 똥방앗간이렌 행 집도 지성 이섯수과?

103010 #2 옛날은 똥방애에 동녕바치 들어강, 똥방애 비니까 줌도 자고 동녕바치덜 지나가다가 자고, 똥방애에서 경 그 으식흔디 밤 ㄴ튼데 연애도 그디 강허고 옛날은 똥방애가 제일 그 공간이 빈디니까

103010 @ 그렇구나 똥방애예, 그른 여기 동네에 똥개 이섯수과? 옛날에 돌덜은 다 어서져부럿지예?

103010 #2 동카름에도 하나, 두개, 세 개, 세겐 확실히 알겠네이. 이 저 큰물에도 똥 이 똥 동네마다 잇엇어. 동네마다 똥방애가 잇엇어

103010 @ 신촌엔 열개 넘어신가?

103010 #2 신촌에? 열다섯개도 넘을거야,.

103010 @ 말이 돌립니까? 소가 돌립니까? 사람이 돌립니까?

103010 #2 사람으로도 하고 몰로도 허고, 몰로 그러니까 똥방애라고 헛는데 물을 이렇게 매어서 똥똥 돌아가니까 똥방애라고,

103010 @ 무사 소는 안헛수과 느런? 소는 안헛?

103010 #2 소는 안해. 소는 허는 걸 못봤어. 이제까지 봐와도.

103010 @ 안 돌아가는가? 말이 영리한가?

103010 #2 말은 해도, 소 허는 건 못봤어.

103010 @ 소는 밧갈고 구루마는게도 헛수과? 구루마는 허는데, 똥구루마도 허긴헛수과?

103010 #2 헛쥬, 똥구르마도, 소구르마도 허고,

103010 @ 게도 똥방애는 소는 안헛고?

103010 #2 소허는 건 못봤어. 똥은 해도,



103010 @ 삼촌네 물이 이섯수과?  
 103010 #2 물이 이섯지.  
 103010 @ 다른 사람도 빌려주고마씨 혹시?  
 103010 #2 없는 사람은 빌어다 쓰긴 써요.  
 103010 @ 돈으로 받으니까?  
 103010 #2 옛날은 그자지.  
 103010 @ 사람이 허는 건 힘들잖아예. 물이 해야 좀예.  
 103010 @ 그른 ㄹ레ㄹ는 거는 남자도 험니까? 거이 안하지예.  
 103010 #2 그러니까 이 이렇게 ㄹ는 들ㄹ레라고 잇어. 그걸로 보리쥬  
 벌러가지고 밥해먹고,그 저,  
 103010 @ 무사 벌렁 밥해야 돼마씨? 빨리 밥해집니까? 그냥 밥해도 쥬꺼아니?  
 103010 #2 옛날 보통 다 저 그냥 통차 먹는 건 통보리밥이라고 해가지고 큰일때  
 나 잔치때나 그 통보리쥬 썰지. 그냥 집이서 밥행 먹는 건 다 벌러서, 들ㄹ레에 벌  
 러 가지고,  
 103010 @ 너무 벌르면 가루가 뭇니까 적당이?  
 103010 #2 가루 나오민 가루로 먹고, 가루가 뭇민  
 103010 @ 굵은 건 밥해먹고 보통 여자가 헛지예?  
 103010 #2 여자가 많이 보통 다 여자가 헛어.  
 103010 @ 삼촌 어머니 ㄹ레ㄹ는 소리 들어봣수과? 해지쿠과?  
 103010 #2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ㄹ레ㄹ는소리)  
 103011 @ 쟁 놀엇당 집의왕 또 집의왕 그거를 보리타작은 밧디서 헐 수도 잇고  
 103011 #1 거 밧 기계 난때는 밧디서 허여. 태작기 매난땐. 그땐 태작기가 어선  
 도깨로 뚜들땐 집의왕 마당에, 흑 마당에다가  
 103011 @ 멍석궤양  
 103011 #1 멍석 궤지 아니허여. 멍석은 배궤딜로, 보리 튀어나민 궤로 털어 아실  
 거. 그냥 흑마당에서 뚜들어  
 103011 @ 흑마당에 보리가 흑에 막 묻혀지면 어떻게?  
 103011 #1 흑에 마당이 세뎨마당 되여. 막 몰류니까. 사람 밧로 갓다왔다 허니까.  
 건 아니햐백이쥬  
 103011 @ 여름이니까 비가 안올때예.  
 103011 #1 비오민 못해여. 땅이 젖엉. 몰라야.  
 103011 @ 도깨질? 도리개랜 험니까? 도깨랜 험니까?  
 103011 #1 도깨. 육지사름은 도리개엔 허더라. 우린 도깨.  
 103011 @ 도깨질  
 103011 #1 응 도깨로 뚜들어.  
 103011 @ 그 도깐 누가 만들어마씨?  
 103011 #1 우리 씨아바님사. 남자덜이나. 그거 이 이만이헌 궤누룽헌 몽둥이덜 해

다그네 우리 시아바님도 잘만들곡 아방도 잘만들아. 하루 멧게씩 끈어진지 몰라.

103011 @ 영허른 도깨 두드리는 거는 도깨아덜이여.

103011 #1 도깨아덜은게 또 영 두드리는 몽둥이는 무신 무시게엔 해라

103011 @ 어신가?

103011 #1 뭇엔 곶아도 나 잊어부런 모르크라. 도깨아덜은 알아도.

103011 @ 도깨아덜은 무사 아덜이엔 해신고에?

103011 #1 도깨아덜 똥똥 대보름똥

103011 @ 거 무신 말이짜?

103011 #1 아이 똥은 대보름똥 ㄴ치 흰허게 트고 도깨아덜은 아덜이니까 부수 일을 해야 혈거 아니냐.

103011 @ 좋은 뜻이짜?

103011 #1 거 좋은.. 아덜은 일을 해야 혈거 아냐. 도깨아덜. 막 마당질허지

103011 @ 건디 실질적으로 제주도 여자덜이 더 일을 많이 허는데

103011 #1 여기 바다 즈꿏디는 남자덜이 한글허지. 여자만 바다에 가난. 이 저 웃드리덜은 남자가 힘들어. 이 바당에는 이, 여자가 힘들고

103011 @ 거고 검질매는 것도 다 여자가 허고게 여자 안하는게 어신디 똥똥 대보름똥 거 언제부터 거. 아덜아덜 도깨아덜. 게난 일을 많이 허난 도깨아덜이랜 현건가

103011 #1 대보름들은 보름에 혼들에 혼번 보잔아. 경허니까 흰허게 비치는 것 뿐이고 아덜은 계속 일허니까

103011 @ 그제 좋은 뜻이구나. 난 또 막 아덜이

103011 #1 도깨로 얼마나 힘들이 두드려야 혈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아, 너 생각해보라 이치적으로 마당질, 그 도깨로, 똥 대보름똥 ㄴ찌 보름에 혼번 흰 허게 비치면. 게난 옛날 할머니들이 똥 손지는 업고 아덜손지 걸루잔아. 손심영으네. 빨리 글라 업은 애기 발 실루왁져. 거난 걷는 애긴 발 안 실롭는가. 그렇게 차이 있어. 외손질 그렇게 애껴.

103011 @ 여자 아이를?

103011 #1 똥애길 애껴.

103011 @ 딸, 딸을?

103011 #1 외손지지, 똥애기난. 똥난건 외손지, 성손진 아덜난거.

103011 @ 건디 왜? 삼촌은 아들아들 헛잔아. 또 우에 어머니도 아들아들 허고.

103011 #1 아덜아덜 해도 우리 경 저 씨어멍네 경 그런거 업영 땡겨나지 안해서. 빨리 죽어부니까. 씨어멍이나 씨아방만 오래오래

103011 @ 경해도 제주도는 큰아덜 큰아덜해. 맞존것도 아덜아덜 허곡.

103011 #1 그런디 사람 칩마다 툀라.

103011 @ 물허벅도 지게하고 여자들은 고생고생허난 무사 날 쉼로 낳주 툀로 낳수과 허멍 그런 원망도

103011 #1 그런건 안허고 바당에 희어갈 때 노래가 잊지. 비참하게 노래허멍 희어가.

103011 @ 어떻게?

103011 #1 우리어멍 날 무사 낭 .. 막 물 속곳 입엥 빠져봐라. 달달달달 춤잔아. 막 손이 다 죽어부러.

103011 @ 노래한번 해봅서. 삼촌 노래도 잘허고. 못허는게 엇다예

103011 #1 어떠난 나 노래 잘허는거 알안.

103011 @ 저번에 창가 부르는 거 보난. 바로 기억력 어릴 때 그...

103011 #1 이제도 일본노래 잊어볼지 아녀. 게난 일본노래는 이 우리 나라가 애국가 잊잔아. 일본나라도 애국가가 있어. 일본 애국가는 이 (노래) 이제 구십이 다났네 나가. 이젠 막 잊어부러. 오히려 일본말이 쉬와. 오학년ㄱ지 일본말만 해낫저게. 조선말 원 못씨게 허여. 그시절엔 일본말만. 일본글만 허고 일본말만 허고. 게난 이제 구구법도이 이이사는가 일본말이 쉬와. (구구법) 일본글로만 해나난. 거민 이 일제때에 저 조천 가면은 우린 강습우라. 어머니가 힘드난 이 조천국민학폴 안왕 강습소 강습술 온거야. 게민이 야스쿠니 신자에 가민이 강습손 저 혼편 구석에 강 세웁곡 조천혹교 허곡 함덕혹콘 가운데 세와. 거민 이 거 일본놈 시절이니까 저 어디 가민 야스꾸지 신자가 있어. 기도허는디. 기도허는디 시민 이제 너네 텔레비전로 아이뽑나. 해연 옷 입엥 일본사람이 그거 다 우리 해난거. 거민 그 하르버지가 축을 일거. 여기서 ㄱ뜨민 이제 막 거 기도허는거야이. 이제 부처님 허민 이 정구업지 허듯 허는 기도라 (기도) 고거 다 우리 해난거.

103011 @ 어땡 외와수과 거?

103011 #1 근디 몬 잊어부러잔아 이제는. 멧년이나 거 해난디가. 우리가 열 식솔에 해난거난. 열식솔에 해난 냥이라. 일본말도

103011 @ 해녀노랜 누구안티 배워수과?

103011 #1 게난 우리가 답답헌 소리지. 이어도사 이어도사 이어도사나 흥 이어이어 우리어멍 날무사나양 대천바당 물질허영 이어도사 스십요왕 할마니야 우리젓영 가는디랑 소라고동 전복존딜로 가게나험서 이어도사나 이어도사 이어도사 한라산에 눈물은건 제주도민이 다알건마는 요네간장 타는불은 어느누가 알아나주리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혼질두질 열두발이 근당하니 저싱길이 흰해엿구나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나가 여기서 상군이야 상군. 여기서 들어봐. 숨비는 해녀중에 숨 진 사람 하난 죽어불곡 나만 살아이서게.

103011 @ 거 돌아가신 분은 그냥 아판?

103011 #1 응, 아판 죽엇어. 그사름허고 나백이 배꼇디 안가. 우린 소라도 안잡으러. 전복만 테레

103011 @ 어디 대마도여 저

103011 #1 그런덴 안가완. 요 신촌에서나

103011 @ 육지는 클랜해도 안가낫구나.

103011 #1 육지물질 안가 우린.

103011 @ 무사 안갑디가. 겁남?

103011 #1 아니 가질 못해여. 아기 낳저, 밧디 보저, 바당 보저. 어떻게 가냐. 것도 애기도 안나고 시집 아이간 사람덜은 그디 강 벌지

103011 @ 일본에도 가고 막 헛덴 험디다.

103011 #1 일본 대마도는 아무나 못해. 막 바당물이 세다고 해고. 강은 사름덜 말이. 대마도는 완전히 물질가고

103011 @ 김녕사람덜은 많이 가십디다예.

103011 #1 김녕사름덜은 물질행만 살지 이젠 물질허는 사름은이 알아주질 안해. 물질허는 사람 불각제기엔 허여. 알아주지 안허여.

103011 @ 비바리랜 안행 불각제기랜 해수과?

103011 #1 게난 이 옛날 어른덜이 불각제기엔만 해여. 물질허는 사름을.

103011 @ 불각제기는 무신말? 각제기는 고기 이름이고.

103011 #1 불각제기ㄱ찌 에이고 그냥 물에만 들랭..것이 나쁜 말이다게. 불각제기엔 헛게. 불각제기는 고기일름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힘들이거 허는 말이라.

103011 @ 예를 들면 악바리 같은...

103011 #1 그런 식이지. 막 악바리 담덴 헛거지. 불각제기랑. 그자 사투리가 불각제기. 악바리는 표준 말이고

103011 @ 비바리라는 말도 써수과?

103011 #1 우리? 어, 연날 우리ㄱ라 여자ㄱ라 비바리

103011 @ 거는 물질하는 사람을 비바리엔 헛덴 헛게 그건 아닌가?

103011 #1 비바린 줌네. 뜯나민 줌네 낭

103011 @ 근디 아까 삼촌 말헛 것처럼 정말 딸은 만약에 우에 애기가 아들이고 여기 걸어다니는 아이가 뜯일수도 잇잔아.

103011 #1 걸어댕기는 애긴 뜯애길 업고, 아덜애긴 걸려 댕겨.

103011 @ 건 용감하게 크렌 건가 아니면 딸이 아까워서 그런거?

103011 #1 딸이 아깝고, 또 딸은 혼변 가불민 못보고 아덜은 메누리 멧개라도 허여 그런 뜻이지.

103011 @ 아,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딸도 자기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딸을 아끼기는 아꼈다는거네

103011 #1 아껴. 겨난 딸이 애끼니까 뜯난 애기는 허곡 메누리는 멧개라도 허민 아기 볼 수가 잇고.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실로왓서.

103011 @ 난 또예 꺼꿀로만 오해를 했어예. 아들아들만 우리 제주도 여자들은 엄마들이 아들아들만 헛 줄 알앗거든.

103011 #1 아덜아덜 해도 그 차이 잇잔아. 딸은 죽어불민 다시 못봐도 아덜은 가지른 멧개라도 손지가 많잔아. 빨리글어. 업은 애기 발 실로왓서. 딸이 아깝지. 메누리보담. 그런 뜻이야. 예구.

103011 @ 그렇구나. 게난 어릴땐 아덜도 죽을 힘 다행 키와도 점점 또 실망하는 일들도 많이 생겨

103011 #1 겨난 딸은 부모 심정을 알아도 아덜은 몰라. 재산 먹는건 아덜이고 고생하는 건 딸이고. 그렇잖아. 재산 먹는건 아덜이고 딸은 고생하고, 먹지도 못허곡, 야 이레 와라 이레와라 막 병원에 돌아가라 무시거 사와라 옷도 다 떨어졌져. 딸 신딘 굴아도 아덜신디 메뉴리신딘 못굴아. 게난 먹는 건 아덜이고 고생하는 건 딸이고

103011 @ 경해도 봅서게. 딸 이시난게.

103011 #1 게난 딸 네 개. 얼마나 좋아.

103011 @ 옛날에는 힘들어도 그게

103011 #1 딸덜이 그렇게 돈도 가져다주고 옷도 사오고 먹을 것도. 어멍 못전덤젠 아파가민 빨리 병원에 그룹서 병원에 그룹서. 경허난 메뉴리 아덜신딘 아프덴 안허여. 딸신디만 아이구아이구아이구 머리도 아프곡 뭐 허리도 아프곡 어찌고 저찌고. 아 무사 아덜ㄴ라 ㄴ릅서. 나 아덜ㄴ라 못굴켜 아이구 빨리오라 나 죽어지켜 아이구 아이구 막 쿠사리 먹으명도 막 딸ㄴ라 오랜허문 메뉴리신디 굴랜. 아이구 무사 날ㄴ라 그디장 ㄴ릅서. 아이구 나 못굴켜게 재기 오라게.

103011 @ 어려운 거구나예.

103011 #1 딸이 부드러와. 딸하고 막 이년저년해도 잊어불곡이 메뉴리 굴은말은 절대 아이잊어부러 또 씨어명도 메뉴리 굴은거 절대. 딸ㄴ라 이년아 저년아 죽어라 살려라 해도 딸도 잊어불곡 어명도 잊어불곡. 게난 뱃속에 이서난 것이 차이가 있어. 메뉴린 늑의 뱃속에 잇고 딸은 나 뱃속에. 젠디 이제 지금 딸한 사름은 펜안허여.

103011 @ 비행기 탄 여행다닌댄 햄수게.

103011 #1 저디 관오각시 딸이 아웁개라. 아덜은 엇곡. 얼마나 야, 십만원씩이라도 혼들 구십만원 아냐. 게난 이제 세상은 딸한 사름이 펜안해. 옛날엔 아덜아덜 해난디. 도깨아덜. 딸덜 대브름딸이 좋아. 흰헌게. 아, 정말이라.

103012 @ 재밋다예. 그렇구나. 게문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연자매 맏돌에

103012 #1 보리는 장만헐텍에 거 옛날은 도깨로 두드런 장만해났지. 이제 그 태작기 신평는 얼마 오래지 안헐어.

103012 @ 여기 신평에는 그 방앗돌이 물방앗간이 맏개 잇엇수과. 옛날에 기억남수과? 맏개 이서신평예.

103012 #1 다 태와부런. 여기가 맏겐곤 허민 들코지 하나 또 일레낭에 하나 돈물에 하나 세 개. 돈물에 혼빳디 허곡 일레낭에 하나 허곡 돌코지 하나 허고 세빳디 이션.

103012 @ 일레낭 돈물 돌코지 세빳디 이션예. 이게 동카름?

103012 #1 동카름

103012 @ 그른 서카름은 모르고예?

103012 #1 서카름은 몰라. 우린 동카름. 나가 이 동카름에서 나곡 켜. 어디 원 안  
가봤젠 허난

103012 @ 말방앗간 세군데 중에 삼촌넌 어디를 주로 이용해수과?

103012 #1 돈물에도 가고 들코지도 가고

103012 @ 차례차례 줄 지어가명?

103012 #1 그렇지. 왜냐하면이, 차경이서이. 밀리명 께영덜 허는 차경덜 이서이.  
그거 므녀 가져다와야 곴아

103012 @ 차경이 뭐짜?

103012 #1 거 밀리는 궤 밀리는 낭 해영 걸로 막. 그걸 가져다 와야 므녀 해여.  
그거 안앗다노민 못해여.

103012 @ 마을에서 공동으로 건

103012 #1 건 동네에서 공동으로 곴안. 므녀 궤는 사름이 채. 궤 다 선배 후배  
가 잇지. 거난 그거 곴젠 허민 줌 안장 일찍 새벽에 그걸 아시다 와야돼. 겨른 이젠  
그 누게 다음엔 나 다음엔 누게 해영 곴잔아. 허민 거 혼사람신더래 므녀가지문  
이 다음은 나우다예 곴읍서예 허곡 또 그다음 사름은 이번 나여 행 곴곡. 중반중반  
누게어명 이다음 곴거 경행

103012 @ 경행 싸우기도 허곡

103012 #1 안싸와. 딱 순번이 이신디. 아니 순번이 이신디 싸우느냐. 순번 맥여분  
데. 권리로 햄시민 싸우지.

103012 @ 경행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엇고 알앙 어멍아방이 강 소가 끝습니까 말이  
끝습니까.

103012 #1 소 말 이신 사름은 부제칩이고 그냥 사름은 사람 힘으로

103012 @ 남자가?

103012 #1 수눌어가명

103012 @ 아, 수눌어가명. 한번 해주민 자기가 해주고

103012 #1 해주민 또 그디강 곴아주곡

103012 @ 몰궤 소리는 어섯수과? 어허야 디야

103012 #1 그건 돌궤. 그 물방에 궤린 크게 곴아다낭 브름에 불령 여기 널영

103012 @ 몰궤 방에도 어디 가민 소리 이십디다. 엉허야 도야

103012 #1 어디 엉허야 도야? 건 영 건 돌궤. 그거 곴 때는 어서. 그냥 막 뚝이  
잘잘 나지 큰 땃돌로 궤는 디 그거 소리해지나. 뚝으로 탁탁탁 사름이 숨이 다  
바쁘디. 이 궤는 이어도궤 재기나 돌라 요놈의 궤야 멍텅구리궤 재기 돌아  
라 이여 이여 궤

103012 @ 호꿈만 더 불러봅서. 이노래가 진짜에 좋은거 닐아.

103012 #1 그거그거 힘드니까 이어도궤 재기벌러나지라 이어도궤 요궤를  
빨리 해여야 널엇당 보리썰 곴거 아니가 이어도궤 경행... 난 니빠져노난 말을 못  
곴켜게.

103012 @ 이여도ㄱ레 멧소절하고예 이여도사나

103012 #1 거 멧돌에 ㄱ는 건 이여도ㄱ레. 마당질은 도리깨 어야도홍 어가홍아 어야도홍 경허고. 걸 노래도 늘어지지 안허게. 이 멧돌 이여ㄱ레 이년ㄱ레 재기나 둘라 요ㄱ렐 곶아그네 저녁에 보리썰 밥도 허여사 헐거 아니가 이여도ㄱ레 이거지. 마당질 어야홍 어야홍 요동산은 팔제긋인 내앞이로구나 어야홍 어야홍 요동산을 내리와보자 어야홍 오른작가달은 들러메곡 왼작가달은 땅에 디디곡 어야홍 어야홍 이거라. 나신디 영 배와다그네 뭇헐라고.

103012 @ 우리 소리 공연허주. 요런 걸 가정 공연으로 만들영 이 소리가 들었을 때 가슴이 좀 아프잔아예.

103012 #1 사창허잔아. 또 탕건노래가 잇어이. 혼코두코 혼코두코 걸려지라 걸려지라 나탕건아 나탕건아 자기 걸려야 혼장 도막에 ㄱ까사 쫄받아당 먹을거난 이여도 탕건 이여도 탕건 혼코두코 걸려지라 걸려지라 이건 탕건소리. 에휴 나 이렇게 살았져. 탕건허지 물질허지 마당질허지 검질매지 아이구 살든 이제 사람사 이불 겹지 밤엔 옷주어야지 밤에 안허민 일가부렁 옷도 못주어. 양말도 주어야지 양말도이 이거 하나민이 다 끈어지든 또 트더동 또 새로 줍곡. 밤인 양말 쥐야지 옷 주어야지 에이고 사는건지 뭇헐건지 이젓사름은 경헐 안살아. 안살아. 우리는 멧헐헐 어둡나라 사난 살았주. 야 물질허곡 보리밧디강 보리 비곡 마당질허곡 응 물질어오지 쫄밥가, 보리썰 미룻 슬마야 틈 재와야 밥헐거고 재기 못해여. 그런 세상 바당 물질허지 으이구 삶은 왕보민 쌀 엇곡. 물엇곡이 돼지도 물지로우민 튀영 돌아나불곡 아무것도 안주니까 배고파가난 돼지도 튼거주. 아이구 우린 산 세상 허민이 진짜 조도 이 마당 도깨로 두드려야. 조도.

103012 @ 이번에는 멧돌, ㄱ레는 멧시간까지 갑니까?

103012 #1 ㄱ레? 하영 곶젠 허민 오래 곶곡. 죽게 곶젠 허민 빨리 곶곡.

103012 @ 다 여자가 허는거지예

103012 #1 아, 여자가 허지. 남잔 안허여.

103012 @ 그믐 둘이도 곶곡?

103012 #1 둘이는 똬이나

103012 @ 큰딸도 해봐수과?

103012 #1 가이네 안허여. 가이넌 어떻 허는 것도 몰라. 우리 어린때 해나난

103012 @ 할머니네영은 해봣구나예

103012 #1 응 할마님 허는디 ㄱ찌 곶렌 허민

103012 @ 삼촌도 많이 해봐수과?

103012 #1 아, 할망이 허는냥 곶주. 영 돌리렌 허믄

103012 @ 노래는 누가 영 ㄱ르쳐 줍디가?

103012 #1 노래는? 할마니 허는거 들앗다가 . 우리 할마니 허는 거 들엇다가 이젠

103012 @ 달리기만 잘허는게 아니고 또 이렇게 영리하고 노래도 잘허고

103012 #1 무신 영리허냐, 바보.

103012 @ 계난 이 소리를 아무나 잘 허는게 아니라예.

103012 #1 예예. 나원. 소린. 우린 바당에 희어가는 노래도 허고 또

103012 @ 영 보민 이런 노래들 못허는 사름은 못해여.

103012 #1 마당질 노래도 허곡. 우린 해여 나니까 안해난 사름은 못해여. 해 나니  
까 거 햄지 또 검질매는 노래가 잇고.

103012 @ 신촌에 검질매는 소린 어떻게 햄수과?

103012 #1 검질매는 소리? 앞명에여랑 들어나오라 듯명에라근 물러나가라 이거  
검질매는 검질짓고야 골너른밧데 어기너레랑 사데로구나 사데소리가 좇아나가면 검  
질손도나 좇아간다. 이거 원래 우리 해난거. 해난거난 불럼주 아니해난 사름 못볼  
러, 켄디 우리 일본노래고 일본말이고 잇어부렁 못헌디 골으론 다 알아들어. 너도  
일본말 배왓지이.

103012 @ 예 나도 일본은 한 이년 갔다오난

103012 #1 이거 우리 배울땐 이 가오 개 마유 아메 가나 구비 우테 지찌 카라 오  
망기 에이구 춤 우리도 잘도 뽀선순 나가 최고 잘뛰어.

103012 @ 삼촌 이렇게 소리 잘하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들 녹음행 가지큰게.

103012 #1 많이 죽아가서.

103012 @ 민요대전에도 삼촌 이름이 들어가신가 한번 찾아봐야 되쿠다.

103012 #1 몰라 많이 죽아가서. 재재작년에도 죽아가고이 여러번을 죽아갔다. 하  
여튼 서울 대학생덜 완 죽아간. 저 서까름 살때도 완 죽아가고. 서울 대학생이노랜  
행 죽아가고 제주사름은 죽아가는냥 엇고. 그것덜이 뭇엔사 죽아가신지 몰라

103012 @ 노래 불려주랜 안헛디가?

103012 #1 노래도 불렀지.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시른살결  
꽃같이 피엇구나 미역을 따오리카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속에 꺼져가네  
아아아아 물결에 꺼져가네 노래 잘 햄샤?

103012 @ 이거 두고두고 남을 노래우다예. マ레マ는 소리 나 이런거

103012 #1 マ레マ는 소리 물방에 マ는거 큰 땃돌은 안허고 이렇게 マ는건 이여이  
여도マ레 빨리빨리 돌아라 이여도マ레야 빨리 벌리지여사 저녁밥도 허고 아침밥도  
허고 이여도マ레 이년マ레 우리어명 날무사 나그네 요マ레 굴곡 삼시끓영 물질허멍  
요거 무신 일인고 이여도マ레 우리어머니 날무사 낳고 날랑 나낀 남즈로 낳주 이여  
도マ레 자기 신세노래. 우리 켄디 일본말은 잘 못해도 マ는건 돼. 그 일본 야스쿠니  
신사헌거 다 알아.

103012 @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파 난 빠르니까 못알아들으커라.

103012 #1 이거 일본놈덜 축 익는거. 저 애국가 불르듯.

103012 @ 거난 그 내용은? 해석하면

103012 #1 짐오모니 헌거는 우리 포제에 국궁백 흥 허는 식이야. 일본놈덜 이거  
땃년고게 열 세 살에 해난거

103012 @ 얼마나, 땃번 학교가든 다 외우게 허니깐 이렇게



103012 #1 아니 몇번 아니행 다 머리더레 들어완  
 103012 @ 삼촌 열세살 때 학교가든 이걸 매일 허렌 허여?  
 103012 #1 다 배와줘 선생이. 조선말 씌지말렌 일본말만 허렌 허영  
 103012 @ 일본 사람? 그 선생은 누구짜 이걸 가르쳐준 사람.  
 103012 #1 일본사람도 기고 또 이딴사람도 일본말만 허고 아사노선생, 도꼬야마선생, 야마무라선생, 미야모도선생, 가나사와 선생 다 우리 배와준 사람.  
 103012 @ 그사람들 지금 뭐  
 103012 #1 다 죽었지. 다 우리보단 우엿선생덜인디.  
 103012 @ 다 일본으로 패망허난 가부릿지예.  
 103012 #1 아니 가고오는 건 물론디이 도꼬야마 선생은 제주사람인디 죽어실거라.  
 103012 @ 아, 도꼬야마 선생은 제주사람.  
 103012 #1 아사노 선생도 잇고.  
 103012 @ 제주도에서 사삼때 죽진않고 살단  
 103012 #1 몰라 스삼에 죽었는지 몰라. 다 우리 배와줘난 선생덜  
 103012 @ 삼촌은 그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거지예  
 103012 #1 몰라 대부분 죽엇저게 우리보단 여녕 한 선생덜  
 103012 @ 살면서 소식 들어본 적이 어섯수과  
 103012 #1 어서. 도꼬야마선생 하나 살앗덴 헨게 죽어실거라. 멧년이나. 그 선생 하나 사난  
 103012 @ 삼촌 학교 다닐 때 이덕구는 일본에 가있는 거여수과?  
 103012 #1 여기여기  
 103012 @ 멧살 우의여수과 삼촌보다  
 103012 #1 우리 이모님이영 동갑이니까. 우리이모님 이제 살아시면은 구십...  
 103012 @ 그럼 이모님이영 친구엿겠네.  
 103012 #1 응, 그 또래라. 아흔 요답 되실거라. 이덕구가 살암시민. 이덕구 일본 학교 대학 믏끈 사람이라.  
 103012 @ 게든 나이가 많이 차이나신게게 삼촌이영  
 103012 #1 아이구 막 차이잇지, 우리도이 얼굴 알똥말똥해 이덕구가. 바로 이동넌디. 그사람 일본 대학 믏끈 사람이라 야 일본말로 아다마가이 이덕구가 이제 77민 대통령 이상 넘은 사람이라. 살아시민 머리가 막 똑똑헌. 이 사삼사건에 똑똑헌 사람은 다 죽어부러서.  
 103012 @ 신촌이 똑똑헌 사람이 경 많아났구나예. 근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엇길래 그 아덜을 유학시켜신고예.  
 103012 #1 부젓칩이지. 근데 사삼사건에 밋이고 집이고 십촌꺼지 다 심어당 죽여부러시킨 권당도 어서. 십촌까지 다 심어다냥. 이덕구아덜 이제 살아시면은 혼 칠십 되게 되실걸 . 가이 혼 .. 커나민 복수헌덴. 아이구 이레자락 저레자락 헨거 총으로 썩부런 이덕구 아덜. 복수험직 허난에 게연 죽엇주. 아이가 그냥이

103012 @ 삼촌허고 또래 아니?

103012 #1 이덕구 아덜? 나보단 아래지. 우리 그 사삼사건에 심어당

103012 @ 이덕구 형도 있었고

103012 #1 삼형제엔 호구, 자구, 덕구. 삼형제. 신촌 안네서 왕이라. 삼형제가.

103012 @ 다 일본 유학갓다 왔구나

103012 #1 다 공부덜 현. 십촌까지 다 죽여부러서. 권당도 어서. 만딱 죽여부런. 다 심어당 다 죽여부난 복수헌덴 . 징그러운 세상이라. 그냥이 여기 신촌마을 만딱 불태와부러서. 그 후제 새로 짓인 집이라 이거. 저 초등학교도 불태와불곡 우리 해 난 흑교 불태와부런. 우리 거기서 일본말로 거 해난 흑교가 일회 졸업이라. 우리 해 시민 일회 졸업이라. 건디 우리어머님이 쓸 받아 먹으면도 공부 시켰어. 나를 밤엔 탕관허고 낮에는 흑교가고 밤엔 밝도록 탕관해. 붉으면 또 흑교가고

103012 @ 여동생도 공부해수와

103012 #1 그렇지 육학년 졸업ㄴ까서. 나는 오학년까지 허고. 나 동생도 머리 막 좋아. 겐디 늑덜은 나 머리 막 좋덴 해도 난 답답행 못살커라. 한복허멍 머리 좋아도 야 그런말 말라 난 답답행 못살키여. 경헌디 공부해시몬 나도 늑만은 허여. 학교 혈때도 탕관은 허면서도 남앞의 떨어지진 안헐어. 거 탕관 허면서도 여기 배운 걸 다 보멍 탕관해도 영영 책보멍.

103012 @ 아니 저 다른 사람덜 탕건노래보다 삼촌 탕건노래가 더 좋수다.

103012 #1 그사람덜 부제니까 탕건 안헐지.

103012 @ 아니 노래를 더 잘헐서. 그거 지정이라도 댕으면 지정 댕을건디 왜 알려지질 았았지?

103012 #1 모르지 그때는 누게가 노래헌거 알아주나? 이젠 노래만 해도 살뎌디. 그뎌 시국에 노래도 허는거 아니알아주고

103012 @ 나중예라도 삼촌 탕건노래라든가 노래 잘 허는거 알암시몬

103012 #1 몰람지. 탕관노래는 이여이여이여 탕건 ㄴ자나지라 못아나지라 혼코두 코 걸렘시라 걸렘시민 사를메난다 이년이년 이년도탕건 거민이 우리 친구덜 소리 허당이 나 소리해가몬 속숨행 고만이 들어. 왜 너넨 노래 안허고 나만 허나. 야 너 소리 해가난 우린 죽어부럼져 경 ㄴ라. 탕건에 그것덜이 노래허당 줌줍허난 왜 줌줍허냐 너 소리 나와가난 우린 죽어부럼져. 우리 탕관도 잘해여. 탕관도 잘허고 탕관 찢어진 것도 다 잳아내고 그런데 탕관도 고왕이 우리 어머님 가몬 빨리 팔앙 나와. 다른 사람겐이 굿이민 안고 나건 가가민 이 그냥 앓아오랭 허여 빨리 팔앙 와. 탕관이 나는 굿은 걸 또 클렁 새로 허지. 다른 사람은 굿지 안허영 빨리만 허쟁 허지만 난 안된건 또 클렁 새로 해야 그니까 탕관이 굿지. 그사람덜 그냥 굿고 좋고 막 하영 만 허젠 허곡 나는 거 안되몬 또 클렁 똑 제자리에 봐야 거니깐 탕관이 영노민 빈찍빈찍 허여. 거몬 우리어머닌 아이구 느 탕관만 아져오랜헌다. 아이고, 나 탕관으로 살곡 물질해영 살곡. 쓸 받아다 놓곡, 흑교가곡 신도 어시 맨발에 말젠 운동화 사주난 아까완 손에 영 췌여아전 맨발에 다니곡 어이고 신 끊어지카부덴. 발

랑 밟던가 말던가. 영 췌여.

103012 @ 그때가 뗏살때파? 흰색깔? 운동화가

103012 #1 꺼른 운동화 운동화살 때 그치룩 헨 헌디 열세살 열네살인가

103012 @ 처음 사준 거구나

103012 #1 처음엔 뗏살때 사원가 열두살에부떠 사주데 탕관 잘헬젠

103012 @ 하나에 얼마해수과 탕건은

103012 #1 얼마해신디 오래여부니까 뭘 알아져. 그때는이 천원짜리가 어서나서. 천원이엔 헌 돈이 어서난

103012 @ 그거 하나 만들젠 허믄 시간이 한달은 걸리지 안해?

103012 #1 왜냐하면 영근탕관 줌진탕관이 이서. 영근거는 혼장동안에 두 개주마는 줌진건 하나배끼 못해. 영근 탕관은 빨리 허지. 영글영글허게 허니까 우린 줌진거 허니까 혼장 동안에 하나. 오일에 하나배끼 못했지. 밤의 끼와야

103012 @ 거른 메칠 걸러

103012 #1 오일.

103012 @ 오일이믄 해마씨?

103012 #1 스일까지 허믄 닻새첸 폴레 가야지.

103012 @ 오일장이니까.

103012 #1 나홀에 하나 해야 뭇날은 오일장에 폴레 가야 . 폴아야 쓸 받아당 먹곡. 공부만 행사 왜 못허냐 나는 이제지금. 아 공부 하나 행사 선생 곤는말 외웁곡 외웁곡 왜떨어지나 아이들ㄱ라 막 허여.

103012 @ 어머님 머리 존소리

103012 #1 머리 똑ㄱ튼 머리지 머리. 우리 똥머리 가젓나. 똑ㄱ튼 머리지.

103012 @ 우리 저 김주옥선생님은 이년이년이년도호라 이년 망근 ㄱ자나지라

103012 #1 경허난 소리가 다 ㄱ나이. 저 동더레 서러레 ㄱ나고

103012 @ 여긴 월정

103012 #1 월정? 앞의가는 아양새야 두에가는 똥꼴래기 똥꼴래기 거난 앞에가는 아양새야 조름에 가는 떨어진 애기 똥꼴래기 아이고 우리 탕관은 밤의허고 낮인 학교애 가고 일요일날 또 탕관은 하영허지. 게믄 거 한 장 도막에 다해야 쓸 받아와야 먹을거아니냐. 밤이만 헌 탕관이라.

103012 @ 뗏시까지 험니까?

103012 #1 탕관이, 뗏 시까지 허믄 이 물에 들뎌 바다에 갈 뎌 탕관 안허여. 음력 팔월나민 탕관허기 시작해. 음력 팔월나민

103012 @ 팔월이면 더우면은 바당도 많이 들잔아마썸

103012 #1 그뎌 바당 안해여. 왜냐하면 그뎌 메역배끼 안허지

103012 @ 삼촌은 메역은 안허여?

103012 #1 메역해여

103012 @ 메역은 어렵지 안해여?

103012 #1 메역이야 쉬웁지  
103012 @ 뗏시간만 허믄 되는거라?  
103012 #1 아, 그때는 속곳만 입으난 추워. 빨리 올라와. 고무옷 입으믄 막 오래주마는 그뻔  
103012 @ 뗏시간 보통?  
103012 #1 뗏시간은 못살메. 추원  
103012 @ 한두시간?  
103012 #1 아니 나 생각으로는 혼 삼십분도 아니살아진거 닻아. 가가믄 탈탈탈탈탈  
103012 @ 게믄 하루에 뗏 번 들 수 잇겟다예.  
103012 #1 불 촌왕 두 번  
103012 @ 불촌왕 두 번. 아이구 세상에. 게믄 보통 아침에?  
103012 #1 아니, 물 때 보멍 아침에 들때도 잇곡, 혼 오후 들때도 잇곡 물때보멍 드는거여. 조금에는 뉘 낮이 가도 되지. 또 아옴물에는 빨리 들어오난 일찍 가고.  
103012 @ 일찍헌 날은 왕 탕건을 헌다는 말이지예?  
103012 #1 그렇지.  
103012 @ 밤엔 각지불 켜?  
103012 #1 호야, 그거 따까그네이 섹유지름 담양으네 허믄 너의 앓아 불 하나에 너의 앓앙 탕건 해여.  
103012 @ 거기 동생도 이서수과? 누가 그리쳐줘 외할머니?  
103012 #1 탕건 이모. 건디 우리 이모님 나 뗏번사 맞아신디. 탕건 잘못허믄 그냥 탁.  
103012 @ 아, 스승님이 잇엇구나. 이모가 큰 스승님이라.  
103012 #1 경행 막 매맞이멍 게난 우리어머님 하도 때려가난  
103012 @ 어머니 안허고?  
103012 #1 우리어머님은 양테. 어머니은 양테허곡 나는 탕건허곡. 거믄 난 양테해 그네 호박사당 먹켜 허곡 난 탕건행 썰 받앙 먹곡.  
103012 @ 탕건이 비싸구나.  
103012 #1 비싸지. 양텐 뗏개 폴아도  
103012 @ 게믄 말꼬리나 이런건 어디장 상와?  
103012 #1 물궐랭이. 일본서 와야. 일본서 들어와야 그 물궐랭이 사주. 그믄이 물궐랭이가 진거 아져간 사름은 탕관도 빨리 허여. 요만씩 허믄 잇자잇자 허니까 오래지. 진거 아져간 사름은 빨리 해여. 이거 영 딜이는 사이믄 뗏코 막 빨리 나가니까. 밥먹으레덜 가잔아. 아츰에이 그사름보단 떨어지카부텐이 밥도 두어숟가락배끼 안먹어 탕건 떨어지카부텐. 에이구 나원 참말로 게난이 도꼬야마 선생이 결석을 하도 해가난 결석을 허고 선생이 가정방문을 온거라. 결석을 허난 야이가 어멍 몰르게 흑교 아니웁시카부텐 공부는 늣광ㄴ치 따라가고 결석은 계속허고 집의 완 가정

방문 완 거난 나가 일본말로 가네까와라이. 아이고 선생님 학부형님 가정방문 와수다 허난 아이고 어떻허연 읍데가. 이디 옥녀옌 현 아이가 결석이 말도 못허연. 아이고 경함수다게 허난 어떻헨마썸 우린 어서부난예 결석을 해사 탕관 해야 졸받아다 먹어부난예 야인 공부도 잘 못함수다 밤낮 탕관 만들고 흑교에 간 뗏시간배끼 아이 배완 그때는 선생님 하 그러파. 허난 단우의 올라산이 일본말로 이.돈도 엇고 현 아이가 공부가 이렇게 뗏덴 허면서 흑교마당에서 연설허는디 창피해가지고 양지가 막 빨정허고이 아이구 게난 어머니 야 나 창피 봐수께 무사허난 막 선생 강 연설해부난양 학생덜이 막 나만 쳐다보고 나 흑교 아이가쿠다 허난 흑교 아니강 어떻헨말이라 그뻔 우리어머님 일본 가젠 나 공부시경 당신이 일본가난 글을 몰라랜 어드레가는 차 어드레 가는차 몰라랜. 거난 나가 공부시켄 일본 돌아가젠 공부시킨거라. 일본은 어디시난 그러저러 허단 스삼사건 만나고 기영저영 허단 어떻 죽어불곡 일본가젠 나 일본글 배운거.

103012 @ 어떻 죽어불고 경해부난 여기 잇게 된거로구나

103012 #1 우리어머님 쉰더레 돌아가서. 나 시집보내된 뒗해에 돌아가부러서.

103012 @ 게도 막 자랑스러워시쿠다게. 자기는 양테허는디 딸이 탕건도 잘허고

103012 #1 거난 물질도 잘허지. 물질도 잘허난 우리어머님이 바다에 간 나 딸 잘났덴야 경해나서. 물질도 숨 질어부니까 남만 해여. 또 공비도게 낮이만 가도 늑만인 허고 게난 막 애껴. 우리 아시는 이 늑의 밧디강 검질만 매곡이, 나는 탕관허곡 흑교배끼 안덴견. 게믄 얼굴이 벳 아이 맞안 과랑헨. 벳을 안맞앗지 탕관허명. 게민 어느제민 이 봄이 들어오코 물질헨라고 탕관안허젠. 아이고 봄만 돌아왓시민 탕관만 해가믄 귀찬여. 이렇게 탕관해나믄이 눈이 아롱아롱헨 먼디 사름 누젠중 몰라. 이렇게만 해어나니까.

103012 @ 삼촌 탕건 만들멍 조천에서 어떤 할머니가 부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낮네 아리랑 고개로 이런 노래 안들어봐수과?

103012 #1 그할망은 배운 할망이라 우리는 그런거 아니해봐. 이년탕건 이년탕건 걸려지라 걸려지라 혼코두코 혼코두코 걸려지라 그런 노래주 아리랑 아리랑은 안해연.

103012 @ 거기 육지에서 온 할망안티 망건청에서 배왔덴.

103012 #1 거 망긴허는 할망. 우리보담 선배. 우리는 망긴 몰라 탕건배끼. 우린 그런 노랜 잘 몰라. 일본 노래는 잘허여 (노래) 나이 이제도 한이 맥현. 공부만 허구정 허연. 중 땅땅 두드려가믄 저건 나오는 중 들어가는 중 쉬는중 다 알아.

103012 @ 삼촌 그때 학교 다닐뻔 무슨 옷을 입어수과?

103012 #1 요만이현 까만 치매에다가 띠 둘튼거. 조천은 두 개, 우리 신촌은 하나, 치매로부터 알아.

103012 @ 까만 치매에 무슨색깔 띠를 둘런마씨?

103012 #1 흰띠,

103012 @ 아, 일본식에. 일본.

103012 #1 게문 이 흰띠 돌르민 신촌 강습소. 조천은 두 개. 걸로 봐도 다 알아  
그문 치마는 요디까지 동무릅

103012 @ 우에는 저고리?

103012 #1 우엔 흰저고리

103012 @ 아, 게도 일본놈들은 일본말 허랜 허멍 저고린 입으랜 헛다예

103012 #1 괜찬애 옷은 건디 그 히다다께 해여근 구시께이 허는거는 옷을 뜯른  
옷 입어. 몸빼. 거 이제 그때 몸빼가 저거라. 그땐 이 치마베긴 안입어난디 그때는  
몸빼 입언. 몸빼 입어그네 요만이헌 저 운동복 닳은 것이 있어. 구쇼 혈때는 준비허  
고 구시께이요 허민 빨리 들어오는거 굿쇼는 이 미국놈덜허고 일본놈덜 싸울거 아  
니냐? 구쇼허는 건 벌써 미국놈덜이 들어온다는 준비고 이, 굿쇼께이면 지경 들어  
왔다. 가이쵸 허면 나갔다 허는거. 거난이 저어른 뱃해나도 저 일본말 잇어불도 안  
허여. 아이고 난 대가리가 돌대가리 다된 허민 아이고 아니 성님 잘도 머리 좋아.  
거니 이제 뭐 옛날 일본 노래도 다알고

103012 @ 그때 배왔던 사름이 한명도 어수게

103012 #1 나같이 고령은 다 죽어부러서 어서.

103012 @ 구십난 이명환 할아버지는 동창 아니파?

103012 #1 아니아니 선배.

103012 @ 뗏살 선배라?

103012 #1 세 살,

103012 @ 세 살? 그문 그 학교 안다녀수과?

103012 #1 그할으방넨 하늘천 따지 학교는 안당기고 한문 헌 어른. 우리허곤 틀리  
지. 그어른은 한자만. 우린 일본말

103012 @ 그삼춘은 농사는 지엿지예?

103012 #1 농사짓지.

103012 @ 그렇다고 탕건을 만든 것도아니고 남자들은 그냥 농사만?

103012 #1 그때는 명원이네 아방넨 바당에 듬북 해나실거여. 걸름혈라고,

103012 @ 게도 살아남았다는게 중요헌거 아니파?

103012 #1 그 할으방 살았다 어떻행. 다 죽은디. 명원이네도게 다 죽엇주 건디 저  
하르방은 어떻행 살아서. 것 회한해. 나도이 곱안 조천가낫잔아. 이덕구 맨날 세계  
는 맨날 심으레 오난,

103012 @ 삼춘네는 순경이나 누구네 친척이 잇지 안해시카?

103012 #1 엇어 엇어. 경찰 이신 사름 뺨이야 막 좋주, 거 우리는 어서.

103012 @ 삼춘은 조천 간 해도 그 이명환 하르방네는

103012 #1 그 이명환하르방은 신촌리강 살곡 난 조천 가부런. 하도 심으레 와가니  
까 아, 저하르방 산건 보민 어떻헨사 살아신고 몰라. 나가 거 들어보저 들어보저 허  
멍. 아니 아시는 죽고 건디 우의로 성제는 확실히 살아서.

103012 @ 둘이가 살았구나.

103012 #1 멍원이 멍운이 멍돈이 우에 하르방이 멍운이  
103012 @ 그 우엿 할아버지도 살안?  
103012 #1 우엿 하르방이 멍원이.  
103012 @ 멍원인 젤 큰아들. 두 번째 하르방도 살안?  
103012 #1 몰라 죽어신디. 시에 사난게. 세 번째는 멍돈이는 어릴때부터 죽어불곡.  
단명허연.  
103012 @ 거기도 신촌의 역사가 나오겠다예.  
103012 #1 그 하르방 모르는거 어서. 한자가 많이 들엇잔아. 뭐 구신도 떼는 하르  
방이라. 자기네 각시 켄런 현디이 자기 정문으로 떼고렌. 경 경 한자로 한자가 이  
구신 떼는 글이 있어. 그하르방 저걸로 떼고렌. 궂헐건디 완전히 걸로 떼고렌. 지네  
각시,  
103012 @ 살아계셔마씨?  
103012 #1 할망 죽언. 저 하르방 메뉴리영 살암실거라.  
103012 @ 게도 메뉴리도 펜션 허고 잘 사난.  
103012 #1 메뉴리 잘살지. 동장도 허고,  
103013 @ 그른예, 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13 #1 밥허지게.  
103013 @ 밥하고, 게역,  
103013 #1 게역은 보리쌀로 안해여. 보리 보리 바삭 들랏당 비와가면은 보까다가  
ㄱ레에 곶아.  
103013 @ 아주 옛날엔 솟뚜껍에 낵 보까수과?  
103013 #1 어어, 그거그거 곶아곶아. 곶아그네이 저 사꼬린 농곡 소금 낵 ㄱ라그  
넵에 막 체로 쳐. ㄱ는 체로 치곡, 거름체로 치곡  
103013 @ 거름체는 더 가는거?  
103013 #1 ㄱ는첸 줌진거, 거름첸 줌 흘근거. 대거름첸 아주 흘거. 보리쌀을 영  
벌르면 이제 대체로 처낵 대거름체 치곡. 체가 세 개 들어가. 대체 중체 거름체. 또  
ㄱ는체 네 개. 대체가 질 흘근거. 그냥 대체는 이 영 흘은거 보리쌀 걸려.또 열멩이  
가 있어. 열멩이, 더 흘근거. 열멩이는 흘근거 치는거고 대체는 그다음. 그다음은 중  
체, 그 다음은 하체거든.  
103013 @ 하체?  
103013 #1 줌질이 허는건 ㄱ는체.  
103013 @ 경행 게역을 허면 어떻행 먹어수과?  
103013 #1 맷돌에 곶아다가 먹주,  
103013 @ ㄱ레에 곶앙 그거 햏당, 언제까지 여름에? 여름에 주로 먹엇지예.  
103013 #1 응, 영영 치여. 치여그네이 보리밥에 부병먹어. 또 물에도 타먹고, 그리  
해여.  
103013 @ 또 우미?

103013 #1 우미도 슬망먹고. 우미도 슬망덜 게역에 버무령 먹는다 난 아이먹어나  
난 몰라. 게역에 버무령. 난 우민 안먹어. 우미 슬문건 안먹어 본래부터 . 먹고프지  
안해여.

103013 @ 무사?

103013 #1 몰라. 먹기가 싫어.

103013 @ 건 요즘도 살빼는 거랜 해영 젊은아이덜 막 먹은덴 헛디다마는예.

103013 #1 난 우민 먹어본 도래가 어서. 먹어지질 안허여.

103013 @ 거른 또 다른걸로 먹어난 적은 어수과? 게역은, 물에 타먹는게 제일.

103013 #1 게역은 먹지. 게역은 먹는데 우미는 안먹어. 정내 나가지고. 정내냄새낭  
안먹어. 다른 사람은 막 먹어도 난 정내냄새난 우미엔 헛거는 안먹어.

103013 @ 게역은 좋아합니까? 지금도 해먹어?

103013 #1 게역 이젠 뭐 그거 먹나? 음식덜이 좋은디. 게역 안먹어.

103013 @ 옛날에는 아이들 막 그걸로 보리낭깻이로

103013 #1 보리볶은 것도 먹곡 게역은 막 생각해서 게역 허지. 아무 집이나 게역  
못해.

103013 @ 게난. 아이덜은 게역행 쥐나수과?

103013 #1 해젯지. 그때는 아방이사 농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옛날엔 결혼 아  
니헌때니까 탕관만 헛 때니까 우린 농사 아니허고 골쟁이도 안죄어나서. 결혼헌 후  
제나 농사지엇지이 밧디엔 헛건 구경도 안헛. 탕관만 헛 탕관만 해연.

103013 @ 동카름에 물을 거려당 먹엇지예. 허벽에. 어느 물이 좋앗수과? 큰물?

103013 #1 큰물에는 섯동

103013 @ 섯동이 큰물. 여기는 무슨물 길어당 먹어수과?

103013 #1 가만물

103013 @ 예?

103013 #1 가만물

103013 @ 가만물? 지금도 이수과?

103013 #1 잇지.

103013 @ 거기 물도 시원행 좋아수과?

103013 #1 좋아실거라. 난 안봐봐서.

103013 @ 삼촌 어디강 물 길어당 먹언?

103013 #1 가만물.

103013 @ 가만물. 요즘 안가뵈?

103013 #1 응, 돈물은 메와불곡.

103013 @ 돈물은 메와부런마씨?

103013 #1 통물도 잇곡

103013 @ 돈물이 좋앗구나

103013 #1 아니 가만물은 헛디 돈물은 좀 찻찌름해, 짜. 통물도 메와불곡. 이제 가



만물 하나 있어.

103013 @ 아이고 언제 메와부러수과?

103013 #1 자동적으로 메와졌지. 아이먹어가난.

103013 @ 아오야. 물이 안나와? 게른 비올땐 나올수도 잇잖아예.

103013 #1 이제이 우의로 수도가 뽑아부니까 물줄기 뽑아부난 물이 다 죽어부런. 그전인 이 물줄기 아년땐 막 허는디 큰물도 죽어부럿네. 우이로덜 수도 뽑아부난. 큰물 창창창창 허는 물이 죽어서. 우이로 수도가 뽑아부니까. 물줄기, 물줄기를 우이로 강 수도 강 뽑아부니까 내려오냐? 그제.

103013 @ 문제는 그거라

103013 #1 그래. 물 우이로덜 막 수도 걸어부럿잔아. 옛날 와홀 ㄱ쁜딘 물 있나? 글로덜 강 막 파부니까 한라산으로 물줄기덜이 다 뽑아올라부난에 이레는 물이 죽어부럿주. 다 수돗물만 먹엄주. 수도에서 빨래허고 수도 먹고 허난 무신 바당물 먹엄나. 먹지도 아녀 바당물

103013 @ 먹지도 안허주마는 물이 거 죽어버리면 큰일인데

103013 #1 물 죽엇지게. 우의로 다 뽑아부난.

103014 @ 그른 이제는 보릿겨 보릿집 보리카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103014 #1 보리 까끄는건 기계.

103014 @ 아니 그 보리 낭땡이랑 보리 꼬시락이랑 이런거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103014 #1 이 답답헌 아이야, 보리를 빌거아니냐. 비민 몰라. 몰르민 이젠 짚이 있어. 걸 영 막 세와다가

103014 @ 그걸 보릿대랜 험니까 보릿낭이랜 험니까? 보릿낭깽이?

103014 #1 보릿낭 마라 짚땡이로 허영 보릴 무꺼. 보리고고리채 묶어. 무꺼당 늘엇다가 구루마 빌영 시꺼당 이제 홀타. 그놈의걸. 이렇게 홀타 막 늑 빌어당 홀타. 게민 말젠 보리 지게 빌어당 태작마당에서 태작해

103014 @ 그거 고고리만?

103014 #1 고고리만. 남땡인 남땡이대로 무경 늑엄네.

103014 @ 남땡이는 이삭 고고리 털어난 걸 남땡이랜 허지예?

103014 #1 남땡이는 이렇게 홀타. 보리고고린 보릿고고리대로 허고 남땡인 남땡이대로 해

103014 @ 남땡이는 낭깽이를 말허는 것과?

103014 #1 응 남땡이만 딱루 허민 짚땡이 해당 그놈을 무꺼그네 늑어. 걸름도 허곡.

103014 @ 남땡이가 보리낭깽이, 보리낭을 남땡이랜 해수과? 이거 고고리 빼버린거를 남땡이엔 허는거?

103014 #1 응, 빈걸. 그건 보리낭 보리찍.

103014 @ 난 보리고고리에서 보리 빼진 것이 남땡인줄 알아신디.

103014 #1 아니 낭쟁이가 보리쩍. 이제 매탁기계 빌어다그네 때려. 이젠 새 기계 난 한글허지 매탁기가. 그전인 도깨로 두들어낫잔아.

103014 @ 남탱인 놀엇당 그걸 어떻 씹니까?

103014 #1 뭐 불도 솜양 밥도 해먹곡 통시에 낱 걸름도 허곡,

103014 @ 애기구덕에도 놓고

103014 #1 애기구덕에도 놓곡 또 소 또꼬망에도 걸름 막 짚곡. 필요해여 보릿낭이.

103014 @ 뽕송뽕송허니까.

103014 #1 기양 통시에 담양 걸름도 허곡. 소 또꼬망에도 막 짚아주고

103014 @ 여자 애기날 때도 북덕자리엔 해그네

103014 #1 연날엔 여자 애기나면 피나면 보리낭 짚아. 마나민 뉘허고 뉘 옷이 있나마나. 그놈을 행 애기 붓이 있어이. 그거행 바당에강 다 엉과강 슬아.

103014 @ 그걸 북덕자리랜 해수과?

103014 #1 그거.. 붓 붓 아기붓. 돼지나 소나 붓 잇잔아. 사름도 그런거 있어. 바당에강 태와. 거 잘못 해민 애기덜이 피부병 걸렝 뽕족뽕족 거 잘 아이 캐왓당은 애기 피부병 걸려.

103014 @ 잘 태우고 안태우고가 잇수과? 깨끗이 태우라는 말?

103014 #1 이 장소가 깨끗헌 자리에 아이햇당은 애기가 피부가 나쁜덴 허여.

103014 @ 아, 태우는거.

103014 #1 또 뱃줄덜은 꿇엉이, 이룬디 공장에 돌아매여.

103014 @ 뱃똥줄? 애기꺼.

103014 #1 배똥줄 잇잔아. 그 애기날 때 배똥줄 있어. 게문 실로 무끄민 혼 일주일 되가튼 그거 털어져. 털어지튼 공장에 돌아매여.

103014 @ 메칠간?

103014 #1 거 막 오래 햇당, 오래 정성허는 사름은 막 오래 낫당 그 애기 대학 시험갈 때 보겏도에 싸매주.

103014 @ 우리할머니도 보관행예 나한테 줘디다게.

103014 #1 왜냐하면 그애기 몰르게 보곰지더레 놓으튼 거문 합격된덴.

103014 @ 그거를 낫당 나중에 꼭 나한테 줘디다게.

103014 #1 거 이제도 이서?

103014 @ 예. 어디실거라. 할머니가

103014 #1 야, 할마니가 똑똑허다게. 우리는 어드레사 아시다 데껴져신지.

103014 @ 요즘은 산부인과 가도예 거 주랜허민 주긴 험디다.

103014 #1 주어. 주는디 씹 끈영 아무디나 냉것당 아닌것도 기엥허명 앓다준덴해라. 또 그걸 그 아이를 허느냐? 그땐 무테기로 가낫싸정 어느것사 기산디. 거 이녁 쿠로 난때 뜯루허주이. 그런디건 믿질 못해여. 생각해보라. 요라 아기 나는데 어느거이 기산디 알말이가. 그거 그 애기 날 때 간호사신디 직시 나건 해드랜 행 아니

행은이, 구벨허지 못해여.

103014 @ 아이구 옛날 예 봐난 사람이 그난 팔십 넘은 분들신디 얘기 안들으민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103014 #1 모르지. 이제 죽어볼른 몰라. 나도이 이 동네서 젤 나으 하영 먹은 사름이라. 멍원이 다음에 나라.

103014 @ 고시락은 어떻 써수과? 굴묵 지던? 꼬시락

103014 #1 고시락은 이 매탁기계 막 두들어나민 그 고시락 누는 사름은 놀어그네 굴묵짓고 또 창고이신 사름은 창고에 낱겨. 겨울에 때젠. 굴묵 짝뿔할 때

103015 @ 그른 이 보리 쥔 가정으네 아니면은 보리에 대한 추억, 예를 들면 꿩독새기를 봉갓다든가 보리하면서 뭐 고시락이 들었다든가, 뭐 보리를 베다가 무슨 뭐 그런 뭐 옛날 생각나는 것들은 어수과?

103015 #1 우리 옛날은 마당길 해난 끝에는 태작기계 나왔어. 근디 그 태작기계 혈때도 고시락 그거 이제 창고에 담았다가 겨울엔 그거 해다가 굴묵지던. 거 막 필요헌거.

103015 @ 삼촌도 보리벨 때 꿩독새기 발견허든 가정왕

103015 #1 아니가져왔지, 불쌍해서. 아니아져완. 그 꿩이 세 번만 새끼낭 일러볼른 이 돌 안양 둥글영 키웁넨. 애썬게. 혼번 두 번까지 허당 세 번차 일러볼민 돌안양 그냥 깨왕 꿩이 죽나 허여.

103015 @ 그거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예?

103015 #1 아니, 경 죽넨 꿩이.

103015 @ 메께라. 가이도 그런 멧힌게 이서가지고

103015 #1 경허난 사람이 꿩만도 못허여 꿩만도 못허여. 짐싱만도 못허다 이거라. 짐싱은 자기 새끼들 거둬건마는 사람은 새끼나동 데껴부러동 돌아나볼메. 사람이 짐싱만도 못허여. 거니까 옛날도 나쁘니까 베락맞앙 죽잔아. 이젠 베락이 어서. 옛날은 이 어떻행 베락을 치냐 허면은 옛날은 비웃엇영 새로 만든 비웃이 있어. 너 아나?

103015 @ 우장?

103015 #1 우장. 그걸 썩면은 그 천둥이, 왈캉왈캉 나쁜 새가 있어이, 그것이 총달 샌가 무신 썰거라. 올라갈때는 하느님하느님 살려줍서 살려줍서 허곡 내려올때 내 또꼬망 비짜비짜 해부니까 내려올때는 거니까 그 천둥해가든 새가 노래영이 그 우장 잇잔아, 그 소꿉더레 들어가든 그 새 죽이쟁 허당 그 사름 죽여. 게난 죄 짓은 놈 겹디 앓앗단 베락맞나 경허는거지. 무사 안들언?

103015 @ 처음 들어보멘

103015 #1 죄 잇는 사람 즈꿉디 앓앗당은 베락맞나 이거라. 그거 그거지. 젓도 안들어? 이거 추억이라.

103015 @ 총달샌가 뭔가 처음에는 살려줍서 허당 똥꼬망 비짜비짜 내려와가난 그 사냥꾼이 걸 쏘젠허난 어떻마씨?

103015 #1 사냥꾼이나, 하느님에서 베락을 때려. 옛날에  
 103015 @ 버릇없다 해가지고 그 새안테 베락을 때렸는데  
 103015 #1 또꼬망 비짜비짜허난 사름 그뜨몬 나무랫다 허는거지 하느님이. 비짜비  
 짜 해가면은 그거 베락을 때리는게 우장 소곱더레 그 나쁜 새가 들어가. 거난 거  
 죽이젠 허난 그 우장 썬 사름까지 다 죽엇젠. 게난 죄짓인 놈 즈꿏디 앓앙 베락 맞  
 나 이거야.  
 103015 @ 게난 죄짓인 놈은 그 총달쌌가 현 생인다.  
 103015 #1 그거 죽이젠 사름 죽엇네게;  
 103015 @ 아이구 그 저 우장속에 들어간 베락 맞았다.  
 103015 #1 왈강왈강헨 노래가난게 우장소곱더레 들어가난게 새는 이레 들어 새죽  
 이젠 허당 죄짓인 놈 생일 쏙젠 베락 때려신디 사름이 죽언. 게난 죄짓인놈 즈꿏데  
 앓앗당 베락맞나  
 103015 @ 죄짓인 놈안티 베락이 떨어져야 허는디 참...  
 103015 #1 게난 죄짓인 생이는 못쏙고, 우장썬 사름 죽인거 아니.  
 103015 @ 게난 말이우다  
 103015 #1 게난 쿠에 쿠어부난 못죽언. 게난 우리 사투리가 에이구 죄짓인놈 즈꿏  
 디 갓당 베락맞아.  
 103015 @ 그말이 나왔구나예.  
 103015 #1 그 그말거. 게난 에이구 승에 튀당 복쟁이 튀당 웬담에 배채여정 죽고.  
 103015 @ 예?  
 103015 #1 승어 튀는 거 뵈당 복쟁이가 튀어. 튀당 이젠 웬담에 뱌 체어정 죽나  
 승에까지 뱌룩뱌룩 튀지못허난 죽은 거야 웬담 배가.. 그거야. 어이구 둥글어온 돌  
 이 박인돌 팡팡 차고 둥글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팡팡 찬덴 경허고 느 나말 많이 배  
 완다. 사투리  
 103015 @ 이걸 잘 적영 써먹어야 되는데. 게난 꿩독새기는 아예 안 슬마먹어봐수  
 과?  
 103015 #1 아예 봉가도 안봉가. 속아판. 거 이녁이 그뻘이 계란 어신큐니까 꿩독  
 새길 막 필요허지 계란 이시난 거 봉가오젠도 아니혀.  
 103015 @ 아니 옛날에 우리 할머닌 봉가당 슬마주민 막 맛 좋게 먹어난.  
 103015 #1 이젠 계란 이서부난  
 103015 @ 아, 옛날 얘기  
 103015 #1 옛날엔 게도 이젠 이, 옛날도 안 사름은 꿩독새기 꿩이 가슴아픈덴헨.  
 꿩이 세 번만 새끼 일르몬 그냥 돌안앙 죽어분덴. 그렇게 꿩 가심 아프듯 자기 새  
 끼 주워와부난 꿩이 얼마나 가심 아플거니.  
 103015 @ 아이구 세상에. 게몬 보리 베당 무시거 뱌 보고  
 103015 #1 뱌 보지  
 103015 @ 죽이진 안했지예?

103015 #1 베염이 빌때는 없어. 비영 보리가 아정 코징코징 놓지. 경 묶을 땐 있어 베염이. 빌때는 없어. 산 보리 벨때는 엇엇당 무꿀때는 밑에 일언

103015 @ 그문 놀라고?

103015 #1 그 소곱에 숨엇다가.

103015 @ 물린 사람은 안봐봐수과?

103015 #1 몰라 보리 무끄단 물렛젠 말은 엇곡, 그 소곱에 잘 들어간덴 해여, 베염이.

103015 @ 작대기로 막 툽툽툽툽 해야주게.

103015 #1 어떻행 매 것에 딱딱 두드나. 바쁘니까 그냥 무끄기가 바쁘지. 독독독 아이고 한걸도 헛져. 야이 님은 아이. 그 독독 두드는 사이른 땃개 무꿀거니. 어이고 독독 두들고.

103015 @ 계난 무서와서 요즘은.

103015 #1 예구 느네 시절은 얼마나 좋은 시절 만나시. 일제때에이 그 고생허연 공출 다해가부런 우리 배고광 못살아. 일본놈덜 만딱 공출해가부난 이 죽만 먹어네 이젠 죽을 먹구정을 안헌덴허난. 뇌연. 쫄 혼 관대 받아왕 거 땃 번을 죽만 먹을거니. 거니 우리가 죽만 먹영 죽을 먹지 안허잔아, 뇌영. 죽 아이고 밥만 먹겐허민. 야야 쫄이 어디시냐. 거문 이젠

103015 @ 무슨 죽을 주로 끌영 먹어수과?

103015 #1 근쫄 말랑 그거 받아당 죽 쭈고게, 일제때 만딱 공출해가부니까게,

103015 @ 보리죽도 먹곡

103015 #1 보리죽도 먹곡

103015 @ 콩죽 좁쌀죽

103015 #1 호박입에 보리ㄹ루 서팅도 먹고 또 감제 덩굴 해당 솔망도 먹곡, 경해여.

103015 @ 어려운 시절예.

103015 #1 또시 바다에 폐, 폐 해여다그네 슬픈 사람이든 그거 사당 먹곡. 큰 항에꺼 전문으로 허는 사름이 이서. 폐 허곡 이제 그것이 못 ? 못해당 슬픈 그렇게 맞아서.

103015 @ 바다에?

103015 #1 바당에 폐에다가

103015 @ 폐가 어떻게 생겨. 몸 같은것과?

103015 #1 아니아니, 폐가 있어. 이제 폐가 없어 오염으로 다 죽어부난. 그 폐가 이 까실까실까실 해여. 근디 못은 슬픈 그것이 문데기 슬마져. 경허든 보리쫄 혼 사발 아저가든 무웃 혼 사발 바파쥬.

103015 @ 그든 그거에 뭘 서꺼서 밥을 해여마썸?

103015 #1 그냥 무웃만 먹어. 쫄 엇이니까.

103015 @ 툷 달든것과?

103015 #1 툇 달믄건.. 까실까실까실 줌진줌진헛거 잇어.  
 103015 @ 색깔은?  
 103015 #1 까망해. 것에 못에  
 103015 @ 슬망 먹어?  
 103015 #1 향 앓져가지고 다 나 허는거 봤어. 어린때도. 향에 밋밋 그 흑 잇잔아. 흑으로 다 블라. 아래 이 쉼똥으로 숨데. 빨리 괴믄 안되여. 츠츠츠츠 해사 딸려져 경허민이 무웃 혼사발 아정왕 보리썰 혼사발 바짱와. 뭇 오죽 먹고정 해사 . 그그 무웃 장시가 이서.  
 103015 @ 거 못은 거 딸려?  
 103015 #1 향에 향.  
 103015 @ 향에 걸 끌여  
 103015 #1 향에이 흑해당 막 블라그네 낭으로 허민 왈랑왈랑헛 재기 딸려진댕 못 썬는거. 쉼똥으론가 무시걸로 막 숨데,  
 103015 @ 게믄 그걸 국물을 먹어마썬?  
 103015 #1 국물이영 건데기영  
 103015 @ 건데기영 다먹어?  
 103015 #1 맛 이서. 들아. 이젠 거 먹도 아녀. 이젠  
 103015 @ 나 어떤 건지도 몰르कु다. 바당에 이시카.  
 103015 #1 그거이 그 폐가 이젠 오염된 어실거라. 녓패 마랑 폐가 잇어. 까슬락까슬락 헛거. 그거해당 딸려.

### 조농사

103016 @ 녓패 마랑 폐예. 못하고예. 그믄예 이제 조농사만 오늘은 허कु다예. 조농사까지예. 조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는 이, 하영 블리는 사람은 이제 갈아그네 줍썰 내껴. 남테로도 블르곡, 또 이신 사름은 저 웃드리 가그네 물테우리 말, 말, 그거 빌어당 블르곡.  
 103016 @ 아, 웃두리 강. 물도 빌리곡, 물테우리도 빌렝.  
 103016 #1 물 킵는 사름신디강 굴민 블러그네 돈벌젠이, 조랑말덜을 많이 질루와. 물도 하나썬 죽어 더웁. 물 먹구정 헛때 막 블런. 물도 이 막 죽는 말이 이서. 밋블리당. 여려썬지기 블라봐라 말이 얼마나 애쓰나. 경해영 땃썬 줍곡. 또 그냥 사름은 이, 그냥 보릿고리 그 남댕이 굽텅어리 그거 메여그네 골갱이로 글경 영 발로 블랑. 건 썬썬락헛게 헛는거. 하영 허는 사름덜은 이 큰밋더렌 그냥 갈아그네  
 103016 @ 보리 해난 다음 조를 갈아수과?  
 103016 #1 으으 그렇지. 또이, 음력으로 오월이 그물아가민 조 블리지. 음력으로.  
 103016 @ 그믄 그냥 밋 갈명 조 썬 뿌렝 블릅니까?  
 103016 #1 그렇지. 조는 이 빨리 나기 떡분예 빨리 아이 블랑 듯날 블르젠 허민 나불어. 순 나불어.

103016 @ 아, 거문 안되겠다예. 시기 놓치믄

103016 #1 거난 조 밤에 꿈본 말광 머리 검은 그 조 시꾸믄 이 막 그날 급히 일이 난덴 허여. 너넨 조 아니해나부난 꿈에 안시꿔저마는이, 조 해난 사름덜 조 시꾸믄이 막 걱정덜 허여. 금방 일이 터진덴 허여. 브리 시꾸며는 볼일 난덴허곡

103016 @ 볼일이 뭐짜? 잔치라든가 부주?

103016 #1 볼일, 볼일게 잔치때나 뭐 영장 난 집이나 그런디 볼일. 소상 대상도 볼일이고.

103016 @ 조 시꾸믄?

103016 #1 빨리 일 터져.

103016 @ 빨리 일 터진다는 거는? 영장도 날 수 잇고?

103016 #1 사름이 금방 직사도 허고,

103016 @ 죽을수도 잇고

103016 #1 그렇지

103016 @ 영장난다는 말이다예. 빨리 나기 때문에 씨 뿌리자마자 불러야 된다는 거다예.

103016 #1 보리는 보리 시꾸믄 볼일나고 조는 빨리행 일터진덴. 거난 나쁘지 그게. 니넨 그런거 아니해나부난 그런꿈 아이본다. 우리는 해나부난 그런꿈 봐

103016 @ 조농사를 할려면 테우리들안테 빌리민 돈 줘야 되는건가?

103016 #1 줘야주.

103016 @ 뗏마리 데령오믄?

103016 #1 혼말지기 불른것에 얼마 해여근. 백오십쟁이 혼말 아니냐. 그 혼말지기 불리민 얼마 달랭허여 그 사름덜.

103016 @ 달랭이? 들랭이

103016 #1 혼말지기 불르민 돈을 달라 해여. 얼마얼마. 게문 열마지기민 돈이 하지.

103016 @ 그믄 물을 지네가 열 마리 데려오든 다섯 마리 데려오든 알앙으네 불리면은?

103016 #1 이 한말지기 불린것에 얼마허면은 밧임젠 돈 주고. 또 물이 하면 빨리 불리곡.

103016 @ 건디 신촌은 거의 불렀다는거지예?

103016 #1 그렇지. 남테로 불라 남테로.

103016 @ 신촌은 남테예?

103016 #1 남테로 주로 불라. 그거 돌아오젠 허믄 막 돈 마니 들어.

103016 @ 남테는 물 뒤에 이렇게...

103016 #1 어, 나무로 만든거. 것이 남테.

103016 @ 그러면 남테도 여러개 헛겟다예.

103016 #1 남테가 발 많이 돛치지 이만이헌 나무에다가.

103016 @ 그거 여러개. 물에다가 하나씩?

103016 #1 아니, 그 남테에다가 이만씩헌 남을 가까가지고 박아 . 박으민 물 발궤  
치 콕콕콕 들어가. 것이 남테.

103016 @ 거 사람이 험니까, 말이 험니까?

103016 #1 아니, 사람으로도 콕, 물로도 콕고 또 물 험나에 사람 여러개 담아들  
영 불리기도 허곡.

103017 @ 조팏 걸름은 어떻게 마련해수과?

103017 #1 어디 조팏딘 걸름 안해여. 보리왔디만 허주. 조팏딘 걸름 안해여. 가끔  
요소부념 하나씩 아저당 뿌리주 걸름은. 보리왔디 걸어난딘 그거 조 불리지.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보리 해난 끝에.

103018 @ 보리헨 끝에 유월? 음력 오월 그물어갈 때?

103018 #1 아매도 오월 그물어갈 때 조 불릴거라. 어린 때 해나부난 나도 모르겄  
다.

103019 @ 좁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19 #1 아 망탱이,

103019 @ 똑같아? 보리랑?

103019 #1 그렇지.

103019 @ 것도 잘 뿌리는 사람이 해야겠다예.

103019 #1 그래. 못허는 사름은 문탁문탁 가는디 가고 안가는디 안가주마는 잘 불  
리는 사름은 쪽 골르게

103019 @ 주로 남자가 뿌립니까?

103019 #1 여즈도 잘 뿌리는 사름은 잘 뿌리고.

103020 @ 조팏은 어떻게 밟습니까? 남테. 말테 돌테 끈개 이런건 안들어봐수과

103020 #1 그거 무싱거라 돌테. 돌테가 머이라?

103021 @ 현대말로. 신촌은 남테예. 조팏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조팏 검질은 몇  
번 맵니까?

103021 #1 세 번.

103021 @ 보리는 두 번 조팏은 세 번? 식물검질예?

103021 #1 조팏은 이 유월 가달만 냉겨지믄 조 좋넨 헨다. 게난 이 검질을 그렇게  
메여주랜 말이지. 가달만 냉긴 것이 뭐 조냐게. 그렇게 검질을 메여주랜 헨거지.

103021 @ 그면 세 번 매고

103021 #1 조팏디는 세볼, 보리왔디는 두볼.

103022 @ 조팏 검질들은 어떤 검질들이 잇습니까?

103022 #1 검질이 뭐, 조팏디 검질은

103022 @ 여름검질?

103022 #1 그렇지. 쇠비념도 잇고, 궤조도 잇고, 것궤라 무시거랜.. 재완지도 잇



고, 또 것ㄴ라 무신것도 잊져마는 몰르키여.

103023 @ 조 수확은 베고 묶고 하는 거는 어떻게

103023 #1 조는 익어가면은 고개 , 사람도 잘난 사름은 항상 고개 영 숙이잔아. 못난 것이 거짜헌다. 조도 이 ㄴ레조 못난건 버짜허고, 질익어가믄 고벳허게 절허잔아 조도. 거난 조도 잘난건 이렇게 고개 굽고 못난건 ㄴ레조ㄴ찌 거짜헌거 셔. 그렇잔아. 너넨 몰라도이 못난게 아이구 이 고레조 닳은 새끼야

103023 @ 어떻 베어마씨? 조 베는거. 똑같아 보리랑?

똑ㄴ치 비지. 낮으로.

103023 @ 묶는 것도 똑같아마씨?

103023 #1 그렇지. 조도 이렇에 비영 물류면은 호미로 다 고고리만 톤아.

103023 @ 일단 묶영 말려?

103023 #1 아니. 무경 물류와그네 놀엇당 톤으는 사름도 잇고, 그냥 년째 톤으는 사름도 잇고. 거 왜냐 허면은 그거 묶어그네 허는 거는 일기가 비왓직 허면은 무꺼그네 놀잔아. 저 비맞으카부덴. 또 비 아니온 날은 그냥 누엇에서 막 톤앙

103023 @ 톤앙 맥에 담양?

103023 #1 맥에도 담곡, 가마니에도 담곡, 푸대에도 담곡.

103023 @ 경행 집에 가정왕 도깨로 두들겨. 홀트는 것이..

103023 #1 건 보리. 홀트는건 보리. 조는 고고리로 톤아당 그냥 두드는 거고. 보린 홀탕 두드는거고.

103023 @ 게믄 무끄는건 ?

103023 #1 무끄는 건 조남댕이. 조 톤아난거.

103023 @ 조남댕이는 놀어 또?

103023 #1 아니 비왓직 허면은 그냥 무꺼그네 헛당 날조민 톤곡, 또 비아니왓직허민 그냥 내부럿당 톤곡.

103023 @ 그 남댕이도 놀엇당 뭐 씹니까?

103023 #1 게. 쓰지. 소 맥이잔아.

103023 @ 조남댕이는 소맥여 예. 것도 놀어야겠다예

103023 #1 또이 그냥 사름은 밥헛고, 솜양. 소 어신 사름은 걸로 불솜양 밥헛곡. 소 잇는 사름은 콩고질이고 조남댕이고 소 다 맥여. 소 아예 어신 사름이 불때주.

103023 @ 버릴 것 엇다예 진짜.

103023 #1 응 버릴 거 엇지. 다 보리남댕이고 조남댕이고 다 필요허게 써.

103024 @ 조 타작은 고고리 그...

103024 #1 고고리로만.

103024 @ 고고리는 도깨도 하고 덩드렁마께로도 톤고?

103024 #1 응 마께로 두두는 사름도 잇고 태작, 한 사름은 조로 태작허는디도 신디. 호꿈만 현 사름은 마께로.

103024 @ 어디다 낱 마께로?

103024 #1 덕석에다가 낡 마개로 두둘어.

103024 @ 여자들이예?

103024 #1 으

103024 @ 조검질 땔때나 검질땔때나 노래는 똑같으과?

103024 #1 보리검질 땔땔 노래 허지 못해. 해가 쫄라노난. 빨리행 허젠허믄 . 조검질이 해가 질잔아. 막 더웁고 땀나곡. 거난 거 소리로 그냥 전딛잔아.

103024 @ 거난 조검질에 소리가 나온 거로구나예

103024 #1 거 못전디니까 해는 질고 막 뜨거웁고, 해는 짱짱 불르고, 그때는 모제도 없어. 모제도 어시민이, 풀 해다가 그냥 감양 써. 더꺼.

103024 @ 머리수건에? 머리수건 썩 우에다 더꺼?

103024 #1 써낱 영 수건 써는 사름도 싣고 수건 엮는 사름은 풀로 감양 그냥 싣고. 풀로 감양 머릿수건 쓸수도 있고, 수건 이신사름은 그 수건에 풀해당 더꺼도 수건 어신 사름은 풀로만 감양 그냥 써 . 우리 시절이 그렇게 얼먹은 시절이야.

103024 @ 그 풀이 뭐 모싣있도 있고 뭐

103024 #1 모싣있 안돼. 그거는. 그거 일름이 무싱건지 몰르커라.

103024 @ 사삼때 맹개냥은 연기가 안낭

103024 #1 맹개냥은 거 불때는 거고. 영 싣는 거는 거 무신 꺾줄인가

103024 @ 아, 칙, 칙.

103024 #1 칙 달믄거 해당으네 씨잔아. 모자ㄴ치룩.

103024 @ 그건 하간디 많이 이시난예.

103024 #1 거 걷어다그네 밧디 영 백해 이시민 호미 안 아정 가믄 돌로 못아당 걷어그네

103024 @ 맞아 끓기가 어려워. 아, 그걸 꺾이랜 햄신가, 칙을?

103024 #1 칙은 꺾이엔 허메 옛날. 우린 칙이엿 허고

103025 @ 좁쌀은 어떻게 장만헐니까?

103025 #1 좁쌀은 기계에도 강 굴곡, 기계 나기 전엔 ㄴ래. 큰 맷돌에다가

103025 @ 것도 몰ㄴ래

103025 #1 걸로 굴아. 기계난 후제는 기계에 강 굴아.

103025 @ 거 조코고리에서 툫아난 똥글락현 짝은거 그거를 몰ㄴ래에 노면은 다 부서져불지 안해마씨?

103025 #1 그거 부서져야 겹데기가 허지. 그거이 불려다가 또 굴아야지 경아니허미뉴그 겹적이 많이 이시민 밥 못먹어 비삭비삭. 다 뺏겨놔야.

103025 @ 하도 방울이 죽아노난 거 벗기젠 허믄 보통일이 아니로구나.

103025 #1 그거 보통일이 아니. 힘들어. 보리보단 더 힘들어. 조가

103025 @ 이것도 똑같이 뭇방애가 중요허구나예.

103025 #1 건 물로 아이ㄴ는거. 그냥 뭇른차 ㄴ는거.

103025 @ 그문 다 납딱허게 찼라져 불진 안허고?

103025 #1 왜 졸라져?

103025 @ 껌데기만 벗겨집니까, 물 ㄱ레로 하면? 돌맹이 밀이니까

103025 #1 큰 돌, 요만이현 돌 , 여섯 사람이나 들어사 거 돌려. 물 이신 사람은 물허고 사람 세 개만 되든 돼. 물 어신 사람은 혼 여섯 사람은 들어야.

103025 @ 거든 다 수눌영도 허곡 빌어야켜예.

103025 #1 수눌영 허는 사람도 잇곡, 부젧사람덜은 물로 굴지.

103026 @ 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26 #1 밥행 먹지.

103026 @ 밥하고 떡? 조침떡?

103026 #1 모인조가 잇고 히린 조가 있어.

103026 @ 뭇로가 떡을 행 먹습니까?

103026 #1 히린 조. 히린조는 이 좁쌀같이 히린좁쌀.

103026 @ 뭇로 해야 젤 맛좋습니까? 좁쌀 놓은거. 오메기 감주 술 이런거

103026 #1 것도 히린조로 허여.

103026 @ 다 히린조로?

103026 #1 히린조로 해야 수확이 많이 나.

103026 @ 술 다끄는 것도 히린조. 오메기에.

103026 #1 오메길로 허든 그냥 무데기로 침떡치듯 허든가. 오메기로 허는 거는 막 걸리. 술로 다끄는 건 그냥 큰 시리에다 담아다 놔그네 허는거 . 오메기는 막걸리라.

103026 @ 오메기를 무사 오메기랜 해신고예?

103026 #1 오메기는 히린좁쌀 ㄱ루 잇잔아. 해당 물 팔팔 끓여. 해당 만들아. 게든 물 팔팔 끓러가든 그 물에다 익히는 것이 오메기라, 게서 그거 익으면은 쫄 잇잔아. 쫄 뽏앙 쫄을 묻혀야 부뜨질 안허여. 경안허민 히린 거니까 다른것에 다른것에 막 범벅돼부러. 쫄을 해여야 안붙어. 쫄을 미쳐야.

103026 @ 오메기는 흐린조를 가정 오메기 모양으로 똥그락헌거 그냥?

103026 #1 똥그락허여.

103026 @ 고망 안똥랑?

103026 #1 고망 안똥라. 똥글허게 만들앙 치여그네 쫄 술망 이렇게 이렇게 누르똥그네 툽툽 차룽에.

103026 @ 아, 그냥 먹으켄게. 술담그는게 아니고. 거는 먹는거 아니짜 오메기?

103026 #1 오메기떡은 먹는거고 술담으는건 이 그 약술이라고 오메기떡으로도 쫄 안미청 그거를 그냥 해여그네 식히면은 그 누룩이 있어. 술 원료. 누룩을 해다가 막 문작문작 ㄱ찌 꺾와 놔그네 향아리에 담으민 것이 막걸리도 되고 술도 짜곡. 그 차 좁쌀이 맛있어. 술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103026 @ 삼촌 해봣수과?

103026 #1 허다도나윈 우리 술도 다현. 폴레도 다 땡겨.

103026 @ 무사 그런것도 잘해수과? 어머니가 잘해수과?

103026 #1 장스허젠 허니까 야야, 먹고살젠 허난.

103026 @ 외할머니가 잘해수과?

103026 #1 아녀 외할망도 안시켜쥬 나냥으로 했지. 씨집간후제.

103026 @ 게도 누구안테 배와야 될거 아니?

103026 #1 아, 배웁지 아녀도 말 들어그네 허는거지.

103026 @ 이모?

103026 #1 우리 이모님네 그런거 혈충도 몰르고 우리 할마님도 안해여.

103026 @ 거난 어머니?

103026 #1 우리 친구도 그거 허고 나도 허고.

103026 @ 어머니는 안허고.

103026 #1 우리어머닌 그런거 혈 충 몰라. 거난 친구허고 나허곡 시예 잇잔아. 시예 허벅지영 풀레가. 게난 옛날엔 쓸 으스대기지못헸 술조사가 이서. 거 걸리믄 이, 징역살고 과료내여. 술 허지 못헸. 쓸 귀헌디 술로덜 해부럼댄 행. 거 몰르게 허는 거.

103026 @ 그게 경 용감허다예 게도.

103026 #1 아이고, 일로 이, 시예이 성안이엔 해낫져. 성안을 지여아전간 거믄이

103026 @ 뗏살 때 얘기짜 지금? 삼십 넘영?

103026 #1 응 시집간 때니까 혼 스물...

103026 @ 그 친군 어디 갓수과?

103026 #1 죽엇주게.

103026 @ 둘이가 잘헸구나 그럼. 벳 부청예.

103026 #1 가인 큰방에 살고, 난 작은방에 살곡. 막 좋아 가이가. 친굴 해여봐도 그친구답은 친군 어서. 이제 나는 겹둥이라노니까 술을 시예가믄 풀질 못해여. 그 들어가는디 신촌사름이 살아. 어는제믄 그 집만 가민 곱지젠게. 술 곱정. 곱저줘. ㄱ 뜬 동네사람이난. 거믄 이젠 난 노래영 풀레 안댕겨. 심으카부텐. 우리 친구가 이웃에 살당 강오난 지가 출렁 출렁 강 해당 폴아. 폴아돈 나가 폴안. 나가 폴지아니허믄 너 못가. 집의 못가.

103026 @ 막걸리? 아까 오메기떡 걸로 이름을 뭇헸 험니까? 동동주?

103026 #1 동동주는 저 술 시리에 크게 담아놔 술 허는 것이 이 술 짜 우리가. 짜곡, 막걸리는 그냥 오메기떡으로 허영 그냥 꺾여그네 메주, 아이구 갓고라 무시거헸 해라.

103026 @ 아, 삼촌은 거믄 오메기떡 술도 담가나시믄 지금이라도 허믄 장사라도 해지켜.

103026 #1 허지. 상웨떡도 잘해여. 청묵도 잘허곡

103026 @ 거 누구안테 가르쳐 줘야지.

103026 #1 저 서울서 우리뜰네 상웨떡 행쥬. 고구마 낱이 상웨떡 허민 그렇게 맛

있어. 고구마 줌진줌진 썰어놓곡 또 풋 솔마그네 양꼬 담으민 그렇게 맛있어. 그거 이 무신 약을 노나? 직접 그냥 쓸을 밥해그네 그것이 괴여가면은 부글부글허민 그 걸로 먹쑈주.

103026 @ 밀가루가 아닌 쌀로 허는구나. 땀쌀, 찹쌀?

103026 #1 그게 밀ㄱ루 밀ㄱ루

103026 @ 밀ㄱ루로 상웨떡?

103026 #1 밀ㄱ루로 해연. 우리 그런거 잘해여. 맛있젠 허메. 우리 허는거. 청묵도 잘허고, 청묵은 아무나 못허여.

103026 @ 삼촌 솜씨가, 여러 가지 잘핍수다예.

103026 #1 청묵은 이, 이렇게 영 해영 착 해보면이 고늘다리. 다른사람은 이 못헌 다 허는거라. 우린이 때려그네 영 해여보민 딱 알맞아도 뜯사람은 경해도 못허겠다 는거라. 원 이런놈의 시상도 이시카. 아이고

103026 @ 야 삼촌은 앞으로 감주 술 가지고 떡이영 ㄱ를 말이 많으큰게예.

103026 #1 다 해난것덜.

103027 @ 이번은 조짚 조남댕이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27 #1 소 이신 사람은 소맥이고 소 어신 사람은 볼로 밥허지.

103028 @ 조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질맬때가 힘들엇지 예.

103028 #1 검질만 매여 놓으면은 대풍불민 조가 어서. 다 털어부런. ㄱ리조만 남아. 거딱. 게난 양반은 다 털어지고 쌍놈만 거딱허게. 거니까 싸울땐 아이구 이 ㄱ레조 ㄱ튼 놈야. 싸울때는 오직 욕이 지독허냐. 제라헌거 다 털어부난 쌍거나 우테기 서 이서. 거난 이 날 한복희어멍이랜 허주. 한복희어멍안티 당허지 못헌덴. 어이구 숭에 튀는디 복쟁이뒤당 원담에 배채어정 죽을거.

103028 @ 어머니가 한자 복자 회자파?

103028 #1 우리뜰넌 한씨고 난 김가고.

103028 @ 아, 큰딸이 이름이?

103028 #1 한복희. 게난 한복희어멍 한복희어멍. 게난 고복희가 잇고 한복희가 이시난 우린 한씨난 한복희엔 허고 고씨는 고복희 게난 성으로 불리고랜 고복희 한복희. 우리 큰딸이 한복희 이제 가이가 예순.. 물떠난 예순 하난가 둘인가

103028 @ 물떠든 육십셋.

103028 #1 긴가? 큰딸이 예순셋이나 낫구나.

103028 @ 아이구야, 물떠로구나케

103028 #1 큰딸이 물떠. 자이도 물띠고.

103028 @ 동생들은 아깍니까?

103028 #1 응 자이넌 막 애껴. 오늘도 세 번채 뜰 어저께 와간 몬딱 냉장고 청소 해주고이 해동 가서. 뜰이 완. 게난 어멍이 아판에 무시거 못해가난 몬딱 냉장고 청소해주곡.

103028 @ 거긴 뭐 시어머니나 누군 어서?

103028 #1 다 죽어부런. 남편도 죽곡

103028 @ 삼촌은 원 대단허우다게. 어떻행으네 참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보리, 보리 비어나민, 태작해난 끝에는 그냥 콩갈잖아게.

103029 #2 콩은 아주 쉽지뭐 저 밭만 잘 검질만 엇게 하면은 콩은 씨뿌려서 갈기만 하면 돼니까.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은이 옛날은이 소로 갈아낫잖아. 보리그르에 영 빼어가지고 씨를 빼영 경 콩 가는데 이제는 그 소가 잘 갈질 안허여. 그니까 그 기계잇잖아? 탁탁탁탁 허는 그런 기계로 갈아부러.

103030 @ 옛날 옛날에?

103030 #1 옛날은 소로

103030 @ 소로예? 콩농사를 하려면 소를 빌고,

103030 #1 응. 콩농사나 조농사나 보리농사나 자기앞이 이제 소어신건 다 빌어야 허여.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보릿그르에?

103030 #1 보리 다 해난 다음에 그냥 콩 갈아.

103030 @ 소로 갈아가지고예?

103030 #1 소로,

103030 #2 양력 5월, 6월들에 콩을 갈면 잘돼주

103031 @ 그 다음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31 #1 콩은 걸름 안허여..

103031 @ 콩은 걸름 안허고?

103031 #1 보리만 걸름허여.

103031 #2 걸름 안해봤어. 콩같은 건 걸름 안해봤어.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보리 갈아난 그르에다가 그냥 막 빼여. 빼영 내불민 소로 갈민 다 나와.

103032 @ 음, 다 갈아난 다음 뺏니까? 갈기 전에 빼엇다가?

103032 #1 아니 아니 보리 갈아난 그르에다가,

103032 @ 막 빼여서?

103032 #1 빼여서 갈면은 것이,

103032 @ 갈면은 그길로 들어가예?

103032 #1 그냥 콩이 나. 이 저 콩은 이 이렇게 탁탁 튀김만해도 콩은 나는 거.

보리 닭지 안해영, 보리는 우이 내불민 안돼는데, 그 막 끼실크로 끄는데, 콩은이 우에만 빼영 내부러도 나와.

103032 #2 이렇게 보며서 잡아서 짹짹뿌리지. 잘뿌리는 사람도 있고 못 뿌리는 사람도 있고,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몇번 합니까?

103034 #2 혼번도 매고 두 번도 매고 있으면 자주 매야돼.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103034 #1 제완지, 또 쉼비늬, 또 쉼터럭, 거 세가지.

103034 #2 여름검질, 쉼비늬도 있고 무슨 여름에 나는 검질하고 겨울에 나는 검질하고 틀려, 보리밭검질하고 틀리주. 제완지, 고라지,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꺾기, 도리깨질 등)

103035 #1 콩이 잘돼민은 수확이 나고 안돼민 잘 나지 안허여. 수확 얼마 하질 안허여.

103035 @ 콩은 호미로 뺨니까? 꺾습니까?

103035 #1 꺾으지. 호미로 꺾으지.

103035 @ 호미로 꺾어? 굴갱이로 꺾어?

103035 #1 보리는 비어도 콩은 이 이렇게 영 허민 딱 꺾어져. 영 눌러가민,

103035 @ 꺾으고, 도깨도 도깨질하고예?

103035 #1 콩?, 응. 도깨로 두들고 기계로도 태작허곡, 이젠 기계로 때려.

103035 @ 옛날에는 도깨예?

103035 #1 응. 옛날 썰로만 썰구나이. 옛날은 도깨로.

103035 #2 그렇쥬. 굴갱이로 꺾어도 돼고 호미로 꺾어도 돼곡 그냥 막 꺾어가지고 그냥 도깨로 그냥타작허는거니까,

103035 @ 걸 묶으으네 집이 가져왔수과? 거기서 도깨질 했수과?

103035 #2 밧디서 허는 사람이 잇주마는 보통은 집이 가져

103035 @ 구루마로 뭐에 담양옵니까? 묶어옵니까?

103035 #2 사람이 지어도 오고 물로 시꺼도 오고 이제 구루마나니까 가져오다가 이제는 차로 시꺼오주기.

103035 @ 집에왕 명석길앙 도깨질 험니까 그냥?

103035 #2 콩은 콩방울이 홀그니까 딱 튀니까 잘 가름배기 해야 밧디서 타작할라고 해도 튀면 주어앗기가 곤란허니까,

103035 @ 집이 왕 마당에서 그냥 막?

103035 #2 그렇지. 우리 집이 사람 하나 빌어서 도깨로 타작허는데 나하고 둘이서 우리 닻섬을 해봣어. 우리마당에서, 우리 마당이 옛날집 잇을땐 마당이 널러났어. 마당이 막 널르니까 역부러 전부 무스걸 치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허게,

103035 @ 명석길앙 도깨질험니까?

103035 #2 시꺼도 오고 구루마나니까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콩나물, 메주, 두부, 콩가루 등)  
103036 #1 응?  
103036 @ 콩나물, 콩주름이렌 합니까? 여기서는,  
103036 #1 콩은 허믄, 두부도 허곡, 또시 장, 된장도 담고  
103036 @ 둬비, 된장, 메주?  
103036 #1 것도 허곡 또 콩ㄱ루로 죽도쭈곡, 여러 가지, 콩ㄴ물도 허곡  
103036 @ 콩ㄴ물이렌 합니까? 콩주름이렌 합니까?  
103036 #1 콩주름이엔도 허고 콩ㄴ물이엔도 허고,  
103036 @ 옛날말로는 콩주름?  
103036 #1 응. 콩주름.  
103036 @ 둬비도 허고예?  
103036 #1 응. 웬장도 허곡, 또시 그거이 볶양으네 간장에 이렇게 그릇더레 비와  
냥 반찬도 허곡,  
103036 @ 반찬?  
103036 #1 볶양  
103036 @ 볶양예? 갱이도 잡아당 놓고?  
103036 #1 갱인 안헌다 무신,  
103036 @ 우력도 헐 때 콩 놓고? 우력?  
103036 #1 우력?  
103036 @ 우력 지질 때??  
103036 #1 응. 그것에도 지저. 콩 놓고 께도 놓곡 고춧ㄱ루도 놓고.  
103036 @ 콩주름 물궤봏수와 콩나물 콩주름?  
103036 #2 응. 자주궤야지, 집이서 기르는건 먹을 건 할머니가 다 주지만 남자도  
콩나물 장사허니까,나 콩ㄴ물 장사허는 것도 이리가서 봏어  
103036 @ 메주도 쭈고 둬비?  
103036 #2 메주 쭈고 둬비허고 콩이 좋은 음식이쭈.  
103036 @ 콩ㄱ루로 뭐 해신고예?  
103036 #2 콩국이 춤 맛싯어.  
103036 @ 뭐 냥글이민 맛죤습니까?  
103036 #2 콩국이 맛잇어. 바로 잘 잘 끌리민 두부같으니까.  
103037 @ 콩찍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37 #1 콩찍?  
103037 @ 콩찍이엔 합니까? 콩 콩, 그 콩깍지, 그 콩대?  
103037 #1 아아 그거는 소 이신 사람은 소 맥이고, 소 어신 사람은 걸로 불때여.  
밥허는 거.  
103037 @ 걸 콩대렌 합니까? 콩깍지렌 합니까? 콩꼬질?  
103037 #1 콩꼬질.



103037 #2 콩깍지.

103037 @ 콩꼬질? 불때고 소 이신 사람은 소 맥이고,

103037 #1 소 어신 사람은 불때영 밥허고.

103037 @ 밥허고?

103037 #1 숨아가지고. 물도 맥이고 쉼도 맥이고

103037 @ 콩찍은 놀 늙니까?

103037 #2 놀 놀어야지 비 안 들게, 비 안 맞게, 소나 물이나 잘 먹고,

103037 @ 딱딱허지 았앙 잘 먹읍니까?

103037 #2 국지는이 저 물이나 쉼은 잘 먹으니까

103037 @ 그믄 콩, 이렇게 알맹이 했던 거를 콩깍지렌 험니까?

103037 #2 이렇게 속엔 알맹이가 잇고, 바깥덜건 껍데기지,

103037 @ 콩껍데기렌 험니까? 콩껍데기도 낫당 다 소줍니까?

103037 #2 다 소, 물 주고,

103037 @ 다 소주고예. 그믄 콩은 무슨 물방애허고 이런 건 없겟다예 바로?

103037 #2 아 그런 건 없쥬, 이 저 ㄱ레 굴젠허민 옛날엔 돌ㄱ레 영 행 굴아,

103037 @ 돌ㄱ레예, ㄱ루 만들젠허믄예. 물 적섯당?

103037 #2 아니,

103037 @ 생으로?

103037 #2 생으로 허는 것도 잇고, 물적정 허는것도 잇주마는 두부허젠허면 생으로 허여. 물적정,

103038 @ 소 맥이고, 콩 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거에 비해서 콩은 꺾으는거나 어려웁니까?

103038 #1 아 쉬와.

103038 @ 가을에 조를 먼저 밍니까? 콩을 먼저 밍니까?

103038 #1 ㄱ찌ㄱ찌 웰거라. 비등비등헐거라. 겐디 이 저 조가 빨리 헐거라. 콩보다 경아니민이 거 다 이기젠허민 브름 불민 문딱 털어불잖아. 게난 조는 거 다 이기젠허믄 브름허카부덴 브름 불민 다 털어불어. 먹을것도 어서. 남뎡이만 과작해영. 대풍만 불엇다허민 다 털어불어.

103038 @ 콩꼬질이엔도 허고, 콩대렌도 허고, 남뎡이렌도 험니까?

103038 #1 남뎡인 콩꼬질이엔허여. 콩꼬질이엔 허고, 콩 때려난 주시레기는, 저 뭐엔 헐다마는 원! 안굴아가난 잇어불언, 콩때려난 거ㄱ라 주시가 이서이. 건 안 굴아가난 잇어불영 모르크라. 콩짱메기!

103038 @ 예? 콩짱메기?

103038 #1 콩 때려난 거 주시레기 콩짱메기. 사투리 막 이상해여.

103038 @ 콩짱메기예?, 콩주시레기를 콩짱메기?

## 밭벼 농사

- 103039 @ 이제는 산디우다예. 밭벼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 103039 #1 산디는이? 산디 갈젠허면 보리 안 갈아. 봄에, 놀렛다가 밭을 놀렛다가 그 그루에 산디 불려. 보리 안갈앙.
- 103040 @ 그른 밭벼, 산디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멧월달이 됩니까?
- 103040 #1 산디는 혼 스월초에 가는가?
- 103040 @ 음력 사월에?
- 103040 #1 스월초에도 갈고, 삼월 그물어가명도 기고,
- 103040 #2 산디, 우리 내가 많이 헛어 잘웨민 이 육지에 나룩보당도 잘웨는 수가 잇어.
- 103040 @ 맛은 그래도 나룩이 나아마씨?
- 103040 #2 맛은 여기 산디 갈민 지금 새 덕분에 갈면, 새 덕분 못허는데 여기 ㅁ늬이 맛잇어. 찹쌀 잘 웨어 여기. 나 죽장 많이 헛어. 찹쌀을
- 103040 @ 산디가 찹쌀이과? 뽕쌀이지예?
- 103040 #2 뽕쌀산디도 잇고 이제 찹쌀산디도 잇고헌디, 여기 제주<sup>초</sup>쌀산디 님은 쫄이 없어.
- 103040 @ 여깃것도요?
- 103040 #2 여기 건 뽕 죽장 많이 그걸로 살았는데 찹쌀로,
- 103040 @ 산디 찹쌀예?
- 103040 #2 츠나룩이야고허는데 츠나룩,
- 103040 @ 산디 찹쌀산디짜? 츠나룩이 찹쌀산디?
- 103040 #2 여기서허민 육지에서서도 못봐. 여기 츠나룩해당 저 방해간에 저시기허믄 쌀이 뿌영고말이여, 참 맛이 여간 좋지 안해여. 여기 육지 찹쌀덜은 뽕 찹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 103040 @ 산디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 103040 #2 산디농산 일찍 해야 웨어. 봄에
- 103040 @ 봄, 멧월달에마씨?
- 103040 #2 봄, 삼 스월달에 해야지. 다른 농사보다 문쳐 해야
- 103041 @ 산디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103041 #1 걸름 안해여 산디는. 보리나 허지.
- 103041 @ 보리만?
- 103041 #1 보리는 걸루와도 산디는 안걸와. 보리 콩은 안걸류와.
- 103041 @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 103042 #2 비료도 허고 잘 걸와야 웨어. 잘 걸뤄야,
- 103042 @ 잘 걸와야 웨어마씨?
- 103042 #2 걸름을 많이 헌다는 것이 걸와야 웬다는 거,
- 103042 @ 걸와야 웨는 것은 뭘 걸와마씨? 톳통시걸 헉니까? 불치, 오줌을 헉니까?

103042 #2 비료를 많이 썼지. 비료를,  
 103042 @ 비료 없을 때?  
 103042 #2 보통 그자, 잇는데로 없으면 못허는거니까,  
 103042 @ 만약에 어떤 거름? 오줌, 불치?  
 103042 #2 오줌, 불치 뭐 무신 돼야지 통시에 걸름, 뭐 그런 거 노민,  
 103042 @ 산디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1 줍씨빠듯 보리씨 빠듯,  
 103042 @ 줍씨빠듯 보리씨 빠듯  
 103042 #1 그냥 이렇게, 뽕망텅이 매어가지고, 망텅이 매영,  
 103042 @ 무사 뽕망텅이렌 햇수과?  
 103042 #1 씨망텅이ㄴ라 뽕망텅이엔 허잖아. 매니까  
 103042 @ 매니까?  
 103042 #1 친형 매니까 뽕망텅이, 매니까 아 이치적으로 세보라. 뽕망텅이엔, 매니  
 까 뽕망텅이라고 허지 무신.  
 103042 @ 뽕망텅이렌 허난 바탕에 또 뽕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103042 #1 건 뽕, 이건 뽕망텅이 맥, 맥으로 즈니까  
 103042 @ 맥망텅이?  
 103042 #1 응, 씨망텅이엔도 허고, 뽕망텅이엔도 허고,  
 103042 @ 씨망텅이렌도 허고예?  
 103042 #1 응.  
 103042 @ 걸름을 놓고 씨뿌립니까? 밧갈고 씨뿌리지예?  
 103042 #2 걸름을 놔서 밧갈아가지고 씨뿌려서, 것도 불려야돼. 조블리듯  
 103042 @ 조블리듯 산디도 불려마씨? 밧불리는 소리도 똑같아마씨?  
 조허고 똑같이?  
 103042 #2 똑같으지.  
 103043 @ 그믄 산디 밧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43 #1 것도 여름꺼니까 산디는 더 뽕거라. 인척꺼는, 산디는 세 번쭈이나 매  
 어사 혈거라.  
 103043 #2 여러번 매야지 일찍 가니까, 두서너번 매야 돼어.  
 103044 @ 산디밧에는 어떤 검질이 자랍니까?  
 103044 #2 봄으로부터 여름까지 나는 검질은 다 나니까,  
 103045 @ 산디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베기, 도리깨질 등)  
 103045 #1 잘돼면은 하영나고 안돼면은 원 안나지.  
 103045 @ 베어서 도 이것도 호미로 베어서 도깨질?  
 103045 #1 산디도 도깨질 허곡, 옛날 우린 도깨로 때려나서.  
 103045 @ 산디도에?  
 103045 #1 응.

103045 @ 산디는 어떻게 수확은 어떻게 베고 도깨질합니까?

103045 #2 홀태로 홀타가지고 홀태로 옛날은 그,

103045 @ 이것도 홀타마씨? 보리홀트시?

103045 #2 응, 그렇지. 홀타야지.

103045 @ 산디도 보리클로 험니까?산디클?

103045 #2 줌 줌진클로 해가지고?

103045 @ 산디클? 이거 보리클하고 달라마씨?

103045 #2 보리클허고 비등헌거야.

103045 @ 비등헌디 다르긴 달라? 똑가치 앓아예?

103045 #2 보리클로도 험 수 있어.

103045 @ 산디클예, 밧디서 다해웁니까? 밧디서 마마리 다 따부러? 산디클로

103045 #2 집이 시꺼당 집이서 다 햄주 옛날엔게.

103046 @ 산디쌀로는 무엇을 합니까?(밥, 떡 등)

103046 #1 산디쌀은 제사 해 먹지게 졸은.

103046 @ 밥하고 제사밥허곡, 떡, 맴쌀로 떡 무슨 떡, 뽕상으네?

103046 #1 떡도 허고 친떡도 허곡 송편도 허고, 친떡도 허곡 그 졸 산디졸 갈앙,

103046 @ 회양헌 떡을 햇수과? 아니면 저 거기 풋을 불랏수과 침떡?

103046 #1 친떡? 그 자기 허고정 헌낭게. 해양케 허고정헌 사람은 해양케허고, 풋  
 농코정허민 풋 놓고, 그게 풋은이 왜냐허민이 큰 시리에다가 식계때나 영장때나 소  
 상때나 큰 시리허민 그레 풋을 삶아가지고 살살살살 허경 또 우에 또 그 험마니 해  
 영 솔박으로 세 개쫂م 낵으네 또 영 해낭 또 영 허끄허면은 치면은 거 다 갈라져.  
 경 안허민 흰 거 다 담아노민 혼덩어리 텡 끈질 못허여. 해끄라정 거 그 풋을 놔  
 야 칭이 다 있어. 게난 걸 다 떼지잖아.

103046 @ 떼지지 않케예?

103046 #1 떼지게.

103046 @ 떼지게. 침

103047 @ 산디쩍 등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47 #1 산디짚은이 명석도 만들고 맥도 만들고 초신도 허고 또 보리 묶으는  
 것도 허고 산디짚 막 필요허여.

103047 @ 그믐 산디쩍보다 누룩쩍이 더 좋텐헉디다마는 누룩쩍을 어디 강 사  
 올 수 이신가예?

103047 #1 보리 묶으젠 허믐이 새도 좋고 산디짚도 좋고 보리 묶을때는 그게이  
 영 해여그네 물 적정 그거 듬박허면은 아니 끈어지고이. 그냥 막 바생이 믯를 때  
 믯 착착 끈어정 보리 못 묶어.

103047 @ 아아 물적시민 안,

103047 #1 물 적져야, 겨믐 안헌딘이 믯른첸 못 묶어 착착 끈어져 불영.

103047 @ 음, 산디쩍은 노도 꼬고, 짚신삼고?

103047 #1 멍석도 말고, 덕석 잇잖아.

103047 @ 새끼줄 이런 것도 했수과?

103047 #1 새끼줄도 허곡. 거 여러 가지 허메. 그 찢신도 만들곡.

103047 @ 그 산디를 여기 신촌에도 많이 갈았수과?

103047 #1 이 해각엔 안 갈곡 저 옷뜨리 산에 사람덜 갈안. 여기서논이 보리 콩 배끼 안해여.

103047 @ 산디는 아예 안헨 해꿈?

103047 #1 산디는 뜬 땅에 허는 거니까. 땅이 북삭북삭헌디는 허곡 여기는 안웨여. 땅이 움아부니까 보리허곡 보리, 콩, 조배끼 안웨여. 산디ㄴ튼 건이 잘 웨질 안해여. 땅이 너미 췌어노니까 저 부드러운 땅이라야,

103047 @ 여긴 췌땅예, 움은 땅예?

103047 1 움은 땅이니까 보리허곡 조, 콩, 그런 거나배끼 이 산디는 뜬 땅이라야,

103047 @ 산디쪽이나 이런걸을 사옵니까? 뭘로 바파옵니까?

103047 #1 사다그네 보리 묶으지.

103047 @ 뭘로 돈주곡

103047 #1 돈주곡, 또 친한디 강 빌어오고,

103047 @ 쓸로 바파당도?

103047 #1 아니아니, 찢제기논이 보리만 묶으는 거니까,

103047 @ 옛날에는 엽전으로 췌으과? 그냥 돈 나올땐 얼마

103047 #1 우리대엔 엽전 안해서. 엽전이 뭇지 몰라. 우리대는 1전.

103047 @ 1전?

103047 #1 그 췌돈 동글락헌 거 1전, 그거 하나 1전 아상가민이 다마사탕 이만 췌 헌 거 하난가 두겐가 줘. 그 1전 아정가민이 사탕도 이만허여. 게민 갈랑 먹젠허민 돌로 믋상, 돌로 믋시나 경안허민 췌만땡이 영 허는 거 그걸로 벌르나 경헨 갈랑 먹어. 이만췌 이만허여 그 사탕이,

103047 @ 우리도 경헨수다. 삼촌 1전이민 사탕말고 다른 것도 샷수과?

103047 #1 1전가지민 저 옛 “옛사시오” 땡글땡글허멍 가위로 그런 것도 사 먹고, 또 어멍네 신 흥깁 혈어가민 놔둔것도 강 사당 먹영 막 매도 맞고, “옛사시오” 든 거 먹ㄴ정허니까 신은 보니까 좀 췌찮은 거라도 아시당으네 사먹어부난 우리 막 매 맞아나서.

103047 @ 삼촌이 경헨수과? 동생이 경헨수과?

103047 #1 나가 경헨지. 옛은 막 그때 머리턱 아사가도 옛 주대. 머리털은 매날이 적져 논 거 다 빵 먹어부난 어시난 이젠 어멍 신 좀 터젧판테 아저단에 “이디신 어디간덴?” “옛 사먹언덴” 아이고 신는 거 헨덴 아이고 몽둥이로 맞안젠 허난, “쌔 창아리어신년”이엔 허멍, 신는 신강게 흥깁 영 뒤척이 허니까게 혈어베난게 사먹어불엇주게. 어멍은 신는 거 아저당으네 사먹엇젠 그땐 옛배끼 어서나서. 먹을 것이 어이구,

103047 @ 삼촌도 보통이 아니었수다게.

103047 #1 어떻허난게,

103047 @ 아무리 먹고 싶어도 거,

103047 #1 “옛사시오 옛사시오 고무신이나 머리턱이나 뭐 무신 총이나 다 그저 오민 싸구리 싸구리 옛싸구리 싸구리 싸구리”허든 이제 싸게 주카부텐허난 쌤이랑 마랑 그 옛장시,

103047 @ 산디찍은 뭐헐니까?

103047 #2 멍석도 좇고 맥도 좇고, 남으민 물도 주고, 쉼도주고,

103047 @ 남으민 쉼도 주고 물도 먹어마씨? 이것도 놀 놀고마씨?

103047 #2 놀 놀어야지,

103047 @ 찢신도 만들고?

103047 #2 아, 그렇지. 멍석도 만들고,

103048 @ 산디 농사는 지어보지 안헐구나예? 산디허면서 얹힌 추억이나 경험?

103048 #1 아니 지어나서. 아니 우리 저 산에 강 그 밧 폴아부렛지. 이녁밧이 니까. 거기 산디 잘 돼대. 뜬 땅이니까.

103048 @ 와홀에 뭐 땅이 이섯수과?

103048 #1 와홀에 이서난디 문딱 폴아부런 아방이 다 폴아부런,

103048 @ 아깝다예.

103048 #1 경허니까 난 이디 살아부니까 밧이 어디신거 몰라 막 밧 하난디이. 거 난 지는 밧 좇지몰헐 내분덴 거기 사촌이 살아 와홀에, 다 폴아부런네. 좇 지도 못헐덴 허명 거도 옛날이주게 이제 그뜨민 문세 거드멍 밧 문세 거드멍 다 좇을거 아니가? 옛날은 이것도 나 밧이엔 허민 그냥 내불어. 그런 어둑나라 춤말,

103048 @ 에이구, 산디는 잘 돼면 좀 비쌌겠다예?

103048 #1 산디는 베랑 안 폴아. 자기 제사해 먹고, 또 필요허게 쉼영 먹고, 베랑 우리 쓸 해도 흔 멧말배끼 못 폴아먹어서. 집이가 제스가 하니까 멧질 제스, 경헐 이젠 그걸로 허든 떡도 허곡 멧질도 허곡,

103048 @ 떡은 쌀떡은 귀하잖아예. 모멸떡이여 뭐여 허잖아예?

103048 #1 믱멸은 우리 같아나긴 해도 믱멸떡은 안해. 믱멸떡 허는 사름 베랑 어서. 저 우뜨리덜이 허지. 이딘

103048 @ 조침떡 많이허는데?

103048 #1 옛날은. 이젠 안허여. 떡도 안허여. 조침떡은이 쫓 징징이 낱 먹으민이 맞아서.

103048 @ 무우도 노던데?

103048 #1 무우는이 희린것엔 안돼여. 무우는이 쓸, 백쓸ㄱ루에, 것에 허터야 좋아. 그것에 허경 치민 그냥 해영헌디, 고구만 썰영노민이 저 다 나타나곡 이 무운 썰민 나타나지 안허여

103048 @ 조에?

103048 #1 침떡 칠 때,

103048 @ 침떡 칠 때? 조침떡칠 때? 아니 백설기?

103048 #1 백설기에, 조침떡은 고구마 썰어놓고, 것도 썰에 매지. 희린 즈  
썰엔 고구마 썰어 놓고, 또 백시리는 그 무우 썰어 놓고,

103048 @ 산디 농사할 때 뭐 어려웠던 건 어섯수과?

103048 #1 어려운 건 무신거,

103048 @ 태풍청 어서져다든가.

103048 #1 태풍불민 아무것도 못해먹어. 산디고 콩이고 다 썰어불민 잇나 줌  
거 브름

103048 @ 산디농사도 뜯밭에서 잘되는 때가 잇지만 막 안될수도 잇지예?

103048 #1 농사 안될때가 하. 농사 안될때가 풍년진 뎌 진짜 재미나게 떨어져 그  
게. 건디 브름이나 아시다 패따까노민 씨도 잃어불어 씨도. 씨도 못 건져 그  
냥. 문딱 태풍에 물 굴랑 그냥,

103048 @ 씨는 어떻게 그냥 하얀 근썰에

103048 #1 그거 뒤편은 왜 거 육지 나룩बाट 잇잖아. 똑 그와 같아 산디가.

103048 @ 그거 낫당 씨를 뿌립니까? 아니민

103048 #1 그거 가을에 잘 물렸다가 뒤편은 거 씨로 행

103048 @ 뿌리든 나? 육지ㄴ뎸디는 모내기행 그거 심급디다마는.

103048 #1 그것도 그 사람덜도 씨 낫다가 모내길 낚지. 씨 어시 그냥 모내길 노  
나? 그 사람덜토 나룩을 허면은 썰 와 뒤편은 모내기에 모종놀 때 그때 씨허고,  
똑같아.

103048 @ 똑같아? 물이 여기는 밭 없다 있다가?

103048 #1 여기는 그냥 모종으로 낫다가 빠지.

103048 @ 가뭄이나 들민 다 망허켜예 산디는?

103048 #1 산디만 망허나 콩이고 뒤편고 다,

103048 @ 산디가 물을 많이 먹어야 뒤편은 거 아니우파?

103048 #1 많이 먹주마는 저 웃뜨리덜엔 밭이 떠부니까 ㄴ뎸을 안타. 이렌 막  
땅이 췌여노니까 ㄴ뎸을 잘타주 산쪽더레 웃뜨리더레 와홀더레 선홀 와산더렌 땅이  
뜨니까 저 지실 감자도 잘 뒤편. 뜯 땅이난, 지실 감자도 잘뒤편.

103048 @ 산디썰로는 뒤편을 해서 먹습니까? 밥,떡? 밥은 매일 먹질 못했잖아  
예,

103048 #2 제스멩질때나 쓰지.

103048 @ 떡은 곤떡?

103048 #2 곤떡도 허고 친떡도 치고

103048 @ 근디 이거 산디쌀 어신 집에서는 엄청 귀허겄다예?

103048 #2 엄청 귀허주.

103048 @ 게른 제사때만 쓰고예. 이거를 보리쌀로 환산했을 때 산디쌀 혼뒤을 살려면 보리쌀 땃뒤가 필요헌고예?

103048 #2 아이고 비쌌어. 옛날은 저 지금 육지에서 온 나룩쌀도 사젠허민 보리쌀 너말줘야 그 나룩쌀 혼 말 사낫어.

103048 @ 보리쌀 너말줘야 육지 나룩쌀 혼말?

103048 #2 네곱쟁이 줘야돼어.

103048 @ 보리쌀 네곱을 줘야돼어예. 보리쌀 네곱을 줘야 나룩쌀 혼말예,

###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고구마는이 고구마 잇잖아 찌먹는 거 그거이 겨울이민 푸대에 이런 방에 낫팡도 씨 놓고, 또 경 안허민 감자 통 팡으네 조침 영 둘러 낱 모종도 놓고, 또 푸대에도 낫당허고, 하영 놓는 사람은 놀엇다가도,

103049 @ 놀엇다가 구덩이 팡?

103049 #1 응. 품도 허고,

103049 @ 조침이 뭇짜?

103049 #1 조남땡이, 땅을 파가지고 조남땡이를 바위에 타 놔. 밑에는 콩꼬질 깔고, 경 해 낱 이제 고구마를 어느 정도 노면은, 이젠 조남땡이를 영 가운데 낱 흑으로 올리지.

103049 @ 흙으로 덮어 불어?

103049 #1 그래. 덮어낱 또 우에는 느람지 덕끄고 그 다음은 주쟁이 덕끄고, 물 못 들어가게, 물 들어가민 썩어불어.

103049 @ 경행 썩어부니까예. 겨울 씨 혈때야 꺼내여?

103049 #1 씨 혈때는 하영 놓는 사람은 자기네 우영팻디나 밭구석이나 걸 묻어근에 혼 땃가마니씩 묻어. 경행 느람지로 더경 나두고 또 집이는 얼마 하영 못허지게. 자기네 놀마니,

103049 @ 방구석에 우리도 땃땃허게?

103049 #1 땃로 햏당으네 그놈의 고구말 이렇게 조사가지고이 감저 모종을 놓젠허민 조사가지고 감저를 이렇게 쭈쭈이 놔낱 흑을 덮어. 다 영 놔근에 골지성 낱 흑 더평 놔두민 나. 순 나면은 이만씩 커가민 그놈을 비어당 싱그잖허나 밭땡,

103049 #2 종자를 잘 놔야 땡. 종자를 잘 지와야 고구마는.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 아, 보릿그르에게,

103050 @ 보릿그르, 그른 음력 보리끝난 다음?

103050 #1 음, 보리 비어불민 그냥 고구마 싱그고,

103050 @ 음력 5월말쯤, 보리 비어난 다음 고구마 싱거?

103050 #1 음. 보리 해난다음 조도 갈고 밭 엇는 사람은 혼펜이 요디는 조



갈고, 요디는 고구마 싱그고 경해. 혼펜씩,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2 봄돼민 고구마종자를 고구마를 땅에 묻으민 순이 나거든. 순이 나면 이제 때가 고구마 심을 때가 돼민 그 순을 따다가 심으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103051 @ 고구마밭 걸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03051 #1 고구마 경 걸름 안 줘. 거 보리 헐 때이 듬북 잇잖아. 국제기 곶은 거 그런거 보리 헐 때 들영놔두민 고구마 헐때는 잘들어. 미릇 그걸 걸름이 땅에 썩으니까게.  
 103051 @ 보리 해난디 고구마를 주로 많이 싱것구나예? 보리 해난디 조도 심곡  
 103051 #1 조도 갈고 고구마도 심고,  
 103051 @ 근데 보리에 걸름을 할 때 국제기나 듬북같은거 많이 하면 밧이 좋아서?  
 103051 #1 국제기 들일때는이 우리는 음력으로만 씨여이. 음력 2월달에 그제 국제기들이지. 경안허민 또 갈멍이 보리 나기전에도 들여불곡, 국제기는 자기 틔나는 냥, 보리 날 때 들이는 사름, 흥기전에 그냥 깎아 부는 사름해여. 사름으로,  
 103051 @ 고구마밭 걸름은?  
 103051 #2 뭐이든지 좋아. 땅이 좋으면, 이 제일 좋은 것이 해초, 바다의 해초,  
 103051 @ 또 어떤 해초가 잇수과? 듬북하고 또?  
 103051 #2 듬북이나 소걸름이나, 그런 거 놔가민 고구마가 잘 들어.  
 103051 @ 듬북, 감태?  
 103051 #2 뭐 그런 거 노민 썩 좋쥬.  
 103051 @ 그른 생거 눅니까? 바당에서 그 짹짹헌 거를, 말령 눅니까?  
 103051 #2 옛날은 듬북을 막 물렸다가, 갖다 논는 거주.  
 103052 @ 그른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그냥 아까처럼? 곶을 만들영?  
 103052 #1 쉼로 갈민이 이만씩허여. 막 쉼로 올리민 거민 그거 이제 고구마줄, 어디 가시? 고구마 줄로이 영 곶 곶영 탁 낵으네 양쪽으로 다 흑 더경 톡톡 두들령, 경행 놔. 경 놔두민 그제 살아그네 고구마 돼어.  
 103052 @ 줄기가 뻗어예?  
 103052 #1 응.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읍니까 아까처럼?  
 103052 #2 밧 이령을 이렇게 쪽 갈아가지고 이령을 만들어서 우에다 심어가지. 이령 우에다,  
 103053 @ 고구마검질은 몇 번 맵니까?  
 103053 #1 고구마는이 풀 이렇게 고구마줄로 더껴져부난 검질 배랑 어서. 혼 번쫂 매매. 줄이 나니까 땅에 더껴져부니까 태양빛을 맞아야 검질이 날 건디 태양빛을 못 맞잖아. 감재줄로 더껴져부니까 게난 혼 불배끼 안 매어. 혼 번,

고구마줄이 엉키는 덕분에 검질이 나질 못해여. 혼번멜까,  
 103053 #2 고구마밭데는 고구마줄이 엉키기 때문에 별로 검질이 못나고, 고구마  
 줄이 엉켜  
 103053 @ 멧번정도 두 번?  
 103053 #2 잘허민 혼번 멜까말까 그자,  
 103054 @ 고구마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103054 #1 건 마찬가지 뭐 저 제완지곶은 거, 췌비넴곶은 거, 또 췌터럭  
 곶은 거, 그런 거 그난 여름검질 뜨나지. 겨울에는 소시락콜나고 대우리 나  
 고, 보리왓디, 그냥 콩밧디는 조팍티나 콩밧이나 췌비넴, 뭐 소시락콜이 아니고 췌  
 터럭, 검질일름도 막 하. 무신 톨감낭이여 아들감낭이여,  
 103054 @ 예 톨?  
 103054 #1 그 검질도이 납작헌 거는 톨감낭이엔 허고, 흥깁 높은 건  
 메뉴리 감낭이엔, 메뉴리 이 감 타레 갓당 가달 제정 죽으렌, 톨은 아까우니까  
 톨감낭, 메뉴리 오죽 미와사, 높은 걸로만 허느니?,  
 103054 @ 검질이름이 톨감낭 아들감낭?  
 103054 #1 그렇지.  
 103054 @ 크호호호호  
 103054 #1 무사 우서? 옛날 할망덜 춤 지독헌 할망덜,  
 103054 @ 현실이 그런 걸 뭐예?  
 103054 #1 지네 성손진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실려왓젠, 웨손진 발 실려왓젠  
 허고 걷는 애긴 “빨리 걸어라” 허고  
 103054 @ 계도 웨손진 지 뭐 아니렌 허명 또 경 허는 사람도 이십디다마는?  
 103054 #1 거 웨냐허믄이, 아들만 이시민 메뉴리 애기 나민 경허곡 톨은 죽어  
 불민 걸로 꺾이지.  
 103054 @ 거니까.  
 103054 #1 게난 톨 씨앗은 원수ㄴ치 허고, 메뉴리 씨앗은 막 어화딩씩 행  
 막 막 그냥 아덜흐나에 메뉴리만, 이 메뉴리도 좋다. 저 메뉴리도, 막 톨씨앗  
 은 원수라.  
 103054 @ 원수까지 아니주마는?  
 103054 #1 원수지. 톨씨앗 삼으레 가는디 다 할망이 뜨라가주. 얼마나 원수  
 ㄴ치 생각허나, 가, 톨이게 뉘편 잃영 뜯 여자허고 살아봐라! 그 할망이  
 얼마나 화날꺼냐, 톨 안돼가민 얼마나 화나냐 경허는 것도 이해가 가.  
 103054 @ 손지는 아깝지 앓음니까?  
 103054 #1 겐디 메뉴리 미와가민 손지도 미우메. 메뉴리 미우민 “니 에미 ㄴ치”  
 허명, “조용허라” 옛날 할망덜, 니 에미 닥텐, 잘못허민 아덜이나 안거닐고 왜 에미  
 건드리나 “니 에미 모냐으로”  
 103054 @ 예구 춤말로,

103054 @ 고구마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다?

103054 #2 고구마밭딘 그 고구마줄이 엉키기 덕분에 검질이 나질 못해.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줄베기, 파기 등)

103055 #1 팔때는이 줄을 비어. 호미로, 비어그네 막 요만씩 비명 그냥 다른디레 뉘. 호미로 비어근에 다른 디레 뉘. 감재 파나민 그 감재줄을 그 자리에서 몰려야돼어. 고구마 파나민 골갱이로도 파고 쉼로도 갈고, 쉼 이신 사람은 쉼로 갈고. 쉼어신 사람은,

103055 @ 감젓줄 뺀은 걸을 저 베었네 하나씩 행 또 싱급니까?

103055 #1 그렇지 한 웨로,

103055 @ 웨로 혼 가닥씩?

103055 #1 웨로 감재줄이 막 나민 이만씩도 허여. 게민 두 개 식개 꿔영 게난 즈주 끈으민 이 거 감재가 즈주즈주 나고 웨로 질게 나민 경 하영 열지 못해. 거난 이치를 생각해도게, 요만씩 요만씩허민 믋디마다 다 ,

103055 @ 믋디마다 다 찢르는 것도 기술이다예?

103055 #1 그렇지.

103055 @ 경험 많은 사람이?

103055 #1 우리 다 경허명 이만씩 현 건이 감저 놓기가 쉬와이. 늙보다 믋녀허지만, 감재 열리젠 허문이 끈으명 끈으명 싱거. 이마니 줄번으민 그거 세도막이나 끈어야,

103055 @ 삼촌은 물질허레 갈 시간도 어신디 그런것도 허기도?

103055 #1 그거 허지. 물질 못허여. 그거 허젠 허민 그거 다 끝나야 물질 허지. 거 세상에 일년 먹을 농스 내부러 똥 바당에 가냐? 생각을 해봐라.

103055 @ 그건 헐 땀 해야?

103055 #1 그거 해뉘사 놀때는 바다에 가고,

103055 @ 지네 밋디 안허는 사람은 바다에 가곡,

103055 #1 바다에 탕기는 사람은 멧개 어서. 저 우트리 사람덜은 바다 훨출도 몰라. 게난 바다 즈꿏디 사는 사름배끼 안해여. 옛날은이 해녀 아니 알아줘. 옷벗영 텡겸텐, 불각재기라고 해. 윈 알아주지 안허는거. 옷벗영 텡겸텐 행 아니알아줘. 이젠 해녀가 어찌고 저찌고, 해녀 메누린 허지도 안허여.

103055 @ 게난마씨, 에이구, 혹시나 물려받으카부덴?

103055 #1 아니 왜냐면이 그 옷벗영 물질허는거엔 행

103055 @ 부끄럽다고?

103055 #1 창피하다고,

103055 @ 그건 아니주게.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파기 팔 때 막 큰 거 어만큼 커?

103055 #1 감저, 막 이마닌 안해. 막 커야 이거지 이만씩, 거민 영 들민 다랑다랑 다랑,

103055 @ 별경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103055 #1 아니, 감쥔 종류로 가.  
 103055 @ 종류로예?  
 103055 #1 붉은 겉로 허민 감저도 빨강하고 흰씨로 허민 고구마도 희여. 그 씨로 가.  
 103055 @ 씨로예? 두가지 종류가 잇지예?  
 103055 #1 게난 두가지지. 물감자가 있고 모인 감저가 있고 물감잔이 나 대가리만 썩 크고, 그 폭삭폭삭허는 건 스랑스랑행 크도 안해. 이마니. 지일 커야 이거지.  
 103055 @ 청 먹을때는?  
 103055 #1 벌러서 치지.  
 103055 @ 모인 감자가 맛좋아?  
 103055 #1 맛조고, 또 겨울에는 그 희린 감저가 맞아서. 고구마ㄴ치, 아니 저, 감ㄴ찌, 이 겨울엔 모인 감자 맞으서. 희린 감자라야,  
 103055 @ 희린 감잔 물렛당 먹으민게?  
 103055 #1 아니 그거 시청 가을에 시둘봐. 시둘랏당 누는 방에 푸대에 담앗당으네 눈와가민 큰 건 영 벌렁 찌고, 경 준 건 그냥 찌고, 거 짐치에 쫄이 어시 난 짐치에다가 쫄대신 먹잖아. 그게  
 103055 @ 요기뒤희게 것도 맛종고예?.  
 103055 #1 짐치에다가 콩국에다가  
 103055 @ 콩국에도 먹고 밥 안행예?  
 103055 #1 쫄이 어신 사름은 쫄신 사름은 경 안해.  
 103055 @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고구마를 많이 먹엇던거 닐아. 나도 어렸을 때 고구마 맛종더라고?  
 103055 #1 고구마? 우리 감재 팔 때 구웁 먹잖아. 감자 팍시민 아방이 혼글채 해 당으네이 지들커 해당으네이 그냥 구워. 게문 영 해쌍보민 무랑허여. 그날 먹당 내 불민 문영내불민 뒷날도 먹고, 불치에 냉 문영내불민 아방시난 햇주 우린 못해. 지들커 해다가 그런디장 어명해.  
 103055 @ 밋디서?  
 103055 #1 밋디서.  
 103055 @ 맛 좋앗갇다예.  
 103055 #1 겐디 밋디션 맛이신디 집인 오난 맛웃더라.  
 103055 @ 집이서도 잉경에 가끔 구웁으네?  
 103055 #1 집이서도이 그 밥허멍 솟강알에서 구운 거는 맛이신디 밋디서 구워온 건 맞으서. 거 이상허여. 곱은 군 감자라도, 우리 밥해나쁜 솟강알에서 굽잔아. 그건 맛이신디 밋에선 아저온 건 맛이 업서. 김치도 칼로 썬 거는 맞으서도 손으로 찢어야 맛이신거라. 김치도 마찬가지로. 지일 이 손이 양념이라.  
 103055 @ 예. 정성이고예?

103055 #1 손으로 현 음식이 맛있서. 고무장갑이나 무싱거 해봐. 맛대가리 어서, 이 손으로만 해야 맛있서.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줄을 베어서?

103055 #2 가을 들면 저 골갱이로 파기도 허고 경안허민 소로 갈아서 그냥 줄 아찌고, 소로 갈아서 줄 앓고.

103055 @ 소로 갈아서 뭘해마씨? 줄 아찌?

103055 #2 이렇게 잇으면 소로 그냥 썩 갈면은 고구마가 썩 나오거든. 줄 앓쥬.

103055 @ 줄 앓기만 허든 댜여. 소로예? 겐디 헐리나지 앓을건가?

103055 #2 아 소로 갈면? 가당 헐리 나는것도 잇주마는 조심해서 잘 갈면 썩 나와. 많이 해봣어. 우리도.

103055 @ 경안허민 사람 손으로 다 파고, 햇빛 낭 땡땡해볼민 그런 건 어려우커예? 땡이,

103055 #2 고구마밭은 우연허면 다 갈 수 잇어.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감젓눌)

103056 #1 곤당보니까 감재 놀에 놀영 그 늑람지 더꺼당 허는 사름도 잇고, 또 구들에 노는 사름도 잇고,

103056 @ 너무 추운데 노민 감재가 안뵈니까 방에 놓드라예?

103056 #1 썩어부러. 썩어부러.

103056 @ 썩어분덴 허드라예?

103056 #1 사람 누는 디가 최고, 호박도,

103056 @ 계난예? 호박도?

103056 #1 호박도 누는 방에 노민 생전 안썩고, 배끼디 노민 그냥 빨리 썩어. 호박도 마찬가지로,

103056 @ 거난 안에 덜 놓는구나?

103056 #1 경허난 사람허고 호박이 ㄴ찌 연결이 잇는 생이라. 방엔 논 건 안 썩고 배끼디 노민 썩넌허난. 방에는 딱시잖아. 경허니까 배끼디 노민이 빨리 썩나.

103056 @ 보통 음식은 딱신디 노민 썩는디예?

103056 #1 근디 고구마는 딱사야. 딱시민 안썩어.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2 땡 파가지고 땡을 이렇게 파서 옆으로 쫘 다대고 거기다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103056 @ 쫘은 무슨 쫘으로 옆에 덮어마씨?

103056 #2 물론 조쫘도 댜고, 뭇 쫘대도 댜곡 뭇이든지 옆으로 다 대서 거기다 고구마 넣어가지고 우에는 그 늑람지행으네 더경 딱 비 아니들게말이여.

103056 @ 비 아니들게예 그건 큰디는 막 컷수과? 구덩이가

103056 #2 그렇쥬.

103056 @ 썩지 앓을건가?

103056 #2 썩는것도 있고, 또 아니 썩는것도 있고, 그게 잘못 돼민 썩는 게 많허고.

103056 @ 비라도 많이 오민 그게 들어갈수도 잇겠다예. 썩는것도 많겠다예?

103056 #2 비가 못 딜게 이렇게허민 이렇게 싹해가지고 이 저 흑을 올려서 비가 오면 바까띠레 나가지 이안에 못들어가게 다 방법이

103056 @ 해 질건가?

103056 #2 지금은 온도계가 잇으니까 헌디 옛날은 온도계 없어노니까, 썩는 일이 많이 잇지.

103056 @ 씨고구마는 집 안에도 놓니까?

103056 #2 그냥 밖에 땅 파서 낫다가 봄 나민 그쳐가지고 심고.

103056 @ 겨울에 하나라도 꺼내먹젠 허민 막 불편허겠다예. 방에도 보관해난거 닢은디?

103056 #2 방에 허면 쪼그만거, 한푸대 두푸대 그정도 허지 많은거, 이제 고뜨민 차로 하나씩 혼구덩이에 묻는다.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절간고구마, 씨고구마 등) 절간 고구마는 빼대기 말함지예?

103057 #1 건 썩는 거, 썰영 물리ওয়া 헐거고,

103057 @ 여기도 헛수과? 옛날 빼대기해난 거 곶아줍서?

103057 #1 옛날 일제때에 공출로 행 썰어낫주. 이젠 썰지 안허여. 일제때 공출로 기계, 감자 썩는 기계가 있어. 그거 빌어당으네이 거 허민 많이 썰어져. 손으로 헌 건이 두껍지 안허나? 자게 물리도 안허고 재기 썰도 못허여. 기계라야, 기계는 영 낡 혼들어가면 착착착착 곶아지는다 칼로 독탁독탁허젠허민

103057 @기계는 돈 쥬 또 빌어야 되는거라 마을에서 허는거라?

103057 #1 아니, 돈 쥬 안빌영 아는 집이 그냥 빌려줘. 짐에 해나난.

103057 @ 어디 지붕에도 널고 헛수과?

103057 #1 그 뭐 기신세 블라불민 줄도 꼬너지고 안웨어. 초가집이 뿌령 너는 사람도 이신디 아닌 사람은 집 판난덴 안혀. 마당곶은디 조크르곶은디 조크르.

103057 @ 조크르?

103057 #1 조 비어난 그르에 싹싹 물리와. 겨믄 손으로 다 걷어. 흑채. 겐 그 높이가 막 물리민이 큰 그 ㄱ레에다가 곶양 채로 청,

103057 @ 물ㄱ레에 곶양?

103057 #1 물방애에 강, 걸로 곶양 걸 청으네허민 맞아서. 조베기도 맞닷고 떡도 치민 푸달푸달,

103057 @ ㄱ루 만들영?

103057 #1 응, ㄱ루로 감젤 물리왔다가,

103057 @ 빼대기로 조베기랑?

103057 #1 어 빼대기로, 떡도 허고 친떡도 허고 다 허여.

103057 @ 제사에도 허고마씨?

103057 #1 제사엔 잘 올리지 안허여.

103057 @ 먹을 걸로.

103057 #1 먹을 걸로.

103057 @ 들코롬허여?

103057 #1 돌아.

103057 @ 맛종안예?

103057 #1 들콤들콤허지.

103057 @ 썬 거 물린 거 쟁도 먹고?

103057 #1 쟁도 먹고, 무우젓당 찌야지 그냥 팡팡허영 안웨여. 무우젓당 찌민 복삭복삭허고 그냥 찌민 팡팡해여. 이치적으로 물른 건 쳐 봐라. 삶아도 빠당빠당허잖아. 물에이 거 등가야 그거 익으민 폭삭폭삭허는디 그냥치민 짜락짜락, 거 이치적으로 다 생각을 허민 므른때 치면,

103058 @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고구마 줄긴 옛날에 먹지 안해나서 예? 지금에야 먹지.

103058 #1 우리 일제뎌 먹어났다. 다 공출해부니까 영 배경 그냥 삶아 먹어났저. 막 찢기더라고, 이파리는 국 끓여먹고, 그루로 허텅,

103058 @ 고구마 이파리 아이고야?

103058 #1 문작허여 그제. 우리 안먹어 본 거 었나. 썩도 밥에 섞여 먹어보고, 바당에 패도, 패밥은 못먹겠더라고 썩밥은 먹어도 까칠까칠, 입에 가면은 딱로딱로 다 갈라져붙어. 썩밥은 돼는 디 패밥은 못먹겠더라. 일제때 하도 공출해부니까 그런 거 죽지 았으민 살기로 먹는 거 아니냐. 겨른 무지 쫄 어신 사람이 쫄도독질 해가부러. 쫄도독질, 게난 고팡문 항상 중그지 안허나? 게난 고팡문 가명 중그고 오명 증가.

103057 @ 절간 고구마는 빼대기 어떻 널영 말렸수과?

103057 #2 그냥 떼맞디 그냥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103057 @ 걸 뭐 기계로 썰엇수과? 칼로 썰엇수과?

103057 #2 기계가 잇엇어. 왜정시대에,

참석허젠허든 여러사람이 다투갯다예, 돈 쟁 빌어?

103057 #2 그거 왜정시대에 막 공출허다시피 했으니까,

103057 @ 빌려줍니까?

103057 #2 게니까 기계를 다 그 개인들이 가져 잇엇어. 그 저 그걸로 주정을 맨들 았으니까, 왜놈덜이 말이여.

103058 @ 도둑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로구나?

103058 #1 도둑이서. 도둑도, 그 어신 사람덜 가져가 붙어. 도둑이 경 쫄 아사가붙어.

103058 @ 옛날에도 전쟁이서불고게, 어려와노난 하도,  
 103058 #1 어려우난 밧 어신 사람 농스해주고게. 밧 이신 사람은 부재니까허는  
 디 밧 어신 사람은 에이구 겉보리 두관돼 먹으민 흐루해천 강 검질매줘사해여.  
 겉보리 잇잖아. 겁적 이신 보리, 거 두관돼 먹엇당 해천 강 검질매줘사, 마당질도  
 해천 강,  
 103058 @ 두반데 먹엇다는 건 두 번?  
 103058 #1 관돼 잇잖아. 요마니 현 거  
 103058 @ 아 돼, 두 돼?  
 103058 #1 겉로 두돼 먹엇당은 해천 강 마당질해여. 엇는 사람은 너무 괴롭고, 게  
 난 공산당이 좋주게. 느것나것 어시 그냥,  
 103059 @ 공것이 어디 잇수과게? 그냥. 공평하게 말로는예,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엇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거?  
 103059 #1 범벅도 행 먹고 찌영도 먹고,  
 103059 @ 동생이영 찐고 아니면은 뭐?  
 103059 #1 아니. 동생이 너무 나이가 이서노니까 안싸와. 우리 아시허고는 네술차  
 이고 우리 오래비허고는 일곱술 차이고허니까 원간 차이가 이서부난 안 싸와.  
 103059 @ 고구마가정도 어머니 차별허고 이런 건 어섯수과?  
 103059 #1 아덜만 딱로 아덜은 쓸해다가 기름밥 행 먹고, 우린 보리밥끓은 거 뭐,  
 감재밥끓은 거, 아덜만 딱로,  
 103059 @ 범벅허민 무신 범벅이 맛좋앗수과?  
 103059 #1 믱덜범벅,  
 103059 @ 믱덜범벅도 해먹엇수과?  
 103059 #1 행 먹지. 우에 강 사당으네 우뜨리 강,  
 103059 @ 우뜨리 강, 와홀 그런 딴 믱덜이 좋앗지예?  
 103059 #1 그지. 그런디 강이 바파당, 쓸 아정강, 그딘이 보리가 귀허지게. 땅  
 이 떠부니까, 모덜 끓은 거,  
 103059 @ 어느게 더 싸신고예?  
 103059 #1 모덜호고, 조 끓은 거허고 보리는 잘 안돼어. 땅이 떠부니까,  
 103059 @ 그믄 비슷비슷했겠다예?  
 103059 #1 응. 조 끓은 거. 고구마끓은 거 그런 거 심검실거여.  
 103059 @ 조는 여기서 나고?  
 103059 #1 아니 거기도 돼어. 그디도, 뜬 땅이라도 언간 잘 불리민,  
 103059 @ 고구마는 꼭 했지예? 고구마는 농사를 지엇지예. 먹젠예 너도나도 ?  
 103059 #1 하영은 안하고, 먹젠, 흐 두어 가멩이쫄,  
 103059 @ 두 가멩이예, 고구마 이파리도 먹엇다는 건 처음 들엄다예??  
 103059 #1 건 일제때에, 제국때에,  
 103059 @ 공출 다 바쳐불민,



103059 #1 다 아저가부니까 이파리배끼 더 잇나.  
 103059 @ 이파리도 죽지는 안는 구나,  
 103059 #1 안 죽어. 사람이 그렇게 목숨이 질겨.  
 103059 @ 걸 씹 싸먹고 이런 건 봐본적이 어서부난, 그걸 끓여?  
 103059 #1 그 이파리는이 시쳐다가 호박잎국 끓이듯 끓여 먹고, 또 땡구리는 영 이젠보난 거죽 베껴도 거죽 안베껴. 그냥 솥앙 막 찢겨. 게도 이빨이 조니까 웬장에다가 영 찍어 먹어  
 103059 @ 껌데기 베껴 먹을 생각은 무사 못해신고예?  
 103059 #1 바쁘니까  
 103059 @ 알고는 잇어도  
 103059 #1 응. 알아도 안베껴. 바쁘니까, 영영 일어서 거 허느냐게.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59 #2 고구마 줄기는 소덜이 춤 잘먹지. 아주 춤 근밥이여 근밥. 소물은.  
 103059 @ 고구마 줄기가 소말안텐 최고 특식이로구나. 이것을 놀텐 어떻 습니까?  
 103059 #2 고구마 줄기를?  
 103059 @ 예, 줄기.  
 103059 #2 아니 그냥 몰르면 말이여. 이만침 이만침 혼변 줄만씩 다 만들어가지고 낫다가 하나씩 하나씩 빠면서 주는거주.  
 103059 @ 흰감자 빨간감자 어느게 맛좋고, 모인감자여,  
 103059 #2 거 밧드로 가. 밧디 마직날텐 막 고구마가 모이고, 거 종즈로 가는게 아니고 땅 토질로 간다니까.  
 103059 @ 아, 종자로 가는게 아니고?  
 103059 #2 옛날엔 우리 어릴적엔 드르에 갓다가 고구마 구웁먹어나고, 아무 밧디 라도 고구마 심은디 가문 캐어가지고 뭐 지들커 해당 지들커해가지고 불살라가지고 제일 좋아하건텐 콩꼬질이 좋아. 콩, 콩남대이.  
 103059 @ 콩꼬질이 무사 좋은고예?  
 103059 #2 그게 불이 잘 부르고, 고구마가 잘 익고.  
 103059 @ 사삼사건때도 고구마 심으믄 안웨시쿠다예.  
 103059 #2 고구마 많이 심었지, 사삼사건때도.

#### 기타 농사

103060 @ 수박 농사는 해낫수과? 신촌도?  
 103060 #1 응. 신촌 많이 낫.  
 103060 @ 옛날 옛날은 수박이 함덕에서가 잘했젠,  
 103060 #1 아이고 이디서도 막 낫.  
 103060 @ 나중엔 진드르에서 헛텐허고?

103060 #1 진드르도 거 현디 옷두리만 해난디이 말젠이이 이 아래도 수박이 웨드라고. 우리이 수박 아방 산때 잘허연. 아방이 죽어부난 안했지. 아방이 그거 전문이라, 전문.

103060 @ 이제는 신엄도 신촌도 많이 어서지는 거 다향 신촌도?

103060 #1 상 먹주. 물이 아자도 안웨고, 지미저도 안웨여.

103060 @ 지미과 뭐파?

103060 #1 지미라 현거는이 그냥 해영게 몰라부러.

103060 @ 가뭇? 비가 안와?

103060 #1 아니, 비오나 안오나 그런 병이 있어. 병으로,

103060 @ 지미지는 거, 신촌은 수박 농사를 했고 수박곶은 경우 어떻게 농사를 지언마씨?

103060 #1 수박은 갈아그네 요만씩 요만씩, 호박 구덩이 2치 흙을 다 모두와가지고 그레 영 해그네 수박썰 꼭꼭 텅텅 놔둬서.

103060 @ 싹이나면

103060 #1 싹이 나민이 거 흥나만 나뉘 다 뽑아부러. 경안허민이 두 개노민이 수박이 요만씩. 웨로 싱거야 수박도 혹곡. 또 우엿거 타부러야 허곡. 우엿것이 막 빨아먹으른 배꿋디것이 크지 못허여. 거난 굽텅어리까지 다 뜯아부러야. 배꿋디 수박이. 맛도 어서 그 우엿건. 북삭북삭 해그네. 우리 주로 수박해넛네.

103060 @ 텅텅에 해가지고?

103060 #1 응 수박 하영 놀때도 잇곡 죽게 놀때도 잇고.

103060 @ 밧떼기로 허영 넘깁니까?

103060 #1 밧떼기로 안사. 그 시간도 몰라 수박은, 지미저부러. 대풍불어도 잇고. 거난 이 타근에 시예강 폴아. 구루마로 시꺼당. 밤이 곁영 아방이. 수박을 저녁에 텅다그네 시껏당 듯날 아침은 시에 시경가고.

103060 @ 언제 싱급니까, 수박은.

103060 #2 봄에 싱그주.

103061 @ 참외도 마찬가지로?

103061 #1 참외도.

103061 @ 참외 농사도 여기 신촌에 했지예?

103061 #1 다 혀. 겐디 이제덜은 아니햄신게.

103061 @ 수박간 밧에 참외도 갑니까?

103061 #1 그렇지.

103061 @ 어느게 쉽고 어느게 곱고 이런건 어서?

103061 #1 그뻘이 쉼썰참외엔 행 이만씩헌 참외

103061 @ 아 쉼썰참외?

103061 #1 맛있어. 이젠 그런 참외 이젠 못봐. 우리헐 때 참외. 이젠 이 노랑헌 참외만 있지이 그 참외는 거부. 진진허곡. 막 맛있어. 그 쉼썰꺼엔 허는디 그 노랑헌

것보단 그것이 맛있어. 전디 그 씨를 업좌부러신게. 나오질 안해여. 거난 거 이녁혈 때이 수박씨고 참웨씨고 다 제장행 놔둬야 돼. 이녁쿠로. 에이구 우리 어떻게 살아 저신디.

103061 @ 토종 씨앗이 엇어져부런예. 뗏월달에 수박씨를 뿌려마씨? 봄에?

103061 #1 수박씨는 봄에. 봄에 싱거.

103061 @ 여름에 타젠허른예.

103061 @ 참웨농사는 마씨?

103061 #2 참웨도 역시 마찬가지로.

103062 @ 고추 농사는 마씨? 햇수과, 제주도도?

103062 #1 고치, 많이 갈잔아.

103062 @ 많이는 아니주게, 전라도에 비해서.

103062 #1 아니, 이디도 많이 갈아.

103062 @ 이제는

103062 #1 아이구 막 고치 폰텐허난.

103062 @ 비싸니까예. 김치는 해먹어야 될거고.

103062 #1 자기네가 먹쟁허단 남은거는 풀고. 고치가 최고 수확난덴 해여.

103062 @ 게매예. 김친 다 해먹을거 아니?

103062 #1 밧 이신 사람은 해도 밧어신 사람은 고추 안갈아. 밧 이신 사람은 갈지.

103062 @ 거름이나 이런거 안행 심경 놔두민 여름에 따른 곳이다예.

103062 #1 고치? 부넘도 허지.

103062 @ 비료

103062 #1 부넘도 허여. 해야 고추도 흑고 크지. 수확도 잘나고. 땅도 먹어야 나지 먹지 아니민이 수확 안나.

103062 @ 고추농사는?

103062 #2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봄에 심어가지고.

103063@ 배추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도 햇지에 참.

103063 #1 배추 막 주로덜 허여.

103063@ 게난. 제주도에서 젤 여기가 맛있덴 허드라고.

103063 #1 이제는이 종제기에 헛나씩 논디 옛날엔이 이렇게 나가는냥 뽑아. 애기

103063@ 애기늑물?

103063 #1 뽑아그네 헛나 놔뒹 헛나 크면은 것이 그냥 . 배추 거 물앗아도 안뒹고 이 병걸려도 안뒹더라 우리. 헛헛때 해난 이 손들러부런.

103063@ 배추?

103063 #1 대풍 불언이, 막 불려불고 허난 이 물 앓안 다 죽어부런.

103063@ 물앗안예. 젤 문제가 그거로구나, 배추농사는.

103063 #1 물앗고 브름 패다까불고, 제주에는 이 브름이 바다까우니까 최고 브름

분덴허난.

103063@ 태풍 한번 불고 가을에 뭐해볼른 농사가

103063 #1 우리가 바당 가운데 살았네 이, 제주는. 거니까 브름이 썰여. 바당 가운데. 서울은 이 브름 어서도 이던 대풍이라.

103063@ 섬이라부난게.

103063 #1 에이구.

103064 @ 무 농사? 했지예?

103064 #1 무농사도 허고.

103064 @ 했지예. 무도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는 잘 먹잔아예. 놈빠렌 했지예?

103064 @ 놈빠

103064 #1 국도 끌렁먹고, 채소도 해먹고

103064 @ 채소도 슬망 잘해먹어예?

103064 #1 김치도 허고. 무김치도 맛있어. 무김치 손바닥만씩 행 두둑두둑 해봐. 익으면 수왕수왕수왕

103064 @ 아, 제주사람도 전라도식으로 했구나?

103064 #1 우리아덜은 막 그것만 먹쟁허는거. 손바닥만씩행이 두둑두둑 행 내불민 그게 무수짐칠 잘해야 맞아서. 그 저 모네 이, 소금 낱은 무가 약해여. 북베기 해야 수왕수왕수왕

103064 @ 북베기가 뭇과?

103064 #1 흥뻘에 양념. 소금이고 뭐이고 헛거는 수왕수왕허는데 소금 절엿다가 양념행은 이 물싹물싹해여. 부드러와가지고.

103064 @ 아, 소금 절이지 마랑 허라.

103064 #1 응 북베기 해야

103064 @ 흥뻘에예.

103064 #1 짐치도 소금 절이는 것이 호령이라.

103064 @ 짐지도, 맞수다게. 아삭아삭하게.

103064 #1 그렇지. 계난에 김치도 이 물론 사름은 해영 오래 등그잔아. 해영 흥네시간 다섯시간 되믄 기냥 만들어야 해. 계사 수왕수왕해. 간 오래노민 찢겨 찢겨. 계난 이 절이는 것이 호령이라.

103064 @ 배추하고 무 농사는 어떻게?

103064 #2 무는 여름 돼가지고 무는 제일 늦게 유월칠월 돼가지고 허는거.

103064 @ 무가 제일 늦게예? 믋말이 제일 늦게가 아니고?

103064 #2 응, 믋말이. 믋말허고 같이 갈믄 돼.

103064 @ 무가 믋말허고예.

103065 @ 그 다음은 지실농사.

103065 #1 지실은 우리 안해반. 저 우터레 산더레 사람들

103065 @ 지실은 또 언제갑니까?

103065 #2 지실 역시 봄에 해야지.

103066 @ 피 농사도 어떻게 됩니까?

103066 #1 피농사도 웃드리 사람덜. 이젠 허지 안허여. 이딘 피엔 헌건 앓아댕기 질 안허여.

103067 @ 믱덜농사도?

103067 #1 믱덜농사도 안해여. 웃드리.

103067 @ 아예 안해?

103067 #1 안해.

103067 @ 뜰땅에서 잘돼는구나.

103067 #1 뜰땅에. 여기는 보리 조 콩 고구마, 그런거나 허지이 피여 무신 믱물이 연 안해.

103066 @ 피농사는 어떻습니까?

103066 #2 피농사는 안해봣주마는 피도 역시 나록이나 마찬가지로.

103067 @ 믱덜농사.

103067 #2 믱덜농사는 저 무 허고 같은 시기에 여름 거의 지나가지고 제일 늦게 심는 것이 믱덜하고 무쥬이. 같은 시기에.

103067 @ 무사 무가 늦어신고예.

103067 #2 일찍 갈면 무가 좋질 안해.

103067 @ 아!

103067 #2 들지가 않고.

103068 @ 담배 농사?

103068 #1 담배농사도 안해. 옛날 해낫지. 옛날 우리 해나서.

103068 @ 건 어떻게, 무사?

103068 #1 담배?

103068 @ 꼭니까 헌거 아니예?

103068 #1 그거 담배 해영 혼한때 담배를, 것도 힘들어. 창고나 이신 사름은 창고에다 헌다 비에 다 썩어부러.

103068 @ 물려야 돼난예.

103068 #1 날 일기에 맞창 조면은 잘돼는디 그걸 톨음 시작행 비나 오민 그냥 문쩍이 다 썩어부러.

103068 @ 에이고.

103068 #1 그거 쉼줄로 다 쉼잔야. 쉼줄로. 우리 아니해 본거 이샤? 에이고.

103068 @ 햇빛이 중요하구나. 담배는. 것도 봄에 행 여름에 거듭니까?

103068 #1 응 봄에 싱것당 여름 나가면은 담배가 이만이 커. 겨른 굵으로부터 톨아. 굵으로부터. 이만이썩 넓작넓작.

103068 @ 아, 뭉툭헌거

103068 #1 경행 쉼줄로 쉼여그네 직직 해그네 이서부텨 저꺼지. 그 담배 허쟁허민

이 다 준비해사. 아맹이나 안돼여. 것도 크게 하우스 치여그네 거기서 걸영 해사주 그냥은 일기 잘못허믄 내불어.

103068 @ 에이그, 어렵다예.

103068 #1 우리 안해본거 엇다. 담배농스도 해보고

103068 @ 담배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8 #2 담배는 봄에 심주, 봄에.

103068 @ 이런 것도 해봤수과?

103068 #2 담배도 심어봤어.

103068 @ 이 농사들 삼촌 안해본거 어시 다해봤수과? 무농사 행 잘벌엇덴 허멍?

103068 #2 응 무농사가 쉬워.

103068 @ 무는 어떻게 하면 잘 해마씨?

103068 #2 밭을 잘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무씨를 잘 뿌려두면 걸어가민 무대가 리가 이까지 올라와. 무가 좋으면 무 하나가 이만씩 허주게.

#### 4. 들일

#####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아, 소는 저 산에 가그넹에 출 비여당 겨울에 놀엇다그네 빠멍다가 맥 이지게. 하루 세 번 맥일거라.

104001 @ 삼촌 소 키와 봤수과?

104001 #1 응, 소영 물이영 다

104001 @ 여자들만 이신디

104001 #1 아방

104001 @ 아 결혼해서.

104001 #1 아방 죽어부난. 아방 산때. 우린 몰 일러불고 췌 일러불민 좇지도 못허 는디. 아방 강 다 좇아와.

104001 @ 그 전에도 없엇고?

104001 #1 아니해판 그런거

104001 @ 할머니영 살때는

104001 #1 나는 이 이 농사란건 해본 도래가 어서. 탕간허고 물질허고, 거나배끼 농스엔 현건 검질도 안매봐서. 우리 절로저레 나무나 지들커나 그런것도 안해봐서.

104001 @ 처녀때? 근디 이제 결혼허난 후에는 어쩔수 어시?

104001 #1 거 결혼행 아방신디 온후제 진탕 고생만 했지. 으이구. 진짜 아이구아 이구.

104001 @ 안도와줄 수도 엇고예.

104001 #1 안도와줄 수도 엇고, 혼자만 내브릴수도 엇곡, 또 구르만 짐 시끄젠 허민 혼자 직허곡 네껴주곡 배제우곡 해살걸. 경허니까 배운사름은 배운디끼리 간 사름은 펜안허고 농부아니신디 간 사름은 그렇게 얼먹어. 나 전번에도 골앗주마는 나 우리어머니 떡분에 농부아니 좋덴헸 얼먹엇젠 허난. 아 원우선생도 막 이 날 좋아허고이, 나도 요망지더라고. 한림선생이라 그 사름이, 경헌디 아 이사름이 적당은헸다 해가는데 우리어머니 이젠 어멍 돌아오랜 허난 우리아버지가 “나 킷지 아니헸 딸이니까 어디 폴티” 허난 “아 우리아기 펜허기는 농부아니가 좋안게”. 이제 이 애기아방. 에이고 나원. 원우선생아피, 한림선생아피 가시민 이 월급만 타멍 먹을거 아니가? 계난이 어멍으로 헸 나이 이제썸 서시민 막 싸우컬.

104001 @ 크! 어신 어멍.

104001 #1 계난 옛날 어른은 우리애기가 못배와노니까 그런사람 신디가믄 고생헌덴 헸 농부아니안티 폰거라.

104001 @ 계난 수준을 맞춥으네 뭐허난

104001 #1 그렇지. 야, 끼리끼리 가믄 덜 나무래곡이, 공부아니헸 무대뽀로 가민 그렇게 차이있게 씨집이서 나무랜덴 허난. 계난 신칙이 노픈거 사달 노픈거. 신칙이 알아져?

104001 @ 신 뒤축?

104001 #1 초신 뒤축이. 초신 잇잔아, 짚신. 그거 일로 막 세불 북물영 막 아파 뱃겨전. 계난 신칙이 노픈거 사달 노픈거. 신이 얼마나 초신이 이디 막 뱃기는 줄 알아. 계민 막 험벽으로 신을 막 감아. 또 막 뱃겨부러. 막 아파.

104001 @ 뱃겨부난.

104001 #1 우리 초신 사당 신영 땡겨나서. 계난 초신도 아무나 못해여. 땡발에 저 태국사람 벌레벌레. 그렇게 해연 살아서.

104001 @ 계도 여기 초신 행 폭는 하르바진 어섯수과?

104001 #1 이섯지. 그 계획적으로 폭는 사람. 곱게 삼은 건 막 비싸고.

104001 @ 걸 깝신이랜 헵니까?

104001 #1 거 깝신이랜 현건 바당에서 신고, 이 초신이랜 현건 곤거 잇고 나쁜거이서. 바당에 신는 건 막 깝 내여그네 영글영글허게 신고, 굿디 신는 건 막 곱닥허게 해영 신어. 경 다 끈어져 가민 영 뒤집어 가지고. 초신 뒤집영도 신어. 이디 끈어가면은 영 뒤집어. 똥싸. 똥싼 이제 이디 끈은거 다 클러그네 또 영영 꼬으멍 잣아.

104001 @ 아이고,

104001 #1 경헌디 우린 이 양말 주는건 최고 잘 주워. 양말이 아무나 못주어. 양말도. 겐디 우리 오래비 산땡 큰누님만 양말 줍고 옷도 큰누님만 허랭 허여. 우리아신 못헸게. 아이, 허지말랜. 거난 이 바농질도 이 곱게 허영 싹 허민 곱는데 우리아신 쿨렁당쿨렁당 허니까 “죽은언니 나웃 줍지마라 허지마라 큰언니만 해”

104001 @ 숨씨가 달라예.

104001 #1 딸라. 바농질 뜬나. 이 주는 것부떠 뜬나.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2 잘 맥이면 소가 말 잘듣고 말이여 사람 이상이여.

104001 #2 소는 봄 나면 풀 나쁜 드르에 와서 길에도 전부 소 먹을 것이 천지곡 허니까 그냥 드르에도 놓고, 목장에도 가 놓고, 겨울때는 가을에 출 비어다가 막 흔 눌씩 눌었다가 맥이고.

104001 @ 눌었다가?

104001 #2 눌 눌었다가 하나씩 빠면서 맥이곡 헛는다. 난 술 기르면 소가 말 기르면 말도 그렇게 말을 잘들어가지고 말이여. 게니까 나 살림이 조금 나아질라니까 사람 말아니 곶을 뿐이지 소가 그렇게 말잘듣고, 물이 그렇게 말잘듣고. 그니까 내 운이랄지.

104001 @ 뗏 마릴 키와봐신디 소 말이 경 말 잘 들읍디가?

104001 #2 말은 한번 사서 해봤주마는 소는 한 여라마리 지나갓어. 소 밧을 가는 디 사람 뭐 시키지 안해도 일을 경 잘해여. 구루마도 잘허고.

104001 @ 다 동네에서 새끼나쁜 그 송아지 사웁니까?

104001 #2 난 저 수소만 질러봤주 암소는 안질뤄보고.

104001 @ 솧쇄하고 암쇄하고 뭇이 달라마씨? 밧을 갈려면 부룽이가 낫지예?

104001 #2 아, 부룽이가 일 잘허지게. 췌고. 게 나 밧을 많이 갈아서.

104001 @ 외양간이 소막?

104001 #2 췌막이엔 허여. 따로 이서.

104001 @ 안거리고 췌막은 어느쪽에 이십니까

104001 #2 문간 쪽에 향시 잇엇어.

104001 @ 소는 뗏 마리 이섯수과?

104001 #2 소? 뭇 암소도 좀 질러봤지만 보통 부룽이 하나.

104001 @ 밧갈쇄?

104001 #2 밧갈쇄 하나.

104002 @ 기억을 해봅서예.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털 색깔, 뿔 모양 등)

104002 #1 소도 검은쇄가 있고 이 좀 서꺼진 쇠가 있고, 노랑헌 색 췌 벌경헌 쇠가 잇어.

104002 @ 이름들 몰르쿠과? 다간, 얼룩쇄?

104002 #1 다간머리여 뭇여. 다간머린 소가 아무래도 뿔이 영 오그라진 생이라. 나 생각엔 다간머리 무신, 뿔도 영헌 뿔 잇곡 이. 게난 그런 건 종류는 몰라.

104002 @ 소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104002 #2 난 검은 쇠를, 밧갈쇄이 오래 맨디 흔 십년이상 질르는 쇠가 이서. 경 헌디 일을 그렇게 잘해. 구루마도 잘 꺾고, 밧도 잘 갈고, 소도 내가 풀아부니까 강 보니까 그냥 나신디서 이실때는 잘 맥이니까 이렇게 막 헨게 탄디 풀아분디가 잘



안맥여노니까 그냥 바짝 몰라선게 소가 나 보니까 눈물을 찼찰찰 찼 흘리데. 거 소도 아는거야. 말은 못해도 나 가니까 우리집에선 나가 열심히 맥이니까 춤 제가 일도 잘했고, 잘 살았는데 그 판데 가니까 어떻게 잘 못맥여가지고 빠짝 뭐 소가 슬이 빠지고 자 보니까 그냥 눈물을 찼찰 흘려. 뚝 뚝 눈물이.

104002 @ 그렇구나예. 소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

104002 #2 노린 췌도 잇고 검은 췌도 잇고 경허주뒤. 난 검은 소를 많이 맥엇어.

104002 #2 난 검은 췌를 많이 질렀어.

104002 @ 이름이 뭐?

104002 #2 이름은 엇고?

104002 @ 뿔모양이 오그라진 것도 있고, 뭐

104002 #2 그런건 작박도리랜 허여.

104002 @ 작박도리, 이렇게 중요허여마썸.

104002 #2 나는 소를 잘 맥여노니까 소가 다 좋아났어.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밧갈 때?

104003 #1 밧갈 때. 밧갈 때 씨여먹는거?

104003 @ 경허곡 구루마?

104003 #1 구루마도 허곡, 밧도 갈곡, 또 짐도 시끄곡.

104003 @ 소가 말을 안들면 이거 누가 질들여야 텔거 아니?

104003 #1 아이고 이 난 눈으로 지경 본디 몰 잇잔아 몰.

104003 @ 소는 어떻게 길들이는지?

104003 #1 소도 길파낫주마는 몰이 이 그렇게 꿰부리는 몰은 처음 봐봐서. 수박이 안돼니까 호박만 에염에 이시니까 대풍불영 몬딱 썰어부난 호박을 타온게 혼구루말 타서. 그거 풀아부러서 이제. 시꺼서. 아, 요놈의 몰이 요만만헌 동산을 절대 아니걸어. 디더사 디더사. 아니 아방이 이 거 영 체경 이서. 가운데 들어가는 체경, 체경이 이서서. 몰을 나 경 몰 페다툼 혈중도 몰르곡 아방이 곱게 말허데. 체경 들러. 들렀지. 들르난 체경 놔.

104003 @ 체경이 뭐?

104003 #1 몰 영 질게 나온거. 진진허게. 몰 세 개씩 낵 영구는거, 것ㄴ라 체경이엔 허여.

104003 @ 체경?

104003 #1 거난 이제 몰을 꺼내데. 꺼낸 뭇 허젠 햄신고 헨 허난 아이구 낭에 이 낭에다가 그 석 해다가 막 대땅 무껴. 어디로 감신곤 허난 그때 장봉인가 헨 요만 이헌 지래기 낭을 강 끈영와. 난 경 몰 두둘 중은 몰르고, 뭇햄신곤 허당보난 막 죽게 패두들어, 몰을. 이놈으새끼 나 꿰부리는중 몰를 중 아나. 오닐 너 죽여그네 저 디당 나무해단 구웁 먹영 나가 기시령 구웁 먹영 가켄. 기냥 막 패딱사니질을 해여. 아이구 고만 뜯서게.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고만 뜯서. 너 제레가 이거 오닐 꿰둥이 오닐. 아방은 이 몰 꿰허는 거 다 알안. 몰이 이 막 뛰는 몰도 심영와, 아방이.

막 빨란. 막 저만이 물이 막 뛰어가도 강 심영온덴허난. 경헨이 몽둥이를 막 허난  
물은 살려드랜 눈이영 헤뜍헤뜍 허난. 아이고 그만 딱립서게. 고만 딱리긴 이거 오  
널 죽여그네 잡앙 구웁 먹영 가야지 허멍 막 행 이젠 혼데기 두드려노난 이젠 차경  
메연. 나갓당 매아이맛앙 꼭 온 물이라. 그매 맞꼭 그 오름을 착착 올라라. 물그치  
구눕 쟈거 어서라. 매 죽게 맞아서. 게난 이 꿔부리는 건 알아진덴.

104003 @ 영리허구나

104003 #1 영 탁 이 물 메쟁 심어보민이 꿔부리는 말은 안덴. 거니까 알아가지고  
이 죽게 맞앗젠 허난. 피가 막 나더라, 이런덜로 막 두드려노니까.

104003 @ 게난 거 어떻게수과, 언제까지 키와수과?

104003 #1 경허단이 버청 허는 디 아방은 물은 잘 다뤄. 다른 사람 버친건디 아방  
은 힘때가 좋아노니까. 뭐 조천면에서 씨름행 다 이기고랜 현 사름인다. 다 이기ㄴ  
랜. 힘이 경 장골이라. 경허난게 물 곁은 것도 심영, 쉼도 탁 메부쨌. 쉼도 메여다부  
쨌.

104003 @ 아, 외할머니가 그런거에 반한생이우다게.

104003 #1 나는 이 친정엔 이 쉼고 물이고 아니해봐서. 씨집 가난에 그런걸 했지.  
출도 베어보고, 물도 맥이레 가보고, 출도 해봤지. 탕건만 허고 물질만 행 그런거  
해보도 안현 사름이 했젠 허난. 고만이 선생암피 씨집가시민 고생도 안허고.

104003 @ 뭐 책만 읽어서쿠과? 마찬가지 밥허고, 뭐허고 해실거주.

104003 #1 그놈으 선생은 이 장개가보젠 막 매날 물 거려도랜. 이 멍청인 무사 영  
물도 자꾸, 저사름 온적마다, 나 속으로만, 나 보레 온 중은 몰르꼭. 뭐 와가른 저사  
름 이상현 사름이여. 물만 드랜. 말젠 보난 그 얼굴 보레 오는거. 얼굴 보민 이 똬  
지 사레 오고랜 허영 얼굴 잘 뺑가메. 이 사름은 물만 도랜 해고, 선생, 미안허지  
만 물 혼 사발만 줍서. 게난 물도 이 배랑 안 먹으멍, 비우멍. 말제가난 눈치알안,  
나가. 눈치 알아서. 또 물, 무신 난 물장시파? 자기냥으로 거려당 먹주. 알아가난.  
말젠 보난 장개오켄 현 사람. 논을선생, 지레 조그만해도 막 요망진 선생이라.

104003 @ 게매, 인물치레로 가는게 아니라부난

104003 #1 아이구 우서, 물거려다 드랜 허난 수트름허게 거려밀고.

104003 @ 인물도 좋고게 뺨고 하면 더 여자들이 많이 따르지.

104003 #1 그때는 이 연애헐 충도 몰란. 연애가 뭐인지 요디 씨집가랜 허난 그냥  
그디강, 살랜허난 그냥 사는건rps 허영 살았져. 새시방 얼굴도 안보꼭. 주민 말만  
들언.

104003 @ 게난 아저씨는 소말 길들이는 것도 잘했구나예.

104003 #1 잘해여. 해병대 사기생이민 말 잘했져. 사람만 죽이단 오고랜 해. 사기  
생이민이 전자 부튼 사람. 왕 ㄴ는거 보난이 토술산, 산이 영현디라랜 영현디서 ㄴ  
난에 그 총에 그걸 쏘우와. 게난 해병대 개병대랜 해. 그것덜 죽이지 아니허든 그냥  
우리나라가 죽게 생겨시킨 그냥 죽기 아니민 살기로

104003 @ 전쟁도 해나수과? 오십년대에 가신가?

104003 #1 사기생, 해병대. 스물셋에 간.

104003 @ 뗏넌돈고?

104003 #1 아방네가 간 서울탈환 평양탈환했네. 부산만 냉겨동 서울 다 먹어분거. 게난 아방네가 간 이겨서. 이제이 저디 훈장 다 이서. 전장때. 게난 사람하나 죽인 건 심어가도 안헌덴. 일로 총맞앙 일로 나오고, 몸은 다 총맞안. 이디도 파편덜은 영 해가든 뿔룩뿔룩뿔룩뿔룩. 파편 이만씩헌거 다 좇안.

104003 @ 게든 유공자로 등록돼수과?

104003 #1 유공자지. 해병대 사기생이엔 행 여기 태극기 다 낱 이런데 만딱 해연 게난에 자기는 사름 하나 죽인건 꼬딱도 안헌덴. 온갖 전장 다녀부난. 그 토술산에 강 올라간때 보난에 북한것덜이 근무 사서랜. 대검으로 콕콕 쭈스멍 탁탁 탁 부쳐 동 그디강 탁 기관총을 드난 그 기관총이 서이너이 들러살걸 자기는 말제는 자기만 도 들렛덴.

104003 @ 할아버지 성함이?

104003 #1 한씨, 한달생이. 아방이. 거난 우리 대답도 안해여. 온갖 전장해난 사름 이난이 눈 탁허게 데싸져가든 이 아이구 저 사름은 무서운 사름이난 고만이, 싸웁지 안해여. 지 허는냥 고만이 내불어. 허는냥, 이영허랜허민.

104003 @ 게든 삼촌이 저젓다는 거아니?

104003 #1 젓지. 거거 이기젠 허민 사름 흐나가 죽일건디. 지 허고랭 허랜허는냥 뗏 넌이라. 상부의 명령은 팔부망천에 절대 복종허라 이거야. 말 혼마디 대답 아넛저 나는, 경헨 산거라.

104003 @ 아이구 답답허쿠다.

104003 #1 거난 고만이 내불어. 그사름광 싸우민 갈리지도 못허곡 매날 후두드려 맞지뿔.

104003 @ 때리진 안헛고예.

104003 #1 안때려. 빼얌 흥번 안때려. 늙은 강 다 뛰드려도 집윗 애기나 가속은 춤 요만도 것지도 안해여.

104003 @ 삼촌이 죽여주니까게.

104003 #1 거난 전장헛때에 다 직헌디가 이서랜. 해낮이, 해낮이 막 니죽고 나죽고 막 싸우는디 눈에 헤영헌 하르방이 탁 아피 나산에이, 넌 나 시키는 대로만 해라이. 네 영 눈터보난 그 하르방이 어서랜. 겐디 이 저딘 포떨어질 거 담다 허민 똑그레강 털어져. 저레 피해사 웬다 허민 그레허민 그디. 거 시키는 거라렌. 지켜쥔 초상이. 거난 어디간 들으난에 왕족하르방이 한씨 왕족하르방이 청주에 잇다네 무신 일 잘못해부난 제주로 귀양을 와서 그하르부지가. 가시리 왕 주둔행 그 가시리 땅이 다 한씨 가속들 땅이라. 후제는 다 풀아부럿져. 그 하르방이 이디 귀양완 하르방이 한씨라. 청주에서 원간 켜게사 싸와신디산 제주고 보내부난 가시리로 보내부난 경헨 그 하르방이 왕족이엔.

104003 @ 아이구, 살아서 돌아오난 영 자식들도 낱곡.

104003 #1 스물셋에 해병대로 간, 이젠 스물여섯 나난 제대했 완, 경 온 후제 애기덜 낫주.

104003 @ 아까 말한 그 사름 생각이, 공부헌 사람이 나올수도 잇엇겠다예.

104003 #1 건디 우리어머니 우리덜 펜안히 농부아니 허난 농부아니헌티 간거라. 계난 우리 아버진 어이구. 우리아버지는 원간 배운 어른이니까 이장질허고 유지장 혹은교위원장이민 막썸께 놀아나서게. 게도 우리아방 애기도 원 옥도아니행 키와. 옥 혼번 아니행 아기덜 여섯오누이 키와서. 나 때리민 막 열받아 왜 애기 때리냐고.

104003 @ 아까와했예.

104003 #1 자기 혼자 독신이니까 애기를 지중허게 생각허더라고. 이녁 혼자만 단 아덜로만 키운거니까 친척도 엇고게 웨로 흥니까 것도이 이제 동생덜이 하야 팍팍 퍼질건디 지혼자니까 외롭지. 계니까 애기가 그렇게 지중허게 킵더라.

104003 @ 거니까예. 자기자식만큼.

104003 #1 나신딘 커싱커싱허곡이, 애기신더렌 이 크게 말도 아니콜아. 뽕헝허민 기 여 경헝라.

104003 @ 아들딸 구별은 안해수과?

104003 #1 똑ㄴ치. 계난 이제 우리 셋똥은 이제도 아버지배끼 몰라.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03 #2 소는 밥을 잘 주면 뽕 주인 말을 잘 들어.

104003 @ 소는 밧을 갈고?

104003 #2 밧갈고 구루마.

104003 @ 또 다른 건 뽕 잇수과? 사람은 안타지예?

104003 #2 소는 그런적이 없어. 뽕이 잇지.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2 나가 저 두 술짜리 소를 갖다가 가르켜 뽕는데, 소가 말 잘들으라고 허니까 그 세술 때 쟁기를 메왕 밧을 가니까 그냥 갈아볼데. 뽕 사람덜은 소 가르칠 라면 상당히 못견디는데 나는 흥루에 가르쳐어.

104004 @ 어떤 요령이 이신고예.

104004 #2 나가 소를 사랑해 주니까 그건지 그 소가 말안해도 뽕뽕.

104004 @ 애기때부터 길들입니까?

104004 #2 소가 자랄만큼 자라야 세설 네설 뽕야 가르치는데 난 세술에 가르쳐도 그렇게 잘허데게.

104004 @ 세술썸 뽕면? 그다음은 그냥 집에서 뽕이고 그렇게만 하다가?

104004 #2 그렇주.

104004 @ 어떻게 가르쳐마썸? 뽕 돌멩이를 썸으렌 해? 코뚜레를 썸어?

104004 #2 난 코 썸어본 일이 엇고,

104004 @ 아,

104004 #2 코 썸어본 일도 엇고, 소가 집에서 먹을 걸 잘 주곡, 그러믄 소도 아는

모냥이라. 나 말이라면 뭐 백프로 들으니까. 말 아이 들은 코 께는디,  
 104004 #2 말 안듣는 건 코 께야지.  
 104004 @ 말 잘 들어도 코는 께야 되는거 아니예?  
 104004 #2 아니 난 코 안 께었어. 그렇게 말 잘 드니까 코 안께어도.  
 104004 @ 아, 말 안듣는 놈만 께는거봐? 길들일 때 어려운거나 뭐 어떻게 길들입  
 니까, 처음엔?  
 104004 #2 나가 많이 길들여 봤는데 그냥 잘 달루른 소가 벌써 아는 모냥이여. 가  
 서 처음으로 밧을 갈레 갖는데, 사람 이겨야 돼 처음으로 , 사람 빌리고서 헨 갖는  
 데 당일로 가르쳐지데 당일로. 하루에.  
 104004 @ 아, 하루에  
 104004 #2 경행 밧을 잘 갈고 저쪽에 가민 지절로 쑥 돌아오고. 아주 사람하고 마  
 찬가지. 소가 영리하면 지대로 탁탁 하니까 내말이 필요가 없어.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뗏살까지 삽니까?  
 104005 #1 혼 열 살까지 허민 잡아먹어부림실거여.  
 104005 @ 열 살?  
 104005 #1 나 생각엔. 늙어가민 도수장 배끼 더가냐? 일 못해가민. 밧도 못굴곡게.  
 쉘가 죽으레 가는 거 알아, 눈물 주룩주룩.  
 104005 @ 정말마씨?  
 104005 #1 다 알아. 다 알아들어.  
 104005 @ 봐봐수과?  
 104005 #1 쉘이, 께부령 밧아이갈아가민이 또꼬망에 불 지더도 안일어나는 쉘 안  
 일어나. 어떻 구늬이 쉘중 알아 쉘가. 송곳으로 찢러도 꼬딱도 안해. 께 부리는 쉘.  
 104005 @ 아저씨가 그런 것도 잘 했구나.  
 104005 #1 잘해. 계난 버친건 아방이 다해.  
 104005 @ 소 우는거 봐봐수과?  
 104005 #1 사름 울 듯 울어라. 거 좋지 아녀. 집안이 좋지 아녀. 딱 사름울 듯. 계  
 난 폴아부나 잡아부나 허메. 견디 우린 경안헌디 늙덜만. 막 징그러와. 너 죽을 것  
 이다, 경 기분 나쁘게 울엄젠. 겐디 소는 알아렌. 말은 못굴아도. 진짜 영물엿 쉘라.  
 소는. 물은 이 실개어시 덜랑덜랑 허곡.  
 104005 @ 아, 물이 더 영리허텐 허는디예?  
 104005 #1 물은 실개가 어서.  
 104005 @ 실개엇댄 말은 들어수다마는.  
 104005 #1 물은 실개가 엇곡 소는 실개 잇잔아. 쉘는 밤이라도 앞이 세우민 도채  
 비 그쁜거 다 획획 케우려불주, 물은 사름 앞더레 돌아온덴 노래영, 도채비 보민.  
 그냥 사름 앞더레 튀어분덴. 쉘는 꼬딱도 아녕. 쉘는 안심허곡 물은 사름 앞더레 뛰  
 어와랜, 아방 말이. 자기넨 물론디 물이 그냥 막 앞더레. 경헌디 말젠 보난 그 도채  
 비. 무수 폴레 가는디 친구 하나가 저 삼양 우티 그디가 주공아빠뜨? 거기서 도채

빌 만난. 만나네 친구 하나가 암만 오카부덴 해도 아니 오니까 이상허다 헨 이젠 물을 매언 완 보난 도채비 만냥 기냥 물도 무수도 다 와당탕와당탕 케우려불곡, 막 해연이, 간 보난이 죽엄직 해서랜. 사람이고 물이고. 경헨 이 아방이 물 탁 잡안에 허연이 반은 시끄고 반은 아이 시끄고 만딱 케우령데껴부러서. 하도 들럭퀴난애. 지 아니 만나시민 똑 죽으커라렌, 친구가. 갱 지 물을 친구가 끄이랜 허곡, 그 물은 이 녀이 행으네 잡안 가ㄴ랜.

104005 @ 걸 갓당 오민 다 곱습니까?

104005 #1 어. 흐른 거 속숨행. 거 들어나니까 이제도 곤는거라.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5 #2 소 열 살 이상ㄱ지 소를 메어봤는데 소는 스무살까지 기를 수 이서 스무살까지도. 소 한 열 살 지날까지 키와봐서, 나도.

104005 @ 소키우당 죽은 적은 엇수과?

104005 #2 그런 일 엇고.

104005 @ 갱 늙어가믄 풀아부러?

104005 #2 응

104005 @ 정들엉 불아집디가?

104005 #2 아, 샷다 풀앗다 여러번 헛어. 소가 믱음에 들면 달라는 대로 주어가지고 소를 샷어 내가. 그 저 소도 주인을 알아.

104006 @ 쟁기부분 명칭은 잠대랜 허지예?

104006 #1 잠대.

104006 @ 질메?

104006 #1 질메는 소 이렇게 해영 밧가는거.

104006 @ 멩예?

104006 #1 멩예가 이룬디 허곡 질메가 짐 지는 거. 짐시끄는거. 낭 해여그네 끄시는 건 멩예고, 질메는 짐 지우는거. 영 췌질멧가지 잇잔아.

104006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6 #1 목장은 저 산애. 겐디 이 이젠 만딱 개간해부난.

104006 @ 옛날엔

104006 #1 옛날엔 그냥 우의강 현디 늪은 못찾아도 아방은 강 쪽 좇아와. 그냥 놔두믄 돌아나부러, 소가.

104006 @ 표시허지예?

104006 #1 표시 다 허지. 이녀꺼 다알아.

104006 @ 경허당 겨울 지날 좇이레 갑니까?

104006 #1 가을 들영이 소막에 매게 되어야.

104006 @ 가을까지 풀영으네 거기 놔둬? 언제풀영, 여름에?

104006 #1 조해여난 디나 고구마 해난디나 내불민 지냥으로 밧디 가뿡 내불민, 담다왕. 그디서 먹곡. 뜯어먹곡.

104006 @ 아, 밭속에예?

104006 #1 응.

104006 @ 저 어디 목장에 강 맡기지 안허영?

104006 #1 응, 조 ㄱ리에. 목장에는 여름에.

104006 @ 여름에. 뗏달 맡겨?

104006 #1 거는 여름에 아맹해도 혼 대엿들 돼여. 여름에 올리는게. 게나제나 봄에로부터 우에 올릴거난.

104006 @ 쟁기를 잠대랜 험니까?

104006 #2 응 쟁기, 잠대엔도 허고.

104007 @ 질메는 무싱거랜 험니까?

104007 #2 질메? 짐 시끄는 건 쉼질메. 등뎡이에 놔가지고.

104008 @ 멩에?

104008 #2 멩에는 밭가는 디 멩에씩와가지고 하는걸 멩에라고 허여. 나무로 해가지고 멩에를 만들엇주.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험니까?

104009 #2 목장?

104009 @ 신촌에도 목장이 이섯수과?

104009 #2 아니 저 바로 우에 바농벵뒤강 그냥 올령 내버리곡, 이 부룽이 소덜은 맥이는 사람이 얼마씩 받아가지고 뗏달간 목장에서 관리해서 맥엇어. 소가 영리헌 것이 그 집에 매는 밭갈썬덜은 따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뗏겨서 돈 얼마씩 주어가지고 맥이는데 한번은 저 교래에 가서 뗏겼는데 그디 가서 맥이는 사름이 그때는 무수 갈라고 소를 맥이레 갖는데 아, 그날 가니까 그냥 막 비가 많이 와서 그 드리안네가 막 터져가지고 말이며, 그 소가 영리헌 것이 술 이제 이꺼가지고 오는데 그 내를 건너젠 허니까 내가 좀 잔잔하길래 그 널 막 내리는데 그 소를 이끄는디 소가 사름보다 더 영리해. 여기 내가 확 허게 떨어지는 낭떠러진데 난 그 높은 곳을 찾아가지고 오는 데 소를 심어야 돼는디 소는 더 알아가지고 사름보단 더 영리헌 것이 글로 떨어질까봐서 그 우로 가서 소는 넘어오데. 그 소가 사름보단 더 조심허는 거. 소도 짐생이고.

104009 #2 옛날엔 목장이라고 헌건 그냥 이 저 조천면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사수장이 제주도에 돌아가면서 잇엇는데, 그저 목장에 갖다 놔버리면 돼.

104009 @ 소를 마씨?

104009 #2 응. 아 건디 이 부룽이는 그 방목허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돈 주어서.

104009 @ 아, 부룽이는 수소?

104009 #2 응. 부룽이는 수소.

104009 @ 무사마씨?

104009 #2 그게 저 그대로 해노른 어디 갈때, 일러먹을지도 모르니까 한 자리에 맡쳐. 월급주면서 꼭 맡겨야지.

104009 @ 삼촌은 어디 맡겨난 마씨?

104009 #2 난 여러군데 맡겨봤는디, 뭐 저 교래깁지도 가고 요디 가까운디도 맡겨 보고, 만약 여름에 더울때에는 보통 밭 가는거 끝나면 거기다 맡겨서 돈주어가지고

104009 @ 그른 여름에 맡경 언제 데리고 와 마썸?

104009 #2 그러니까 일할때는 끌어다가 일허고 또 갖다 멧기고 허는데 가을 틀면 출 해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겨울에 맥이는거 다 준비해 놓고,

104009 @ 출 때문에 또 데려왔다가 또 보내마씨, 겨울에?

104009 #2 겨울엔 보통 집에서 기루고,

104009 @ 아, 그 목장에는 여름에 맡긴다는 거구나.

104009 #2 어, 풀 낫을 때만.

104009 @ 풀 낫을 때. 게른 얼마를 주고 맡깁니까? 암컷은 안맡기고 부롱이만?

104009 #2 암컷덜은 맡기는데가 별로 어섯고, 저 부롱인 꼭 맡겨야 돼. 약 한달에 만원이나 얼마씩이나 주어가지고.

104009 @ 게른 여름 멧 개월을 맡기는고예?

104009 #2 여름 흔 삼사개월 이상 멧길거주.

104009 @ 여름 삼사개월예,

104009 #2 이 저 보통 사오월들 썸에 이 부종 끝나가지고 밭가는거 농사 다 끝나면 멧겨가지고 가을썸 되면 데려오는거지 또. 거 영업적으로 맥이는 사름이 잇주. 소 한 마리에 돈 얼마씩 받으면서.

104009 @ 그른 그 소가 다치거나 혹시 일러버리면 배상을 받습니까? 그런일은 어섯수과?

104009 #2 그런일은 못봤어.

104009 @ 게른 술썸 읍니까? 풀 하영 먹영?

104009 #2 풀만 먹는거지.

104009 @ 소도 병걸리잔아예?

104009 #2 아, 병 걸리고 말고. 경허고 소는 천엽이 잇기 때문에 그 잘못 맥여가지고 죽는 건 봤어.

104009 @ 뭘 잘못 먹연마씨?

104009 #2 이 천엽이라는 것이 종잇장ㄴ치 나풀나풀헌 것이 소화시키는 기군데, 가리를 주면, 밀가리나 보릿가루라도 줌진거 주면 거 붙어버리면 죽어 그냥. 거 위험헌거야.

104009 @ 죽 썸 먹을 때 그런 것이 쓸수가 잇잔아예.

104009 #2 그러치.

104009 @ 그거를 잘못 먹는거?

104009 #2 그러치.

104009 @ 견디 물에 끌영 풀풀허게 허면 그건 웬찬은거지예?

104009 #2 그렇주. 끌리든 혹 몰라도 쪼끔 끌리지만 안해엿어도 가리음식 주는건



소는 위험해.

104009 @ 아.

104009 #2 가리음식.

104009 @ 그렇게 죽는 거 봐봤수과?

104009 #2 아 그축 봐왔고, 또 너미 과식해도 죽는수가 있어.

104009 @ 아 그렇구나.

104009 #2 뭐 보리나 콩이나 이런거 허민 소는 주는대로 먹거든. 자기가 죽을걸 모르고,

104009 @ 아, 거른 사람이 조절해 줘야 돼는구나예.

104009 #2 그렇지 사람이 잘못허른 죽는거주.

104009 @ 아 자기가 배부르면 안먹을 수도 잇잔아마씨?

104009 #2 그 소는 배불어도 그냥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먹는거야.

104009 @ 거른 그 목장에 풀어나두면 풀을 계속 뜯어먹을 거 아니?

104009 #2 아, 풀은 뭐 언마든지 먹어도 안해여. 거는.

104009 @ 풀은 아무리 먹어도 편찬코 곡식을 먹었을 때 말이로구나예.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104010 #1 새끼날 때.

104010 @ 새끼도 여러번 나와 봤수과?

104010 #1 응.

104010 @ 실패하진 않고 다 잘?

104010 #1 우리 소 폴멍 이집도 사고 다 헛거라.

104010 @ 아저씨가예.

104010 #1 부지런허여. 놀지안허여.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0 #2 아 소는 주인이 잘 허민 춤 말 안 곁을 뿐이여. 거 나가 멘 소들은

104010 @ 삼촌은 물 뱉이레는 몇 시에 갑니까 보통? 뗏살부터 물뱉이레 가낫수과 삼촌. 태어나가지고.

104010 #2 난 열 살엔 소말을 전혀 몰랐는데, 한 열 일곱살 후부터 소를

104010 @ 건 누가 가르쳐 줍디가?

104010 #2 아, 거 살젠 허니까

104010 @ 아버지 허는거 뵈디가?

104010 #2 아버지는 소를 못매봤어. 아버지안텐.

104010 @ 아버지는 유학자파? 그런걸 안헤?

104010 #2 아니 저 젊었을 때 돌아가섯주마는 일은 잘 헤는데, 그 때는 소도 재산 이 잇어야 소를 메는 건데 소 아무집이나 경 막 땡수는 없주기. 재산 없으니까 소를 못맷어.

104010 @ 삼촌 가난해낫구나.

104010 #2 아, 우리아버진 막 가난해서.

104010 @ 경 가난헌디 어떻 삼촌은 일곱 살에 공부도 시키고 경 똑똑해신고예?

104010 #2 아이 거 가난해여도 날 나니까 거 춤 공불 시킬라고 엘 찢주게 우리 부모네가. 경허곡 공불해도 나가 이 어렸을적에도 절대 벗들하고 무슨 싸움이나 이런걸 안허고 꼭 허라는 것만 내가 했으니까. 부모가 시키는대로. 그치록 허니까 부모가 상당히 아껴주고. 그 일찍 돌아가시니까 했지.

104010 @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신거봐?

104010 #2 열 일곱 살때게.

104010 @ 아, 거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를

104010 #2 아, 그루후에도 쪽 키다가 혼 서른 댕 돼가지고 소도 메고 농사도 많이 허고,

104010 @ 그 소를 샅구나예?

104010 #2 밧가는 소를 샅지.

104010 @ 소는 뿔마리 정도 키우고 뿔살까지 키와봐수과?

104010 #2 갹 처음 산건 열 살까지 키와봐서이.

104010 @ 십년?

104010 #2 열살까지도 한 십여년 나가 메고, 그 후에는 혼 삼년에 혼나씩 교체허면서 좋은 췌도 메여보고 나쁜 췌도 메여보고.

104010 @ 좋은 췌 뭐고 나쁜 췌 뭇과? 말 잘듣고 말 안듣고?

104010 #2 그렇지. 말 안듣는건 밧도 잘 안갈아가고

104010 @ 그런 건 삼년 키워 풀아부러수과?

104010 #2 그렇지.

104010 @ 췌 생각나는 손 잇수과? 처음에 십년 키운거?

104010 #2 아이구, 좋은 소가. 나 이제도 생각이 나. 소는 말 아니 해도 소는 일로 쪽 가민 자기가 돌아갈땐 지대로 돌아사. 사람이 이렇게 허랜 안해도 지대로. 응.

104010 @ 밧가는 소리 해집니까?

104010 #2 밧가는 소리라는건 제주도에서 어러씩씩 어러 썩썩 배끼 뭇 허는게 잇어?

104010 @ 거문 그 소가 말 알아듣고 예. 밧블리는 소리도 말로 하지예?

104010 #2 밧블리는 소리는 뭇로 대부분 혼니까 뭇로 허는 디 밧블리는 소리는 춤 잘허는 사름은 목청이 좋은 사름이 잘 허여. 얼 하랴하랴.

104010 @ 신촌에도 그런 분이 이섯수과?

104010 #2 아, 많애. 많이 잇어 그때는.

104010 @ 다 돌아가섯잔아예?

104010 #2 아, 이제 다 돌아갓지.

104010 @ 송아지도 내와봤수과?

104010 #2 송아지는 난 안뵈겿데. 아이뵈. 관리 못허고.

104010 @ 말은 키와봐수과?

104010 #2 말도 하나 산데, 춤, 저 우리집의 아덜 이학년때 남의 동네 사람이 밧데 농사해놓은거 실러오질 못허니까 나도 엇고 허니깐 우리 아덜보고 아이고 느라도 저거 허영 몰 구루마 허영 흥썰 시꺼다 드라 허난 몰이 원체 순허고 말 잘 들어노니까 그아이영 가근 늬으 짐을 시꺼와서.

104010 @ 아들이?

104010 #2 응

104010 #2 그런 일은 엇고, 몰은 하나 죽여봔어.

104010 @ 몰은 망아지 낱당마씨?

104010 #2 새끼낱젠 허다가 그냥 대홀에서 죽언.

### 말 기르기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말 키와봔수과?

104011 #1 쉼허고 ㄴ찌게, 흥펜씩

104011 @ 쉼막에,

104011 #1 응.ㄴ찌 요디는 쉼, 요디는 몰, 겨울에 흥펜씩,

104011 @ 칸 영 허고?

104011 #1 칸 안해도 흥펜씩,

104011 @ 지네끼리 씹지 안허고?

104011 #1 안싸와.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소하고 달라마씨?

104011 #2 말도 소나 마찬가지로 뉼. 풀 해여다 쉼 뵈이고,

104011 @ 먹는건 쉼썸 틀리지 안해마씨? 똑같아?

104011 #2 어, 똑같아. 풀 주민 먹고

104011 #2 말은 그냥 산에 낱 내볼민 지대로 먹어서 살지 뉼.

104011 @ 아, 봄부터마씨?

104011 #2 응.

104011 @ 목장에 낱당 겨울엔 데려와야지예?

104011 #2 몰은 겨울에도 보통 목장에 그냥 잇었는데 겨울에는 이 몰 키우는 사름은 흥 뵈썸도 뵈뵈도 허는 사름이 잇었는데 보통 목장에 그냥 놔.

104011 @ 봄부터 겨울까지 내내?

104011 #2 응.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썸해 주십시오.(털 색깔, 모양 등)

104012 #1 그런 건 몰라.

104012 #2 말도 나쁜 몰은 막 말을 안들어가지 고 막 그냥 광대ㄴ치 허는 몰이 잇고, 아주 순헌 몰이 잇고, 그런거니까 몰 잘 보는 사름은 몰 보민 알아. 몰 타기 좋은 몰 일잘 흥는 몰.

104012 @ 소가 비쌉니까 말이 비쌉니까?

104012 #2 소가 비싸지.

104012 #2 제주도 물이야 다 조랑말이었지만 현대 이 물이 지금 좋은 물 구진 물, 물도 사람이 탈수 잇는 물이 잇고 못타는 물이 잇고, 아주 사나운 물이 잇고, 물도 아주 사나우면 상당히 가지잘르기가 어려와.

104012 @ 털색깔이나 모양에 따라서

104012 #2 아, 정충마여 율라말이여 유마물

104012 @ 율라가 무신말이파?

104012 #2 좀 얼룩진 물

104012 @ 또 적토마를 붉은색?

104012 #2 유마물이 붉은색.

104012 @ 유마물, 그 다음?

104012 #2 그 어둑하게 웬건 적토마엔 허지. 막 검지도 앓고 막 회도 앓고.

104012 @ 또 다른 말 이수과?

104012 #2 이젠 다 알아지커라?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운반, 밭밟기 등) 운반?

104013 #1 말이 폐락진 말도 있고 순헌 말이 이서.

104013 @ 밭 불리는거에 쓰고?

104013 #1 밭 불리는 건 아무 물이라도 불리는데, 남테.

104013 @ 남테도 물허고?

104013 #1 걸로 불린다.

104013 @ 구루마에는 말보다 소가 나아?

104013 #1 물이 낫지. 빨리지. 소는 끈닥끈닥 느랏느랏호고 므른 파썽파썽 파썽 아방은 느랏느랏헌거 안해여. 지 성질광 ㄴ딱 막 뛰는거라사

104013 @ 구루마를 말로 했구나.

104013 #1 야, 버친 물이, 물 준거 사당 주쿠댕 흥난 이 이녁 속 만이 알앙 싯당 으골래끼 폴앙 돌아나부린. 아이구 그 사람 심젠이 아방 여름에 일도 못 해서. 이젠 간 심언. 곱은 걸 강 심어서. 심영 이 도독놈으 새끼, 이제 ㄴ뜨민 경찰에 가지. 그때는 그런 것이 어서서. 간 보난 곱안 저 산에 강 살암선게. 심언에 이 새 끼 그냥 너 죽어불켄 게난 이젠 이, 물 피둥이 하나가 이시킨 것도 어디강 거짓말 헨 앗아온거주게. 아 그거 아니 앗아왔당 요놈으새끼 죽이지도 못허곡게 그 피둥이 흥여오난 이제 요디 도당 친구네 집을 이제 도당으로 그집 짓어서. 도당을 시경오 는디 비에이, 이젠 아스빨트주 그 댐이 한질도 그런거 어선. 흑이라. 는창는착허는 디 이빠이 시뀐 그냥 허작허작 오난 삼양할망이 물장시라이. 걸 봤다이. 게연 우리 집의 완에 그 말을 폼서. 나 돈 안네커메 이 말은 나배끼 못씹니다. 솔직히 말허주 피부령 못해. 경해도 사켄만 허는거라. 말제엔 나원이랑 맏서 나 솔직히 곶암시난 에. 아 경해도 하귀 일해연 오는거 보난 환장해분거라게. 그 비에다가 그 도당을 시

꺾 꺾파닥파닥오난 할망이 환장을 해연. 이견 나배끼 못씨는 물이우다. 경해도 헨 아  
 닐싸 가난 일을 허느냐 피부령. 계난 술직히 다 골앗겟다 ㄴ니까 돌르레 와지느냐.  
 췌겨시민 도르레 오주. 소문엔 드는 아방이 일안헐젠. 폴아드렌 허난 그만이  
 골아도 그 할망이 말 안듣데. 이젠 돌르렌 안혀. 계연에 혼번은 물에 들레 간  
 보난에 우리물 아방이 존거배끼 안매여. 야, 물 좋다 헨 것만 매여. 물이고 췌고, 막  
 특으로만 매여. 겐디이 갈땀 물장시가 완 막 물덜 흥정헐데. 우리집이 초가집의 신  
 때라. 이거 짓건디가 혼 45년은 똬서. 새로 짓인집이라. 물에 들레 가명 보난에 물  
 을 폴안에 우리 아피서 신덜 신으멍 나가는 거 보아서. 아이 물에 들언 오멍 보난  
 물이 이디 매여져이서. 아이고 돌르레 왔구나. 그 성안 하르방이 이제 죽엇주게. 나  
 들어가니까 눈 꿈막허데. 아 눈치쟁. 조캐야, 물 돌르레 왔져. 무사마썸? 물이  
 발이 어땡고. 예 새각시 현새나민 그 새각시 못폴 듯 당신네 번쩍헌 물 발이 어찌  
 고 허니까예 물 내부러동 갑서. 우리들러먹지 안헐 물 폴앗쟁 헉건 왕 돈 아저갑서.  
 거난 무시거예 골아게. 겨고양 물갑은 어수다, 빗 물어부난. 돈은 잇지 이서. 빗 물  
 어부난 엇고예, 물 내부러동 가민 우리 폴앙 안네크메. 쟁 이견 물 아니 아정 갓당  
 은 이것도 아니뵈고 저것도 아니뵈여. 이제 물을 앗앙 간. 간에 아매도 비싸뵈난 생  
 이라. 이젠 ㄴ찌 온사름은 계건 차비나 줍서 허난에 우리 아신 잇단에 차비 타레  
 왔구나 막 비꼬아부난 이 그 하나 남젠이 아이탕가켄 헉거 그 비꼬아도 이 그거 똑  
 돈을 아정 가더라. 경헨 이 물 물앙 가고 그 차비, 아이고. 벨 사름이 다이서. 남즈  
 들은 비우 약해여. 아방은 비우 약해부난 돈은 아기어멍이 가져부난 오민 골앙 주  
 키여 허영 나 올떠만 기다린거라. 계난 난 눈 꿈막허난 별써 눈치 알고,

104013 @ 아이구, 똑똑허다예.

104013 #1 나? 경허난 지식이야방이 이, 자네 각신 잘얻엇고. 뜯사름 골아가민 실  
 제기 돈 내주카부덴 허난 딱 우겨자쳐랜 허멍. 각신 잘 얻엇젠 허멍. 우린 보내뵈  
 어땡 우신중 알아.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헐니까? 밧블릴 때 하고, 구루마?

104013 #2 물 구루마 허고, 밧블릴 때도 허고, 밧도 갈곡, 내중에 밧도 물로 갈아  
 서.

104013 #2 물도 구루마도 허고, 사람 타는데 물도 잇고 밧가는 물도 잇고.

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하고 말중에 누가 오래 살건고예?

소가 오래 살거여 아마. 소를 한 스무살까지 길루는 사람이 잇어.

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은 말 아이들면 상당히 나쁜 물이 똬여서, 나 그런 물 하나 헛다가 그냥 버리다  
 시피 내버린 물이 잇는데 아주 사람 ㄴ찌 몽니가 사나와.

104013 @ 몽니가 쉰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104013 #2 아 그 물 때릴 수 밖에 엇주 뉘. 물은 코 안뵈고 자갈 물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물려서 말아니 들으민 자갈 물려그넹에.

104014 @ 말은 소보다 더 삽니까?

104014 #1 물은 이 영리하여 영리, 소보단. 소는 멍청이거찌 대가리 맞앙 죽나허 주만 물은 영리한다고. 물은 구춘까지 곱랴. 쉼은 이녁어멍 우터레 타앗앙 해여도이 물은 구춘까지 곱랴. 사름보다 낫지? 구춘 구춘 뜯사름은 안해여. 어뎡 영리헌중 아나 물은. 실겐 엇덴 물이. 아이구 요 물ㄴ치 실개어시. 경허지 안냐, 무시거 잘못 허민 아이구 물ㄴ치 실개엇다게.

104014 @ 열 살까진 사는가예?

104014 #1 열 술 더 살지. 길름에 매지, 길름에. 물이 잘허민 오래오래 길루고, 또 물 탐나네 풀렌 헌 사름은 풀아줘볼곡. 또 기냥 오래 길룰 사름은

104014 @ 말의 나이는 소, 말중에 누가 오래 삽니까?

104014 #2 말도 소나 비등비등허주마는. 늙으믄 못써, 물은

104014 @ 게른 말이 늙으민 어뎡헐거라? 잡아먹어?

104014 #2 글쎄 물 잡아먹는건 잘 못봤는데 잡아먹엇겟주 뵤.

104015 @ 물타거나 경허진 않지예?

104015 #1 물 타.

104015 @ 사람이?

104015 #1 응 아방 물 막 탕텡겨. 타그네 산에도 가고. 걸영 안텡겨. 물 탕.

104015 @ 아이고야!

104015 #1 물엔 호랭이엔 허난. 뛰는 물도 경 심어당 메다치는 사름이엔 하난.

104015 @ 밧블리는 소리 이런것도 잘해나수과?

104015 #1 아방 소리 허는 건 못봐봐서. 그런 것들 우리 씨아바님은 잘해. 우리 씨아바님은 소릴 해난디 우리집의 애기아방은 이 나 소리허는 건 들어본디엇다. 경 헌디 군인간은 소린 허메.

104015 @ 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하고 말이 뵤 달라마씨?

104015 #2 비등해여 비등. 경허고 우리 마굿간인디 이쪽엔 소 매고 이쪽엔 물 매고. 흐 집 안에 물하고 소하고 메엿어.

104015 @ 어떻게, 누가 똑똑해마씨?

104015 #2 물론 소나 말은 사름 가믄 무시거 먹을거나 줄건가 해서 즘생이니까, 출 해여다가 막 쌓아두엇다가 갖다주면은 먹고자고 그자 그거지. 물 뵤이고 그자. 흐루 흐번씩 물주고.

104015 @ 소 청소라든가 관리하는거는 비슷해마씨? 소나 말이나?

104015 #2 물 메는 디고 소 메는 디고 뵤비로 쓰니까 거기 오줌싸고 뵤 싸고, 그 러면은 자꾸 이 저 검부럭을 놔가지고 뜨뜻해. 이 저 방이 불뵤거ㄴ치 온돌방ㄴ치 그 뵤싸고 오줌싸고 해노난. 거 겨울에도 마굿간에 가민 뜨뜻해.

## 먹이

104016 @ 말하고 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똑ㄱ찌 맥여. 콩깍질도 소나 물이나 똑ㄱ찌  
 104016 @ 뭘 좋아합니까? 출?  
 104016 #1 출도 먹고 또  
 104016 @ 섞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104016 #1 또 콩에 그 물이나 소나 일 시키젠허민 사람도 잘 맥여야 일허듯  
 마찬가지라. 소도 여물 행 막 맥이고 죽썬그네,  
 104016 @ 무싱거로 죽썬?  
 104016 #1 콩, 콩 벌렁으네 콩을 기계방에 강 달달달달 거퍼다가 걸보리 놓고, 뭍  
 잇잔아, 바당에 뭍. 거 낱 막 쭈어그네 쉼 맥여. 물은 경 안허여. 소. 게문 쉼가  
 이 문딱허여.  
 104016 @ 콩이 비지근헌 생이다예.  
 104016 #1 콩을 맥여야, 콩. 콩이 지름이 잇잔아. 우리 콩죽도 너미 먹으민 설사  
 나. 어느 정도 먹어야지. 게난 다심애기는 콩 맥이고, 이녁애긴 풋 맥이난, 풋이 맛  
 좋지, 풋딱지만 떼작떼작허고 다심애긴 문딱해여. 그 풋이 맛 조니깐이, 게난 이녁  
 애기 콩을 맥여알건디 바보ㄱ쁜 녀은 콩 맛다가리 엇곡 풋이 맛조난 풋만 맥이난  
 풋딱지만 떼닥떼닥.  
 104016 @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104016 #2 그니까 가을 들민 모든 곡식이 여물아갈때니까. 풀도 여물이 있어, 풀  
 도. 여물아갈 때 다 빛에 말렸다가 막 집만씩 썬아놔다가 그걸 내내 빠다가 한 몫  
 식 주고.  
 104016 @ 밭에 썬아놓니까? 집에?  
 104016 #2 집에.  
 104016 @ 응, 집에 놀 눈다는거지예. 출로예.  
 104016 #2 출놀.  
 104016 @ 그른 사오기도 하고? 지네 맛디서 출을 베오기도 하고?  
 104016 #2 그렇지.  
 104016 #2 먹이는 비등허지뭍.  
 104016 @ 아까 콩꼬질 놀엇던 것들예.  
 104016 #2 응 물도 잘 먹어.  
 104017 @ 출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출은 거세기 팔릴 나민 저 산에 강 비여당.  
 104017 @ 음력 팔월? 그건 누가 씨뿌립니까?  
 104017 #1 출 뿌리지 안허여. 목초 이 목초 ㄱ쁜거나 굴지이, 산에 강 그냥 테역  
 잇어 이녁밧디. 그거 이 허민 팔릴 나가민 벌초허듯 몰랏다그네 무경.  
 104017 @ 새하고 출이 뭐가 다릅니까?  
 104017 #1 새가 출이지. 그 어린때꺼.  
 104017 @ 어린때. 그른 새는 조금 더 자란 것은 초가집 허고,

104017 #1 아니 초가집은 혜영케 영 키 커야 초가집 허고, 출은 파랑헌때 비어야.  
 104017 @ 아 파랑헐 때.  
 104017 #1 팔뿔 때. 우리 소분헐 때. 그럴때가 파랑해여.  
 104017 @ 그게 출이고, 그거를 놔두면은 새가 되고.  
 104017 #1 아니 또 새가 뜬나. 출뻗 뜬나고 새왓 뜬나. 집이는 새왓허고 출왓허고 뜬나.  
 104017 @ 출은 먹는거고?  
 104017 #1 출은 이 테역뻗디 복작허고, 새는 이 이만씩 크잔아.  
 104017 @ 씨가 달르구나.  
 104017 #1 달라. 출허고 새는 달라.  
 104017 @ 끌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2 출은 출뻗이라고 이 저 중산간에 가면은 풀뻗이 잇어. 그거 비어서 말려가지고. 게니까 출뻗도 풀고 사고 허니까 옛날엔 나도 출뻗을 뗏 개 사서.  
 104017 @ 출뻗이 좀 싹수과?  
 104017 #2 지금은 출뻗도 금잡이라.  
 104017 @ 게난. 옛날엔예.  
 104017 #2 뻗디 가서 가을에 전부 비영 말렸다가  
 104017 @ 늬의 뻗디 아니예?  
 104017 #2 응, 가을에. 이제 가을 농사 허기 전에 팔구월에 전부 출 비어가지고 말려두엇다가 겨울 내내 먹이지.  
 104017 @ 출을 사젠 허민 그 출을 삽니까, 우리가 갑니까?  
 104017 #2 출뻗이 따로 있으니까 산에강 출뻗을 사서 허는 사름도 잇고, 그냥 호미로 비어서 허는 사름도 잇고 낫으로 꺾어서 허는 사름도 잇고  
 104018 @ 끌 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애기소리나 저  
 104018 #1 그런 소리 안헌다게. 그냥 출 비주. 거 이 흥애기소리 허는 건 낫으로 비는 사름덜. 버쳐가민, 그런 사름덜 소리허지. 어~~ 무시거 어찌구 저찌구, 아니해 뵈 소린. 들어보도 아녀곡. 오~~~ 어뎡헐 이 원임이 허는 거보난 막 소리도 이상 허드라고. 원임이 허는 거 들어뵈주.  
 104018 @ 원임인 누구꽈?  
 104018 #1 요 동넛 사름..  
 104018 @ 원래 신촌?  
 104018 #1 아니 와흘사름. 사삼때 느려완.  
 104018 @ 아, 와흘 게믄 출 비는건 해뵈수과?  
 104018 #1 출 비여낫지. 호미로.  
 104018 @ 앓앙?  
 104018 #1 응.  
 104018 @ 출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8 #2 처음엔 낯으로 이렇게이렇게 비다가 내중엔 낯으로 이

104018 @ 긴낯? 선낯?

104018 #2 긴 낯으로 이렇게 해서

104018 @ 큰 낯으로?

104018 #2 큰 낯.

104018 @ 거 해봤수과? 신촌은 어떻습니까?

104018 #2 거 나 잘 해서.

104018 @ 출베는 소리도 했수과?

104018 #2 소리 잘 허는 사름은 잘해여.

104018 @ 그거 한번 해봅서.

104018 #2 아니 나 이제 늙엉 못허겠어.

104018 @ 출베는 소리엔 됩니까?

104018 #2 출비는 소리엔 허지. 호미질 하면서 그 소리하면서 비어가는 사름이 이  
서.

104018 @ 그것이 중요한 소린데

104018 #2 그렇지. 어어엉~~으여 출을 비어야 허는구나. 잘허는 사름은 잘해.

104018 @ 홏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104018 #2 홏소린 없어. 여즈사람이 가도 잘허는 사름이 허면 듣기나 허지. 제일  
듣기 좋은 것이 그 행상메어가는 소리, 진토곳 파는 소리, 달구지는 소리. 달구지는  
소리 나 선소리 잘 했어. 난 경으로 했지. 경으로 불르지 난. 나만이 헐 사름이 없  
엇지.

104018 @ 것도 좀 해줍서.

104018 #2 저 달구짓는 소리 이. 동방새성 안심지여 경행 다음 사름은 어어어허어  
여 이렇게 허곡 서방금성 보해지여 하른 또 다음 사람이

104018 @ 어허어어 달구.

104018 #2 서방금성 보해지.

104018 @ 어허어어 달구

104018 #2 북방수성 노해지여.

104018 @ 어허어어 달구.

104018 #2 해저남으 변령지여 술이나 혼잔먹곡 허민 무덤 저리헐때에 난 경으로  
이디 경책이 잇는디 난 동동 웨완. 나가 웨우는건 명당경인데 나만이 웨울 사름이  
없어. 명당경이엔 험진. 이거 명당경인디 여러장 썬 다 웨우렌 췌잔아. 어디에서 부  
르든지. 이거 집이나 묘에나 익어주민 막 좋은 경이여 이게. 아무디라도 초후루 보  
름에 익어주민 집안이 막 잘 웬덴 허여.

104018 @ 출 사젠 허민 비쌌니까?

104018 #2 출 비싸. 그냥 밧디로 사가지고 비어가지는 거니까 많이 비싸민 못허  
지.

104019 @ 것도 소나 말이 운반해영와야 돼지예?

104019 #1 그거 물류면은 무경 거기서 물러그네 이제 눌엇당 시꺼오잔아.

104019 @ 물이 시꺼와?

104019 #1 물이 시꺼오지.

104019 @ 구루마로?

104019 #1 아니 농살 짓젠허믄 소 말 다 이서야.

104019 @ 계난. 시경오는 것때문에예?

104019 #1 응

104019 @ 계믄 집의 눌어신가예?

104019 #1 눌어야지. 눌어야 겨울들멍 뿔으멍 뻬여알거 아냐. 거 다 뻬이면은 걸름허고, 물허고 소는 드르에 또 뻬이레 보내고.

104019 @ 출을 운반하고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2 차 빌영

104019 @ 옛날에 차 어실 때

104019 #2 차어실 뎌

104019 @ 구루마?

104019 #2 물에 소에 이렇게 실러서. 소로 물로 실러서 많이 왔지.

104019 @ 그때 소가 좋습니까 물이 좋습니까? 뻬른건 말이지예?

104019 #2 빠르른 말이주.

104019 @ 계믄 뎌 뭇을 시꺼지는거라?

104019 #2 이제덜토 혼바리 시끄젠 허민 혼바리옌 허민 혼 스무뭇 서른뭇.

104019 @ 말이 많이 시꺼마씨, 소가 많이?

104019 #2 소가 췌니까 많이 시꺼지지. 뻬르긴 물이 뻬르긴 허는다.

104019 @ 그믄 걸 뎌 뎌 번을 저날라야 뎌거라? 사름도 저날르곡?

104019 #2 그렇지, 사름도 지곡, 소에도 시끄곡.

104019 @ 경 집에 왕 또 눌곡. 뭇은 어만큼 해마씨?

104019 #2 어, 이만썩 허여.

104019 @ 딱 무끄기 좋게 그렇게 합니까? 보리뭇이여 콩뭇이여 다 틀립디다예?

104019 #2 그렇지. 콩뭇허고 보릿뭇 틀려. 콩은 무끄기가 막 사나웁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끄고. 보리나 조는 무끄는 사름이 드물고, 조는 그냥 툷아. 보리는 요만썩 무꺼서 집의 실러가서 태작도 허고. 홀태로 홀트기도 허고.

104019 #2 거기서 물라서 무꺼가지고

104019 @ 비와불믄 비온대로 비맞이믄 또 말려?

104019 #2 비맞으민 안뎌여. 비맞으민 버려야지.

104019 @ 아!

104019 #2 소나 물이 잘 안먹어. 썩어서.

104019 @ 비맞아도 다음날 날씨가 좋으면 말리는거고?

104019 #2 그렇주.

104019 @ 갱 그거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것도 구루마.

104019 #2 그렇지. 옛날엔 소몰이 다 지어왔는데 이제 구루마 나오니까 구루마로 실러오고 차 나오니까 차로 실러오고.

104019 @ 운반하고 놀 이제 놀어야 돼고예?

104019 #2 그렇지.

104020 @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1 여물이, 콩 벌르곡, 작두 잇잔아, 작두. 그걸로 출 끈영 슬망 큰 솟디 다간솟디 콩이영 거영 낱 슬망 짐이 팡팡 나게 해영 식형 맥이잔아. 줌질게 썰영. 갱 맥여봐 막 슬져.

104020 @ 한번? 아침의?

104020 #1 아니 행 슬망 내불민 어느때사 맥이는데. 난 몰라 슬망만 내불민. 아방이 해부난.

104020 @ 큰 가마솥에?

104020 #1 응. 그 가마솥도 터져부러서. 막 큰큰헛거.

104020 @ 삼촌이 거 다 햇구나 아침의.

104020 #1 현대 이젠 터져부니까 폴아버렸지 옛장시아피. 누게앞이사 폴아져신디.

104020 @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2 여물이엔 허민 곡식을 여물이랜 해. 조든 보리든 콩이든 뭐이던지 걸 주로 그걸 여물이랜 허지.

104020 @ 좋지 않은 걸로 나두겟다예. 좋지않은건 어떤건고예 사람 먹을 것도 어신디.

104020 #2 건 사람 못먹을 걸 많이 주엇고, 곡식이 아이웬 해는 사람 못먹을 걸로 많이 주엇고, 또 곡식 많으면은 사람 먹는 것도 주고.

104020 #2 요물은 곡식으로 주는걸 요물이라고

104020 @ 곡식 사람 먹을 것도 어신디 여물을 줘?

104020 #2아, 그래도 주는 사름은 이섯주.

104020 @ 콩도 벌렁 주고?

104020 #2콩도 슬마당 주고, 나도 소맥이면서 콩도 많이 슬마당 주고.

104020 @ 쟁으론 아다닥 아다닥 허니까 슬맘신가예?

104020 #2그렇주.

104020 @ 풋 그런건 아니고 콩만?

104020 #2콩이고 무슨 보리고.

104020 @ 보리도?

104020 #2보리도 돼주워. 보리도 먹으면 소가 슬져.

104021 @ 출 베면서 어려웠던거 추억거린 엇수과?

104021 #1 무신 그때 당시에 다 어려와신디.

104021 @ 비맞으민 안돼켜예, 이것도.

104021 #1 안돼지. 먹도 안헌다. 파랑해사 먹지. 소 먹도 안허여. 소ᄃ치 입매가  
쫄른게 어디시카부덴. 코시롱허곡 파랑해사 먹주이, 기신새 닳은 건 잘 안먹어. 소  
가 얼마나 잘허는 중 알아.

104021 @ 출베면서 얹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21 #2 소리도 허고. 흥애기소리게.

104021 @ 삼촌 해지쿠과?

104021 #2 난 벨로 못해.

104021 @ 거른 잘 허는 사람 잇엇지예.

104021 #2 잘허는 사름은 잘해여. 듣기좋아.

104021 @ 흥애기가 무신 말인고예?

104021 #2 흥애기소리라고, 어째서 흥애기소리라 하는지, 출 비면서. 거 소리 해가  
른 듣기 좋게 잘 허는 사름이 있어. 잘하는 사름은 잘했져. 여기선 부르젠 허민 안돼  
어도 이렇게 힘내어서 일하면서 낫질을 하면서 해가민 그 기운이 나지. 노래해가민  
기운이 나. 실지 일 흐면서 허민 몰라도 안돼여. 여기 고만이 방안에 앓아선 안돼.

### 떨감

104022 @ 떨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낭, 낭.

104022 #1 나무는 산에 가야 해오지.

104022 @ 산에강 지들커랜 험니까, 삭다리엔 험니까?

104022 #1 삭다리 그건 아방네가 해오주 난 그런거 안해.

104022 @ 안해반?

104022 #1 아방이 해오주.

104022 @ 요디 신촌 가까운디 오름이나 이런건 어수과?

104022 #1 어서. 저디 웬당오름이나 거배끼 어서. 저 와흘 우터레 올라가야. 아주  
우에 올라가야, 드리 잇잔아. 드리로 쑥허게 올라가서 나무 해여.

104022 @ 드리송당?

104022 #1 그래. 글로 아주 우터레 더 올라가야. 잘도 멀어.

104022 @ 남자들은 어쨌든 떨감허레 가긴 가야겠다예.

104022 #1 가지. 옛날엔 그거 해와야 밥허고, 굴묵짓고, 거난 아방이 그거, 계난이  
남즈덜토이 이 나무덜 해와가민 이만이 올라가민 그 재미로 막 허더라고. 그냥이  
된놈으로 아져오민 이만씩 나무가 그냥. 귀허지 나무가.

104022 @ 떨감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2 무슨 보릿대고 콩대고 조매고 불 못습는 것이 없ندي 제일 좋기야게  
나무가 쥔 종주마는 그니까 옛날엔 어려왔어. 궂디 안가민 못해오니까 나무를 허자  
면 산에 가야. 그니까 여기선 보통 유채 많이 갈땐 유채낭덜 허영 낭불로 많이 췌  
고, 불떨걸론 유채낭을 많이 췌어. 이 저 보릿대도 허고 조매도 허고, 불때는 건 궂

른 풀이 잇으면 다 불때는 걸로 했으니까.

104022 @ 삭다리엔도 험니까? 지들커랜 험니까?

104022 #2 삭다리엔 현건 소나무 가지 올라가다 죽은걸 삭다리라고 허는디.

104022 @ 아, 소나무? 다른 나문 아니고?

104022 #2 다른 나무도 죽은 가지는 삭다리지.

104022 @ 지들커는 뭇과?

104022 #2 지들커? 불때는거.

104022 @ 불때는 모든거를 지들커랜 허고예?

104022 #2 그러지.

104022 @ 땀감은 아무낭이나 다 땀감이 뉘는거지예?

104022 #2 그러지.

104022 @ 근데 소나무는 썩으로 함부로 하면 안돼잔아예. 나무도 아무낭이나 함부로 허민 안돼지예?

104022 #2 보통은 다 쓰는디 무슨낭 무슨낭은 불 아이습는 낭이 이서. 복숭아낭인가? 무신낭인가는 불 안때여.

104022 @ 무산고예?

104022 #2 그제 연기가 좋지안해부난 재가 좋지 안허니까

104022 #2 저 곳디 가서 나무도 행오고. 구루마로

104022 @ 아무디 낭이라도 해불민 뉘어?

104022 #2 그렇지 소나무던 뭐 산곳디 아무나무라도 많이덜 해왔지.

104022 @ 죽은 나무 삭다리덜 말고?

104022 #2 응 나도 수백 구루마 해여왔어. 저 교래ㄱ지 강. 바놓오름 우로 썩 조낭게 쪽으로 어덜로 남 아니해난 디가 나무도 좋은게 잇고.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3 #1 소똥 말똥 그거 걸름이주게.

104023 @ 다 굴묵에 지더수과?

104023 #1 아냐. 농스 짓는 사름은 걸름이지.

104023 @ 아, 걸름.

104023 #1 그러지. 농사 아니 짓는 사름이 그거 이제 빈 밧디강 주서당 허주 농스 짓는 사름은 그거 뉘허나게. 다 똥 쌀거 아니냐, 그거 걸름헝지.

104023 @ 배끗디강 주서오진 안해수과?

104023 #1 배끗딘 주서보지 안해연.

104023 @ 그 굴묵짓는다는 말은 안들어봣디가?

104023 #1 굴묵도 오리 지더나서.

104023 @ 뉘가 좋아마씨? 소똥이 좋아 말똥이 좋아.

104023 #1 그런거 아니현. 고시락.

104023 @ 고시락으로 헝고? 겐디 말똥으론 아예 안해봐수과?

104023 #1 아니헐. 그런거 주시레도 아니가고.

104023 @ 아저씨도 안가져오고?

104023 #1 그런거 안해여. 고시락 이 막 하. 보리 하나니깐. 보리가 스물댓섬 하니  
까 고시락이 얼마나 할거냐. 그걸로 일년내낭 때여. 하루 두 번.

104023 @ 웃두리는 말뚱으로 다 줏언 굴묵 지뎃덴 험디다예.

104023 #1 경헌디 우리 그런거 허렌 안다년. 그런 거 허렌 이 안헐겐.

104023 @ 집에 잇는 뚱덜은 다 거름으로 내엇구나.

104023 #1 돼지 길르는 걸름허곡, 아방 보민이, 아방이 주로 그런 걸름을 잘내여  
게. 걸름 내여농곡, 통시에 걸름 내여농곡, 지무쟁이 낱 썩영게.

104023 @ 아, 무신 나무지? 삼촌은 소뚱 말뚱도 연료로 썩수과?

104023 #2 그렇지. 소뚱 뚱뚱은 구들묵 부찌는거.

104023 @ 굴묵?

104023 #2 구들묵. 최고 좋지 최고.

104023 @ 아, 소뚱이 좋습니까, 말뚱이 좋습니까?

104023 #2 아마 비등헐거여. 이 저 구들묵 짓는건 소뚱 뚱뚱이 최고.

104023 @ 겐디 어떤 웃두리는 뚱뚱은 또락또락허난 줏기가 좋앙 허주만 소뚱은  
착착 해부난 말르지 안허면 줏기가 어려우난 말뚱이 좋덴 허드라고예.

104023 #2 어, 뚱뚱이 좋주. 소뚱도 많이 잇는디 목장에 가든 뭘 뚱뚱 가면 많  
이 주울수가 이서.

104023 @ 삼촌 그런일도 해나수과?

104023 #2 아니 난 그런건 안해보고.

104023 @ 어머니가 그런거 주워옵니까?

104023 #2 아니 어머니도 그런거 웃두리 가야 줏지 이 해변 산 사름은 거 어렵고.

104023 #2 볼땔 때? 소뚱도 좋고 뚱뚱도 좋아. 뚱뚱면 구들묵 짓는건 그걸로 많이  
헐어.

104023 @ 삼촌 무싱거 줏이레 많이 다넛수과?

104023 #2 난 그런거 줏이레는 안다녀봐서. 목장에 가든 많이 해 소뚱 뚱뚱.

104023 @ 게도 누가 줏영와 그런거?

104023 #2 거 줏는 사름이 따로 잇지. 우리 그런거 아니해 보니까 헐디. 목장에  
가든 뭘 소뚱뚱뚱이 뭘 천지지 뭘.

104023 @ 굴묵에 주로 지뎃구나예?

104023 #2 굴묵 지뎃지. 소뚱 뚱뚱으로 구들묵 짓으면 그렇게 뚱뚱거든.

104024 @ 솔잎 글그레도 가봐수과?

104024 #1 그런거 아니뎡겨. 우리아시는 해나도 나는 아니해난.

104024 @ 바빠예 삼촌은.

104024 #1 나는 그런거 헐충도 몰르고 뎡기도 안허여. 우리아신 잘해여. 우리아신  
이 일도 우리 곱, 두사름칠 해여. 나는 못해.

104024 @ 바당일도 허고예, 아시.

104024 #1 우리아시는 이 잘해, 잘해.

104024 @ 바당일은 삼촌이 더 잘허고?

104024 #1 바당일은 뭐 나가 잘허지. 숨이 질어부니까. 저숨 나나 주주 허지. 막 욕심꾸레기라. 난 이 경 늙이거 쳐다보지 안헌디 우리아신이 막 늙의거 하영이시민 죽거나살거나 막. 나는 경안해여. 나 재주로 살주. 게난 물질도 지폰디만 강 허주이 그냥 하-안해부난. 십이부터 보통 들어가잔아 나는.

104024 @ 게른 아시는 야튼디도 허고?

104024 #1 막 야튼디 배끼 못해. 지폰디강 요만이도 못해. 하하하 허멍 무신.

104024 @ 맞디 일은 더 잘한다는거지예.

104024 #1 거 나 곱해여. 맞디는 그냥 원 호랭이ㄴ찌 허여. 물질은 지폰딘 나가 잘허곡. ㄱ뎃일은 야이가 잘허곡. 탕판도 나가 잘허곡.

104024 @ 술입을 하면 언니안테 주거나 이러진 았는구나.

104024 #1 술입 가이도 베랑 걷으레 안댕겨.

104024 @ 가게되민 어디를 가는거라?

104024 #1 몰라 저 산으로 강 걷어왓실테주. 난 술입이엔 헌건 걷어댕겨 보지도 안허곡, 해보지도 안허곡. 아방이 시니까 산에강 나무행 오잔아.

104024 @ 술입도 글거보고?

104024 #2 그렇지, 그건 남자덜도 했지.

104024 @ 삼촌은 안해보고예.

104024 #2 난 안해봤지.

104024 @ 어디 갑니까 술입 글그레.

104024 #2 소낭밧디.

104024 @ 게난 소낭밧디가 어디 이 신촌쪽에 이수과?

104024 #2 아 이 우로 가민 지금도 가민 술잎이 북삭 잇지. 그디강 글갱이로 꺾어서 보달쳐가지고 무꺼가지고 거 뿔감으로 쓰민 좋아.

104024 @ 원당봉?

104024 #2 아니 이 우로 가민 하영 이서.

104024 @ 삼촌 해봐수과?

104024 #2 아 술입 굵는건 나 안해보고.

104024 @ 예펜 삼촌 허는 건 봐봐수과?

104024 #2 아 우리집원 그런거 아니해서. 그냥 나무해당 떼지 거 무슨 거 술입 굵는 시간이민 나무 비어다가 떼지. 아, 거 밥해먹는 뿔감으로 좋지.

104025 @ 노형에는 여자들도 나무허레 갑디다.

104025 #1 게 요디도 경해여. 켄디 이젠 안해여. 어이구 이딴 여자덜토 얼마나 쉼냐. 바다에 가지 드르에 가지 요 신촌 여자덜 춤 만만 안해여.

104025 @ 삼촌은 산에강 나무도 안해보고?

104025 #1 안해서. 아방이 걸렌도 안해.

104025 @ 나무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낭을 해마씨? 도끼 가정간?

104025 #2 톱허고 자궁이허곡 가정가민 댜어. 나무 찢르는 건 많이 했지뵤. 나물 이런 나물 앓다그네 막 찢라서 도끼로 패가지고 말이어 옛날엔 시에 강 풀기도 하고.

104025 @ 누가 뵤 나무베민 뵤랜 안헛니까?

104025 #2 아무디나 강 못허지. 자기 밧이나 소나무 하나까 이 우이 소나뵤 밧이 많이 있으니까 뵤감들이 많이 나왓어. 솔이파리도 글고, 솔잎 가지치기도 해다가.

104026 @ 그 다음 솟 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솟 굽는 것?

104026 #1 그런 거 안해. 아방도 안해.

104026 @ 솟 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6 #2 혼번 허는 거 뵤는데, 그 솟을 굽는데 제일 좋은 것이 츠낭이거든. 츠낭 솟이면

104026 @ 츠낭?

104026 #2 츠나무라고 잇어, 츠낭이. 츠낭이라고 허는데 그런걸로 해서 막 찢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세와놓고 그 옆의 흑으로 그냥 돌로 그냥 불이 붙어도 연기 안나게 싹 싸놓고 밑에 불붙이는 궁기 밑에 뿔버가지고 글로 불을 붙이면 거기서 그냥 불이 붙어가는데 그 솟이 연기로 익는거라.

104026 @ 아.

104026 #2 그 저 고지강 산에서 솟 노는 것도 뵤는데 산에는 원체 흑이 좋고 그 돌이 좋으니까 쉬운게 이 해변은 어려와. 솟 굽기가. 흑이 없고.

104026 #2 솟굽는 사람 이서나서. 경헌디 자기 영업으로 허는 사름은 이 신촌 ㄱ 뜬딘 엇고, 저 웃드리 사름덜은 영업으로 뵤지뵤. 솟 혼가마에 뵤, 이제 ㄱ뜨민 뵤 만원 감실거여. 솟은 참나무가 제일 좋으니까 참나무 솟이라야. 참나무 솟이라야. 산에가민 지금도 참나무덜 잇지뵤.

104026 @ 솟은 참나무가 좋고?

104026 #2 참나무 솟이라야 솟불이 오래가.

104026 @ 참나무니 뵤니 허는게 딱 보민 알아져마씨?

104026 #2 참나무는 이파리가 까릿까릿허고

104026 @ 솟만드는 건 참나무라야만 뵤는거라예?

104026 #2 아니, 다른 나무도 뵤긴뵤는데, 참나무가 오래가.

104027 @ 뵤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27 #1 뵤감 해나민 그 망굴 잇잖아. 그거 담양 겨울에 불추잖아. 불화리에 담양,

104027 @ 불화리에 그 낭불?

104027 #1 낭 해나민 그디 망굴 나무가 이서. 그거 담아당 불화리에 뵤. 겨울에,

104027 @그런 낭덜은 아저씨가 다 해왓수과?



104027 #1 응. 나는 안 탕겨. 나는 그런디 안탕겨.  
 104027 @ 땀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땀살때 부터 이런 나무허레 갑니까, 아이덜끼리?  
 104027 #2 거 집안 형편에 따라서  
 104027 @ 삼촌은 혼자 갔수과?  
 104027 #2 어, 난 혼자만 허레 다녔주.  
 104027 @ 무섭지 안했마씨?  
 104027 #2 무서운 것 엇주마는  
 104027 @ 게른 거 정와마씨?  
 104027 #2 그렇지. 지어서도 오고 구루마 이실땐 구루마로 저오곡. 여기서 저 교 래깅지도 가왔어. 나무허러.  
 104027 @ 영 놔두른 누게 가져가불곡 그럴수도 잇겟다예.  
 104027 #2 가져가는 일은 드물고, 그 제주도 사름덜이 그렇게 그 저 나쁜 사름덜 은 벨로 없엇어 옛날엔.  
 104027 @ 뭐 다치거나 한라산까지 가보거나 이런건 어섯수과?  
 104027 #2 아, 저 등산은 한번 가낫져마는 나무허레는 한라산까지 갈수가 었고.  
 104027 @ 여기서 잘가는 거는 원당봉?  
 104027 #2 아니 저 교래 가차운디깅지  
 104027 @ 교래 무신 오름 많이 가수과? 꽃자왈?  
 104027 #2 꽃자왕.  
 104027 @ 교래리에?  
 104027 #2 교래리 가는디. 그 뭐 많지 뭐. 바메기오름 울오름 보통으로 갓엇주.  
 104027 @ 바농오름?  
 104027 #2 바농오름.  
 104027 @ 바농오름 뭐 좋은 거 이션마씨?  
 104027 #2 바농오름은 뭐 나무가 벨로 었고 그 우로 가야웨.

## 사냥

104028 @ 사농에 대해서 들어본적 이수과? 썩코?  
 104028 #1 그런 건 안해. 아방도 그런건 안허드라고.  
 104028 #2 노루잡는 게 사농. 오루잡고 ... 산촌사름이나 알지 우린 잘 몰라.  
 104029 @ 썩사농 해봐수과  
 104029 #2 안해봐  
 104029 @ 상 먹어본 적은 이수과?  
 104029 #2 지다리도 상 먹어보고  
 104031 @ 지다리사냥 그런것도 안들어보고?  
 104031 #1 어 그런 건 웃드리 사람들이 허지 이딧사름은 안해여. 여기는 주로이

바당에 사는 해녀나 허곡, 굿디 사름은 농스나 허곡이.

104031 @ 지다리가 표준말로 뭐파?

104031 #2 오루

104031 @ 오소리?

104031 #2 오소리지, 오루.

104031 @ 오루엔 험니까?

104031 #2 거 맛좋아.

104031 @ 뭐 해서 먹어마씨?

104031 #2 팻병 걸린 사름은 거 먹으면 아주 좋다고 했어.

104031 @ 삶양?

104031 #2 삶양.

104031 @ 몸보신에 좋덴 할머니안티 많이 들어난거 달믄디.

104031 #2 그렇지. 몸 약헌거엔 오루가 막 좋아. 보약이여.

104031 @ 오소리가 오루? 지다리?

104031 #2 나가 저 소 츠지레 가다가 안개가 푸욱 지니까 요런 소룻길이 이서. 나가 가다가 보니까 오루 새끼들인디 이만씩 헌거. 헌디 이게 사람이 금방 이까지 가도 오루가 날 못본 모양이야. 안개가 포옥 껴노니까. 건디 이놈들이 뺨르지가 안해. 그냥 네 므리가 쪼르르륵 허게 막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데. 건디 뺨르질 못허니까 밧담가차이서 하나씩 톡톡 노니까 문딱 자빠지데. 경 네므리 잡아다가 내가 보신탕 했어. 오루가 저 보신탕으로 좋은거주. 옛날덜 팻병걸린 사름이나 이런 사름은 오루를 먹ㄴ렌 헨게.

104031 @ 노루는?

104031 #2 노루는 먹어봣자 맛도 옻고.

104032 @ 족제비 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2 #2 아 건 해봣어.

104032 @ 어떻게?

104032 #2 그 족제비 덩이엔 헌건 나무 요렇게 한결 해가지고 요렇게 쪽 찌서 여기다 요렇게 세왓다가 여기다 무신 중이나 독대가리나 이렇게 닛꺄을 허면 이놈이 탁 허게끔 길로 물엇을 때 우로 무거운 돌 해가지고 족제비는 나가 뗏개 잡아봐실 거라.

104032 @ 드르에 많아마씨?

104032 #2 지금도 족제비 있긴 있는데, 우리 과수원에 독을 질룬디 족제비안티 독을 뗏개 일러부러터 내가. 그 독 머리만 씹어먹어분다니까.

104032 @ 예?

104032 #2 독 대가리만 씹어먹어부러.

104032 @ 족제비가 닭 대가리를? 살아있는거?

104032 #2 살아있는거. 그래서 내가 독 뗏개 일러부러서.

104032 @ 족제비가 쪼끄만헌게 잘도 췌다예.

104033 @ 사냥에 대한 추억,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2 바다에는 고기가 많지 뭐.

105001 @ 삼촌은 뗏살부터 바다에서 해염채수과?

105001 #2 난 바다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했는데

105001 @ 어릴때는?

105001 #2 칠십 돼어야 고기나끄레 땡겨어.

105001 @ 아 젊은 때는 농사만 지었고?

105001 #2 칠십 돼야 농산 이자 아들이 말앙 허겔다 허니까 이제 나가 바당에

105001 @ 테우도 안타보고 낚시힐 중도 몰르고? 바당에 해염은 쳐봤지예?

105001 #2 아 해염은 쳇지.

105001 @ 뗏 살부터 해염 채수과?

105001 #2 어릴때부터 해염은 잘 쳇어.

105001 @ 그때 뭐 작살이나 소살 이런건 안해봐수과?

105001 #2 그런게 없었어, 우리 어린땐.

105001 @ 낚시도 안해봤?

105001 #2 어릴땐 낚시질도 잘 안해봤고, 가에서 무신 보들락이나 장어나 이런건 나까봤주마는 다른건.

105001 @ 신촌은 무슨 고기가 잘 나오디가?

105001 #2 나오는 바다엿 고기가 다 나오주. 이젠 고기가 없어 한전 들어와부난.

105002 @ 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개인/공동) 감태도 채취 행으네 다 공출 바쳐불고?

105002 #1 어어 일제때,

105002 @ 옛날에는 감태가 저기 막 중요하게 안여기당 일제시대때부터 막 중요해졌구나예?

105002 #1 문딱 가져가불어 고사리공출까지 일제때일본놈덜

105002 @ 감태

105002 #1 일제때는 물리왕가지고 불을 태와서. 그게 타며는 덩어리가져 그 감태가. 국주애기는 경 안허는데 감태는 대개 영양가치가 잇는거라, 게민 그 감태만 옛날은이 일본허국 미국 싸와났잖아 전장, 게민 우리 해녀덜이 감태하나 영허민이 감태가 귀해부니까 “미국놈하나 죽였다” 해나서, 이제 미국에 ㄴ치 했주마는 그때 미국은 영 “감태하나 즈물민 미국놈 하나 죽였다” 우리 어린때

그렇게 허연,

105002 @ 감태하나주민?

105002 #1 “감태하나 즈물민 미국놈 하나 죽였다” 이거야. 그 일본과 미국놈 싸와났잖아. 겐디 이제 북한놈 어찌고 저찌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땐. 우리 어떻 못 전딘 생활 햄샤 아이고?

105002 @ 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105002 #2 어머니도 바다에 안다니고, 듬북은 거름 헐거로 해서 해여당 한 지붕만 썩 늘어놓곡. 밭에다 노면 곡식이 잘 돼거든.

105002 @ 그문 그냥 바당에 잇는것채 놓진 았고 썩형? 말령?

105002 #2 말령. 말르민 그냥 밭에 가서 풀어놓고 허민

105002 @ 그 듬북이 몸 달른것과?

105002 #2 그렇주. 아주 그건 열심히덜 했지.

105002 @ 걸름으로만 햇구나예 듬북을. 먹진 안허고?

105002 #2 먹는 건 몸이나 이. 톨이나 그런 건 먹주마는

105002 @ 몸이나 톨은 신촌에 많이 낫지예?

105002 #2 많이 낫주.

105002 @ 그문 건 사다먹엇겠네?

105002 #2 아니 우리도 듬북은 했어. 우리 아버지 산때 듬북을 해가지고 트럭으로 가서 듬북을 해가지고 막 실러오면 여기 사름덜은 거기 몸이 서터지면 거 주어당 먹어도 말 안해.

105002 @ 어떤 때 듬북이 많이 나오니까?

105002 #2 봄에

105002 @ 바다에 가민 많이 이서마씨?

105002 #2 브름에 쓸려나온 것도 있고, 옛날에 그 터위덜 해서 단체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좁으민 굽으로 막 끈어져. 췌로 늘 맨들앙 길게 맨들어가 지고 경허른 그게 우쭈 올라오거든. 속에서. 그걸 들어올령 막 시꺼서 그냥. 올라온 거 보민 몸도 있고, 톨도 있고 듬북도 있고 그러니까 몸은 먹을 사름 골라가도 말 안해여.

105002 @ 서꺼정 나와. 게문 또 감태는 뭘 해 마씨?

105002 #2 감태도 거름으로 허는데 왜정시대엔 그 감태를 태와가지고 재를 가져 갔어. 감태재를. 거 뭐허냐 허민 그게 약이라는데 폭탄 맨드는데 드는 모양이지.

105002 @ 거 누가 태와?

105002 #2 아니 거 태와서 사가 일본놈덜이.

105002 @ 삼촌도 해봐수과? 여자 남자 누게가 헉니까?

105002 #2 여자도 허고 남자도 허고

105002 @ 바다에서 태웁니까?

105002 #2 물러가지고 태와. 물리지 안허른 불이 안붙지. 그 재로 뭘 화약을 맨든

다고 허던가 뭘 현다든가 헐. 하여튼 공출 허다시피덜 많이 했지.

105002 #2 듬북 단체로 해가지고 한 열흘간씩 해서 터우로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듬북을 그 무슨 기계 만들어가지고 듬북을 끈으민 그놈을 공쟁이로 올려서 시꺼다가 퍼가지고 말려서 튀비할라고. 듬북놀이 그냥 이 키만씩 놀었어.

105002 @ 감태는?

105002 #2 화약으로 쏜다고 해가지고 왜놈들이 다 공출하라고 해가지고

105002 @ 남자들도 물에 들어강 해야 되는거라?

105002 #2 우리 어릴 때 해나부니까 잘 몰른디 우리 어릴땐 그 감태 술아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일본놈덜이 화약으로 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

105002 @ 듬북 감태는 언제 많이 납니까?

105002 #2 여름에.

105003 @ 고동과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3 @ 고동과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신촌에도 고동은 보말이엔 됩니까?

105003 #2 그렇지.

105003 @ 보말이나 갱이 이런거 많이 잡아봤수과?

105003 #2 아 그런거 많이 잡아봤지.

105003 @ 어릴때도?

105003 #2 어릴때도.

105004 @ 고동이민 여기 구쟁이엔 됩니까?

105004 #1 어, 고동은 소라,

105004 @ 소라엔 됩니까 구쟁이엔 됩니까?

105004 #1 구쟁기는 사투리고,

105004 @ 사투리로 골아야돼어예.

105004 #1 사투린 구쟁기,

105004 @ 구쟁기허고 갱이?

105004 #1 갱이는 몰라.

105004 @ 갱인 백상 죽도 썰먹고 안해봅디가?

105004 #1 예에 그건 굿디서 잡아오는 거. 숨 쉬멍 영 아자듬서 검질매듯 잡아오는거고, 이 짚은 디강 숨비는 건 난 생복, 짚은 디, 난 생복배끼 안떼어. 소라같은 것도 안해여. 짚은 디 전복만 떼어.

105004 @ 그래도 구쟁기도 큰 거 이시믄?

105004 #1 소라하나 보는 거민 큰 전복 허나 돈 왕창 올릴거주. 그거 떼젠허지, 소라같은 건 난 안해여. 발로 밟아도 안현다고 그거 허는거민 혼바퀴 여 더 넘으민 전복 떼지. 거난 난 전복배끼 안 떼어. 이디 좀너덜은 다 알아.

105004 @ 게도 나이 들어가민 구쟁기도 집이서도 먹고게, 젓도 담고

105004 #1 그리해도 나는이 그거 허는 거민 전복만 떼젠허지 소라는 안해여.

105004 @ 그믄 그 구쟁이는 이렇게 뽀족뽀족난 거 즈쿠쟁이여, 쫄쿠쟁이여

어떻게 구별 됩니까?

105004 #1 왜냐하면은 즉구쟁인 요마니 헌거야. 아주 써 먹도 못허여. 즉구쟁이, 그다음 중구쟁이, 또 이만헌 건 대구쟁이, 세 개야. 소라도, 소구쟁이, 중구쟁이, 대구쟁이, 그 막 추리지안허나? 즉물양 왕 싹 망아리 탁 해영 해여그네 문딱 추려. 대구쟁인 대구쟁이, 중구쟁인 중구쟁이, 소구쟁인 바당에 던지고, 크렌,

105004 @ 던져볼어예, 소구쟁이렌 험니까? 즉구쟁이

105004 #1 즉구쟁이가 소구쟁이, 즉구쟁이 사투리 즉구쟁인, 소구리에 그런 건 크라고 던져볼어.

105004 @ 여기는 또 저 신촌엔 강이도 많이 나났수과 굿디?

105004 #1 굿디 이제도 막 몰래왔디 허면은 실꺼라. 먹는 사람은 잡아당 쪽도 쥘 먹고 우리는 그런 거 안해부난,

105004 @ 신경통에 좋텐은허는디

105004 #1 우린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설사 나. 막 걸어. 하영 먹엇당 완전이 설사 나.

105004 @강이죽이예?

105004 #1 응. 거 무릎에 존넨 허매. 강이가,

105004 @ 메옹이?

105004 #2 메옹이도 잇고

105004 @ 어떤 보말이 맛좋아마씨?

105004 #2 젤 존 것은 먹보말이지. 먹보말이 최고.

105004 @ 먹보말은 뭐고 수두리보말은 뭐짜?

105004 #2 수두리보말은 쪼끔 뒤가 삐작허고 끌랭이가 삐작허고 먹보말은 똥그래.

105004 @ 먹보말이 더 맛좋아마씨, 수두리보다?

105004 #2 응 슬지고.

105004 @ 그걸로 어머니가 보말죽이나 보말국도 끓여줘나수과?

105004 #2 아 거 해당 많이 먹엇어. 슬만에 까먹고 그자.

105004 @ 지금은 엇어예 그런것도.

105004 #2 지금도 많이 나.

105004 @ 물쌀 때?

105004 #2 물쌀 때.

105004 @ 보말은 무슨보말 기억나는 거 잇수과?

105004 #2 먹보말 돌보말 코토테기, 맹꽁이

105004 @ 아 여기는 맹꽁이렌 허더라예. 저기선 메옹이렌 허는디.

105004 @ 성계를 뭐랜 해수과?

105004 #2 쿼?

105004 @ 구살이렌 안행 쿼랜 헨예. 물구력은 뭇게?

105004 #2 @ 뭇게. 나 뭇게 많이 잡앗어.

105004 @ 뭇겐 어디강 많이 잡습니까?  
 105004 #2 없어 이제.  
 105004 @ 뿔뿔들렁 가는건 낙지?  
 105004 #2 낙지허고 뭇게.  
 105004 @ 철이 언제파?  
 105004 #2 낙지는 이제부터.  
 105004 @ 가을?  
 105004 #2 가을, 낙지는 우리 아들이 잘허여. 난 못잡아.  
 105004 @ 아덜이 뭐가 어디잇는지 아는구나?  
 105004 #2 바당일은 아들이 잘허여. 난 서툴러서. 난 먹기만 잘해. 오분채기 하나 떼어보지 못해서.  
 105005 @ 강이는 무싱거 찰강이여, 똥강이여, 무슨 강이 이름이 더 잇수과 지름강이여?  
 105005 #1 지름강이, 또 베염강이,  
 105005 @ 베염강인 또 뭐라? 색깔이 얼룩달룩허나부다?,  
 105005 #1 발이 터럭돋아 베염강인 , 터럭돋아. 육지 사름덜이나 잡아당 먹지 이디 사름덜은 먹도 언허여.  
 105005 @ 지름강이, 베염강이, 찰강이, 똥강이?  
 105005 #1 응. 똥강이는 물랑물랑헌 거. 그게이 물랑물랑허여. 팡팡 안해. 똥강이는, 심도 안해. 물썩물썩해여.  
 105005 @그믐 뭐가 지름강이만 먹음니까?  
 105005 #1 지름강이가 맛덜지. 빨강해 그눔으 강이는,  
 105005 @ 아아 빨강해마씨? 거멍허지가 앓고?  
 105005 #1 거멍헌 건 베염강이라. 터럭 돋은 거  
 105005 @ 베염강이도 먹고예?  
 105005 #1 먹는사람 먹어. 우린 안 먹어봐서.  
 105005 @ 찰강이는?  
 105005 #1 찰강이는 새빨강허지.  
 105005 @ 찰강이는 숭아사 빨강허고 거멍허주게 보통은?  
 105005 #1 보통도 좀 색깔이 뜰려. 붉어.  
 105005 @ 찰강이?  
 105005 #1 응. 잡은 거부터 뜰려.  
 105005 @ 지름강이도 빨경?  
 105005 #1 지름강이는 빨경허곡 물랑물랑헌 건 똥강이엔 허매.  
 105005 @ 지름강이도 빨경 찰강이도 빨경?  
 105005 #1 그눔의 애비가 그눔이 애빌테지. 두 가지라,  
 105005 @ 강이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5 #2 강이는 돌 ㄱ튼거 영 일루민 잇이민 거 잡아놓고 잡아놓고.

105005 @ 무슨 강이를 먹습니까?

105005 #2 강이도 지름강이도 잇고 똥강이도 잇고, 바룻강이도 잇고, 강이도 여러 가지 종류데 지금사름덜은 보민 뭐 이것저것 다 잡아먹어.

105005 @ 뭐가 쥔 맛좋아수과?

105005 #2 지름강이가 좋주 뭐. 딱지 보민 아는디 지름강이엔 헌건 등따지가 맨짝 헌 것이 지름강이.

105005 @ 바룻강인 또 뭐파?

105005 #2 바룻강이 것도 맛 팬찬아.

105005 @ 똥강이만 못먹는거라?

105005 #2 건디 시엿 사름덜은 똥강이고 뭐고 강이만 보민 다 잡아가.

105005 @ 거드락지랜 햇수과? 보말 빈거에다가 사는거.

105005 #2 게들레기. 것도 먹는 사름은 먹을 것이여 아마, 우린 안먹어봤는데. 이 쟈사름덜은 것도 다 먹는 모양이야. 막 귀해가니까.

105006 @ 그른 햇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낙지도 잡음네까?

105006 #1 응, 옛날은 옛날은 그 초가집 잇잖아. 그 새로 일영 그거 이제새가 자꾸 더꺼가민 집이 이마니 높아. 겨민 하르부지덜이 걷어불엇지, 그 새를그걸 기신새라고 해여. 조침댕가리로 묶어가지고 이제 지어, 지영 이제 바당에 강, 불 켜으네 낙지 심잖아. 멜도 걸이고, 옛날은 후라쉬 어서부니까 그런 걸로만 하잖아.

105006 @ 그른 불에 막 가까이오는구나예.

105006 #1 응. 또 그놈이 거 영 들르민 멜도 잘 들어와. 불 보면은, 그렇지, 건디 이젠 후라쉬로만허영 그런 거,

105006 @ 그래서 함덕 서우봉에 뭐 멜도채비여 무싱거여?

105006 #1 함덕서모봉, 함덕서모봉에는 4:3스건에 그디 사람덜 다 죽어나서. 빈지룽이 세와낭, 빨갱이덜 다 심어와낭, 기관총으로 다닥다닥허민이 우리 그때 물에 들레가민이 허릿디 떨어정 죽은, 죽어강 죽으면은 쳐지면은 허릿띠 남잖아. 허릿띠, 운동화 다 잇어. 이젠 어서저실거라. 그디 사람 죽영, 서모봉은 사람 많이 죽엇어. 거기 세와낭 기관총으로 타닥타닥 바당더레 다 떨어져, 으이고 대창으로 다 죽이고,

105006 @ 삼촌 멧슬때우파 그게?

105006 #1 나? 그때가 열여섯에서부터 열일곱으로부터 하영튼 15세 이상은,

105006 @ 열여덟쫘 돼겐다, 열여덟쫘 돼시커라? 열아홉?

105006 #1 뭐? 4:3사건에, 아니 열다섯에서부터는 헌거 열여섯 열일곱 나민 완전이 무장 둘러멧 싸와, 그렇게 해여. 질 뛰기 좋은 때에 열여섯 열일곱이 질 뛰기 좋잔아. 그런 사람 뽑아간덴허난,

105006 @ 여자로 태어나난 했주,

105006 #1 여자로 태어나도 뽑아 가. 아무나 안 뽑아가 잘 뛰는 사람,

105006 @ 삼촌은 거기 안들어가난 다행아니?



105006 #1 아이구 아이구, 들어갔단 나도 도망가불었어. 여기 이덕구세계니까 매일 잡히레와. 매일, 요디가 이덕구네 집, 매일 심으레오니까 돼지허고도 ㄴ찌 곱고, 허다허다 버천 조천 강 보니까, 군인이고 그냥 요 다 ㄴ찌 살암성게. 신촌만, 신촌만 이덕구세계난, 아 그디가난 해방웨언,

105006 @ 아 이덕구는 조천 아니우파?

105006 #1 신촌, 요디라. 요집, 가까우니까 이디만 들엉, 그 습격도 이디만 들엉허주. 이덕구네 동네, 바로 요디가 이덕구네집,

105006 @ 건 몰랏수다. 조천이렌만 허난,

105006 #1 아이구 신촌, 신촌게. 바로 이디게.

105006 @ 중학교선생이렌허명,

105006 #1 이덕구? 머리가 좋아. 막 엮은 사람이라도, 머리가 최고 좋아.옛날 일제 때 대학먹은 사람이라 일본 강. 그 이덕구가, 게난 이제 셔시민 대통령헐 사람, 겐디 막 얼근 사람이야. 게도 머리가 막, 가시어멍 친척 다 죽여부러서.

105006 @ 게난 얼굴 봐랏수과?

105006 #1 다 알지게. 이 동넨디 모르나.

105006 @ 삼촌보다 우에지. 어쨌튼,

105006 #1 아이구 이제 살아시민 혼 백술은, 백술은 돼실꺼라 덕구가.

105006 @ 야학선생님은 안헐수과?

105006 #1 야학은 조케, 저 덕구는 그런 거 안해보고, 조케, 성아덜은 공부시켜도 이, 덕구란 헐 사람은 공부시키는 거 안봐봐서. 그 순호옌 헐 성아덜은 시켄,

105006 @ 순호, 이순호?

105006 #1 이순호, 그 덕구 성아덜, 거 이순호, 그사람은 우리 공부ㄴ르차줘도 덕구는 아니 시켜. 봐보도 못허고 그 사람,

105006 @ 역사에 생생한 뭐다예. 나중에 또 4·3애기 들어갈땠에 이런 것들이 하나에 아무도 모릅니께 이런 역사는,

105006 #1 몰르지. 우리또래배끼 몰라. 우리 죽어불민 몰라. 우리는 다 알지. 우리가 막 해나니까 여기 이덕구 세계니까 경찰은 검은 개, 군인은 노랑개, 그러면 저기 이제 델 세와. 대옌 헐 거, 진진헐 대막대기 잇잖아. 그걸 세왕으네 녹지민 완전이 들어온 거, 이 마을에, 거 세운뎔 안심허고, 영 뵙 어시민 들어왔덴 막 숨으레 뎡기잖아게. 이덕구 세계난 그냥 췌잇던 엇던 그냥 막 심어간덴허난,

105006 @ 세우면, 녹지면?

105006 #1 녹지면은 그 군인들 들어온 거고, 세운뎔 안심헐 거고. 거난 들어오가른 그냥 그디 세운 사람이 잇어. 들어와가민 탁 녹져뵐 도망가부러. 거민 대 못 봐불민 그냥 곱으레 돌아뎡기고. 아이고 징그러운 세상, 나이 4·3스건 돌아온덴허민 다 죽어. 살젠 안허여. 너무너무 어이고 철창 다 막곡이.

105006 @ 경해도 그 세월을 지내오난 애기도 이렇게 낳고 살아온 거 아니예?

105006 #1 나는 그것에 배랑 안든디 그것에 든 사람덜이 잇어. 우린 그런디 안들

어. 그것에 안들어 봤어. 든 사람덜은 다 죽었어. 다 죽이고 지고, 안든 사람은 살아도 든 사람은 다 죽었어. 시대가 못돼먹은 시대를 만나노니까게. 그때는 신도 어서. 초신, 아방 이신 사람은 초신 신고, 우린 맨발에, 신도 어성 맨발에, 맨발에 주로 땡겼지 맨발에,

105006 @ 맨발에?

105006 #1 맨발에 양발도 엮고, 이사람보라! 맨발에 그냥 다녀 맨발에,

105006 @ 이동네를?

105006 #1 이동네 다, 우리 어린때, 신 어서.

105006 @ 초신은 게?

105006 #1 초신은 아방도 엮고 누게가 삼아줘

105006 @ 어린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예

105006 #1 어 아니, 살긴 살아도 각시 연영 살아부니까, 우리 모르지. 에이구 우리 그런 세상, 4,3사건, 일제때로부터 고생헌 사람이난이. 에이구 진짜 진절머리, 우리 이마니헌 낭칼이 그때돈 50전정 상이, 거 다 우리 거 배운 사람이여. 낭칼로, 야게 끈는 식, 머리 끈는 식, 다 우리 배웠잖아. 어이구 일제때부터 배와서. 시다다끼엔 헌 건 이 불끄는 거, 우리 잘도 고생했져. 일제때부터 4,3사건으로부터, 세상 이제 사람덜이사 엇먹기주. 매날 굶으레 돌아댕기명, 심어가니까게, 더퍼놓고 심어간덴허난 이덕구세계는 췌 잇던 엇던 막 심어간덴허난, 조천은 가난이 해방이란 게 해방, 신촌만 신촌만,

105006 @ 신촌만?

105006 #1 조천은 아무충도 안허고, 조천 요디 아니냐게. 이 이덕구세계니까 경헌 거야. 얼마나 신촌 사람덜 엇먹은 줄 알았나. 가시어멍까지 다 죽여불고, 친척이 10촌까지 다 죽여불어서. 이덕구네 췌당덜 하나토 어서. 다 심어당 죽여불언, 가시어멍까지 다 심어당 죽여, 그런 세상 살렌허민이 다 죽여불주 살사람 어서.

105006 @ 췌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까 낙지허고 뿔?

105006 #1 뿔 거릴 때 이거 들르민 뿔이 잘 들어오지. 췌불을 들르민 낙지 심고,

105006 @ 낙지도 잡아봤수과?

105006 #1 심으레 땡겼지. 췌불 이렇게 안굴았나? 아까, 초가집이 이마니 허민 건너.

105006 @ 그걸로 누구랑 잡니까? 동네친구들이랑, 아버지랑?

105006 #1 아니,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각시연영 살아부난 우리만 살아. 거민 나도 그거 낙지 심영 폴아.

105006 @ 누구랑 가? 친구들이영?

105006 #1 아니, 이녀 혼자, 친구가민 왓탕왓탕해불민 낙지가 돌아나부니까 술술텁겨야지. 사람 텡겨난디 안나와.

105006 @ 여자 혼자 무섭지 안해마씨?

105006 #1 무신 무서와. 돈 벌젠허민, 밤에,

105006 @ 밤에 혼자?  
 105006 #1 혼자, 거 혼자 강 심으멍,  
 105006 @ 저 아가씨때봐? 아니든 결혼한때?  
 105006 #1 아가씨때 어린때에,  
 105006 @ 어린 때 멧살부터 그렇게?  
 105006 #1 거의 열다섯센가 열여섯센가, 거 낙지 심어왕 풀아야 쫄 받앙 먹어,  
 105006 @ 계도 친구랑 같이 안 강 혼자가면 무섭지 않아마씨?  
 105006 #1 친구가민 왈탕왈탕 해연 심어가불카부덴 혼자만 듣지.  
 105006 @ 아 대단허다예 남자덜도 많이 가지안해마씨?  
 105006 #1 남자덜은 아니, 여자덜만,  
 105006 @ 헛불들렁 남자가 안가고 여자덜만마씨?  
 105006 #1 아니, 헛불 이렇게 들르잖아. 허민이 조남댕이 잇잖아. 조 몰라? 조남댕이, 남댕이를 이렇게 즐라매가지고 그걸 아사강 췌어. 조남댕이 아저강 췌어,  
 105006 @ 조남댕인 고고리 다 털어난거?  
 105006 #1 어어, 털어난거 뭐 췌줄이 잇나 뭐허나 그거 아저강 그 조남댕이로 췌어.  
 105006 @ 낙지를?  
 105006 #1 응. 걸로 췌어.  
 105006 @ 영 들이치민?  
 105006 #1 들이치나게. 낙지 심으민 조남댕이를 가져갓다가 영 췌영 영 들렁댕긴 덴허난, 낙지 심어지민 또 췌곡,  
 105006 @ 아아 눈 잇는 쪽으로 영 뿔러지는 텔로?  
 105006 #1 아니, 상통이로 머리, 요만헌 상통이로 췌어. 예고 우리 안해본 것이 어서. 예고 춤,  
 105006 @ 그 보리탈 췌듯이 췌영으네?  
 105006 #1 췌영이, 그거 췌영이 성안 강 풀아.  
 105006 @ 성안이민 어디 오일장?  
 105006 #1 아니 성안허민 제주시에 거 사는디가 이서. 그디 강,  
 105006 @ 걸영 강?  
 105006 #1 그뻘 걸어가야 허여. 차가 어시니까,  
 105006 @ 혼자?  
 105006 #1 혼자 걸어가지 누가 걸영가냐.  
 105006 @ 그때가 열 멧살때예?  
 105006 #1 열일곱텐가? 겐디 우린 안허는디 우리 이모님이 풀레 잘 뎡겨. 심어오민, 나는 안 뎡겨. 우리 이모님이 강 잘 풀아와. 나는 어려노니까 우리이모님이 강 풀아오주.  
 105006 @ 이모님은 지금 돌아가셨지예?

105006 #1 돌아갔지. 이제 살아시민 백 뗏,  
 105006 @ 그 이모님이 물질을 잘 하섯구나예. 이름이 어떻 뽕수과?  
 105006 #1 물질 상군이야, 상군, 회장, 한 장만이옴헛 어른인디  
 105006 @ 한 장만?  
 105006 #1 해너 회장이라 나서, 물질도 잘허고 해너 회장만 허단에 돌아가섯어.  
 105006 @ 그거 삼촌이 물려받앗구나  
 105006 #1 나? 음, 물려받앗젠도 헛 수가 잇지. 짚은딘 우리 이모님이 잘 들어가  
 니까, 짚은딘 아무나 못 들어가. 우리 저디 닛줄이 12미터 보통 더 들어간덴허난,  
 그렇게 숨질어났덴 말이어. 이제도 이서 닛줄,  
 105006 @ 헛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105006 #2 헛불은 문어나 낙지. 바다에서 나는 건 다잡지 뽕.  
 105006 @ 밤에 그런거 해봐수과?  
 105006 #2 아, 난 헛번 해봤는데 문어 많이 잡아봤어.  
 105006 @ 어느쪽이 경 합디가?  
 105006 #2 옛날옴 이제 ㄴ치 전기도 옳고, 뽕도 없으니까 그 저 그신새 이서. 헛불  
 싸가지고 가는 디 아 거 뽕 문어가 바글바글이야. 그래서 들어강 잡지 못허고 헛다  
 라 잡아완. 아침에 출을 허러 가자면 아침 헛 세시쑤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간디, 일어나 보니까 물이 바짝 싹길래 그 쑤 이만헛거 헛 두어개 가지고 갔어. 가  
 보니까 바로 요 밑에다 그냥 문어가 어떻게 많은지 하하. 한번 경헛 잡아봤어.  
 105006 @ 그제 뽕 살때짜?  
 105006 #2 그때가 헛 스십세 뽕때라.  
 105006 @ 어릴 뽕 안해보고마쑤?  
 105006 #2 어린뽕 못헛고. 아 바다에 갔다 하나쑤 잡긴 허지. 문어.  
 105006 @ 난 쑤 들렁 가는건 낙지만 잇는 중 알앗주제.  
 105006 #2 문어도 가을 뽕민 올라왕 헛 팔월 고비쑤은 막 올라옴뽕 바글바글 해  
 여.  
 105007 @ 신촌에도 원담잇수과?  
 105007 #1 원담잇지 여기.  
 105007 @뽕개 이섯수과?  
 105007 #1 옴 큰 물에 섯동네도 잇고이, 중동에도 잇고 동동네도 잇어. 뽕그리는  
 거 원담, 섯동네도 잇고,  
 105007 @ 뽕그리는 거예 세 개?  
 105007 #1 세 개지 이디 동동에 헛나 중동에 하나, 섯동에 하나, 계난 이녁동마  
 다 뽕걸이지. 다른 동네 오노렛 허민 별쑤 다 걸여부러. 가까운디 사람 다 걸여부  
 러. 오노렛 허민 다 걸여부러.  
 105007 @ 그것도 누가 옳치어신 사람이 먼저 다 걸여불민 욱들지예?  
 105007 #1 욱은 없어. ㄴ녀 강 걸이는 게 임재지.

105007 @ 새벽부터?

105007 #1 줌 안자야.

105007 @ 밤에 강 서끄는 사람이 잇겠네?

105007 #1 밤에 강 걸이지. 무신 소리 나민, 다 걸 술찌기 걸여.

105007 @ 그런 거는 게도 일리가 잇다예?

105007 #1 그믐 원담도 다운 사람이 질 대장이지. 안 다운 사람은이 “너 원담 다 왔나?”

105007 @ 싸울수도 잇겟다예

105007 #1 싸울수도 잇지.

105007 @ 답지도 안헌 놈이 제일 먼저 강,

105007 #1 사람이 장소 낡 싸와. 저 웃동네 사람이 “너 원담이나 다왕 이디 왕 햄 나?” 깝 소리 못허지. 다운 사람이니,

105007 @ 원담 안 다운 사람은 안가?

105007 #1 아니, 가. 가긴 가는디

105007 @ 원담 갯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7 #2 작살로.

105007 @ 원이 이섯수과 신촌도?

105007 #2 아 원 많애.

105007 @ 그거는 누가 원담도 썩고

105007 #2 아 동네에서 다 출역해서 다 허는데 멜이 많이 원안에 들어오민 거리고 큰 고기 들어와도 가서 잡고.

105007 @ 그 원은 뗏 개 이섯수과?

105007 #2 하나 두 개... 한 서너개 잇엇지.

105007 @ 애기덜은 못들여가지예. 어른들이 관리허여?

105007 #2 아, 아기덜토 들어가고 어른도 가고.

105007 @ 새벽부터 거기강 꺼내와도 뒤퍼마씨?

105007 #2 아 멜이 들어야지 금년 ㄱ뜨민 멜 혼번 구경을 못허네. 거 많이 들때는 여기서도 그냥 많이 거럿어. 혼차씩 거럿어.

105007 @ 함덕도 많이 거럿댄 험디다마는.

105007 #2 함덕 멜 최고 나는디라. 모래판에. 그물쳐야. 거기는 원이 없고, 그물 쳐가지고.

105007 @ 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7 #2 작살로 소살로 행 잡아야지.

105007 @ 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누가 임자파? 젤 먼저 간 사람?

105007 #2 젤 모녀 간 사람이 임자야.

105007 @ 그믐 뗏시부터 거기 잡니까?

105007 #2 물싼 ㄱ리에 가봐야 알지. 이제 들어오는 고기도 엇고.

105007 @ 원담은 일찍 강 해가불른 씹고 이런건 어섯수과?

105007 #2 옛날어른덜이 다 해여놓은거니까 이젠 해녀덜이 관리해노니까 원담이 다 허물어지고 뭐 이젠 고기도 안들어오고, 금년은 뿔 한번 구경을 못했네.

105008 @ 원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원에 보수는 남자들이 하는 거지예?

105008 #1 뭐? 원담 다우는 건 남자, 여즈들은이 존들 훌훌 네끼고 남자덜은 이만씩헌 돌, 어이구 그른 뿔 걸일땐 탕 돌 데끼민 “거 누구냐”허른 원담 다운 사람덜이 용심내고, 원담 허나 답지도 안허고 만딱 돌 데끼고,

105008 @ 원담 잘 답는 사람이 잇수게?

105008 #1 거 고기에 뿔, 이젠 어서도 옛날엔 5월 장마뿔민 이만씩헌 맥마구리가 들어. 게민 그 원 다운 사람이 그걸 해아사.

105008 @뿔 뿔?

105008 #1 뿔마구리, 큰 오징어 닮은거 잇잖아. 막 두꺼운 거,

105008 @ 아 오징어 들어왕 원담에?

105008 #1 오징어가 아니고 뿔마구리엔 허매, 오징에 닮은거라고, 막 고기가 두꺼와. 그게, 거 이제 맥마구리 못봐 옛날엔 장마져가민 원에 들어오는다,

105008 @ 태풍이라도 치른 보수해야키여예.

105008 #2 이년에 한번 동네에서 나가서 주로 다 보수허지.

105008 @ 뿔월달에 주로 험니까?

105008 #2 봄에 허지. 지금은 나라에서 보조 해웁서. 아 동에서 나강덜 다 했는디 이제는 안험 내부러.

105009 @ 뿔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1 뿔이 장소를 이서. 뿔코가 잘 들어오는 코, 그거 낱 이 그물우이 또 그물을 놔가민 싸우는거지. 에이구 뿔 거리레 강 막 싸와. 물 지쳐부러도 싸우고, 잘 싸와 뿔 거리레 강,

105009 @ 남자덜끼리예?

105009 #1 남자덜은 아난디 예웁덜이 싸와. 막 싸와.

105009 @ 차룽작 들렁 갑니까?

105009 #1 아니야, 뿔그물 우리집이 이서. 걸이는 거 큰 거 이서. 큰거는 하영 걸여.

105009 @ 여자덜도?

105009 #1 여자덜이 잘 걸이지.

105009 @ 아이고 세상에, 신촌도 뿔이 잘 들엇수과?

105009 #1 요샌 원 안들엄신게. 뿔 들게뿔민 잘들어. 이 뿔거리는 배 잇잔아. 그것덜 덕분에 이디 들어오지 안해.

105009 @ 옛날에는 저 서우봉에 엄청 많이 들엇덴헸게? 서우봉이파? 서모봉이파?

105009 #1 서봉, 거기 4·3사건에 사람 많이 죽어서. 함덕에 들엇잖아. 함덕 서모봉, 우리 옛날에 노래허잖아.

“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조천 사립 학교 운동 잘한다.

서산에 지는 해는 서더래 가고”

막 그런 노래 우리 잘허여. 우리 어릴 때 부른 거 ,

105009 @ 한번 더 불러봅서!

105009 #1 “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조천 사립 학교 운동 잘하네.

서산에 지는 해는 어데로 가나 물 속에 들어가서 또 돌아온다. “

거 막 해여 노래로, 아이구 참 하하하, 우리 어릴 때 분위 똑다가리 모르고 노래헌거  
라. 이제 왕 보니까 맞아베어. 우리 막 노래허여.

105009 @ 멜도 삼춘어릴때부터 잘 걸연?

105009 #1 응. 멜 잘 걸여.

105009 @ 차롱착 들렁 애기때는?

105009 #1 아니 아니 차롱착이 아니, 완전이 큰 구덕에다가 차고, 막 따올리고, 멜  
은이 사람 해야 많이 걸여. 막 먼디꺼라도 막 몰아다 놔. 사람 하나두개는 안  
들어. 멜이 노래야 들어오지. 막 와닥탁와닥탁, 허니까 사람이 많해야 멜도 잘  
들어. 사람 하나는 얼마 밤에는 걸이지마는 붉은때는 멜이 욕아가지고 안 들어.  
밤에는 걸여. 밤에는, 아이구아이구,

105009 @ 멜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2 그물로게.

105009 @ 작은 그물?

105009 #2 영헌 그물 아저강 영 거리지.

105009 @ 해봐수과?

105009 #2 많이 했어. 집이 그물 이서.

105009 @ 멜 거려당 뭐해먹어마씨? 국 끌여?

105009 #2 몰랐다가 반찬도 허고, 젓도 담고,

105009 @ 썰으로 몰려마씨, 졸망 말려?

105009 #2 뭐 졸르면 이루꾸 돼고, 거니까 잘 허면 이루꾸도 해서 먹고, 멜젓도  
담그고, 멜은

105009 @ 국도 끌영 먹고

105009 #2 사람마다 다르지 뭐.

105010 @ 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니껍은 어디서.

105010 #2 옛날에는 갯지렁이 팡 허곡 해신디 지금은 새우를 많이 써.

105010 #2 고기는 낚시에 미끼 꿩영 두면 뭐, 나끄지 뭐.

105010 @ 미끼는 사당?

105010 #2 나는 사당 했어.

105011 낚싯대, 낚싯줄, 낚시, 봉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105011 #2 옛날엔 다 지대로 만들었지 뭐. 낚싯댄 대 끈어다 만들고, 낚시는 췌 해  
가지고 만들어서 낚시도 만들고,

105011 @ 뽕뽕 등은?

105011 #2 뽕뽕은 무슨 연철해다가 뽕뽕 맨들어서 쓰고.

105012 @ 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105012 #1 흔히 장역을 못허더라. 씹지도 못허고 망리에 클렁 데껴붙언,

105012 @ 쟁역을 잘해사주.

105012 #1 우리 쏘아놔지. 물에서 장역 허민 잘들어가고 장역 못허민 도망가부러, 작살로이 고무줄 영 내려뒹 착허민이 고기가 강 탁 맞아. 거민 그 작살차 내불거 아니? 고기 큰 건쫘은 작살차 막 돌아난덴허난, 어떤땐 작살 잃어부러. 거 죽긴 죽어, 막 배깃디레 돌아나불민 해녀덜 지청으네 못가지. 어디 강 죽어. 쏘은디,

105012 @ 못좇아본적 잇수과?

105012 #1 못좇지. 막 배깃디레 회여부러. 작살ㄱ지 다 잃어부러.

105012 @ 뭘 잘 잡아놔수과 삼춘은?

105012 #1 나는, 전복,

105012 @ 전복은 햇는디 만약 고기 쏘게뒹민 뭘 잘아봔수과 우럭?

105012 #1 그런 건 잘 안해보고, 골갱이로골은 건 쏘아도이 작살론 안해여, 그거 작살쏘는 여자가 있어. 장역 잘해. 우리는 못허여. 피들락피들락 도망가부러, 그거 딱 장역해, 장역허노렌해도 뜯더레 가불고,

105012 @ 신촌에 잘허는 사람도 이섯놔수과?

105012 #1 죽어서. 죽어서. 할망, 이제 살아시민 백얼마, 백두어개 돼실거라.

105012 @ 그 할망은 이게 기술이 좋은생이다예?

105012 #1 잘 장역헌덴허난, 우리 저 웬당알ㄱ지 물질허레 가와서.

105012 @ 전복보다 그런 걸 더 잘했나보다예?

105012 #1 그 할망이 영 해연으네 고기 영 췌레가 보난 인너, 얼굴은 사람이고 끌렝인 고기, 책에 잇잖아?

105012 @ 예. 물할망, 걸 뒹렌 험니까?

105012 #1 인어, 인어,

105012 @ 인어옴 험니까? 물할망이옴 안허여?

105012 #1 물할망 아니, 인어, 사람인재,

105012 @ 그거 봤덴?

105012 #1 거 받, 할망이, 경 해네 쏘레 강보난, 지집아이 단발헌 머리라렌, 방삭 방삭 우시난 노래연 할망이 굿해영 메칠 추워서, 많이 돈 들어서. 할망,

105012 @ 살아나긴 했구나?

105012 #1 살아나긴 해신디 물질못헐 놀래연, 꿈지가 고기니까 작살을 영 쏘레가난 방삭방삭 웃영 사람이라렌, 겐 놀래연, 막 굿해영,

105012 @ 작살 쏘아가난 사람이라부난 씹지도 못하고

105012 #1 그냥 놀랜거라 끌렝이는 고기고 막 우서렌, 그 후론 물질 설러부



런, 바로 사람이라렌, 일로 이렌 사람이고 일로 이렌 고기고 일로 이레는 사람이라  
렌, 폴도 영영허고,

105012 @ 삼촌은 봐본적 잇수과?

105012 #1 안봐환. 그 할망은, 웬당알에 그거 비오젠허민 잘 나온텐,

105012 @ 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작살 소살이엔 험니까?

105012 #2 응 소살.

105012 @ 해봣수과?

105012 #2 아 난 못해보고 우리 아덜 잘 헛어. 거 아무나 못해. 거 우리집에 아들  
이 백발백중으로 썩.

105013 @ 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5013 #1 신촌은 뱃물질 안허여.

105013 #2 작은배도 잇고 큰배도 잇고. 작은 배는 가까운 바당에서. 큰배는 먼바  
당에 나장 큰고기덜 잡고. 고깃배도 그물하는 배가 잇고 낚시질 하는 배가 잇고. 나  
도 배 쪼꼬만 배 하나 산 칠십 쉼때 아덜이 과수원 허겔다 허니까 나봐 줘돈.

105014 @ 잡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4 @ 제주도에 해녀중에 경합을 헌텐허든 그런 대회가 없엇주마는 삼촌이 뭐  
일등 먹어실 수도 잇엇겔다예?

105014 #1 이제, 우리 김녕갯지 물질허레 가왓덴허난, 김녕으로 삼양으로,

105014 @ 거기도 해녀덜 많이 잇수케?

105014 #1 아이구, 그디 대장상군덜만 사는디,

105014 @ 풀리지 안행?

105014 #1 거 메역, 메역을 해영 반 갈르기로 해연 여기 경찰이 사니까 거기 김녕  
주둔허니까 나가 해도렌 해연 허면은 메역을 경찰 사는 사람 반, 나 반 행 메역 아  
이고 잘도 좋더라. 미 바당 메역 하나 구경헛기가 우리 이 바당 밋밋 그런 디도  
강 물질허고, 그냥 가니까 우리 그런 메역을 안봐낫거든. 메역이 민작 그냥 숨이 질  
어노니까이 배로 물질허대. 배로, 나가간디가 지일 상군배에 강 올린거라. 질 배깃  
디, 게난 이제 간 허난이, 그 망아리 잇잖아. 이 망사리 ㄱ득이민 우트레 올리민  
사공덜이 꺼내영 그 따까리에 담아. 일름 신 닭가리더레, 경 담으민 그 이빠이 차면  
은 그냥 ㄱ디 시깁, 나 김녕바다에 강 경헛 메역 반씩 갈란, 반 갈란, 에이구,  
나이 어린때라도 그렇게 고생허명 살안,

105014 @ 그믄 여기서 삼촌허고 뗏명만 가는거라? 잘허는 사람만 김녕에?

105014 #1 아무나 못가. 그디 동년이네엔 헌 사람 서방이 경찰이니까 이 거기서가  
이 자기 그 송키엔허믄이, 송키엔허매이, 메역을,

105014 @ 메역을 송키렌해마씨? 뗏개라 바당에 송키네 그럼?

105014 #1 아니, 메역ㄱ라 송키엔 허매. 영 빨아먹으니까 송키라고 해여.

105014 @ ㄴ뭇 답으난?

105014 #1 응. 게난 그거 해연네 경찰허고 나허고 반 갈라와네 춤말로,

105014 @ 혼자만 갓구나

105014 #1 혼자, 거 아무나 못허여. 거 아무나 못허여. 거기도 질 잘허는 사람 드  
늘아가젠 허주. 못허는 사람 돌아가젠 허나, 야 나도이 자랑이 아니고이. 물  
질을 남만이 해여. 숨이 질어부니까, 메역은 하난가 숨비도 안허여. 하영 헌디만 강  
흔꺼번에 허여. 어떤 딘 빈 망사리허지. 거 한디 초장탱기단 어시민 그냥 나온  
덴 허니까, 한디만 왔다허민 뭐 완전이 망아리에 이빠이

105014 @ 신촌 메역 좋았수과?

105014 #1 메역, 신촌 바당은 종넌 해사 베랑, 질 큰 고지가 바당이 썰어,물썰어.  
큰 고진이 진짜 태왁이 천리만리 끄서다부는 디 아니가, 아이고 물질안허도 살고,  
여든 셋ㄱ지 내가 우미 즈물앗주, 근디 이제는 원,

105014 @ 해삼을 미렌헉니까?

105014 #1해삼을 미,

105014 @ 성게는?

105014 #1 여긴 퀴, 성게ㄱ라 퀴

105014 @ 옛날에는 퀴하고 숨도 어느철에 갇 헛수과?,

105014 #1 봄에, 삼월들에 스월 오월 돼가민 거 알 싸불어. 질 맞존때가 삼  
월들에, 음력 삼월들에, 겐디 음력 2월들, 정월들엔 퀴가 죽어.

105014 @ 다 아아 음력2월들은 영등들은 다 죽지예?

105014 #1 영등들은 죽지, 추워노니까 뜨서야 욕고,

105014 @ 그른 이런 거 퀴영 숨이영 허는게 달라마씨 물질헉때?

105014 #1숨은 돌일러사 허는거여.

105014 @ 아아 그게 달라마씨? 깊은 바다에도 숨이 이서마씨?

105014 #1 어서. ㄱ디배끼 어서. 짚은딘이 퀴도 어서. 이런 가까운디배끼, 바  
당퀴 잇지, 바당퀴, 짚은 디, 바당퀴 막 맞아서,

105014 @ 바당퀴는 달라마씨?

105014 #1 달르지. 새깁도 빨강허여. 이 거평이 거멍허지 안행 빨강허여. 짚은디배  
끼 어서.

105014 @ 큰가부다예?

105014 #1 큼도 크주마는 요물이 하,

105014 @ 지금은 보기 힘들겠다예?

105014 #1 이제 어서. 그런디 가는 사람어서.

105014 @잠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4 #1 닻줄 어음에 그것에 묶영, 돌도 큰거라사 다른사람 걸려사 이거 닻줄  
멧개 끈어서 등길거 아냐? 물에 강 실실강해가민 끈어져. 허긴허웨 코돌줍젠허  
민 어디 잇느니?

105014 #2 해녀덜은 소라나 성게나 전복이나 하여튼 지금 해녀들 상당히 좋암지  
대우가 좋잔아. 여기 신촌 해녀 뗏 없어.

105015 @ 해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은 눈 허당 큰눈했지예?

105015 #1 요마니헌 눈 허당 큰눈허난 바로 그냥 흰허여 다 보여. 작은문 이렇게 벨라불영 못써. 옛날 우리할마니넨 눈 어시 해나ㄴ렌, 그냥 강 영 행 해연 허ㄴ렌,

105015 @ 일본시대 왕 그것도

105015 #1 경해도 어떻 눈은 와직와직허매 쫄물어난, 우리할마님넨 눈 어시 해나ㄴ렌

105015 @ 물안경은 꼭 쪽으로 닦습니까? 쪽으로 닦으면 뭐가 좋아?

105015 #1 쪽으로 닦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다 지름이 있어. 얼굴에, 그 얼굴에 지름이 눈더레 들어가면은 눈이 확확해불어, 거니까 그 쪽으로 닦으면은 그 지름이 안 피어. 눈에, 눈 지름피민 눈 어두웁 보이지 안혀. 어두왕 걸로 닦아야 해여,

105015 @ 1년내내 쪽이 잇는 거 아니잖아예?

105015 #1 어시민 담배꽁초, 담배 피와낭덜 데껴불지 안허나 꽁치? 거 봉가당으네,

그믐 좋아?

105015 @ 좋지 잘 벗어. 담배, 그걸로 닦아? 물에 적성?

105015 #1 물에 적정 그 꽁치로 막 밀어. 경해야지 경 안허민 눈이 지름 피영 잘 안보여. 아래가민 캄캄해불어. 캄캄 어둡우니까 어둡지 못허게 막는거..

105015 #2 망사리여 해녀복이여 뭐여 이제는

105015 @ 비창이여

105015 #2 그거 다 허지만 옛날에는 이녁냥으로 다 멘들앙 했지마는 옛날엔 해녀복도 없었어. 지금은 추운날에도 고무옷 입으믄 물에 들어가도 춥지가 않지. 옛날엔 입은옷 그냥 들어가민 불턱해가지고 올라오민 추워가지고 그냥 불살랑 춥곡.

105016 @ 잠녀들이 물질을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5016 #1 일제때는 상군,중군,하군, 경 이젠 세금 똑같이 나와,

105017 @ 잠녀들이 물옷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5017 #1 물옷만 입영 들 때, 고무옷 나건딘 멧년 안 뻬어.옛날엔 속곳만 입영 했어.

105018 @ 툇은 어떻게 채취합니까?(개인/공동)

105018 #1 옛날은 막 좋아났지. 옛날은 툇 이마씩 해여. 이젠 저 웬당알로 막 뜨 거운 물 내려부난 바당이 다 죽어불언, 저 웬당알만 정 안햐시민 저 웬당아로 인햐 줍너 곱게 므사부런

105018 #2 지금은 어촌계에서만 관리를 딱 해버리니까

105018 @ 옛날엔 어떻 해수과?

105018 #2 옛날엔 동네별로 자기 구역만씩햐서 활당해가지고 구역에서 나와

105019 @ 우뭇가사리는 어떻게 채취합니까?(공동)

1050019 #1 옛날은 우미우미해난디 이젠 천초엔허매.

105019 @ 우미는 언제 멧월들에 험니까

1050019 #1 음력 3월들로부터 허지. 오래가야 근 나가. 인척헌건 근 안나가.

1050019 @ 여든 셋까지예?

1050019 #1 우미 즈물앗주게.

1050019 @ 우미 즈무는게 경 무섭텐허명예, 사람도 우미 즈물당 죽는텐 우도  
에서는 영화보당보난?

1050019 #1 야, 그거 욕심치레 하단 그렇지, 어느지간 허민 설르지. 막 그냥 놔보  
다 하영 허젠말고 하영튼 욕심 잇는 사람 죽으매. 한결헌 사람은이 숨 쉬멍 하영  
허젠 말고 노릇헌 사람한틴, 막 놔보다 쳐 허젠 막 허젠허민 숨다 먹잖  
아. 그게

1050019 @ 물숨이지예 물숨먹영?

1050019 #1 그렇지. 물숨먹으민 왜냐면은 그 줍 한결이 노릇허민 물이 바당에 가  
도 숨이 질고, 그냥 할딱 할딱허든 숨 쫄랑 허도 못헌다. 이 태왁짚영 한창 숨  
을 느르기서야 물질이 돼지. 우린 전복만 태어나니까 다른 건 허도 안해. 숨 질어  
부난 전복배끼, 이디 소문난 사람이야. 한 복회어멍허고, 나 벗 하난 죽어버렷어.  
그 사람허고 나배끼 안 가 바깿바당은, 막 배끼디 아득헌디 나가.

105019 @ 우뭇가사리는 어떻게수과?

105019 #2 우뭇가사리도 구역별로. 우뭇가사린 시세가 없는 모양이지? 나 해다 논  
거 이서 지금. 우뭇가사리 하얗게 바랜거. 강 졸드민 먹어질거.

105020 @ 전복과 소라는 어떻게 채취합니까?(개인/공동)

105020 #1 공동은이 양식장, 가두왕 아무도 못댕기기게 행 그치 즈물고 배깃딘 개  
인, 어느 혼으로 어딘 개인, 어느 혼으로 어딘 양식장, 양식장엔은이 사람 안 가니까  
하지. 그냥 막 즈물아불든 엇잖아. 안 즈무니까 보태가곡 새끼치중해가든 하지. 배깃  
디 강 준 거 해당 안트레 비와, 홀근 건 풀고, 준 건 이레 드리치곡,

105020 @옛날에 삼촌은 귀허레도 갓다는 거지예?

105020 #1 귀 배깃디 귀 혈충도 몰르고 배깃디, 귀 허는 거민 전복 하나 태우민  
멧배로 벌어,

105020 @ 삼촌은 60년간을 전복만 해연,

105020 #1 전복만 귀허는 사람은 해천 까도 나 전복 하나 혼것보다 돌리지도  
못허고 몬딱 해갈아부러 나는 배깃딜로만 간 그것만 허주, 귀굴은 건 이제도  
못해

105020 @ 신촌바당은 다 잡앗구나예 전복으로?

105020 #1 나, 아이고 신촌바당이 우리 동동, 중동, 셋동이 바당 갈라부난 못가매.  
혼이 다 이서.

105020 @ 삼촌은 동동?

105020 #1 우린 동동, 저레 가가민 막 난리가,

105020 @ 동동만 했다는거? 옛날에도?  
 105020 #1 일제때부터,  
 105020 @ 그 전에는 경 안해신디  
 105020 #1 아니아니, 옛날로부터 경 바당갈르더라고, 그레 넘어가지 못해. 또 그디 꺼 이레 넘어오지 못하고,  
 105020 @ 그쪽에도 잘허는 삼촌이 잇엇겟다예?  
 105020 #1 잇지. 이제 늙어부난 못해. 이제 해녀들이, 우리또래 어시민 물질헐 사름 으서.  
 105020 @ 지금 멧명이신고예?  
 105020 #1 이제 우리 혈때는 막 하난디 잘하민 이딧사름도 혼 예실곱사름 웨고, 요 중카름에가 하나고, 또 셋카름에가 셋인가 넷인가고  
 105020 @ 조천은 하영 이신디?  
 105020 #1 조천이신디 이딘 어서. 경허고 동더레사람 와도 안해여. 신촌은 동이사람 해와도 물질을 안헌다고 조천덜은 막 허여. 것도 춤 이상허여.  
 105020 @ 신촌 바당은 그래도 해산물이 많이 잇겟다예  
 105020 #1 잇긴 잇지. 제라한 전복바당에 강 숨벼야 전복이 나주. 전복바당이 잇지.  
 105020 @ 삼촌만이 아는 곳이 잇지예, 막 잠자당도 아른아른 생각날때가 잇구나예?  
 105020 #1 그게 전복테젠허민 꿈에부터 나타나. 거 춤 이상해?  
 105020 @ 어머니 어떤 꿈을 꿔져마씨? 전복이 나와마씨?  
 105020 #1 전복테젠허민 꿈에부터 나타나. 전복테젠허민 남잘 시꾸고, 딱시 이소똥 잇잖아. 걸 막 주서베고, 그렇게 그 꿈을 보면은 전복을 캐어.  
 105020 #1 뭐든지 자기 머리로 감상허멍 만들어야 웨어. 전복은이 그 여에 이싱거 배랑 가다오다 잇지. 전복허는 딴 막 “머흘뻗”, 짚은디 그런 디 가야 전복 테어  
 105020 @ 머흘뻗은 돌뻗이지예?  
 105020 #1 아예 돌이 이만썩이만썩 딱로딱로 갈라지는건 머흘뻗, 또 그냥 “여” 엔 현건 민썩 이신건 “여”,  
 105021 @ 암전복 숫전복은 모양이 틀러마씨?  
 105021 #1 틀리지. 숫전복이 알맹이가 하지. 두껍고, 암전복은 바짝허고 암전복은 두꺼웁도 넓적허고, 수컷은 수랑허고 알맹이가 하 수커는.  
 105021 @ 그믐 근수도 많이 나가겟다예?  
 105021 #1 그렇지  
 105021 @ 맛은 어떻힙니까?  
 105021 #1 맛은 아멩해도 비등비등허주마는 숫전복이 더 맛은 이실거라.술이 하니까, 암전복은 베짝허여,  
 105021 @ 얼마만큼 큰 것이 잇수과?

105021 #1 전복?

105021 @ 막 솟두껍 ㄴ치 밥도 해 먹엇텐허난,

105021 #1 그것에도 반찬도 지저. 이젠 그런 전복테레 못가. 막 배끼디 가야 그런 거,

105021 @ 겨난마씨 얼마나 커시민, 얼굴만큼?

105021 #1 아니 이마니허여. 큰전복쯤은 이만해  
썩테기라도 흥나 나들거께?

105021 #1 이거 폴레가야지. 이거 전복,

105021 @ 옛날에 옛장시가예?

105021 #1 아이고 우리 전복을 태어도 아방 하나 먹어보지 못해. 폴레 시장더레  
돌아. 그거 폴아와야 애기덜 흑비허고, 돈줍센허민 주곡 허니까, 아방 흥번 맥여보지  
도 못헐, 전복은 많이 태어도, 폴레 돌아나. 그거 폴아와야 쓸거니까.

105004 @ 그믐 아까 구쟁이는 세가지 종류가 잇다는거지예?

105004 #1 즈쿠쟁이, 중쿠쟁이, 대쿠쟁이, 대구쟁인 막 큰 거, 또 대쿠쟁이 다음  
에 건 중구쟁이, 중구쟁이 다음에 건 조쿠쟁이.

105004 @ 막 뽀쪽뽀쪽 압수 이런 거?

105004 #1 뽀쪽뽀쪽 난 거는 거 큰구쟁기야. 즈쿠쟁인 그런 거 없어. 맨뜰락허  
여. 요만씩 행 맨뜰락, 그런 거 없어 즈쿠쟁인, 커야 그런거 나와.

105022 @ 테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5022 #2 테우는 옛날 그 듬북혈라고 다 만들어 논거여. 자리 뜨고. 저 하르산에  
가민 구상낭 잇는데 구상낭으로 꼭 만들엇어.

105022 @ 구상낭으로 테우를 예?

105022 #2 응.

105022 @ 구상낭이 좋아마씨?

105022 #2 구상낭이라야만 돼지 다른 낭은 안돼여.

105022 @ 테우가?

105022 #2 테우가. 물에 까라얏아. 물속으로 구상나무가 제일 가벼와서 잘 트고.

105022 @ 아!

105022 #2 그니까 구상낭으로만 테우를 헛어.

105022 #2 테우가 많이 잇어. 우리 어렸을적엔 여기도 성창이 잇고 저기도 성창이  
잇고, 수정없이 잇엇주. 동마을에도 한 십여척 이상이. 우리아바님 신평도 터위일을  
헛어. 터위탕 고기낙으레덜토 많이 다니고 갈치 나끄레도 많이 다니고.

105022 @ 아버지도 이런 어부 일은 해봐수과?

105022 #2 아니 어부는 전연 안해보고 일본에도 돈벌레강 많이 살고.

105022 @ 일본에서 올때 아버지가 고무신이라도 사옵디가?

105022 #2 일본서 올 때? 고무신이 없엇어. 아버지가 짚신 사다줘서 나가 많이 신  
어왔는데. 옛날엔 신이 그렇게 어려왔어.

105022 @ 뚝배가 이섯수과?

105022 #2 닳은 옛날엔 나이롱도 잇고 벨거 다 이섯지만 칙을 끈허다가 닳줄을 했어.

105022 @ 테우만드는 건 봐봣수과? 만드는 사람덜 다 돌아가섯지예?

105022 #2 다 돌아갓주. 테우는 낭덜 혼 아홉 개 열 개 하면 꼭 고르게 굶기를 찢 라가지고 썬 나무로 해서 글로그냥 못질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열 개나 뿔개 꼬 아가지고 그 테우를 꼭 구상낭이라야 테우웨지 다른 낭으론 안웨. 그 산에 가서 구 상낭 이둘레씩 헛 놔를 전부 해다가 테우를 다 만들어. 구상낭은 물에 잘 뜨는 낭 이라. 그니까 테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가서 고기도 나끄고 듬복도 허고.

105022 @ 테우는 개인거지예. 어떻 빌령 쓰기도 해수과?

105022 #2 그렇지 것도 배ㄴ치 풀고사기도 해서.

105022 @ 삼촌넌 없엇고예.

105022 #2 우리도 있엇어.

105022 @ 아버지가 산?

105022 #2 내가 한 열두어설 날때 테우가 이섯어.

105022 @ 그른 아버지가 주로 거기가서 뭘 잡아마씨?

105022 #2 듬복헐라고.

105022 @ 자리거리는건?

105022 #2 그런진 안해.

105022 @ 보통 뿔거리고 자리거리는디

105022 #2 그렇지 주로 뿔거리고 자리 거리는 데 많이 썬어. 거 옛날엔 뿔이 어떻게 혼했는지

105022 @ 함덕에 뿔이 많앗덴 허는디

105022 #2 어, 신촌도 많엇어. 그냥 저 터위 가서 그 뿔 잇는 걸 어떻게 아는지 장막쿨이라는 그물이 잇어. 그물로 에워싸가지고 허면 그냥 그 저 뿔꾸덕이 이방 두배쯤 뿔겅네이. 그걸 두 개씩 터위에 시켜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담아오면 말이 여, 길에 그냥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전부 뿔 널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뿔비로.

105022 @ 말령예.

105022 #2 거 말려가지고 다 옛날엔 뿔비헐어. 거 뿔거름이 밧디가민 상당히 좋은거고.

105022 @ 그 뿔을 말령 언제 어떻게 거름을 해여?

105022 #2 듬복 해당 낫다가 듬복 속에 낫다가 밧디강 뿌리민 보리가 상당히 잘 자라.

105022 @ 보리 난 상태에서 뿔을 뿌리는구나예.

105022 #2 보리 갈 때

105022 @ 아 낫다가 보리갈 때?

105023 #2 뚝돌앙 다니는 배? 옛날엔 기계어실 때는 다 뚝돌앙 다녔주.

105023 @ 그거에 해녀들을 태와가지고 먼바다에도 가고. 이디 해녀덜은 육지물질 안가십디다.

105023 #2 아니 가. 동테레 성산덜은 많이덜 가고. 삼척 가보니까 평대사람이 여자가 상당헌 부자가 잇데. 그 상점들이 쪽 나란이 잇는데 전부 자기거랜.

105025 @ 여기는 그 바당의 돌고래를 수애기렌헙니까? 저 곰수기렌 헙니까?

105025 #1 곰세기.

105025 @ 거 곰세기렌 헙니까?

105025 #1 그냥 이제 말론 돌고래엔 허고이, 옛날엔 곰세기. 우리가 물에 들면은 그놈이 것이이 막 떼죽으로 느려와. 말도 잘 알아들어.

105025 @ 떼죽으로예?

105025 #1 떼죽으로 막 덤벼온댄허난. 거 막 주둥이도 막 진진해여 그놈이거. 거 올땐이 소리가 나더라고. 짹짹짹짹해더라고, 무신 짹짹짹짹헙시고 보니까 것덜이 떼죽으로 와가난 겁나더라게. 겁나더라게. 배알로 배알로 해가난이, 우리 밑으로 살살 넘어가. 말 잘 알아 또이 “곰베마니 튀라 마께마니 튀라” “뽕룩뽕룩” 튀곡, 말 잘 알아들어 그거. 송쩍도 안한거라. 말만 못 굴앗주 말은 잘 알아들어.

105025 @ 큰고랜 안봐왔고예?

105025 #1 아니 곰세기가 이만씩해여. 겐디 곰세기 조름에 상어가 쪼친텐허지. 게난 그것이 무섭다는거지.

105025 @ 일단 곰세기봐지민 밖으로 나와봅니까 어떻헙니까?

105025 #1 아니, 그치들영 석석석석 허는소리에 영 나왕보민 들려들영 이꺼지 들려드는거라 이녀앞더라

해녀들은?

해녀들은 “배알로 배알로” 물질못허지. 와작작와작작, “배알로 배알로”허민 알로 실실실,

태왁이신딜로 올라왕 “배알로 배알로”헙니까?

105025 #1 태왁우이 짚어둬서 “배알로 배알로” 허민알로 살살살살, “곰베마니 튀라 마께마니 튀라” 빌쭉빌쭉, 말 잘 알아들어. 이젠 그거 못봐. 곰세기 나오는디 물질덜도 안허고,

## 6. 의생활

### 옷감

106001 @ 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1 #1 광목, 베, 땡주, 모시, 비단, 사보다이..

### 명주



106003 @ 명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생명주/수아주)  
 106003 #1 썩명주 잇도, 익은 명주 이서. 명주도 멧가지라 썩명주는 바짝허곡이 그냥 명주는 흘랑흘랑허잔아. 썩명주는 완전 바닥바닥허여.  
 106004 @ 명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1 명주로 남자들 바지저고리. 여잔 치매저고리, 우린 그런 거 입어보도 안해서.  
 106004 @ 호상옷?  
 106004 #1 호상옷은 명주로 허주. 호상도 저디 잇주마는 명주로 헤어져신가? 걷영 봐야키여.  
 106004 @ 명주는 누에로 만든거라 좀 일어분덴 허드라고예.  
 106004 #1 존거는 안일어. 명주도 이 분 잇잔아 밀꺾루. 그런건 그냥 고평 바롱바롱 해부러. 나도 이제 클렁 보켜마는 나명진 좋아부니까 존걸로 해 노니까. 명지가 이 좀먹을 밀꺾루 닳은 명주가 이서. 그런거는 그냥 바롱바롱 먹어부러. 호상행 낫지, 나도. 또 명지로 두루막 이 것도 이시니까 것도 죽영가민 입을거. 명지에 두루막 잇어, 분홍꺼. 또 그냥 두루막은 그냥 대껴부런.  
 106005 @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5 #1 거는 어디 서촌사름이나 경허주 이딴 사름덜은 모른다.  
 106006 @ 누에치기도 모르고예?  
 106006 #1 어.

## 무명

106007 @ 광목을 무명이렌 험니까.  
 106007 #1 모명. 무명이 아니고 모명, 모명이라 험거 이 그 광목 닳은것꺾라 꺾명이렌 허여.  
 106007 @ 토목  
 106007 #1 토목은 미녕. 시꺼명헌것꺾라 미녕. 미녕이 시꺼명헤여.  
 106007 @ 생목은?  
 106007 #1 생목은 희지.  
 106007 @ 광목도 닳새미녕 옛새미녕  
 106007 #1 그런건 안봐환  
 106008 @ 미녕으로 어떤 거 만듭니까?  
 106008 #1 옛날엔 바지도 허고 치매도 허고 이불안도허고.  
 106009 @ 토목으로 뭘 만듭니까?  
 106009 #1 그 시꺼명헌거 우리 안만들어서. 옛날 옷 어신때 그런거 했주, 옷 이신땐. 미녕은 옷 아니. 미녕은이 주로 갈중이 하잖아. 갈중이.  
 106010 @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1 광목으로 뭘 이불안도 허고, 복선도 만들고, 또 무싱거 감 맥이는 갈

옷도 허고, 여러 가지 해여.

106011 @ ‘홍세미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1 #1 홍세미녕은 결혼할 때,

106011 @ 좋은거예. 붉은 색깔이 홍세미녕이파

106011 #1 아니야, 그냥 미녕.

106012 @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멘네용시?

106012 #1 멘네허는거 몰라. 안해난. 거 저 옷드리 사람덜이나 허주. 옛날은 딸 폴  
젠허민 멘넬 갈아. 겐디 이제는 숨 좋은거 나와부난 안허여.

106012 @ 딸 폴젠 허민.

106011 #1 옛날은 딸 폴젠허민 이 멘네를이 혼 3년 갈아야, 거 일일이

106012 @ 이불행 보내젠예.

106011 #1 게. 이제는 숨덜이 막 좋은 거 나노난. 거 이불채 사오잖아. 다 만든 것  
덜,

### 모시

106013 @ 그 다음 모시, 모시도 안만들지예?

106013 #1 이딘 안만들어.

106014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4 #1. 모시로 치마저고리 만들지. 모시도 존거 잇고, 나쁜거. 모시는 죽영 갈  
때 안 입어. 베는 입어.

106014 @ 무사 안 입어마씨?

106014 # 거 모시는 입지도 안해여. 그 모시가 관 소곶에 들어가민 애기 나민 머  
리가 해영헌덴.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나온덴, 모시가 관 소곶엔 안놔. 애기가 손  
지가 태어나민 머리가 사시머리가 희뜩희뜩, 거니까 모시는 아이놓는거. 죽영가도  
안입고. 베는 입어도, 베허고 민영은 해도 모시는 안해여.

### 삼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베 만드는 삼 재배하는  
건 모르지예?

106016 #1 아니 우린 그런거 봐본 도래엇다. 건 어디 서촌더레 짜는가? 짜는디가  
이서.

106017 @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7 #1 베로 사람이 죽으민 묶음도 허고, 상제옷도 허고, 그냥 우리가 그냥 베  
로도 입고, 여름에. 막 건더웁잖아.

106017 @ 무사 여름에, 베옷을 입어시코예?

106017 #1 궁기가 좋아노니까 막 브름들고, 땀도 안부르고

106017 @ 겨울에는 춥잖아?

106017 #1 추워. 못입어. 여름에만 입어.  
 106017 @ 상제들은 겨울에도 입읍니까?  
 106017 #1 상제는 거 사람 죽으면 흘 수 어서 입는 거주. 소곱에 막 뜻게 입었네.  
 106017 @ 무사 배옷을 입어신고예?  
 106017 #1 옛날은 그거 주로 또 옛날은이 그랑그랑, 머리에 또 그랑그랑, 허곡이, 옷도 그랑그랑 현디, 이제는 그축 안해. 깨끗헌 옷덜 입저.

## 도구

106019 @ 씨아 물레 베틀 들어봐수과?  
 106019 #1 그런거 우린 안헌다게. 이레 사름덜 그런거 봐보지도 안허고 해보지도 안허고.

## 바느질

106022 @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2 #1 거 옛날이주 이제 바느질 허는 사름 어딿나.  
 106022 @ 옛날, 바느상지에?  
 106022 #1 바느상지에, 시집 가젠허민 바느상지 아정가고 가워허고 실허고 그 머리턱 이 이마니 현거 해근에 기지에 만들앙 바느 영행 깎주와. 경허민 절대 바느 브미지 안해. 머리턱, 요새 뭐 빠마허느디 가민 머리덜 진머리 허잖아. 그런 거 붕가당으네 감앙 만들민 이 바느 브미질 안허여.  
 106023 @ 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홈질 박음질..  
 106023 #1 영영영 저 시끄는 바느? 요만씩헌 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복옷이 있어. 거 허젠어면 거렁거 중간중간 실로 안행 요만씩헌 바느로 꼭꼭 찢러. 걸로 해 난다음 딱씨 빠 뒹 으네 또 다른 걸로 허영  
 106023 @ 아 막작 안행?  
 106023 #1 응 모작 안정 그냥 꼭꼭꼭꼭 찢렁. 거민 이 허게 뒹민 해난다음 또 다 빠잖아. 경허는거. 실로 안행. 쉬웁잔아.

##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의 종류는 뭐가 잇수과?  
 106024 # 바지, 저고리, 쪼개,  
 106025 @ 여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5 #1 치마 저고리, 마고자 안허고 두루마기나 허고 마고자 입영 텅기는 사람 어서.이 동네에,  
 106026 @ 아이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6 #1 아이옷은 그런거 입지는 거 안봐봤져 우리.

106026 @ 똑같아예.

106028 @ 바지, 저고리, 치마, 보선의 각 부분의 명칭을 말씀해 주십시오.

106028 #1 거 옛날이주 허도 안해여.

106029 @ 단추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9 #1 그런 건 아무나 못허여. 바놓질왓디도 ㅁ작단추 못허는 건 못허여.

### 재단과 염색

106030 @ 옷감 손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 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1 그런 거 염색 여기선 안해여

###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2 #1 옛날엔 짚신허고 남신허고,

106032 #2 짚신 나막신, 나막신은 비올 때 많이벗고, 일제 시대, 왜정시대엔 우리 저 계다를 많이 신엇어.

106033 @ 가죽신은 만들어 봤수과?

106033 #2 안 만들어봘. 가죽신은 사놓허는 사름덜이나.

106034 @ 남신

106034 #1 나무로 만든 신이 잇어. 비올 때 눈올 때

106034 @ 누구 만들어나수과?

106034 #1 그런 걸로 만들앙 우리도 어릴 때 신어나서.

106034 @ 돈주고 사야?

106034 #1 사당. 폴아. 비오꼭 이 눈와가믄 그거 신어.

106034 @ 남자가 어서부난 초신도 사당신고?

106034 #1 어, 조천장에 가믄 막 폴아.

106034 @ 조천장예?

106034 #1 오일장, 이젠 없어져 불엇어 거, 없어지건디 혼 50년도 넘어실거라. 조천장 어신디가

106034 @ 지금은 2에 5에 오일장?

106034 #1 함덕허고 제주시허고 그디나 배깁 엇어. 함덕은 이서.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거는 아버지도 만들어수과?

106034 #2 아니 것도 기술자 아니민 안웨여.

106034 @ 신촌에 잇엇수과?

106034 #2 아 연장도 잇고, 그 나막신을 만들라면 그 국쉐엔 현 것이 저 어려와.

106034 @ 국쉐가 필요허구나?

106034 #2 어, 그 남을 글거내젠 허민.

106034 @ 신촌에 그런거 허는거 봐봤수과?  
 106034 #2 난 보도 못했어.  
 106034 @ 누구 잘하는 사람 이신것도 모르고?  
 106034 #2 모르고.  
 106034 @ 신어봤수과?  
 106034 #2 난 신어보도 안허고.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건?  
 106034 #2 신영 땡기는 것나 봤지 만드는건...  
 106035 @ 짚신을 만드는 과정?  
 106035 #2 짚신은 나도 만들었어.  
 106035 @ 어떻게 만들어마씨?  
 106035 #2 옛날은 노가 어려우니까 어육에 미를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늘을 하고, 신 허리에 이렇게 차가지고 발에 영 끼어서 짚신을 만들었는데 거  
 짝 내곡... 나도 그건 많이 했어.  
 106035 @ 누구한테 배워수과, 아버지?  
 106035 #2 그렇지 어른들허고 아버지한테 배워야지.  
 106035 @ 남자가 어시든 짚신도 사당 써야 돼는데에  
 106035 #2 그렇주.  
 106035 @ 어렵지 안해마씨? 땡 시간 걸려마씨?  
 106035 #2 하루 허민 두컬레도 땡글수 있고 세컬레도 맨들 수 있고.  
 106035 @ 짚신 종류는? 뭐 깍신도 있고.  
 106035 #2 전부 깍이 다 들어가야 짚신이 돼여.  
 106035 #2 그게 나도 짚신은 만들어봤는데, 짚신은 그자 막 신는 신은 주로 나록  
 짚허고 칩허고, 미허고, 그거 잇어야 돼여. 그니까 거 깍을 내야 돼여. 그 요피 이렇  
 게 허는 건 깍이여, 깍, 깍이라 허여. 그 짚신은 이제도 나가 만들라든 만들 수 있  
 어.  
 106035 @ 짚신을 고운걸 깍신이렌 해수과?  
 어, 그 깍이 고와야. 막 염색도 흥고, 곱게 허민 바로 새각시 신ㄴ치 곱게 만드는  
 사름이 이섯서.  
 106035 @ 염색은 뭘로 험니까?  
 106035 #2 색깔, 물론 사당 헛겜지. 그러니까 빗깔 곱게 해가지고 깍을 곱게 허민  
 이렇게 쪼르르르 현거는 쪽 빼여가지고 옆으로 짹 두줄로 싸민 보기 막 고운 신  
 106035 @ 고운신도 만들어봤수과?  
 106035 #2 그런건 안해봤.  
 106035 @ 그런건 안해보고, 초신?  
 106035 #2 초신게.  
 106035 @ 초신 쉬운걸로?

106035 #2 응. 우리가 한창 어렸을적에는 한 열두어서너슬 댜니까 아버지가 초신 삼으면 하루에 끈어버려. 막 돌아다니니까. 겐디이 나가 자라나서는 그 초신을 내가 만드니까 곱게도 만들지 못하고, 사름이 재주가 신건지 곱게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곱게 만드는데 그래도 그 저 이런 형꼴 꼬트머리로 허른 쪼끔 오래가.

106036 @ 짚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짚신 종류도 조리도 잇고?

106036 #1 조리는 일본놈덜 삼양 허는 거, 우리도 옛날엔 일제때 혹생때 조리 삼양 신어났다.

106036 @ 초신, 짝신, 또 좋은 거는 깍신?

106036 #1 짚신이 초신이주게. 그 놈이 덕석이 멍석이여 멍석이 덕석이고,

106036 @ 깍신?

106036 #1 깍신은 아주 줌진줌진허게 현거 초신은 혹게 혹게 현 거, 깍신은이 줌진줌진허게 만드는 거고, 짝신는 훌게 훌게 현 거

106036 @ 결혼 할 때 그 신은?

106036 #1 거게 깍신, 옛날은 그런 거 신영 시집갓주, 막 고와 그게, 줌진줌진허게

106036 @ 건 더 비싸겄다예?

106036 #1 비싸지.

## 모자 등

106037 @ 모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7 #1 모자 종륜 나가 알게 뵤나.

106037 @ 모자의 종류? 여름모자 겨울 모자 뵤 다르게 이수과?

106037 #2 거난 밀짚모자. 밀대가 있어. 밀대로 주로 짜는 거 있어. 밀대로 많이 했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저 뵤 줄고빋대, 줄고빋대로 많이 만들엇고.

106037 #2 밀랑패랭이나 이 촌에서 만들엇지 다른 모자는 만들어보질 못하고.

106037 @ 정동모자도 잇수게.

106037 #2 칙으로 현거? 그런거 허는거 난 안봣어.

106037 @ 어머니가 양태 했엇고?

106037 #2 양태는 어머니가 많이 했엇지.

106037 @ 총모자 탕건 망건 이런거는?

106037 #2 탕건도 보고 갓도 보고 다 했주마는 탕건허는건 보고 양태허는 것만 봤지 다른건 아이봣어.

106037 @ 이 신촌은 탕건입디다예.

106037 #2 양태히고 탕건.

106037 @ 부인도 허고.

106037 #2 아니, 부인은 안허고.

106038 @ 밀랑패랭이허고

106038 #1 패랭이사 뵤

106038 @ 패랭이는 뭘로 만들었수과?  
 106038 #1 그거는 보릿낭으로 만들었주.  
 106038 @ 옛날은 밀낭으로도 만들었텐 험디다?  
 106038 #1 옛날에도 보리낭해, 맥주맥 해난 거, 맥주맥 낭이나배끼 술오리 낭은 끓어져 불어. 맥주맥허고 밀낭,  
 106038 @ 밀낭이 더 좋아?  
 106038 #1 막 질겨. 맥주맥보다 밀낭이 질겨. 자이네 아방 산때 막 잘해여 그 모자. 고와. 곱게 해여. 다 행 쩡 가시난 친구안티 뺏건, 거 메칠 멧날 짬에 현걸 강. 에이고 춤말, “아 무사 쥘덴” 허난 “빠아시는 걸 어떻” 잘도 곱게 해성게.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1 겨울 모잔 나 모른다.  
 106040 @ 양태 겐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0 #1 나 탕관배끼 더했나?  
 106040 @ 어머니 허는걸 생각해서  
 106040 #1 어머니 허는 건 나 몰라. 그땐 양태판이엔 현거 둥글락현거? 그런걸로 허는 건 봐났다.  
 106040 @ 양태판이 둥글락현거예.  
 106040 #1 난 그런건 아니 해나서. 파니.  
 106040 @ 판  
 106040 #1 파니  
 106040 @ 양태파니?  
 106040 @ 이거는 뭘로 만든것과? 대낭?  
 106040 #1 대라, 대. 대도 이 저 육지서 들어와. 들어오민 이만씩 현 통낭이라. 우리 머니네 허는 거 보민 이 믏디므디 싹 허는거. 믏디가 이서. 거 싸가지고 칼로 딱딱딱 벌르데. 벌러그네 솟아. 술마가지고 돼지 먹는 구정물 통에 이 것에 등갓다가 꺼내연에 막 다릅데. 대칼로. 경헌에 허는 거 봐났주.  
 106040 @ 막 힘들주예?  
 106040 #1 막 힘들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장이엔 현 쉼가죽으로 만든 게 이서. 그걸로 막 짹짹 늘루완. 짹짹짹 짹 늘러그네 해영만딱 해그네 줌질게 잘도 허더라 우리어머님넨. 칼로 이 영영영영 해난 말젠 영헨 짹짹 짹짹 해가난 줌질게 막 나완게. 양태는 이 삼양, 탕관은 신촌, 멩긴은 조천. 다 동네가 뜰려.  
 106040 @ 어머니는 양태하거나 망건 안해수과?  
 106040 #2 양태만 했지.  
 106040 @ 어머니가?  
 106040 #2 응.  
 106040 @ 무사 신촌은 양태를 많이 해신고예?

106040 #2 그렇지 양태를 허다가 나중에 탕건덜토 햏주마는 이 양태를 많이 햏어. 저 우리어머닌.

106040 @ 망건청도 잇고 그거 만드는데 봐봏수과?

106040 #2 응.

106040 @ 어머니는 안햏수과?

106040 #2 망건은 아니햏고 양태만 허는거 햏어.

106040 @ 양태는 뭇로 만드는데 알아마씨?

106040 #2 대로.

106040 @ 왕대햏, 거?

106040 #2 왕대라도 아주 좋은 대 햏아야햏, 양태허는거.

106040 @ 보통일이 아햏디다예. 신촌은 양태가 유명허구나.

106040 #2 탕건도 많이 허곡.

106041 @ 총모자는?

106041 #1 총모자도 그거 어디서 나와신지 몰르켜. 거 서촌사름 알거라. 것ㄴ라 탕관햏도 아햏곡 무싱거옐 굴아라마는. 우리가 보건디는 거 정깃방식으로 깝양 앓는디도 이서. 나도 탕관햏이 혼 서너개 이서신디 어디사 가신디. 아맏도 누게 햏려쥼 잇어부렸네.

106041 @ 혼번 좇아햏서게.

106041 #1 어디간 허단? 잇어부런 이거 햏햏냐. 애기 낳기전에 햏려쥼부난. 그 사름도 어실거라. 다 죽어부렸주 무신. 탕관도 햏려쥼 행게 이햏 안햏지난 내부런 시집오햏, 일러분거라.

106041 @ 도룡이가 뭇햏? 우장?

106041 #1 우장은 새로 만든거지. 우장이옐 허맏 그거 새로 만든거. 거 비옐때 씩곡, 눈옐땐 영 햏그네 허곡 이런디 가죽 모저 씩곡.

106042 @ 탕건허는디 뭇가 햏요햏 마씨, 틀이?

106042 #1 탕관햏

106042 @ 탕건햏로?

106042 #1 햏로. 탕관햏이 이서야 허지 탕관햏 어성은 허지도 못햏다. 그게 이 탕관도 여려 햏이라. 혼근탕관 중탕관 줌진탕관, 세 개라. 우린 줌진것만 햏옐. 비싼거만.

106042 @ 그믐 말꼬리로?

106042 #1 말총.

106042 @ 말총은 어디서 사와마씨?

106042 #1 일본서 들어와.

106042 @ 오일장에서 사는거라? 누가?

106042 #1 응, 오일장에덜 햏레와. 일본서 왕. 일본서 온건 이 이만씩 햏곡이, 제 좇믏에건 이 즐아.



106042 @ 도데체 그걸 얼마에 사당 얼마에 파는것과? 만들엉.

106042 #1 가격은 내가 아냐, 막 오래여부니까.

106042 @ 그걸 누게가 경 사당 쓸니까 양반덜?

106042 #1 조천 장에강 폴아. 그거 사가는 사름이 이서. 그거 사가면은 이, 육지더 레 보내여. 양태 사당 파는 사름이 탕관도 사가.

106042 @ 사일 걸린덴 했지예?

106042 #1 오일. 게난 밤의깁지 허영 오일이지. 밤인 붓두룩 헨다 붓두룩. 게문 그 냥 꼬딱꼬딱꼬딱꼬딱.

106042 @ 줄기도 허곡.

106042 #1 게 밤인 줌 안자난게.

106042 @ 그때는 뭐 먹으멍이라도 험니까? 고구마라도.

106042 #1 에구 먹기는 무시거 먹을 말이나게. 켜디 장날 허젠허민이 어멍이 밥상 깁지 전부 해당 맥여. 그디 가난거민 탕관허라 허는거. 요디 가는 새예 탕관 땃 게 걸릴 거니까.

106042 @ 아이구 밥 차려당 주는구나예.

106042 #1 물도 못질게 허여. 탕관 만들젠허난. 아이구 물이라도 질어보젠 허난 물도 못질게 헨 탕관만들랜. 예, 탕관 아니행도 사는거. 얼마나 힘드냐 거 탕관 만 드는거. 거난 봄나가민 해방이라. 물에 드니까.

106042 @ 탕건도 바늘이 잇는거지예?

106042 #1 바늘로 허지. 탕관빠놓이 이서. 탕관빠놓은 귀가 좁작허고 이 옷허는 바놓은 귀가 크잔아. 그냥 큰 바놓은 총이 자꾸 빠져부러. 눈 쪼끌락헌거는 잘 안빠 지고.

106042 @ 그거 켜젠 허면은 눈 벨랑 해야키여예?

106042 #1 아니아니, 켜도 쉬와. 총으로 영 확확 켜영.

106042 @ 아, 꼬닥꼬닥 허난.

106042 #1 응 확 켜여가. 거난 총도 못는 총은 막 좋은 걸로 못아. 서이는 총이 딱나고 못는 총이 뜯나. 두가지라.

106042 @ 아, 위로 이렇게 가는 거랑 옆으로 가는거랑.

106042 #1 그렇지. 경 못는거는 밀어가민 착착 끈어져. 경 좋은 걸로 해야.

106042 @ 끊어져 버리면 어멍.

106042 #1 잣기는 잣아. 우리 탕관도 잘잣아. 잣이멍 허잔아. 거 이 어떻게그네 아 니끈어지는 탕관은 춤 재수 존 탕관이라. 총이 좋아야. 총 나쁘민 착착착착. 재료 좋아야주.

106044 @ 도롱이는 뭐파? 우장?

106044 #2 글썸, 나도...

## 7. 식생활

### 밥과 국

107001 @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곤밥 보리밥

107001 #1 조밥

107001 @ 녹디밥 팻밥?

107001 #1 다이서 종류.

107001 @ 삼촌은 밥 하면 무슨 밥을 먹어난 기억이 남수과?

107001 #2 보리밥 조밥 먹어. 많이 먹었지똥.

107001 @ 반지기밥?

107001 #2 그렇지. 켈 좋은게 통보리쫄밥. 통보리쫄 쫄 서터가지고 허민 최고 맛이 있어.

107001 @ 팻밥도 먹어봐수과?

107001 #2 팻쌀이 부족허니까 툇으로 서텅 허는게 툇밥이라게.

107001 @ 툇밥도 먹어수과?

107001 #2 난 아니먹어봣어.

107001 @ 보리밥 해봣수과?

107001 #2 밥은 안해보고.

107001 @ 반지기밥은?

107001 #2 서숙. 보리하고 쌀 하고 서트민 반지기지.

107001 @ 곤밥에 대한 생각?

107001 #2 우리 어릴 때 시계칩의 가민 곱밥 얻어먹을라고 시계칩이 가질 안헐어.

107001 @ 삼촌 잘 얻어먹어집디가?

107001 #2 그렇지.

107001 @ 조밥, 팻밥, 피밥, 감제밥, 무밥?

107001 #2 이 피밥은 나 먹어보지 못허고. 산촌사람이나 피밥 먹었지 이 해변사람은 피밥 어려와.

107002 @ 밥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2 #1 보리쫄 쫄쫄 콩 팻 믈 그 옛날에이 해신제 허젠 허민 오곡밥을 해여.

107002 @ 오곡이 뭐파?

107002 #1 쫄 보리쫄 쫄쫄 팻 콩 믈쫄 까지 여섯가지라.

107003 @ 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3 #1 쫄을 시쳐. 보리쫄을 썰쳐가지고 쫄마. 그땐 쫄쫄이라. 쫄쫄으로 이제 물을 맞게, 너미 익어도 안똥여. 물 맞게 해여그네 슬마가든 바르르허게 부끄잔아. 부끄민 쫄뚜쟁일 영 올라그네 반쫄 요만이행 못부끄게 행 습다그네 툇 더꺼불어. 불 믈지렁 내불어. 그거 툇 재우민 밥이 흐달후달허고 그냥허민 달달달달 해여. 보리밥도,

107003 @ 틈 재와야 되는구나.

107003 #1 틈재와야 그것 문닫혀지 그거 곧 허민 물 그냥 갈갈 나오메. 틈 재와야 그게 풀어지지. 경행 또 뿔리와야 바짝해여사. 계사 밥이 늘어사 맛 잇잖아. 부꺼와 그네 뿔루와, 두 번차 허는거, 뿔루는거.

107004 @ ‘반지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4 #1 보릿쫄에 풋에 곤쫄에 개난 그것이 반지기밥이주.

107004 @ 서꺼?

107004 #1 서꺼서. 반 서끄니까 반지기.

107004 @ 어실 때 애기지예? 이추룩행 도시락도 싸봐수과?

107004 #1 도시락쌀 때이 부젓칩잇 아이나 그거허지 이 그 가난헌 집윗애긴 쫄이 어덜나. 부젓칩애긴 계란반찬에다가 쫄밥에. 우리 없는 사람에 어디 쫄이 잇나 게. 그 뻔또 아이쌍 땡기지.

107004 @ 보리밥에 뭐 싸줘수과?

107004 #1 보리밥에 지시에만 헐. 계란반찬 헌 아이 부재아기.

107004 @ 득도 키와나수과?

107004 #1 아니키완.

107004 @ 계란이 어렵주게.

107005 @ 곤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5 #1 곤밥이 곤밥이주 무신.

107005 @ 곤밥은 제사때나 먹고. 산디쫄 낫당?

107005 #1 산딘 산디허는 사름이주게. 그냥 쫄은 나룩쫄 받아당 먹곡.

107005 @ 사당?

107005 #1 산디는 자기헌 사름덜. 지네 먹지 거 푼냐? 계고 맛도 어서 까락까락. 산디쫄은 맛엇어.

107005 @ 근디 나룩쫄은 비싸잔아.

107005 #1 산디밥보단 나룩밥이 맛 좋주게.

107005 @ 옛날에는 곤밥먹젠 허민 언제 먹어마씨?

107005 #1 거 자기네 간 사름덜은 이 산디쫄을 해영 밥해도 그냥 쫄은 받아와야. 쫄이 귀허니까, 우에 혼순가락쫄 더꺼. 보리밥 우에. 경행쫄 쫄이 귀허니까. 잔치에 도. 보리밥, 풋에 통보리쫄에 또 쫄 우의 호뭇 서꺼그네. 우의 더꺼.

107005 @ 통보리밥

107005 #1 통보리밥.

107005 @ 멩질하고 제사때만 곤밥 먹고, 다 먹지도 못허지예?

107005 #1 경허믄이, 제삿아이 몯쓴덴 허잔아.

107005 @ 제삿집 아이 목신다.

107005 #1 우리집의 오지마라 우리집의 시계라 흥명. 으이고, 우리도 경해낫저. 우리집 시계라 우리집의 시계라 해가명. 우리집의 오지마라. 가이네 미갈어시 와게.

이제 생각하민. 우리집의 시계라 우리집의 곤밥헐거. 다른 일고여덜슬쫌 뒤어져실거  
라. 너네집 시계해나? 우리집 시계해나 허멍. 시갯짓아인 것지도 말랭헐메 몯썰앙.  
아이고 그런 어둑나라가 잇나

107006 @ 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6 #1 조팝도 이 모인 조팝 잇곡 히린 조팝 이서. 모인 조팝은 살락하고 히  
린 조팝은 밥이 찰져. 막 푸달푸달허곡.

107006 @ 히린좁쌀이 맛중구나.

107006 #1 기지. 모인좁쌀은 이 야게 곁어. 그갈그갈.

107006 @ 그른 사람덜이 다 흐린좁쌀만 갈큰게.

107006 #1 모인조팝은 이 밥이 하지.

107006 @ 밥이 하.

107006 #1 그 이아이 님은 아이야. 밥 한거해당 어멍이 멕이주 게믄 경 고급 해당  
멕이느냐? 히린 좁쌀은 밥 해끔배긴 안해여. 모인 좁쌀은 막 하고. 에이구 찰말로.  
갱 모인좁쌀에 감저 서꺼봐라. 살락살락살락. 우리 삶인디 죽음인디 몰라.

107006 @ 국을 먹어줘야켜예. 웬장국이라도.

107006 #1 갱 웬장국 끌려. 웬장국에 무수 썰어노나 배출 노나

107006 @ 경안허믄?

107006 #1 또 몯을 노나. 죽만죽만 먹으니까 어머니 밥 호끔 해, 쫌이 어디시냐게.  
에구에구.

107007 @ 풋밥도 행 먹어나수과?

107007 #1 풋? 풋 노민 풋밥이주.

107007 @ 돔비 뵤나진 안해수과?

107007 #1 돔비도 풋 서경 먹고. 또 녹디도 서경 먹고. 콩도 서경 먹고. 콩은 둥글  
락둥글락 맛은 어서. 콩밥은. 게난 징역사는 사름 콩밥 멕이잔아. 너 호끔만 콩밥  
먹으레 갈래?

107008 @ 피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8 #1 피밥은 좁쌀 달믄거.

107008 @ 아,

107008 #1 툵 좁쌀달마.

107008 @ 먹을만 해마씨?

107008 #1 아니, 히린 좁쌀마니 못해. 것도 모인거난 해썩해썩헐. 히린진 새카망허  
고 히린좁쌀은 참 맛있어. 겐디 이젠 그치룩 히린좁쌀이 어서. 모이어 쫌덜이. 찰찰  
흐리질 안해여.

107009 @ 감저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9 #1 감저 썰엿

107009 @ 맛중아?

107009 #1 거 죽지 아니민 살기지. 먹어야 살거니까.

107010 @ 무밥도 이수과?  
 107010 무밥도 행먹지. 무밥은 잘행먹어.  
 107011 @ ‘툇밥’은?  
 107011 #1 툇밥은 배랑은 안먹어봤져 우린.  
 107012 @ ‘패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 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 믰국, 콩나물국, 무국, 콩국, 호박잎국  
 107013 #2 그렇지.  
 107013 @ 뭐가 맛줍디가 삼촌? 삼촌은 콩국이 제일 맛좋아?  
 107013 #2 호박잎국도 좋주뒤.  
 107013 @ 삼촌은 혼자 끌렁 먹어집니까?  
 107013 #2 게니까 나가 끌리난 맛이 업데.  
 107013 @ 안해나니까예. 뭉국?  
 107013 #2 뭉국은 팬찬아.  
 107013 @ 옥돔국, 메역국, 성계국,  
 107013 #2 성계국이 최고주.  
 107013 @ 물회, 자리물회, 냉국  
 107013 #2 나가 자리를 많이 나짖어.  
 107013 @ 자리도 나릅니까? 지금도 나까마써?  
 107013 #2 아니 이젠 자리덜 안나와.  
 107013 @ 뭉국, 성계국, 너패국 가시리국  
 107014 @ 나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5 @ 콩나물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6 @ 뭇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7 @ 콩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8 @ 호박잎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8 #1 웬장 걸러놔그네 물을 끌여가민, 하영튼 식은 물에 노민 이 호박닙이 실강실강허여. 궤는 물에다가 놔야 문작허지. 경행으네 그 밀ㄴ루 타놔그네 그레 영 저시민 호박닙국돼지.  
 107019 @ 모자반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9 #1 뭉국은 저 웬장이 맛디서야 뭉국이 맛딛고 웬장이 좋지 았으민 맛이 으서.  
 107019 @ 그믐 뭉국은 혼번 끓여봤수과?  
 107019 #1 우리 죽짱 끌영 먹는 거, 나가 뭉은 바당에 짚은디배끼 안나. 건나가 짚은디 숨비니까 뭉 해당 혼 구덕에 얼마 해영 풀곡, 남제긴 저 서답줄에 몰렛당으네 빨앙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107019 @ 몰렛당 솜지 말앙 그냥 몰려?

107019 #1 아니, 그냥 바당에서 올려온냥 그냥 물려야 해여. 그 빨아불민 맛으서.

107019 @ 툇은 솥양 물리잖아예?

107019 #1 툇이야 거 물 끌어가는냥 솥아야지. 솥아그네 툇도이 파랑허게 텡젠허면은 물 팔팔 끓이는 물에 강 등강 금방 건지민 파랑허고, 파랑헌 게 질겨배민 그냥 냉물에다가 솥아가민 누렁해 색깔이, 그믄 부드럽고, 파랑헌 건 저 좀 찢겨. 찢겨. 누렁케 솥아야 막 부드럽지. 니존 사람은 파랑헌 거 먹고, 니어 신 사람은 누렁케 솥아야 먹어.

107019 @그렇구나. 몆국에 돼지고기 넣으면 접쩍뽀국이 됩니까?

107019 #1 그게 왜냐면 잔치허젠허면 막 돼지 큰 솥디 막 담아냥 막 솥아. 솥아나 민 지름 빠지잖아. 고기 다 건져똥 그것에 소금 놓고 몆 넣으네 팔려그네 잔치먹으레 온 사람 다 맥이고,

107019 @ 막 삶아난 물이지예?

107019 #1 고기 팔려난 물, 게난 그 고기에 지름이 다 빠지잔아 물에, 게난 몆국 끓이민 맛딛잔아.

107019 @ 몆국 끓이는 건 찰몆이파 무신 몆?

107019 #1 근몆도 잇고 바당몆도 잇고, 겐디 이제 오염돼부난 몆이 어서. 다 죽어불언, 바당몆은 눈작허고 근몆은 이파리가 부꾸레기도 크고, 바당몆이 맛딛지. 짬은 디 몆이,

107019 @ 바당몆이 더 맛좋아예. 거믄 몆국 끓일때도 바당몆을 해야 맛좋은거예. 썰영예?

107019 #1 썰지 안행 거 그게이 겨울 목영 새봄나야 그냥해서 다 이파리 떨어지지 그냥은 칼로 끓어야 해여. 빨앙,

107019 @ 언제 몆은 썰니까?

107019 #1 몆이 흔 음력으로이 삼월, 음력 삼월쭈 돼가민 바당몆이 솥아올라. 근몆은 뭐 그냥 음력동짓들에 캐고, 바당몆은 새에 새봄나야, 그디 가도 못허여. 추웁, 바당몆이 나는디는 멀영 짬어부니까,

107019 @ 영등들이 지나야,

107019 #1 음력3월 나야 브름이 넘어야 허여. 그런디 가젠허민, 근몆은 동짓들에 나는거니까 이제 몆덜 어서 다 죽어불언. 오염으로 몆 하나 토 어서. 다 죽어불언, 툇도 웃고, 오염으로,

107020 @생선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7021 @미역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2 @ 냉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7022 @ 냉국헐때는 집에 우영밭데 물웨 싱것수과? 물웨로 냉국 끌어먹지예?

107022 #1 무청도 먹고 베경 웅장에도 찍엉먹고, 옛날에 밧디 강 잇당 물웨 거주 베경 웅장에 밥에 찍엉먹고,

107022 @ 그걸 웬장에 풀엿 먹는거지예?

107022 #1 아니, 풀엿도 먹고 그냥도 먹고 베경으네,

107023 @ 성게국, 보말국, 뽕패국, 가시리국, 과래국, 물회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메역새국은?

107023 #1 메역새국 메역새 안 돌아?

107023 @ 메역국이 메역새 아니파?

107023 #1 아니야 메역새 뜨나고 메역 뜨나.

107023 @ 메역새국은 어떻 끓여마씨?

107023 #1 것도 뽕패국 끓이듯 끓이지 그게이 뽕패가 알아져?

107023 @ 해산물예, 해초?

107023 #1 이제 그 옛날은 식량이 어시니까 썰 메어다가 막 썰아. 돈물에 강, 그것ㄴ라 뭐엔허느니? 무웃, 무웃이엔 행 바당에 요만 동글똥글 것ㄴ라 무웃이 있어. 그거 주서당 시청으네 시청, 이제 그 소티 안낭 딸령. 저 큰 항아리에다가 솥 아찌듯 아찌, 항아리 배끼딜로 흑 잇잖아. 밥 아찔 때 흑을 밋밋 블라. 벌러지지 못허게, 경허영 걸로이 똥똥 주서당으네 걸로 뭇뭇 딸린다는게 그렇게 메칠 딸려야 해여. 경행 그것이 맛딛어. 게민 그 쫄 혼사발 아상강 무웃 바파당 먹잖아. 옛날은 설탕도 엇고 사탕도 엇고,

107023 @ 성게국 어떻 끓입니까??

107023 #1 성게국은이 저 조개다시다 놔야 끓여. 조개다시다 그것만 넣은 맛이어서. 조개다시다 행으네 막 끓여 다싯물 메리치다시물허듯 그렇게 끓여야 해여. 경안 허민 맛이 어서

107023 @ 조개에서 육수를 내왕 성게를 놓는게 낫겠다예

107023 #1 경허민 맛있고, 이 성게만 넣은 먹긴 먹어도 그췌룩 맛이 어서. 다시다 놔야,

107023 @ 성게는 주로 메역을 많이 놓지에 성게국 끓일때?

107023 #1 그렇지. 메역도 바당에서 늘메역말앙 저 그 육지서 온 메역, 육지 메역 그것이 맞디서.

107023 @ 제주도 것보다, 무산고예?

107023 #1 제주도 메역은이 좀 누릿허고 육지건 브들브들허잖아. 끓여도 브들브들 제주엿건이 빨리 딸려사, 색깔도 누렁허고 게난 육지메역이라사야해야 것도, 거 그때 분시물을 때 우리 이디 메역을 끌려난디 육지메역을 먹어가난 육지 메역이 더 좋더라고 끌령먹영 알아가니까 아 요디거시 더 맛이신 걸로구나.

107023 @ 육지 메역은 어떻 캡신고예 해녀덜도 어신디?

107023 #1 육지, 제주사람덜 강 허지.

107023 @ 우도 메역도 맛종텐 허멍헨게

107023 #1 어디? 우도메역이 물가니까 맞디실거야. 이 물 안가는 미역이 맨지락 허고, 물가는 바당은 감태ㄴ치 과들과들해.

107023 @ 물이 간다는 건 뭇파?  
 107023 #1 물이 썰어. 물가는바당, 물 안 가는 바당,  
 107023 @ 물이 썰 바당을 물가는바당!  
 107023 #1 응. 그런 디 메역이 맞디서. 물 가는 바당에,  
 107023 @ 보말국도 끓여 먹었지예무슨 보말이?  
 107023 #1 너무 먹으민 설새나  
 107023 @ 보말국? 수두리보말, 먹보말,어느 게 맛좋아마씨?  
 107023 #1 툇데기 보말, 돌보말도 있고,  
 107023 @ 돌보말은 안먹었지예?  
 107023 #1 돌보말은 먹으민 씨. 그게 돌 닭은 것이 돌보말, 다시마엔 허는가허고  
 땡꿍이 흥깁 땡지롱 해여. 요맨씩헌 땡꿍이,  
 107023 @ 아, 메홍이?  
 107023 #1 메홍인가? 여기서 땡꿍이엔 해여,  
 107023 @ 여긴 땡꿍이렌 해마씨?  
 107023 #1 말이 툇나. 저딴말허고 이딴말허고, 것ㄴ라 땡꿍이, 땡꿍이도 두  
 가지지. 바당에 땡꿍은 막 소라ㄴ찌 커.  
 107023 @ 프레국도 끓여먹었수과?  
 107023 #1 프레국은 찰프레국이주. 그냥 프레국은 못먹어. 찰프레이 여에 낭 줌진  
 줌진 헌진 그런 건 먹는다 그냥 프렌 못 먹어. 걸름허는 프레, 두가지라 프레도, 찰  
 프레가 있고, 그냥 프레 있고,  
 찰프레가 먹는거예.  
 107023 #1 응. 줌진줌진 헌거,  
 107023 @물회 어떻게 먹습니까? 물회? 무신물회? 냉국 아니민 자리물회?  
 107023 #1 아 물회도 여러 가지지. 자리물회가 있고 딱시 거ㄴ라 무신물회?  
 무상것도 이서?  
 107023 @ 해삼물회여, 소라물회여?  
 107023 #1 그거ㄴ라 켜자리엔 헐 상어 닭은거 켜켜헌 켜자리회, 그거는 그것이  
 더 맞아서. 켜자리회,  
 107023 @ 켜자리회, 자리물회 어떻게습니까? 신촌에도 자린 많이 나랏수과?  
 107023 #1 나지. 이젠 아니 헐, 걸이지 안헐, 자리 그냥 사시미ㄴ치 무청도 먹  
 고, 물냉도 먹고, 물 놀땡 저 식초놔야허여 비릿내 낭,  
 107023 @ 옛날 물이 썰녕해야 그거 허주?  
 107023 #1 그 물회도이 옛날은 바당물 질어와야 냉장고 어신때난 그 바당물 질어  
 당 금방 질어온 거난 시원해. 거 역불 강 떠온텐 허난, 물회 놓젠허민 시원허게,

## 죽류

107024 @ 죽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24 #1 여러 가지지. 콩죽, 팟죽, 녹디죽, 흰쌀로 곤죽, 믹멀죽, 다숫가지,  
 107025 @ 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곤죽은  
 107025 #1 흰죽도게 그냥 쌀 흐김 담갓다그네 그냥 냉물에 땀 썩가민  
 썩지주게.  
 107026 @ 조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죽도?  
 107026 #1 좁쌀죽? 좁쌀죽은 좀 물 끌여가야 되살거여. 건 너무  
 좁질아부난 밑에 눌러, 눌러, 대부분은 물 끌여와야 안눌어. 어떤 죽이던지,  
 107026 @ 조죽?  
 107026 #1 좁쌀죽, 좁쌀죽은 콩ㄱ루에 땀 썩는 거, 좁쌀죽도 있지. 좁쌀만 골양 환  
 자 맥여 그건, 좁쌀은, 모인 좁쌀, 거 딸령으네 물로 맥이잖아. 거 체에 바쳐가지고,  
 물로, 이제 그런 좁쌀 막 비싸  
 107026 @ 모인 좁쌀로예? 흐린 조죽이 아니고예?  
 107026 #1 희린 거 잇고, 모인 거 잇고,  
 107026 @ 곤죽보다 환자안테 곤죽 주로하는데 곤죽보다 더 좋아마씨?  
 107026 #1 그 비싼 모인 좁쌀죽인디게 그걸 맥어야 구미등경 밥 못  
 먹는 사람 밥을 땀긴다허여. 그 모인 좁쌀을 맥이민, 흰죽은이 심심허고 거 그 죽은  
 흐김 좀 베지근헌 맛이 잇어. 그 좁쌀죽, 뜯나 죽도, 뜯나,  
 107027 @ 팔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팟죽은 어떻?  
 107027 #1 팟죽? 팟을 막 삶아 방애에 막 땀사야허여 그냥 통차가  
 하지. 땀사가지고 이제 물 끌여가민 이제 쌀에 짓에 막 젓엉,  
 107027 @ 거른 곳, 소금 좀 넣고?  
 107027 #1 응, 소금은 다 땀사 놓고, 먹게 땀엉,  
 107028 @ 콩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8 #1 콩죽도 마찬가지로 경 안허민 눌엉 그끈내 나.  
 107028 @ 콩죽은 불렛당 ㄱ루로 갈아야지예 땀돌로, 아니민 삶양 이거 막  
 으깨 팔죽처럼?  
 107028 #1 콩ㄱ루 그거 말기는 디 콩을 무우젓당 땀사. 땀상 죽썩민이 원체  
 콩이 하부니까 맛 으서. ㄱ루로 썩야 해.  
 107028 @ 그믐 팟죽은 ㄱ루로 안썩는데 콩죽만 ㄱ루로 썩다예?  
 107028 #1 응. 콩이 흘거부니까 다 헤싸지지 안해. 팟은 다 헤싸지잖아. 콩은 절대  
 안헤싸져. 콩은 절대 삶아도 안 헤싸져. 그냥 오고생이 잇어. 팟은 삶아가민 다 헤  
 싸져.  
 107029 @ 메밀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믹멀죽도 뜯나고. 믹멀죽은 뭐 밥 아무것도 못먹는 사람 누릅지  
 못허는 사람이 모밀죽, 게난이 말이 잇잖아.“믹멀죽에 야게 걸려사 느 아피 주느  
 냐?” 경 곱아.  
 107029 @ 믹멀죽에 야게 걸려?

107029 #1 므멸죽에는 야게 안걸려, 죽는 사람이나 야게 걸리주. 게난 싸울 때 “야 므멸죽에 야게 안 걸렸다. 느까진 년안티 지나” 게난 한복희어멍광은 말을 당히지 못해. “어이구 둥글어온 돌이 박힌 돌 팡팡 차명” 겨난이 웨방서 둥그러 온 것이 이디 제자리에 사람을 발로 참젠, 게난 그런 것도 다 알아야해여. 이 말은 이다 배왕 나뉘야 허여. 어떤 말 나올 때 저건 무신 말인가 허여 말은 다 알아야 허여.

107029 @ 므멸죽은 또 므멸 그 거피헌 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뽕니까? 것도 뽕지 안해도 뽕어?

107029 #1 므멸ㄱ루는 그 방애간에 강 ㄱ루로 곶아당 영 밀영 므멸국수나 행 먹지. 환자덜은이 통채, 통채 죽썬, 통차허민 문작허여.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가. 게난 “므멸죽에 야게 안 걸렸다. 느까진 년안티 지나” 허여.

107029 @ 므멸죽은 어떤 때 주로 해 먹음니까?

107029 #1 므멸죽은이 환자덜 내립지 못허는 사람,

107029 @ 게도 옛날에 므멸이 비쌌수과? 막 싸지 안헤?

107029 #1 아니 그때는 하도 므멸덜 우뜨리서 허난 경 비싸지 안헤, 이제는 비쌀거여. 므멸가는 사람덜,

107029 @ 이제는 비싸예? 이만원에 한뼘에예?

107029 #1 이제 우뜨리 사람덜이 수박 놔난 그르에 므멸 갈아, 므멸은

107029 @ 거른 잘뽕마씨?

107029 #1 잘뽕때도 잇고 대풍 만나민 못허고,

107029 @ 겐 이번도 25만평 다 하나토 못 건졌덴, 꽃이 예쁘덴 막 찍으레 다니고,

107026 #1 못해여, 못해여, 그거이 꽃이 막 헤영케 피어도 대풍부렁 홀타불민 어서.

107029 @ 아예 못헤덴예

107029 #1 올해 므밀 어실거여. 한창 피어올 때 부비데껴불언,

107030 @ 녹두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녹두죽은 풋죽하고 똑같아마씨?

107030 #1 똑같이 쭈민뽕어.

107030 @ 녹두도 것도 삶앙 부벼?

107030 #1 삶앙으네 뽕사야지. 통째 해선 안뽕지. 것도이 삶앙으네 걸러야 먹기 좋아. 체로 바쳐야, 삶앙 체로 바쳐야, 껍데기 헤어뽕 녹디만, 사돈칩이 갈때는 그추룩허고, 이녁만 먹을때는 거평평 먹어. 사돈칩이 죽썬 갈때는 신경 막 썩,

무사 사돈칩이 녹두죽을 썩가마씨?

107030 #1 녹디도 풋죽,

107030 @ 언제?

107030 #1 그 이젠 안해도 옛날은 사돈 죽으민이, 쫄 한말에, 죽 혼 허벅

에, 경 썩 가.

107030 @ 죽 흔 허벅, 근디 거기에 풋죽도 돼고, 녹디죽도 돼어?

107030 #1 아니 녹디죽은 녹디죽만 썩고, 풋죽은 풋죽만 썩고,

107030 @ 계난 둘 중에 하나만 행 가도 돼어마씨? 보통은 풋죽 아니?

107030 #1 이 풋은이 영장나민이 방법으로 써. 이 무당덜 빌어당 풋, 집 안에선 거 방법이야. 거난 잡신 못부트게, 풋죽은 장난딘이 영장나민 찹찹허잖아. 계난 풋죽 썩는 거, 방법으로,

107030 @ 녹두는 언제?

107030 #1 녹두는 그렇게 영장난디 안 썩가. 풋죽 썩가, 방법으로

107031 @ 닭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독죽도 썰 먹어났지예?

107031 #1 독죽도 뭐 옛날엔 독 귀혈때는 이제 솥양으네 그 찹 지름 불르멍 그 제골을 빠. 식구한딘이 제골을 빵으네 그 물은 아방만 맥여, 밥 줍양 아방만 먹고, 또 독은 찢어낭 찹지름에 볶양 그냥 죽 썰 아이덜 다 맥여. 계난 진국은 아방이 다 먹었네.

107031 @ 그걸 솥은 물이 진국, 제골이엔헉니까?

107031 #1 제골 빠 것이 다

107031 @ 그 국물로 죽을 썩는게 아니고?

107031 #1 그 국물에 죽도 썩고 그냥 밥도 줍양 먹고 거 먹ㄴ정헌사름, 죽 싫어허는 사람은 밥 줍양 먹고, 여러 가지지.

107031 @ 그 제골 국물을 아방 낮당 준다고?

107031 #1 독이 어시난게, 계난 아방만 그거 낭 죽 끌영주고 애기덜은 독 그 제골 빠난 거난 베지근 안허여. 비살비살해여, 지름 다 빠부난 그거 찢어낭 찹지름 흐깁 낭 애기덜 주고, 거 췌 지실 짓을, 아방을 맥여야 돈 벌어올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보라. 아방이 먹여야 일도 허곡 아방이 약해영 누가 벌어다주곡, 어멍덜이 그렇게 신경 씨잖아.

107033 @ 꿩죽은?

107033 #1 꿩죽이 마시서. 독죽보다, 꿩이 좀 기름이 엇지 벨로, 독은 기름이 잇잖아. 계난 죽부터 틀려. 이상허여. 꿩죽 지름이 어시니까 코시룽헌 맛이 잇고, 독은이 능늑헌 기가 이서. 죽을 딱 먹어보민 알아.

107033 @ 깻이죽 같은 경우는 뽕상은에 헉니까?

107033 #1 응. 뽕사야지. 뽕상은에 물 어느정도 낭, 그 깻일 체로 바쳐야 바치지 았으민 못 먹어. 국물로 썩야 해.

107033 @ 체로 바쳐, 쫄 불렀당 거 낭, 끌이면돼마씨?

107033 #1 계난 쫄을 빨르면은 쫄이 쭈 무우젓당 해여. 그냥허민 몬딱 쫄이 부서 데겨져불어. 무우젓당 현 거는 쫄이 그냥 그대로 구짜 썩는데 그냥 언 물에 시치면은 그냥 쫄이 다 부서져. 체로 바쳐,

107033 @ 죽 쫄때는 무우젓당 허는구나

107033 #1 이녁 먹음이주게. 스레기ㄴ찌 먹ㄴ정 허민 먹고, 꾸썽 현냥 먹  
ㄴ정허민 꾸썽, 뜯나지 죽우는 것도.

107033 @ 것도 중요헌거로구나예,

107033 #1 죽도 아무나 못썩. 맛땃게 썩는 사람은 맛땃고, 물 넣으네 자꾸자꾸 노  
민 맛데가리 으서. 자기가 이쪽에 딱 맞게 썰이 얼마나 불어나민 얼마 헐꺼 그  
거 예산 안헐당은이 썰 하영 낱 막 이제 썩가민 막 돼민이 자꾸 물을 놔. 경허  
민 맛으서. 그 물이 막 끌여야지게. 죽에도 그렇게 해야 맛디서. 자꾸 물을 노민 죽  
이 따락따락해여.

107033 @ 삼촌은 죽도 잘 썩는구나. 여기 전복죽이 안나왔네. 전복죽이 제라헌 거  
아니?

107033 #1 아이구 전복죽은 아무나 못 먹나, 이신사람이나,

107033 @ 요즘 양식나오난예. 똥이 안좋은거주게. 양식것이 자연산이 좋은거주게.  
불로초렌 허난,

107033 #1 자연산은 왓다지게. 자연산은이 회영땡기땡 뜯어먹은 거 허고, 안에서  
양식 헌거 하고 막 부드러운, 양식 건, 바당에 건 질겨. 지 멋대로, 힘이 썩지게, 막  
먹고 돌아땡기난 질긴 예를들영 말을 해봐라.

107033 @ 예를 들영 끌여가민 놓니까? 전복똥을 춘물에 놔?

107033 #1 이 답답아 썰을 씨서, 찢차 썰을 씨서소띠 딱 놔. 전복허고 썰허고 게민  
게웃은 냉중에 썩여가사, 헤뜨러지민 죽이 검어불어. 그니까 찹지름에 그것에 달달  
달달 볶아낱 물 넣 썩민 맛땃고 그냥허민 맛으서. 것도 다 이서.

107033 @ 켜 찹지름에 볶양 썩당 끌여가면 게웃은 놔? 걸 으깬 거를 게웃도?

107033 #1 게웃을 이겨야허지 경안허민 검어. 그냥 맹물에 타민 게웃이 까지민 똥  
이 검잖아. 그냥 죽이 검어.

107033 @ 익어야 웬다는 말은?

107033 #1 게웃을 끝이는 물에 놔야 토실토실 익어불잖아. 경해야 회지. 그 게웃  
썩면이 카저불민 검어, 죽이 검어..

107033 @ 꺼멍해져야 그축해야 맛싯텐 허는 사람잇지예?

107033 #1 사람에 매지. 검은 거 찹찹허텐 헌 사람, 깔금 헌 사람, 역불 똥 카근에  
허는 사람이 이서. 에이 안돼여.

107033 @ 그추룩 해야 진짜렌,

107033 #1 진짠 똥놈의 진짜야? 죽이야 나,

107033 @ 보말도 그렇고?

107033 #1 보말은 그냥 썩. 보말도 시커멓게 허젠허민이 방애에 뽕사사허고, 그  
냥 오실오실 썰 사람은 그냥 썩고, 자기 먹고 싶은냥 썩민돼여.

107033 @ 맛이 문제주게, 맛이?

107033 #1 보말죽은이 기름기가 하부난 설사 나. 전복허고는 틀려.

107033 @강이도 그렇고?

107033 #1 강이도 설사허고,  
 107033 @ 보말도 좋은 보말이 잇잔  
 107033 #1 보말도 여러 가지라. 딱시 무싱거 코토테기 잇고, 먹보말 잇고  
 107033 @ 수두리?  
 107033 #1 수두리 잇고,  
 107033 @ 수두리가 뽕쪽헌거파?  
 107033 #1 수두리 잘 안 삶으민 똥 다 끈어져. 먹보말은 잘 내지는데, 수두린  
 잘 안 삶으민 그냥 똥부터 끈어져.  
 107033 @ 수두리는 저 무슨 보말이지예 뽕쪽헌 거?  
 107033 #1 어, 이 먹보말은 둥글렛허고 수두린 꼬작헌 거 거 똥 잘 끈어져.  
 107033 @ 큰 건 엄청크지예?  
 107033 #1 게. 수두리도 거 바당수두리는 크고, 굿수두린 경 흔어서,  
 107033 @ 바당수두리가 크구나예?  
 107033 #1 어 막 커. 소충각마니 커.  
 107033 @ 물꾸럭죽은 해 먹어나지 안했수과?  
 107033 #1 문어, 아이구 거 맞아서.  
 107033 @ 여기는 문어를 뭇게렌 험니까?  
 107033 #1 뭇게, 저 서촌은 미꾸럭인가, 매꾸럭인가? 여기는 문어옴 허매. 문어ㄱ  
 라 문어, 사투린 뭇게,  
 107033 @ 삼촌, 뭇게도 잘 잡앗수과?  
 107033 #1 아이고 영허난 췌지서점신가원? 뭇게도 잘 잡고 전복도 잘 잡고,  
 107033 @ 뭇게는 또 막 측수가 코막아분덴 행 조심험니까, 뭇게망사리가 잇수과?  
 107033 #1 뭇게가 고망에 허는 건 안 나오젠허민 막 갈코리로 상통이도 끈영나오  
 고 발도 끈영나와 젠디 배깃디 아징건 팍 심지. 이깃지 막 올라와. 잘못허당 막  
 대맹이우티ㄱ지 올라가 그 문어가. 거난 체얌부터 이빨이신 사람은 눈양생일 씹  
 어불어. 게사 죽주, 경안허민 막 이깃지 올라와  
 107033 @ 아예 눈을 까치러불어?  
 107033 #1 눈양생일 이빨로 끈어불어, 잘못허당 이 코 망더레 들어가고 문어,  
 107033 @ 이빨로 양 끈어불어 아이고야?  
 107033 #1 눈생인 놀로 먹어, 죽어 문어가, 경안허민 고쟁이 해당 췌어. 췌영  
 드리치민 막 살젠 우트레 막 올라와. 아이고 나도 막 뭇게 막 하영 잡으멍 전복이  
 고 문어고 막 혈때는 오죽했나,  
 107033 @ 젠 그 뭇게도 다 풀고  
 107033 #1 폼도하고 똥 험도 허고,  
 107033 @ 그걸 어떻 행 먹음니까? 삶앙 저 똥장에 찍영먹고,  
 107033 #1 삶앙게 초장해영 먹고, 죽도 췌 먹고  
 107033 @ 죽을 어떻 씹니까?

107033 #1 문얼이 바다에 강 그걸 니빨, 눈 다 빠똥, 니빨도 이서. 막 돌에 밀려가  
민 비누게꿈ㄴ찌 막 나와. 그거 막 밀어부러똥 짹짹, 경허민 문어가 맛있고 경안  
허민 맛이어서 짜라짜락,

107033 @ 아아 잘 씨서야돼는구나

107033 #1 잘 해영 돌로 ㅁ사야 북삭북삭 그냥 안허민 따락따락 아이고 몽게도  
못허는 사람은 맛으서

107033 @ 솥을때는 팬찬은데 죽 쓸때는 막 ㅁ사야 돼는구나.

107033 #1 그렇지. 솥을때는 그냥 먹만 떼똥 솥지. 그냥 죽을 쑤젠허민  
경 행 안똥. 막 바다에 강 밀어야 그 게꿈을 막 짜부러야, 짜 똥이, 돌로 막 ㅁ사.  
ㅁ상 죽쭈민 북삭북삭허고 그냥 따락따락 질겨. 아이고 거 문어도 아무나 못쥬.  
죽도. 우리는 죽이엔 현 건 다 잘 쥬.

107033 @ 오분재기 죽은 뭐가 달라마씨?

107033 #1 전복이 마싯지. 오분자긴 따락따락해여. 전복은 문작허고

107033 @ 오분재기허고 똑같이 생긴거 닳은디 색깔도 틀립니까?

107033 #1 색깔도 뜯리고. 죽맛도 뜯려. 전복죽이 맛종주.

107033 @ 크질 안헉니까? 오분재기

107033 #1 오분자긴 ㄴ냥에서만 사는 거난 크냐. 그냥 ㄴ디, 오분재긴 어서.  
배졌딘, ㄴ디배끼,

###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4 #1 모멸범벅이 초기고지. 대죽범벅도 있고, 대죽 싱그민 열매가 실락실락  
허여.

107034 @ 대죽범벅? 맛종아마씨?

107034 #1 응 맛종아. 겐디 ㅁ멸범벅마니 못허여. 줌 가칠까칠해여,

107034 @ 색깔이 붉어마씨?

107034 #1 빨경허여.

107034 @ 뭐에 섞으네 범벅헉니까? 고구마도 넣고?

107034 #1 고구마도 넣고

107034 @ 제주사람덜 대죽범벅도 잘 먹엇고, 속범벅?

107034 #1 속범벅이 어딴나 속범벅 행 물 잘잘낭 먹어지나 속털털이 행 먹주. 속  
범벅 행 물 질질낭 먹어지느냐게. 버무령 치는 건 속털털이,

107034 @ 속털털이, 는쟁이범벅은

107034 #1 는쟁이범벅은 중간에 꺼보고 시커멍해여 그놈이, 챗꺼는 희영 맛뎁는디  
말제가민 는쟁이범벅은이 모멸 거피해영 챗것이 시커멍해여

107034 @ 어시난 는쟁이

107034 #1 는쟁이도 맛있어 시커멍해도, 는쟁이가 검어,

107034 @ 검어예, 감재범벅은 감재만 낱 범벅입니까?  
 107034 #1 아니야 보리ㄱ루 곶아당  
 107034 @ 보리범벅도 많이 행 먹었구나?  
 응. 범벅도 아무나 못해여. 딱 물 맞게 해사 맛딛지, 죽ㄱ찌 썬도 안돼고 설게 해  
 도 안돼여, 딱 물 맞아야 허여.  
 107034 @ 삼춘 것도 잘해마씨?  
 107034 #1 그렇지. 물을 딱 노민 이 ㄱ루가 이길까 아닌가 벌써 짐작이 나오지.  
 분취모른 사람덜 물 쳐 낱 혼작허영,  
 107034 @ 고구마가 좀 삶앙 놔둬야 할건가?  
 107034 #1 고구마 썰어가지고 겹적 베껴가지고 몽탁몽탁 썰영 거민 그놈을 물에  
 삶아. 겹 영 하시작으로 영영 췌밀아보민 삶아져  
 107034 @ 썰영  
 107034 #1 썰어야지. 통차로 해지나게. . 경헨 그거 이제 그 ㄱ루 우에 낱으네  
 징을 올려. 떡치듯, 그냥 섞으지 말고, 징을 지어낱으네 익은 거 닥으민 불 확 걷영  
 으네 막 짓어. 경 행 범벅돼는 거.  
 107034 @ 툷범벅은?  
 107034 #1 우리 안행 먹어봐.  
 107035 @ 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5 #1 손으로 툷아논거 즈베기 문작허는데 그걸허민 그냥 물앙허  
 민 따락따락해영 맛으서  
 107035 @ 무사 물앙 그냥 영영영  
 107035 #1 분취 므른 사람은 물앙 트다놔, 맛이 뜰러부러.  
 107035 @ 반죽이 중요하다는데말이지예, 뜨거운 물에 험니까?  
 107035 #1 뜨뜻헌 물에 허민 더 좋주마는 우린 냉수에 해여.  
 107035 @ 즈베기 이렇게 트다놓는 거 아니? 끈어 놓는 거 아니?  
 107035 #1 그건 저 우리는 이 모멸ㄱ루 흥깁허민 이거 수제로 탁탁, 그  
 너미 캥캥허게 물민 맛엇고, 혼닥허게 물앙 딱딱, 경해야지 캥캥허민 못 먹  
 어. 웨게 물앙,  
 107035 @ 그 국물은 무신국물로?  
 107035 #1 무신국물허여 그냥 허주.  
 107035 @ 썩허고 어울린다고 험디다마는?  
 107035 #1 므멸ㄱ루? 썩허고 므멸은 두가시주. 두가시라.  
 107036 @ 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6 # 1 또 모멸ㄱ루 칼국수, 썩노민 왓다고, 썩이 어딛냐, 그냥허주  
 107036 @ 그냥 물에다가, 칼국수는?  
 107036 # 1 칼로 써는 것ㄱ라 칼국수,  
 107036 @ 메밀가루 사당 해수과?

107036 # 1 모멸ㄴ루 사당허주

107036 @ 어떤 날에 먹었수과?

107036 # 1 이녀 먹ㄴ정 현 날게,

107036 @ 그른 아이덜이 좋아합니까?

107036 # 1 밀ㄴ룬 회양허니까 국수해도 건 먹는디 ㅁ멸ㄴ룬 맛좋은 거라도 겔덴 안먹어.

### 김치

107037 @ 김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107037 #1 배추김치, 무수김치, 츠마기김치, 갯ㄴ라 갯ㄴ멸김치,

107040 @ 물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0 #1 물김치는 그 즈질즈질 납질납질 썰어. 그거 왜냐믄 소금을 ㅁ녀 허민 안돼어. 거 허민이 그냥 북베기에 하여야 무수가 수웍수웍하고 다 우궂 트지 절엇다 허민 다 골라아자부러 무수는 그렇게 하여. 게난 우린 요래도 해보고 경험자니까 저래도 해보고,

107041 @ ‘동지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1 #1 동지김치허주게, 동지김친 봄에, 동지 살 때 그거 맞디서. ㄴ멸 배추 싱경 늑어가민 꾀피잖아. 그른 그거 똑똑 끈어근에 동지김치헤여.,

107042 @ 무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2 #1 나박김친엔 현 것도 이만큼 썰어놔 거 맞디서. 그거 김치허믄이 수왕수왕 이빨 졸 때 나박김치 얼마나 맛좋아, 우린 이 손더명만씩 김치를 허여. 것도이, 봄에 먹을 거 ㅁ로, 겨울에 먹을 거 ㅁ로,

### 젓갈

107049 @ 자리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9 #2 벨 내딘가 어디 끈으민 안돼어. 소금을 잘해야돼어 짜듯허게,

### 장아찌와 회

107055 @ 마농장아찌허고

107055 #1 무수 들른, 갯ㄴ라 썰기리,

107055 @ 썰기리도 짱아찌 헛수과?

107055 #1 그것도 썩영 허여.

107055 @ 썩영

107055 #1 콤데사니 마늘 잇잖아. 갯ㄴ라 콤데사니엔 허여, 콤데사니에 그 무 들른거에 썩어으네 지 답아.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6 #1 여기 우리 둥그는 간장 잇잖아 그걸로 둥그지.



107056 @ 어떻? 마농지는 마늘쫑 육지말로는 마늘쫑?

107056 #1 마농쫑은 우로 뽑은 거, 거 씨 나오는거 것갸라 쫑이엔 허고, 그냥 썰  
영으네 이제 지시 담그는 거 콤데사니, 사투리론 콤데사니지. 그냥은 마농지렌 허고

107056 @ 제주도 마농지는 줄기를 연헐 때 대, 마농대를 썰영 험니까.

107056 #1 그거는 쫑, 뽕앙 허는거고. 그 쫑 나기 전에 건 세영 못 먹어, 쫑나민.  
새기전에 매어야 지가 지시가 돼지. 질경 못 먹어.

107056 @ 마농지는 어떻 담금니까?

107056 #1 간장.

107056 @ 간장 끓영?

107056 #1 아니, 거 끓여가민 짜. 그놈이게. 게난 끓이면은 저 곰상안피고 그냥허  
민 좀 시끔시끔해영 곰상 피어. 간장을 끓영 봐야허여.

107056 @ 곰팡이를 곰생이렌 험니까?

107056 #1 곰팡이갸라 곰생이. 사투리로. 곰생이 핀다.

107056 @ 게른 아까 마농지로 넘어강, 마농지 만드는 법, 썰영, 멧월달에 그거 연  
헐 때 케영,

107056 #1 연헐 때가 그때가 음력으로 삼월초에 답아야해여. 삼월 넘어가든 대가  
사가지고 삼월초에 음력으로, 이월들엔 너무 연허고 아맹해도 삼월들이 나  
야 그놈이거,

107056 @ 썰영 그냥 간장만 넣으면 돼마씨?

107056 #1 응, 간장짜그네 해당 좀 시끔지다 허면은 건져그네 물 빠지왕 또 끓여  
야 허여.

107056 @ 식초 안 놓고

107056 #1 식초 안짜. 우린 식초 안짜반. 식촌 경안해도 시끔시끔허는디. 그거 해  
영 끓여그네 물 드큰 빠지왕 이제 끓인 걸 끓인 물 식형으네 노면은 맛 이서. 찹찹  
헌게, 곰상도 안 피고, 그거 끓여부니까 거 굳이 문 죽엇네. 경안허민 막 곰상  
피어부러.

107056 @ 조선간장 말고 샘표간장 그린걸로 헛수과?

107056 #1 아니 우린 그냥 간장. 우리 담은걸로 허고 저런 사당 안해여. 우리 옛  
날 어른덜은 이녁크로 헌 것만.

107057 @ 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새끼회, 자리회, 방어회 등)

107057 #1 회? 바당에것만? 뭐 회 뭐 자리회도 잇고, 또시 상어회도 잇고, 가오리  
회도 잇고, 홍애라 한 회도 잇고,

107057 @ 홍어는

107057 #1 홍애는 이 가오리 닮아도 뜯나.

107057 @ 어, 제주도도 이서마씨?

107057 #1 거 호끔허민 육헐 때 이 홍애쫑 갸든 놈의 새끼

107057 @ 건 무슨 뜻이과?

107057 #1 홍애가 좇이 이상허는 생이라. 꼬치가.

107057 @ 뽕뽕수과? 이상헝디가?

107057 #1 홍애?

107057 @ 홍어는 잡안 직접 뽕뽕수과? 그런거?

107057 #1 홍어. 우리 골갱이로, 고만이 잇더라 그놈의 게. 난 무신 연중 아니까  
거 썬보난 홍어더라고, 또 가오리 가시 착착 허민 옷도 다 찢어져. 그것도

107057 @ 맛종아?

107057 #1 몰라 난 아니고 아방 먹어났져. 난 안먹어. 아방 사시미로 먹데.

107057 @ 홍어?

107057 #1 홍어도 허고 또 가오리, 가오리가 물에 들언에 여ᄃ치 시커멍 흐니까  
그거 이제 가오린증을 몰랐어. 골갱이로 탁 눈을 썬난 그냥 착착 그놈의 게 이만이  
현 썬지에 칼 달몬거 과작 잇데. 그걸로 사름 친텐. 난 분시도 몰르고, 경헝에 아이  
구 야 느 소망일었져, 완전 슬 끈영 나간텐 그거. 착 착 혈 때. 게난 나가 그거에  
경헝 중도 몰르고 무착대고 무식허게 시리 그걸 이제 골갱이로 해단 망아리, 망아  
리에 간 짝 찢르난 골갱이 빼젠 이레착 저레착 이레착 혼동안 허단 죽데. 또 혼번  
은 뭐냐 그것이

107057 @ 삼촌 안먹고 거의 그걸 아저씨가 회 행 먹었다고예?

107057 #1 사시미 행 먹데.

107057 @ 삼촌은 사시미 안먹어마씨?

107057 #1 아니, 난 먹구정 안해여. 켜 지냥으로 행 먹고 또 아방냥으로 빼데긴  
난에 매운탕 행 먹고. 나는 안헝지. 지냥으로 다헝. 난 해당만 썬 내부니까 안해.

107057 @ 삼촌도 자리물회 이런 건 잘 드시지예?

107057 #1 그래 그거 막. 회중엔 질 자리회가 좋지, 씨원헝도 허곡. 회 중엔 자리  
회가 최고야.

107057 @ 옥돔이나 우럭이나 이런 건 회 안헝먹고?

107057 #1 사시미

107057 @ 사시미로? 다 해먹어마씨?

107057 #1 이 자리회가 물회로 들어가지. 다른 건 물회 허민 좀 찢찢허여. 자리는  
맛잇고.

107057 @ 요즘은 객주리로 사시미

107057 #1 객주리도 사시미.

107057 @ 어랭이로 물회행 먹고.

107057 #1 어랭이는 사시미로 들어갈건디, 늘내 재왕. 그거 물회는 자리회나배끼  
다른 건 다 좀 늘내날 것이여. 난 먹어보지 안헝주마는. 자리회는 맛잇더라 물회로.  
회도 여러 가지라 돗새끼회도 잇고.

107057 @ 돗새끼회를 새끼회랜 허지예?

107057 #1 돗 새끼 뱀 걸 잡아불지 안허나. 잡으른 거 새끼가 있어.

107057 @ 붓차.

107057 #1 붓차. 그거 해다그네이, 것이 영양까지 잇인거옐. 거 딱딱 행간 나도 아방 혼 번 맥이난 거 붓속은 피더라 피. 시빨건 물이 막, 그거 빠물든 맛 엇넨. 걸 빠네 이젠 비와된에 막 칼로 뺌산. 뺌산 소곱에 똑 종이새끼만이 허더라 그게. 그거 해연에 이제 것이 소곱에 가민 씨원헌덴. 난 안먹어뵤. 난 피 별정해부난. 게난 아방이 후룩후룩 먹데. 거 나도 췌 짓어지카부텐 이, 영 죽아먹엇지. 자기 구진거 늠 맥이민 췌받아지카부텐 영헐, 먹구정안해도 이제 췌받아지카부텐게.

107057 @ 안먹은거짜, 구미에 안맞는거주.

107057 #1 구진거 늠맥이든 췌받잔아.

107057 @ 구진건 아니지.

107057 #1 이녁이 곳언 아니먹는건디.

107058 @ 계절에 따른 반찬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7058 #1 우럭허고 불락허고 거 최고 맛있인거라. 거 지지민.

107058 @ 우럭하고 불락하고 뭐가 달라마췌?

107058 #1 우럭은 슬치만헌 가시가 어욱허고 불락은 이 노리롱해서 가시가 영 맨 짹해여. 뜯나.

107058 @ 머리가 큰 건 우럭이지예?

107058 #1 응 앙 현거.

107058 @ 빨건 색깔도 잇고?

107058 #1 빨건 색에 또 검은 색깔도 잇고게. 그 검은 것이 맛있어.

107058 @ 눈도 크고.

107058 #1 응. 검은 늠이 맛이 잇넨, 쿠신텐 허메, 빨근거보다. 바당우럭 아냐게 빨경헌 거는. 곳디건 꺼멍허잔아. 게난 곳디젓이 알아췌. 바당꺼는 맛이 없어. 곳디젓이. 다 여러 가지.

107058 @ 삼촌 콩냥 지저먹습니까?

107058 #1 콩. 콩에 췌예.

107058 @ 췌도?

107058 #1 어, 경행 서꺼그네.

107058 @ 무같은 건 안놓고?

107058 #1 건 고등에주, 불락허고 우럭은 이 콩냥 지저야 맛있어.

107058 @ 건 언제 많이 납니까?

107058 #1 아, 이제덜 잇지. 시장에.

107058 @ 아니 봄여름가을겨울 중에 바당에, 아무 때나?

107058 #1 아무 때라도 배에덜 거려오잔아게.

107058 @ 우럭은 아무 때나 나는거로구나?

107058 #1 불락도 마찬가지로. 불락은 바당불락. 곳불락이 아니고.

107058 @ 곳불락이 아니?

107058 #1 궂디서 배 강 영 나끄는거허고, 배끼디강 주낫 놓는 것이 뜰리지. 영 나쁜 것이 알아줘. 비싸.

107058 @ 비싸, 맛도 좋고?

107058 #1 응, 그 무시거 바당에강 그물 놔그네 헌건 싸. 나쁜 것이 비싸주. 나끄는 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끄난.

107058 @ 물외를 옛날엔 노각이랜도 했수과?

107058 #1 노각? 우린 몰라 노각이엔 헌건 들어본 도래 엇어. 물웨엔만 허지.

107058 @ 그 물웨는 웬장에 찍어먹고,

107058 #1 물웨는 웬장에 찍어먹으는건 춤웨마랑 물웨가 또 잇어. 그거그거. 거냉국도 해먹곡, 찍영도 먹고.

107058 @ 근데 오이는 안심고 그거 제주도는 많이 싱것드라예?

107058 #1 응, 물웨가 맛있어. 오이보단.

107058 @ 게메.

107058 #1 근디 오이는 툇툇허곡이, 물웨는 물랑물랑 허잔아. 이 술이 연드러와. 오이 씹어보고 물웨 씹어봐도 뜰나. 물웨는 이 좀 부드럽고 오이는 쫄 찢깃찢깃한 맛이 잇어. 뜰나.

107058 @ 고사리는 꼭 제사상에 올리란 말이 무산고예?

107058 #1 그거는 옛날에 비니루도 엇고, 종이도 엇고 경헌디 이 고사리가 이제 크면은 꼭 벌겨지지 안허나. 게난 그 고사리에 쌍 간단다. 초상들이. 이제는 비니루다 잇주마는 그때는 그 고사리가 포따리.

107058 @ 계란 해야 돼는거 아니? 계란에 고사리.

107058 #1 그거는 연헌때 허고, 고사리 쌍가는 거는 좀 세여야. 고사리 연헌 걸로 싸지나? 좀 세여야 싸지.

107058 @ 제사때 말하는거지예?

107058 #1 아 그냥도 해당 먹어. 그냥도 거꺼당 먹어.

107058 @ 제사뎌 그거를 꼭 조상안티 올린덴 험디다.

107058 #1 응 그거허고 콩누물.

107058 @ 콩주름이엔도 해수과?

107058 #1 콩주름이엔 건 사투리. 이제사 콩누물이엔 허주. 옛날 할망덜은 콩주름 콩주름.

107058 @ 그거는 제사멧질 말고도 잘 행 먹어수과?

107058 #1 아니 해영 먹는 사름덜은 행 먹주. 겐디 이제 콩이 귀해노난 제스때만 헐거라.

107058 @ 아, 콩이 귀해.

107058 #1 콩이 부제덜배끼 안갈지. 밧 없는 사름은 콩 못굴지.

107058 @ 웬장 해먹젠 허른 무조건.

107058 #1 경허니까. 웬장 담아먹지 그거 콩 노아그네 이넉쿠로 콩을 키웁잔아.

사지 안해여. 이녀쿠로 콩늬물 놓아그네 제스때 씨지. 어신 사람도. 이젠 콩늬물이 막 돈만 주민 산디 그때는 이 돈줘도 못사 콩늬물. 경한 다 자기 스스로 놔그네. 녹디늬물도 있고. 응. 녹디로도 허민 채소 맛있어. 부드러와.

107058 @ 그 알맹이땀 탕글탕글허는데.

107058 #1 녹디?

107058 @ 예.

107058 #1 그게 짹 올라와야 거평이 뱃겨지지 어린땀 안뱃겨져. 것이 세여야. 경 안허민 그놈의 거 이 딱 물어그네 뱃지도 아녀, 어린때는. 그 호꿈 세여야 다 벗어 지주.

###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장은 선들 그믐날.

107059 @ 선들 그믐날 딱 날 정해져수과?

107059 #1 그럼.

107059 @ 날 뽕 헌댄도 헐게.

107059 #1 경허난 선들 그믐날. 선들그믐날은

107059 @ 음력 삼월 마지막날?

107059 #1 음력으로 십이월 이 삼십날이 선들그믐날이엔 해여.

107059 @ 아, 무산고예?

107059 #1 그것이 이, 선들 그믐날, 새해는 소금을 못 아저댕겨.

107059 @ 무산고예?

107059 #1 거 묵은해엿 소금을 아저댕기는 떡분에 다 묵은해에 아저댕기주 새해 나민 이 소금 아니아저댕겨.

107059 @ 아,

107059 #1 새각씨 들어올 때 소금 뿌리잔아. 나갈때나. 거 방법 아냐. 소금ㄴ찌 잘 잘 녹으랜.

107059 @ 아

107059 #1 방법이야, 거 소금 씨는 것도.

107059 @ 잘잘 녹으민 뭐가 좋아마씨? 새각씨가.

107059 #1 그 새각씨가 친정에 오지 못허게 방법으로. 옛날에 친정 오는 거 막 나쁜 년이로 허잔아. 씨집이 부모네 보내믄 꼭 거기 살아야 허여. 암만 살기 실퍼도.

107059 @ 그문 친정에서 나갈 때 소금 뿌려.

107059 #1 어, 친정어명이. 이룬디 영 나와가민 옛날에 가마 타잔아. 가마 타자마자 친정어명 소금 짹짹 뿌려. 어명이 강 뿌려.

107059 @ 삼촌은 경 안헐겿다예. 친정에 왕 사니까.

107059 #1 우리는 신식으로 헐지.

107059 @ 아, 맞아.

107059 #1 멘사포 씨고 걸어그네.

107059 @ 옛날에 이런거 풍습을 봐놔구나 삼촌은.

107059 #1 그렇지. 우리 어린때 보면 막 가마덜 씨고 허더라.

107059 @ 풋이나 콩이 아니고 소금을 뿌리는구나.

107059 #1 소금 뿌리더라.

107059 @ 어어!

107059 #1 풋 소금은 이, 사람이 아프면 이 무당 빌어당 뭐 허잔아. 그거는 방법으로 뿌리는 거. 소금허고 풋허고 고춧가리허고 세가지.

107059 @ 방법으로 예.

107059 #1 방법으로 뿌리는 거.

107061 @ 장 담그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7061 #1 무시거 콩 슬망 툇왓당 물리와그네 선들그믐날에 깨끗이 시쳐그네 어둑어사 해지기전이 문딱 준비햇당 어둑어사 드리쳐. 밤에.

107061 @ 무사지?

107061 #1 나가 아냐? 경허드라고. 꼭 밤에 드리쳐. 게난 뒷날은 정월 초하를날 아니냐. 게난 정월 허기 전이 그냥 담가버리는거라. 선들 그믐날.

107061 @ 항아리에 담아부러?

107061 #1 근물 행 낫다가 거 시쳐 그냥 그믐날에 시쳐그네 물빠정 그냥 어둑어가든 디리쳐부러.

107061 @ 거난 그 선들 그믐날 전에 메주를 쑤고 말령 다 시쳐 이섯구나예.

107061 #1 그렇지. 음력 동짓들 나민 막 슬마그네 툇와. 걸언 놔두민 터. 겨민 그거 이제 내려와그네 산디찍 전부 앓아뒀 물에 막 시쳐. 솔로 깨끗이 시쳐그네 근물 부떠 해놔.

107061 @ 근물이 뭐파?

107061 #1 소금.

107061 @ 아, 소금간.

107061 #1 소금이 그거 왜냐허면은 혼 일주일 든든이 그놈의거 소금을 혼 열흘도 뒀여. 해여그네 근물 곶양 놔두민 해영헌 물이 나와. 밑에는 시커멓허고, 그 아쟁이. 그니까 그 해영헌 물.

107061 @ 소금을 캥 놔둔덴 말이지예?

107061 #1 그렇지.

107061 @ 그거는 메칠 전? 선달그믐 혼

107061 #1 선들그믐 허지말고 동짓들에부떠 그 근물을 곶아 놔. 아주 깨끗이 곶아 앓지게.

107061 @ 경행 그 소금을 다 녹으라는 말로?

107061 #1 아니 그 녹으면은 물이 다 아래 곶른거 시커멓해여. 소금이. 경허난 우

에 혜영헌 물만 뜯봐놓는거.

107061 @ 뜯봐놔당 메주를 드리치는게 선들그몐이다?

107061 #1 응. 다 준비했당.

107061 @ 쟁 거 띄왕 낫당 이제 정월달에 댜면.

107061 #1 정월달까지 가나게. 정월달엔 소금 아니아져댕기지.

107061 @ 아니 다끝난 다음 메주하고 간장을 어떻게 분리시켜마씨?

107061 #1 아, 거 익어야지게.

107061 @ 익는게 어느 정도 걸려마씨?

107061 #1 선들그몐날 담으면은 음력 삼월 이, 삼월 넘어그네 혼 스월달 가까와가  
른 거려부러. 경 익어야 맛딛지 익기전이 허민 장이 따락따락허여. 익으민 문작허  
고.

107061 @ 걸 뭘로 거려마씨? 간장 된장으로 분리를 시켜야 뵈거아니?

107061 #1 아, 것도 못허나?

107061 @ 안해보니까.

107061 #1 메주를 다라 잇잖아, 다라에 오긔오긔 건져놔.

107061 @ 오긔오긔 막 뭉그러지지 안해?

107061 #1 그것이 그냥 이서. 경허곡 잘못허당 막 헤싸져.

107061 @ 헛사져불카부텐.

107061 #1 게난 헤싸지게 말앙 멍심행 거려야 해.

107061 @ 3월달에나. 중간에 거털 때다 느낌이 옵니까?

107061 #1 거 이녁 장 돕은 날 수정 세보른 알지

107061 @ 거의 한 3개월?

107061 #1 응 3개월

107061 @ 100일정도

107061 #1 그몐날 담으민 정월 이월 삼월, 혼 녁들뵈가민 거려야 허여.

107061 @ 그것만 향아리에 담을거파?

107061 #1 년 춤 일본놈 말깃간에 아오바가여. 그거이 둥둥떠. 경허민 영 건져냉  
다라더레 놓곡 또 영 건정 다라더레 다 놔. 다 놔 이젠 간장 놀거 아냐? 간장은 또  
똥 향에 놔야해

107061 @ 그니까. 걸려야 뵈지 안해?

107061 #1 체, 체로 바쳐야. 문딱 건져노른 국물만 남을 거 아냐? 게른 체로 이제  
그로 걸여 놔야 허여. 체 우의껌 뵈장더레 ㄴ찌 뵈 꺾어불곡. 소금 노명 꺾어야 허.

107061 @ 뵈다는 건?

107061 #1 막 띄 몰 듯. 경허여야 문작허지, 그게.

107061 @ 또 손으로 해야 뵈다는 거구나.

107061 #1 그렇지. 힘들어 그거. 막 문작허게 뵈야, 소금 노명.

107061 @ 소금은 짜게 먹을려고?

107061 #1 눈으로 보민 이정도민 짤거라, 이정도민 싱거울거라 눈으로 보민 알아.

107061 @ 맛도 영 보면.

107061 #1 싱거우민 ㄴ려볼어.

107061 @ 아, 경허난 소금을 놓아?

107061 #1 소금을 노명 꺾여. 꺾여볼민 장이 민작허여. 게민 항굽더레 소금 허꺼  
 낱 웬장을 놓아. 웬장을 노민 새새더레 소금을 허꺼.

107061 @ 사이사이에?

107061 #1 허꺼놓곡 또 우에 다 노면은 손으로 꼭꼭 누르떠노민 곱닥허잔아. 그레  
 는 이제 소금을 끌어야 허. 소금 끌지 안허민 쉬프리 땡겨그네 벌거지 꺾. 그거 해  
 여도 기지로 잘 싸사 허여. 웬장엔. 경행 그 기지로 하여도 두쟁인 몰아야 허. 거  
 안올민 이 냄새나. 단내가. 게난 웬장에 자꾸 숨을 쉬와야 허. 자꾸 몰아야허. 비나  
 아니오게 뒤편 기냥 계속 몰앙 내붙어야. 거민 이 이실도 맛곡, 밤의도 흥곡 그냥,  
 이 더꺼가민 이 냄새가 이서. 어떤 장은 피끗피끗헌데 그거 두쟁일 더꺼부니까 그  
 령지. 뚜껑은 이 비만 아니오민 밤낫 몰아야 장이 돌아.

107062 @ 아, 햇볏을 맞아야 돌아.

107061 #1 응 햇볏도 허고, 밤이실도 맞고.

107062 @ 콩은 언제 삶습니까? 동짓날. 풋죽 썰먹는 동짓날부터 콩을 솔마?

107062 #1 하여튼 동지 넘어가든 콩 솔마야 허여. 그것이 트곡 물르곡 허젠 허니  
 까. 막 얼른 트질 안허지, 추워노니까.

107062 @ 동짓날 넘어가든 아무 때나 날땡?

107062 #1 아니 날 안땡. 설들그믐날. 날 아니봐.

107062 @ 씹는 거는 날 안봐도 뒤편?

107062 #1 콩삶는 것도 날 봐야지. 집의 띠가 이시민 이, 띠 이신 사름은 그 띠날  
 에 안솔마. 띠 피허영. 물 해치 이신사람 안솔므곡 이, 게난 자기네 띠 어신 것만,  
 호랑이허고 원숭이 허고 소허고 그런 날은 숨지 말아야 해. 소는 닐치름 나잔아. 그  
 른 소날에 메주허든 질질 헌텐 해영 아니허잔아. 또 호랑이날은 인일이엿 행 안습  
 곡,

107062 @ 잉일이 뭐짜?

107062 #1 사름날이엿 허지 호랑이는 사름 인제.

107062 @ 아!

107062 #1 거. 게난 이 이름이 사름 인제가 들어가부니까 인일이라고. 게난 인일  
 엔 이 제스도 이 딱 당허민 그 인일 전의 파젤 해볼던가 잉일 넘영을 허든가 허여.  
 잉일날엔 안해여. 호랑이가 모소왕 초상이 왕 먹어지나?

107062 @ 아, 그런 뜻에서.

107062 #1 그렇지.

107062 @ 제사라도 열두시 넘영 해야 웬다?

107062 #1 열두시 넘영 호랑일 피해영 호랑이 얼마나 무서우냐게. 구신도 무섭지.



거난 호랑이때 삼년만 제사때 호랑이날 돌아오민 그집이 좋질 안해여. 거 아방이 세 번을 당허더라고. 시께마다. 켜게 돌아간게. 거 확실해 거. 나가 경험을 헛거든. 아아 영허난 인일 세 번 시께 들어오민 망헌다는게 이거로구낭. 믿것덴 허난. 거 아방이 똑 제스마다 이 삼년을 경 호랑이날을 들어오드라고. 경헨게이 아방이 좋질 안허연게. 게난 옛날 어른덜이 딱 맞아. 경험자니까. 하여튼 경험자 아핀 지여. 벨 공부 막은 사람도 경험자 아핀 진다고. 경험 얻으니까게.

107062 @ 쿵을 얼마만큼 슬몁니까? 보통.

107062 #1 아니 건 하영 담구정 허민 하영 담구고, 즉게 담구정 허민 건 자기 몸.

107062 @ 보통.

107062 #1 보통...

107062 @ 혼말 이상?

107062 #1 어, 혼말이상, 좀 하영 담그민 서말도 당허고, 두 말도 당허고.

107062 @ 뗏말치 솟에 슬마?

107062 #1 그거 솟이 죽으면은 두서너번에 슬마야지. 혼뻘에 못슬마.

107062 @ 뗏 시간 슬마마씨?

107062 #1 그거 영.

107062 @ 물 끌여가민 와상와상 끌여가민 놀건가?

107062 #1 게. 끌여야지. 끌이지 안허민 놀어부러. 멍물에다가 노민 쿵이 굴아얓아 불민 솟디 놀영 끄른내 나잔아. 막 카부니까. 게난 팔팔팔팔 막 끌어갈때에 놓아야. 거민 아래 굴라안지 못허지. 그니까 안 끄르지. 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107062 @ 게민 한시간 끌이민 문딱 익어?

107062 #1 아니여. 큰 다加里썰은 물 하부난 걸론 안끌여. 죽은 솟디 허는 건 금방 끌으고. 쿵이 죽으면 죽은 솟디 허곡, 한 다加里 허곡.

107062 @ 다加里솟?

107062 #1 다加里에 슬마. 식구 한 사람은?

107062 @ 다加里가 뭐짜? 말치솟?

107062 #1 다加里솟도 몰라? 옛날 육지사람덜 이만이 앓정게. 그거 다加里엥 허지. 그거보고 다加里솟.

107062 @ 무췌솟?

107062 #1 무췌주. 무췌 무췌디 그냥 우리ㄴ췌 무사 육지사람네가 다加里 앓전게 이젠 이딴사람도 다加里 앓져. 무췌솟이 잘 안나오거든 이제는.

107062 @ 두말치여 세말치여 곤는다.

107062 #1 그거 솟에 웨지. 혼뻘에 서말 드는 다加里가 잇고, 죽으면 혼 말 드는디.

107062 @ 게민 어머니영 여러명이 그걸 도와야 뽕갓다예?

107062 #1 아니 젊은 사람은 혼자만도 허여. 그전엔 뽕아낫지 안허나? 이제 안뽕아. 께끗이 발 시쳐가지고 그 헤양현 보선 잇잔아, 보선. 아이신어난거. 걸로 발라야

허여. 게안허민 초신, 초신 아니신어난거, 새거, 걸로 볼르곡. 걸로 불라도 양말 신  
어야 발라. 느작느작허잔아.

107062 @ 삼촌은 뽕아수와 옛날에?

107062 #1 옛날엔 뽕일 방해가 이서야 뽕지. 발로 불라야 해여. 발로가 뽕라. 바락  
바락 해지든 허주마는 일일이 담아놔 뽕아봐. 얼마나 오래나.

107062 @ 옛날엔 돌방에에 뽕아수와 남방에에 뽕아수와?

107062 #1 남방에에.

107062 @ 삼촌은 젊으난 발로 뽕안?

107062 #1 것도 이 못전더가난 데가리가 돌아가는 거라. 경허니까 이젠 푸대에 놔  
볼르난 흥번에 볼르부는걸 그렇게 일일이 뽕시멍

107062 @ 옛날엔 다라이라도 이선 그렇게?

107062 #1 다라라? 남다라,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걸로 뽕산, 그냥 쇠다란 판나.  
뽕지 못해.

107062 @ 비싸겟다예?

107062 #1 게난 이제 사람은 이 푸대에 담앙 블람네. 것이 쉬와.

107062 @ 겐 거 완전 뽕락허게 다 허연 메줄 바로 만듭니까?

107062 #1 푸대에 꺾 털어가지고 바로 만들지. 거 식으민 잘 안부터. 흥저 뜨거운  
때 해사 거허주. 식으민 트랑트랑해영 안돼어. 곧 허명사라 해야 그것이 이쁘게 뽕  
지이. 식으민 안돼드라고.

107062 @ 뜨거울때?

107062 #1 뜨거울 때. 경 안허면

107062 @ 장갑 안껴?

107062 #1 장갑껴야지 뜨왕 해지냐. 고무장갑껴야지 뜨거왕 못허지.

107062 @ 모양은 무사 네모로 만드느고예?

107062 #1 거 네모로 행 찢뎡이로 영 허니까 네모야.

107062 @ 크기는 사람마다 틀려? 육지는 영 넓적도 험디다.

107062 #1 이녀 허고정 헌냥, 둥글락허게 허고정 헌 사람은 둥글락허고

107062 @ 크기는 어느정도?

107062 #1 이 정도로 숨지. 것도 몰라가민 죽아.

107062 @ 겐 그거 산디찍으로 묶음니까?

107062 #1 산디찍을 묶으던가 그냥 창고에다가 푸대 아래 깔앙 내불민 해영케 곰  
상 피어. 게문 그대로 내불민 것이 몰라. 겨문 허주. 산디찍 어디 경 공장에

107062 @ 비라도 오민 별로 안좋다예?

107062 #1 비? 비온것사 어떻허여? 창고에 놓는다. 비 맞으민 뽕나 그제.

107062 @ 날씨가 좀 뽕송뽕송해야 좋주. 바람도 들어와야 좋지 안허파?

107062 #1 그거 이 터가기 전윈 문 올지 말아야 해여창고라도. 온기가 잇어야 곰  
상 피거든. 추우민 잘 안피어. 곰상펴가민 문 호끔 열어야, 공기 들어오게. 그거 어

땡 조종허는줄, 아이구 춤 힘들어, 그거 허는것도. 자기 멘스와도 못습곡, 영장난디  
가봐도 못습고 개 죽영 봐도 못습고. 몸 구치민 버려부러, 잘 안돼어. 냄새  
나불어.

107062 @ 정성을 다허는구나.

107062 #1 그렇지. 경안해도 또 벌경 해도 맛이 읍서. 몸이 깨끗허게 안허민, 게난  
영장난디도 못가곡, 개 죽은 것도 안보곡 얼마나

107062 @ 메주 습는 날만?

107062 #1 그렇지.

107062 @ 그 다음날은 관계엇고.

107062 #1 그 다음날은 선들 그름날 담아불고.

107062 @ 선들그름날도 조심허고

107062 #1 선들 그름날은 이날도 아니고 저날도 아니고 거니까 선들 그  
름날은 날 어신 날이니까 등가부는거야.

107062 @ 날 어신 날은 무신 말이파?

107062 #1 선들 그름날은, 낼은 멍질 혈거 아니냐? 그물어부니까 이것도 안돼  
고 저것도 안돼고, 새해도 안돼고 묵은해도 아니니까 묵은해 장을 둥그는거.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공부는 안해도 똑똑헌지 몰라. 진짜이

107062 @ 메칠을 해야 싹이 트고 곰생이가 피는것과?

107062 #1 뜨시민 재기 곰상 피고, 추우민 흐깁 오래여.

107062 @ 선들그름날 곰상이 안 피영 이시민 어떻혈거라

107062 #1 안피지 안해영 속으로 피어도 피어. 배긋딜론 안해여도. 기영허게 웬거.  
그 메주 트는 거봐도 펜안혈꺼 아닐거 알아져. 다 알아져. 거 이상허드라고

107062 @ 큰 항아리에 그거를 다 담겿다예?

107062 #1 식구 한딘 쪽끌락허게 담고, 수정 한딘 큰항.

107062 @ 그 항아리에는 물 어만큼에 소금을 놔마씨?

107062 #1 우리 그거 마련 안허여. 이 정도민 맞을꺼다 눈짐작으로 행 허지, 경  
마련해본 드래 었어. 게도 맛 잇어.

107062 @ 짜다 정도?

107062 #1 영허민 찹찹허지. 싱거우민 안돼여. 그거.

107062 @ 왕소금예

107062 #1 그렇지

107062 @ 두경 단양 낫당

107062 #1 그물은 두경 더꺼부러야지. 몬지 들어가잔아.

107062 @ 중간중간 햇벗은 허지도 말고?

107062 #1 웬장 담아야 올라야지. 올지 안허민 곰상 피어부러. 야, 이 장이 열이  
잇는가봐. 게난 아이올민 곰상피어부러게. 게난 아이광 장독은 차가와야 존텐. 추운  
디. 아이도 추운디만 봐야 감기 안걸리고, 게난 아이광 장독은 똑같은텐.

107062 @ 햇빛도 췌와주고?  
107062 #1 햇빛노민 자게 익지. 뜨서가지고.  
107062 @ 게른 그거를 촌곡촌곡 근물에 담아놔  
107062 #1 근물은 미룻 굴잔아.  
107062 @ 계란 선들그믐에 근물에 담아놔 고추랑 숯이랑  
107062 #1 우린 그런거 안놔. 그 무신 육지 사람은 솔도 영 돌르고 고치여, 무신 숯이여  
107062 @ 계란이여.  
107062 #1 계란은 딱 노면은 근 맞이민 계란으로 허잖아. 그 계란이 탁 들이 치민 것이 동글동글 뜨곡 싱거우민 골라앗아. 짜민 동동 뜨곡.  
107062 @ 근물 담글 때 아니른 나중에  
107062 #1 근물 다 골아놔야 계란 텝지.  
107062 @ 그날. 근물 헐 때 계란 띄와보는구나예.  
107062 #1 계란 근이 맞았나 안맞았나 계란을 띄와보는거.  
107062 @ 아, 그건 제주도 똑같구나예.  
107062 #1 응, 게른 이 그것이 뽕뽕뽕 허민 좀 싱겁고이, 호썸 중간을로 터야 허여. 아주 동동 뜨민 짬거라 짬거. 걸로다 아이구 옛날할망덜 머리가 얼마나, 옛날 할망 공부해시민 이 천재라 천재.  
107062 @ 계란 삼촌 배운 건 어머님네 허는거 보명?  
107062 #1 아이구 우리어머님네 그런거 아니해판.  
107062 @ 할머니네, 이모님네?  
107062 #1 아니아니 나랴으로 이겨내명 허주 무신 우리 할마님네 그런 거 흐김만 담안에 허더라 경 하영 안행. 방애 영영 뽕상.  
107062 @ 계도 그거 할머니네 선들그믐날 현다 뭇현다 현건  
107062 #1 아, 허는거 봤지  
107062 @ 어쨌튼 거난.  
107062 #1 아, 거난 나가 질문을 했어. 할머니, 왜 이렇게 선들그믐날을 장을 담읍 니쨌 허난 이날도 아니고 저날도 아니다 이거라. 경허니까 장을 담근거라.  
107062 @ 아이구야, 삼촌 똑똑했다예.  
107062 #1 물어봤지 쨌 나 그거 들엇당 나도.  
107063 @ 장 담글 때 금기사항은? 어디 뎀스 와도 안뵈고.  
107063 #1 어, 거이 그거이 뎀스오민 숨지 말아야 뵈.  
107063 @ 그문 끝난 다음 숨아야 뵈다는 말이지예?  
107063 #1 그거 가부러야. 그거 온때 안숨는거.  
107063 @ 아.  
107061 #1 영장난디 강와도 안뵈고, 개죽은 것만 봐도 안뵈고, 메주 숨는 날 잘도 정성해사 해여.

107063 @ 삼촌은 매해 장을 담갔수과?

107063 #1 해년마다 담아야지. 이때까지도.

107063 @ 지금은 안들그지예?

107063 #1 작년까지 현디 이젠 늘거부난 못허크라. 힘이 들언.

107063 @ 메뉴리도 주곡 해수과?

107063 #1 메뉴리 쥘 내불민 먹주. 자이넨 장 담그는것도 몰라. 아이구 어머니 죽  
어불민 우린 못해여 경글안게. 상먹주.

107063 @ 혼말 해수과?

107063 #1 쿵 두말 슬만에. 우리 죽은 딸이 산장을 아니먹어, 서울에서. 꼭 어멍  
현 장으로 보내야 돼. 거 게난 죽은딸 떡뽕에 저거햄주. 새해 난 못허켜 지쳐 네.

107063 @ 배우기라도 허주기.

107063 #1 못해여. 당췌이 딸이나 메뉴리나 못허켄 헨게. 왜 못헙나. 숨는것도 숨  
는거주마는 담을때도 문제옴 허는거라. 소금을 곤 못마치켄. 하영사 남는지 죽게사  
남신지. 거난 우리는 이 딱 노면은 돼지 안허여도 이 소금으론 뽕거담다 허민 딱딱  
맞아.

107063 @ 구데기 생기믄 못먹지예?

107063 #1 우린 구데기 생기민 그냥 데껴부러. 비유약헨. 절대 벌거지 못앗지게  
해야 해. 게난 헐 때부터 정신 딱 줄려야 허. 그거해영 소금해영 끌아와그네 이 꼭  
리 못댕기게 딱 무껴부러야 허, 고무줄로. 건디 거 나이롱으로랑 허지말야. 나이롱  
은 이, 공기를 못허지. 무명, 광목으로 해사 허지, 나이롱으로 허민 장이 숨쉬질 못  
허여. 장 허고 사람 똑 ㄴ따.

107063 @ 장물은 여러 가지로 행 먹고.

107063 #1 응 소고기국옴 왔다야. 우리 한국것이. 이 저 오복간장은 못먹어. 완전  
히 못먹어. 차라리 소금으로 끌리는 게 낫지. 간장이라야. 간장으로 끌리민 맛있어.

## 떡류

107064 @ 떡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신촌에선 어떤 떡을 헙니까? 제사  
떡이나, 107064 #1 허구정현낭 허지.

107064 @ 그래도 마을마다 떡이

107064 #1 뜰리지. 반착떡도 잇더라, 서촌더옴?

107064 @ 게난마썸.

107064 #1 또 이만이현 떡도 잇고. 여기는 그축 안허여. 시리떡이라고 이, 시리에  
담지 안허나?

107064 @ 예.

107064 #1 그거허곡.

107065 @ 백시리, 아니민 쫓시리? 아니민 조침떡?

107065 #1 조침떡도 시리에 담곡, 그냥 설기떡도 쫓 어신 사람은 세세에 속질 끌

아줘야. 경 안허믄 혼덩어리 돼불어.

107065 @ 아, 하얀 떡도?

107065 #1 하얀떡도

107065 @ 속지란 것은?

107065 #1 속지.

107065 @ 속지가 그 광목?

107065 #1 아니야, 창호지 잇잔아. 창 불르는 거, 거 닳은 속지가 이서. 알로롱헌 거 조그마니헌거. 걸 끌아야 떡이 아이부뜨지 경안허민 혼덩어리

107065 @ 옛날엔 베로 허지 안햇수과, 그런거?

107065 #1 베로 무싱걸 허여?

107065 @ 삼베로 이렇게 속지 대신 허지 안해신가?

107065 #1 아니야.

107065 @ 옛날엔 뭘로 해신고?

107065 #1 옛날엔 이, 이신 사름은 풋을 습고, 풋 어신 사름은 그렇게, 풋을 놔야 그거 징징이 떼지지 풋 아이노민 그거 한덩어리 돼불어. 그 심방덜 빌어그네 나까 시리 허잔아. 그거는 혼덩어리 해여야. 혼덩어리 해서 영영 놀린 때도 헤싸지지 안 허주마는 이 풋 논건 그냥 헤싸져부러. 이렇게 허믄. 게난 혼덩어리 돼니까 아니주 마는 풋논거 해봐라 탁탁 갈라져불지.

107065 @ 그 나까시리는 무사 경들 햄신고예?

107065 #1 나까시리는 성주. 성주 느릴 때 나까시리 허여.

107065 @ 따른 때도 나까시리 험디다.

107065 #1 아니야, 나까시린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 놀립주 무신.

107065 @ 무사 성주 험 때 나까시리 놀리며, 이름은 무사 나까시린고예?

107065 #1 이젠 그런거 안해여. 옛날엔 이 그 성주 내릴 땐 이, 그 시리를 쳐그네 그냥 영 허주마는 옛날 어른덜은 그렇게 안해여.

107065 @ 무사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를 꼭 해신고예?

107065 #1 거 구진거 존거 알아보젠.

107065 @ 그 나까시리 점을 쳤지예?

107065 #1 그렇지. 그 나까시리 놀리당 이 획 허게 데끼잔아. 그거허민 탁 어퍼지 나 갈라지나 여피로 영 누나, 여피로 헌건 좋지아녀. 갈라지나 옹어지나 해야. 좋지 아녀믄 여피로 탁 드리뤄. 나까시리가 춤 히한허여. 경허난 심방덜이 아는거라.

107065 @ 무사 하필이면 떡으로 했으며 무사 하얀떡이며, 왜 이름은 나까시리냐.

107065 #1 나까시리 영영 놀리니까. 아메도 막 놀리니까 나까시리엔 허겠지.

107065 @ 삼촌은 성주내릴때만 나까시리를 헌다는거지예?

107065 #1 옛날은 성주 아이내린 집인 시께험때도 초상이 들어가지 못헌덴. 성주 에서 딱 막노렌. 못들어가게. 겐디 이젠 그런 법이 잇나?

107065 @ 아, 성주에서

107065 #1 응 성주가 썰렁 들어가지 못헌덴. 그 옛날 주둥이로 나온거지. 지금 성주안헛덴 시께 못허나? 옛날 어른덜 지은대로.

107065 @ 나까시리, 시리는 시루옌 현 말이고?

107065 #1 나까시리, 시루로 막 놀리니까 나까시리. 심방덜이 그르난. 우리가 아나?

107065 @ 시루떡은 조침떡허고

107065 #1 조침떡은 제스때나 소상때나 대상때나 허지 이 심방허는건 그런거 안허여. 흰떡으로만 허지. 그거이 좋쟁허민 제물 해 보민 알아져. 거츨 히한허게 알아져. 그 제물 허믄 이 시리가 앓잔아. 그 짐 올를 때 안뒤헛 허민 팍팍팍팍 막 터져부러. 이 사름 그뜨민 용심낭 허듯 막 허곡이 그 좋쟁 허믄 이 그 চে염 막은 딜로 딱 짐이 올라와. 희한허여 그거.

107065 @ 거 무슨떡?

107065 #1 시루떡. চে염 막은딜로 딱 짐이 올라오민 좋은거. 파파파파 허나 다른딜로 허민. 게난이 제물허는 사름은 심방 이상이라. 딱 제물허믄. 또 생편도이 돌래떡 잇잔아, 동글락헌거 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107066 @ 송편은 쉬운거 아니 건? 물에만 드리치민 뒤는거 아니?

107066 #1 아니라. 드리치민 이 그것이 좋쟁허민 떡이 방글방글방글방글 웃는거 곱고. 송편도 여러 째이라. 시께허는 건 앙꼬 넣 동글락허게 허는거고, 곱허는 건 넙작허게해.

107066 @ 돌래떡을 송편이라곤 안햐수께.

107066 #1 돌래떡.

107066 @ 돌래떡허고 송편은 다른 거잔아예.

107066 #1 송편은 제스헛 때 씌는거고, 이 동글락허는 건 곱헛 때 씌는 거고. 거 곱헛 때 쓰는 건 물웬.

107066 @ 돌래떡을 물웬이라고도 해마씨?

107066 #1 물로 슬므니까 물웬.

107066 @ 아, 그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107066 #1 물웬. 게난 너 나신디 잘도 배웁다.

107066 @ 돌래떡이랜도 헛니까, 이동네?

107066 #1 돌래떡도 허는데 물웬이옌 허메. 물로 슬므거니까.

107066 @ 그문 송편은 그 속에 속을 뭘 뇽니까?

107066 #1 요만이헌거. 팻, 꿬, 녹디

107066 @ 삼촌은 뭘가 맛죵읍디까?

107066 #1 꿬 논 떡이 맛잇지. 앙꼬.

107066 @ 옛날에도 꿬 낫수과?

107066 #1 응.

107066 @ 그 송편은 보름달 모양이랜 들어봣수과?

107066 #1 보름달만이 현건 돌래떡이주게. 둥글럭현건 돌 닳은 건 이 물펜.  
 107066 @ 돌이엔 험니까?  
 107066 #1 돌 닳은 떡ㄴ라 물펜.  
 107066 @ 계난 돌 닳으난 돌래떡이랜 해신가예?  
 107066 #1 둥글락허니까 돌래떡.  
 107066 @ 송펜은 무사 송펜이랜 했수과?  
 107066 #1 솔입에 낱 치니까 솔편. 솔입에 낱 찌른 솔입 냄새가 나잔아.  
 107066 @ 옛날에도 솔입 낱 했수과?  
 107066 #1 그렇지. 옛날엔 이 소장 대상에 시리에 솔입 영 꿀앙 시리에 다 쳐.  
 107066 @ 송펜도 육지는 솔락헌디 제주는 똥글락해예.  
 107066 #1 둥글락허지. 뜯나 떡도 다 뜯나. 저 서더레도 떡 뜯나게 허더라. 반착  
 썩. 밀언에 이. 둥귀로도 밀고. 이딘 밀영 안허여. 저 믱물로 만든건 밀어. 믱물로  
 만든 건 밀더라고.  
 107067 @ ‘빙떡’ 어떻 만듭니까?  
 107067 #1 믱물코루 굴아다가 소금을 쫄 놔 이. 놔그네 그거 왜냐면 잘못허민 똥  
 글락똥글락헌 즈배기 돼여. 거 잘못 카민. 거 왜냐면이 그 믱물ㄴ루에다가 소금을  
 쫄끔 놔 짜게도 말고, 호쫄만 경 놔그네 이 가운데 흠파. 흠프민 여기 물을 놔. 물  
 을 어느정도 반죽이 쥔만 노면은 영영영영 젓어가면은 다 타지는 거라. 혼뽀에 다  
 타민 똥틀락똥틀락 해여.  
 107067 @ 찬물에?  
 107067 #1 어. 찬물에 아녀른 안돼여 그거. 경행 막 해여그네. 막 때려. 막 때려그  
 네 국자로 영 들러보민이 똥글락헌건 되고, 영행 허면 그것이 얄로롱허게 떨어지  
 른 그것이 빙떡 돼는거야.  
 107067 @ 무시랜 험니까 놈빠랜 험니까?  
 107067 #1 놈빠엥도 허고 무수엥도 허고.  
 107067 @ 무수는 그거를 솔망,  
 107067 #1 무수를 썰어. 썰어그네 이제 파 썰어놓지 안허나. 썬 걸 익혀. 익혀그네  
 구덕에 영 물을 빠주와. 빠줄때는 영 소금 쫄끔 농곡, 파, 건진 구덕에 팔, 경 안허  
 민 누렁해부리 파가, 더운디 노민. 배깃디 짐덜 나가부리야.  
 107067 @ 경행 ?  
 107067 #1 경행 열 혈만이 행 국자로 하나 하나반은 들어야 헐거라. 영행 이레 듯  
 지름이나 늑물치름이나 블라야, 눌지 못허게. 블라그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운  
 델로부터 영영영영 해사주 경안허민 모두레기쳐.  
 107067 @ 모지레기?  
 107067 #1 이 즈배기 지잔아. 게른 인전 믱물ㄴ룬 데씨지 말아야 허.  
 107067 @ 아!  
 107067 #1 데씨민 안돼여. 그냥허른 것이 다 익으면은 탁 뒤집영 그때는 무수놔



탁탁 몰앙 딱 누르뜨민.

107067 @ 차룽에 낱 해수과?

107067 #1 차룽에 놔야 물 아니들지. 그거 해 놔그네 식히멍 놔야지. 식히지 안허  
른 떡 안돼부러.

107067 @ 차룽에 몰아?

107067 #1 돛배에서 몰아야지. 돛배에서 몰아놔 차룽에 느려놔 차룽에 식히민 또  
다른 차룽더레 놔야. 식히멍 놔야.

107068 @ 상웨떡은 밀가루로 합니까?

107068 #1 상웨떡은 밀가루로 허주게.

107068 @ 옛날에 밀가루가 이서?

107068 #1 어, 밀 곶아. 밀 곶아그네 돌궤레에 보리쫄에 서껍 서꺼그네 그놈의 곶  
영 하나씩 디리치멍 궤레로 곶아.

107068 @ 보리쫄하고 서꺼야 맛좋아? 상웨떡은 원래?

107068 #1 응, 쪼끔 서꺼야지.

107068 @ 아, 밀가루만 하는게 아니고?

107068 #1 밀가루만 허주마는 밀이 죽으면은 보릿가루 좀 곶아놔야.

107068 @ 서꺼진 가루로

107068 #1 어, 경해. 곶로 해여그네 다라에 낱 소금 쪼끔 농곡 기주 있어. 것궤라  
뽕랜 햄저마는,

107068 @ 막걸리여, 이스트여

107068 #1 거 그거이,

107068 @ 부끄는거?

107068 #1 부끄는 거 말고, 돌래떡 달든 것이 것궤라 무시거엔 허더라, 그거 놔야  
해여. 이스트 낱은 안웨여.

107068 @ 아 저 오일장에 푼는거. 거 쉼다리 만들 때 허는거.

107068 #1 어, 어 그곶로 해여야 혀.

107068 @ 곶? 누룩?

107068 #1 어, 누룩 누룩 누룩. 그곶로 보리밥 해영 식형 그 물 노아그네 누룩을  
노면은 부글부글 궤여. 영 먹어보민 이 시끔 허민 이 떡 웨여.

107068 @ 아 막걸리 놓는게 아니고 누룩으로 낱 해수과?

107068 #1 누룩으로 밥 만들아야 해여.

107068 @ 누룩밥을 만들영.

107068 #1 보리밥을 만들앙 식형, 이제 식혀그네 그 누룩을 벌러놔, 영 손으로 즘  
질즘질, 벌러그네 이제 물을 낱 다 곶로로 젖어. 그거 게민 너미 하영 물놔도 안웨  
여. 딱 맞게 놔그네 단지에 놔두민 불탕불탕불탕. 부글부글부글. 게민 이제 곶 곶러  
서 상웨떡을 만들아야 복썩허지. 그 기주가 나쁘민 안웨여.

107068 @ 아!

107068 #1 기주가 좋아야.

107068 @ 누룩이 좋아야?

107068 #1 그 원료, 그 밥만든 것이 켈 때 막 부글부글 켜여. 겨른 떡을 잘 쉼고,

107068 @ 며칠 경 켜니까?

107068 #1 거 드시민 재개 켜곡 얼민 오래 걸리곡.

107068 @ 그른 미리 제사 전에 그걸 켜영 놔둬야켜예?

107068 #1 미릇 만들앙 놔둬야주.

107068 @ 그른 제삿날 걸 그 국물에다가 밀가루를 서경 만드는데 아니?

107068 #1 응, 응 그렇주. 켜디 어떻허연 날 좇아완디. 이딴사름 아무도 몰른다.

107068 @ 막걸리 낱 허는게 아니고?

107068 #1 막걸 리가 누룩이, 그것이, 것ㄴ라 뭇엔 허더라마는 일름이 잊어부렁  
몰르겿네, 거 누룩 낱 허는것ㄴ라. 쉼다리엔 허든가 무시거 하여튼 ㄴ랏져. 잊어보  
렁 몰르커라.

107068 @ 뭇 시간 놔두믄 밀가루가 부풀어 올릅니까?

107068 #1 그거 뜨신방에 노민 금방 켜여. 차가운 방에 노민 자기 아이케고. 이처  
럼 멘도롱헌 방이 노민 금방 빨리켜여. 겨난 뜨신디 낱 담요 막 더끄지 안허나. 그  
빨리 켜라고.

107068 @ 그 누룩헐때도 뜨거운 거에 놔야 되는가?

107068 #1 아이 아이.

107068 @ 밥행 뜨거울때?

107068 #1 식형 놔야지. 익어부렁 안켜여. 식혀야 누룩 놔그네 맹물 낱.

107068 @ 보리밥에 누룩만 노민 쉼여?

107068 #1 그래.

107068 @ 근데 이제 쉼다리허고 틀린건 보리밥 쉼게 아니고 그냥 익은밥 식힌거.

107068 #1 밥을 만들아, 보리밥을 만들아. 민작허게 만들아그네

107068 @ 썩히지 안해도?

107068 #1 만들앙 식형 누룩을 붓어놔그네 물 영 젓영놔두면은 부글부글 켜여. 경  
행 만드는데. 경안허민 이 그 기주가 좋지 안허민 절대 안부껴.

107068 @ 신촌 보리빵 그 유명헌 보리방이 그런 거 아니?

107068 #1 그 사름덜은 이스트 낱 해. 이스트 놔야지 그거 아이 낱은 떡 못만들  
어. 우리는 제라헌 저 무시거 아냐.

107068 @ 상웨떡?

107068 #1 우린 제라헌, 오리지날, 우리냥으로 만든거. 그 사름덜은 이스트로. 게  
야 빨리 켜여.

107068 @ 옛날에도 상웨떡에 속에 쉬 놔수과?

107068 #1 놓지게.

107068 @ 논 것도 잇고 안논 것도 잇고?

107068 #1 여름떡은 이 그 양꼬 노민 원뎡 행에 콩입  
 107068 @ 콩?  
 107068 #1 콩 우리 밧디 콩입 싸먹잔아? 그런거 톤아당 노아. 쉬지 못허게. 경행  
 떡을 뎡 딱 빵 네껴동 거 먹어. 경 안허민 여름떡은 쉬어부러.  
 107068 @ 나 거 처음 들어수다. 콩입을 쉬를 속에 노코 콩입을 봐 아니믄?  
 107068 #1 아니아니, 콩입만.  
 107068 @ 숨쉬렌?  
 107068 #1 쉬지말렌. 이 양꼬 노민 재기 쉬어부러 여름떡은.  
 107068 @ 양꼬 안노민 똬잔아. 잘 안익어?  
 107068 #1 아니 그냥 만드는 것도 똬게.  
 107068 @ 근디 콩입도 뉘 마씨?  
 107068 #1 콩입 뉘 먹을 뎡 빵 데껴부러야.  
 107068 @ 게도 그 콩입을 놓는게 난 신거허다.  
 107068 #1 그 옛날엔 그걸 놓더라고 콩입만. 게난 굿떡도 달르고 제사허는 떡도  
 뉘나. 굿떡은 이, 소금 놓지 말아야허.  
 107068 @ 이거 들어봐수다 나도.  
 107068 #1 기도허는 떡은 소금노민 안똬여.  
 107068 @ 무산고예?  
 107068 #1 몰라. 소금 노믄 절여분뎡사 것산디.  
 107068 @ 절여분다고.  
 107068 #1 구신이 먹어가질 안헌뎡. 절여부러  
 107068 @ 아!  
 107068 #1 게난 소금어신 떡. 심방떡은 소금어신 떡. 소금을 안노니까.  
 107068 @ 삼촌은 무신떡이 쉼 맛좋읍디가?  
 107068 #1 난 이 상웨떡 양꼬뉘 헌거. 다른 건 아이먹고 그떡은 먹어져. 설기떡도  
 아이먹고 송편도 안먹고. 사름이 여라가지라 송편만 좋아서는 사람, 상웨떡 좋아허  
 는 사름, 설기떡 좋아허는 사름, 사람으로 가.  
 107068 @ 그문 쉬는 다 뵈십니까, 슬망?  
 107068 #1 뵈아야지.  
 107068 @ 통으로 뵈수과?  
 107068 #1 슬망 방에 뵈아야.  
 107068 @ 뵈아야.  
 107068 #1 그 통이 엇어야주.  
 107068 @ 요즘은 막 통 이신게 좋은거렌  
 107068 #1 게난 통 이신거 허젠허민 하영 뵈지 말아야. 두루 뵈아야주 이, 몽창  
 뵈이민 통이 어서.  
 107068 @ 막 요즘은 들게만 허난예.

107068 #1 아이구 나 이, 심방 굿허는 거 다 만들고 이, 그거 굿허는디 가민 그사  
름덜 허는 거 다 머리에 들어오더라고. 시키지 아니해도.

107068 @ 똑똑허난게.

107068 #1 똑똑은 무신게. 멍텅구리주.

107068 @ 신촌은 게도 어려와노난 떡 그든거 간단허게 해십디다예.

107068 #1 이젠 떡 아니한다. 상에 올릴 것만 허주. 상에 올릴 것도 사단 한다 사  
당.

107068 @ 옛날, 옛날. 게난 옛날엔 꼭 송편허고 침떡은 해수과?

107068 #1 해야주.

107068 @ 뭇 가지를 꼭 해야 뉘는건고?

107068 #1 아니, 제물 이 남자덜이 사당 못허게 해여. 추접허텐. 집의서 만들어야.

107069 @ 제사떡의 종류. 신촌은 제사에 무신 떡을 해수과?

107069 #1 송편 시루떡 빙떡.

107069 @ 빙떡은 겨울에만 해수과?

107069 #1 아니 여름에도 해여. 허는 사람덜은.

107069 @ 여름에 놉빠가 어디 이서?

107069 #1 저 무시거, 쫓 쫓.

107069 @ 여름엔 쫓쉬로?

107069 #1 무수 어시니까. 그 무수가 이 물로 쉬어부러 재기. 그 쫓보단 더 설겔.

107069 @ 콩나물은 안놔수과?

107069 #1 노는 사람은 놔도 여기 경 놓질 안해. 무수 놓지 무수. 무수 쫓

107069 @ 쫓보다 무수가 맛좋아.

107069 #1 무수가 맛존디 그거 쉬어부러. 물기가 이서부니까.

107069 @ 지름떡이여 고달떡이여, 제사에 잇는 떡이.

107069 #1 여기는 고달떡 이런거 몰라 여기는, 지름떡허고 송편허곡 이, 상웨떡  
허곡 이, 설기떡.

107069 @ 그믐 층층이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107069 #1 시리떡?

107069 @ 상에 올릴 때

107069 #1 아, 상에 올릴때는 집이 다 뜯나. 그 벌이는 것이 집마다 다 뜯난다고.  
그 우리집의 브릴텐 보니까 그 침떡 오고생이 올리잔아. 그 네모난거. 그거 해여노  
아그네 저 곤떡? 곤떡 쟁이더라고.

107069 @ 쟁 지름떡 우에?

107069 #1 지름떡 우터레 놓곡.

107069 @ 지름떡은 별모양이다 달모양이다 이런건 안들어봐수과?

107069 #1 그런건 안허고, 그냥 지름떡은 지름떡인가 허주 우린 그런건 안들어봤.

107069 @ 그믐 쥔 우에 계란 그건 뉘랜 험니까? 고사리에

107069 #1 계란, 거 계란은 이, 할망덜 곤는거 보난에 그 고사리 논 것은 옛날엔 비니루도 엇고 종이도 엇어부난 것에 음식 쌍가는 거옴. 고사리더레. 고사리 벌기문 영 벌겨지잔아. 그것에 낱 음식 먹어낱 그 친구덜이 받앙오렌 헌텐. 구신덜토. 계란 이 거 친구 주젠 걸 받앙간다 허여. 고사리 영 몽키렁.

107069 @ 세상에, 어떻 그런 생각을 허코.

107069 #1 거 다 어시민 어신냥 머리 씨여가는 거니까.

107069 @ 옛날에 계란 독새기 하나 까트리면은 그걸로 몇 개를 해낱수과?

107069 #1 그 옛날은 요만씩 지저낱잔아. 계란 하나든 혼 일곱겐 지질거라. 이렇게 알롭게 지정. 나 생각에. 막 알롭게 행 짓더라고. 이젠 이 계란 이만씩 지저, 막 낱작. 우리 애기어멍네 짓는 건 막 낱작낱작해.

107069 @ 서른까지도 지젓덴 허민 말이 안돼주게.

107069 #1 에, 서른ㄱ진 못헌다게. 그자 잘 허민 혼 열 개 지정 좋주. 계란 요만이 현 것에 경 얼마나 처 짓나게. 것도 호끔씩 영 허난 햄주 경안허민

107069 @ 믱덜이 많이 안나난 또 여기는 저 쌀로도 떡허고 이런건 어렵지예?

107069 #1 옛날이주 이젠 방엿간에강 다 마쳐.

107069 @ 옛날에.

107069 #1 옛날엔 다 이녁쿠로 방에예 뽏안 해낱네. 기겟방도 엇곡,

107069 @ 산디썰?

107069 #1 산디썰로. 산디썰인디 나룩썰인디.

107069 @ 찹쌀도?

107069 #1 찹썰도 방에 이녁쿠로 뽏아.

107069 @ 찹쌀도 밧에서 지은 썰이 이수과? 산디처럼?

107069 #1 산디썰 찹썰 우리도 갈앙 먹어낱네.

107069 @ 산디찹썰도 잇고,

107069 #1 모인썰도 잇고. 허린썰도 잇고 모인썰도

107069 @ 아, 것도 두가지가 잇구나.

107069 #1 조도 마찬가지. 조도 모인거 잇고 허린 거 잇고.

107069 @ 허린 것이 찹쌀이구나.

107069 #1 옛날 산딘 이 안남미 닳아, 스랑스랑헌게. 계란 그거 이 기겟방 어시난 무젓당 건정 막 방에예 빠난. 쟁 생웬도 허곡 지름떡도 허곡.

107069 @ 뽏썰이지예, 건?

107069 #1 응 또 설기떡 하영허는덴 큰 멧돌 이서. 여러사람 둥굴리는거 그디강 굴곡. 건 막 하영 떡헐 때. 그딘 멧 사름이 담아들엉 곶아.

107069 @ 어만큼 큼니까? 그 멧돌은? 뽏방아 같은거?

107069 #1 아이구 하영튼 둥글랑헌 돌이 있어. 막 큰거.

107069 @ 뽏방에도 아니고?

107069 #1 뽏방에 아니고. 겔로 영 둥글려가민 요 아래도 돌이고, 우이도 돌이민

이, 그 요피는 나무로 돼여. 경 안허민 귀영 돌아나부니까. 기영헌거 여피 대영 비  
치락으로 영영 쓸멍. 아래꺼 우터레 썰멍 곱아. 경행 막 이 체로 치여. 또 거 곱곡,  
체로 청 또 곱곡. 옛날엔, 기겟방 어시난. 건 소상 대상 영장에 모다들영 허곡 이녁  
만 해여먹는 시께는 경 안해여. 방에 호꿈 뽕앙으네. 사름 하영 혈뎀

107069 @ 집집마다 땃돌 이시난.

107069 #1 ㄴ레. 그거는 들른 거배끼 못 곱아. 젓인건 못곱아.

107069 @ 풀ㄴ레엔 헌건.

107069 #1 거 풀ㄴ레는 쫄 무웃젼다가 그디강 물로 곱아. 곱아당 걸로 썬그네 옷  
에 메기고. 옷에도 메기고 이런 창호지, 방도 도배허고.

107069 @ 경허난 풀ㄴ레엔 햏구나. 게문 ㄴ레가 달라마씨?

107069 #1 달르지. 하여튼 요만이해 그것이, 그 풀ㄴ레가. 앓아둬서 곱아가민 물이  
알더레 잘잘잘. 그 물 ㄴ리는 쿨 만들어서 그게. 게문 이레 대문.

107069 @ 그 풀ㄴ레는 매집엔 없겟다예.

107069 #1 엇지. ㅎ 땃 가호우렁, 이 동카름 ㅎ나배끼.

107069 @ 것도 빌리레도 가고?

107069 #1 아니 아니, 그디 강 곱아와 다. 그 사람 곱아나민. 경 바쁘지 안해여 옛  
날엔.

107069 @ 그 집이 가 무싱거 쪼금 가정강 햏달?

107069 #1 아니아니, 이런 조락이고 뭐 그냥 내불어. 또 큰 들ㄴ레엔 이만씩헌 채  
경 대영 ㄴ는거. 건 여러사름 곱곡.

107069 @ 들ㄴ레방에 그게 잇십니까?

107069 #1 응?

107069 @ 풀ㄴ레도 집에 잇는 거 아니?

107069 #1 아니아니 저 공동으로 ㄴ뒤.

107069 @ 풀ㄴ레도?

107069 #1 응. 공동으로 곱아강 풀 땃엎네. 옷에도 땃이곡, 방도비도 허곡.

107069 @ 집집마다 엇고.

107069 #1 어어, 공동으로 내불어. 그 저 큰 ㄴ레도 공동으로. 그 돌ㄴ레 이, 이런  
것만 가용으로 썬 이렇게. 하나씩 다 이서 집마다. 보리쫄도 곱르곡. 그거 밀 ㄴ랑  
상웨떡도 허고.

107069 @ 그거 어디 강 삼니까?

107069 #1 뭐?

107069 @ 그 돌ㄴ레. 어디 자기가 만드는 사름이 이서?

107069 #1 만드는 사름이 잇지. 그 ㄴ레가 막 햏가민 무쥔 이, 민작허민 곱아지지  
안해여. 겨민 이, 그 밧 썬 갈잔아, 그런 쫄랑헌것썬. 그거 다 썬갈당 다 땃민 그걸  
로 독독독독 좇더라, 하르방덜. ㄴ실게.

107069 @ 그런거 신촌에도 만드는 사람 이섯수과?

107069 #1 잇어났지. 하르방덜 죽어부렀네.

107069 @ ㄹ렛즈룩 그거 허젠 허민 나무도 잘 맞춰야 허잔아예?  
 거 쪼끄만헌 사름은 해당 굴아. 영 이런 즈락만 맹길민 그자 영.

107069 @ 돌맹이 그렇게 만들젠 허민 돌챙이가 해알 거 아니?

107069 #1 몰라, 나 그런거 안봐봐서. 옛날에 보니까 다 잇더라고. 우리 어릴때 해  
 난거니까. 어릴때 그거 맹그는 것도 아이보고. 무껴그네 허면은 그거 영영 거 ㄴ실  
 게 즈시는 하르방 이서나서 그거. 그건 봐나고 우리 옥은후제 그런건 못받. 우리 옥  
 은 후제도 이 완전히 개명웤때라. 연날 할망덜은 맨발에 땡기고, 옷 어성 갈중이 막  
 줍고, 우리 옥은 때는 막 고급이지. 운동화도 잇고, 고무신도 잇고 흑교 갈때도 이  
 런 가방허는 사름은 이신 사름이곡, 우린 포따리에 쌍 무껴야정 . 게른 달락달락해  
 가른 필통에꺼 살락살락살락 허곡.

107070 @ 상례떡, 상난디 떡은 무슨 떡이 잇수과?

107070 #1 상난디? 그거는 상웨떡 안해여.

107070 @ 상웨떡 안허고 무신평?

107070 #1 상웨떡은 그 친척덜이 부주로, 돈으로 안허영 친척덜이 앓아가. 땃개문  
 이 사십개문 사십개, 수정 세명 마타. 하나 둘 허멍 그 떡 세더라고. 그 고적이엔  
 행. 고적이엔 허더라고.

107070 @ 돌아가신 집에서는 무신평 떡을 만듭니까?

107070 #1 송편허고 설기떡. 그거나 좁쌀침떡이나.

107070 @ 그거 돌래떡이랜 안허곡예?

107070 #1 아 영장난딘 송편. 설기떡. 돌래떡은 이 곳혈 때 허는거.

107071 @ 설기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107072 @ 인절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도구/만드는 법)

107072 #1 인절미는 몰라. 우리 그런 건 몰라.

107072 @ 좁쌀로 웬거는 먹어봐수과? 콩고물?

107072 #1 좁쌀로 웬거는 히려부니까 지름떡 ㄹ뜬거나.

107073 #1 절편도 우린 몰라. 여기는 절편 아녀. 107074

107074 @ 솔변?

107074 #1 솔편은 저 거세기 곤떡 ㄹ라 솔변이엔 해. 거 저 솔입해당 치니까 솔편.

107074 @ 아!

107074 #1 거 솔입해당 새새 노면 솔입 향기가 좋잔아. 그 새새 낱 치니까 송편.  
 그냥은 물에 낱 치는 건 곤떡. 물에 낱 치는건 곤떡, 또 솔입 낱 치는건 송편.

107075 @ 웃기떡?

107075 #1 건 몰라 우린.

107075 @ 기름떡 별떡을 웃기떡이랜 헌댄 마씨.

107075 #1 몰라 동더레 서더레 가난에 밀어네 막 반돌 ㄹ치도 해연게. 슬망.

107075 @ 게른 지름떡 허는거 굴아봅서.

107075 #1 지름떡은 어떻 행게. 그냥

107075 @ 땀쌀?

107075 #1 चु출로 행 등 강게. 동갓다그네 이

107075 @ 뜨거운 물에?

107075 #1 동갓당. 너미 뜨거워도 익영 안돼어. 좀 호끔 뜨듯하게만 해여네. 더해  
민 익여부러 흐려부러.

107075 @ 반죽허영?

107075 #1 응, 반죽 만들앙 이제 그 도마 이서 큰큰헌 도마에 그 사이다평을 허나  
마궤 허나 걸로 밀어. 뽀 떠.

107075 @ 그 마궤를 흥두궤렌 안헙니까?

107075 #1 거 마궤엔 허메, 마궤. 마궤 아져오라 허메. 그런걸로 다듬이도 허고.

107075 @ 다듬이마궤렌 허여?

107075 #1 다듬이 아니고 마궤 아져오렌 허메.

107075 @ 마궤? 서답마궤?

107075 #1 서답마궤는 물에강 뽀는거.

107075 @ 게른 떡 마궤엔 헙니까? 다듬이 혈때는 무신 마궤파?

107075 #1 거 그진 그냥 다듬이 마궤.

107075 @ 지름떡 허는 거는 무슨 마궤?

107075 #1 뽀떡. 지름떡 허는 거 밀어놔 지름떡 판이 있어. 토닥토닥헌 거. 판으로  
뽀 지저.

107075 @ 기름은 무슨 기름으로 헛수과?

107075 #1 옛날엔 유채지름 해낫저, 유채지름.

107075 @ 유채지름을 녹물지름이렌 헛수과?

107075 #1 그 녹물지름도 허고, 옛날엔 지름이 어시난 이 유채 갈앗당 빠당 먹어  
나서. 그런 걸로 지저나서.

107075 @ 색깔은 좀 누렁허지예?

107075 #1 응 노랑허여. 게난 이제는 이 궤지름을 썬도 그때는 궤지름 쓰는 사름  
은 막 부제칩이. 게난 옛날에 초신에 블라도 배지근헌텐. 춤지름 블르난 초신에. 그  
렇게 옛날 어른덜은 초신에 블라도 춤지름 블르게

107075 @ 먹어봐도 난 들궤기름보단 춤기름이 맛잇더라고예.

107075 #1 그렇지게. 춤지름이 춤지름이지. 들궤기름은 혈 수 어시 먹는거주.

107075 @ 몸에 좋덴 막 헙디다마는.

107075 #1 이젠 막 궤덜 널어져노난 이, 옛날엔 궤가는 사름도 어서서.

107076 @ 당은 어디 갑디다예?

107076 @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은 다데랜은 안허고?

107076 #1 돌래떡. 당에 가는 거고, 무당 빌어다그네 궤이나, 옛날엔 일년에 혼번  
씩 무당 빌어당 기도허잔아.



107076 @ 정월달에.

107076 #1 응. 정월달로 삼월달까지.

107076 @ 벨롱갱이랜 험니까?

107076 #1 벨롱갱이엔 허데. 그 날 냉기는 거를 벨롱갱이. 예구 이젠 심방 빌어당 아니해도 농사 잘웁신게. 옛날엔 어둡나라라부난게. 뭐 주사 병완이 있나 뭐 있나. 심방 빌어당 비는거배끼 더 이서? 거 옛날엔 애기 아파도 이, 거난 옛날엔 애기덜 이 막 죽어부런게. 옛날엔 애기 열 나민 열 다 죽어부러. 약이 어시니까.

107076 @ 계난 벨롱갱이 허민 심방안티 뭘 줘니까?

107076 #1 그디 브려놔.

107076 @ 뭘 출렁 놔줍니까? 돌래떡허고

107076 #1 보리줄 허고 곤쫄허여그네 영 제비 줘앙 이 좋을 거 구질 거 허고 다 그거 다 비와가 그 사름덜.

107076 @ 소지영 곤쫄은 지가 가져가고?

107076 #1 응.

107076 @ 또 오면은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줘야될거 아니?

107076 #1 그렇지.

107076 @ 옛날엔 얼마 줘난거 기억 안남수과?

107076 #1 잊어부런.

107076 @ 한사람만 와?

107076 #1 벨롱갱이 혼 사름만 오지게.

107076 @ 방광 하나 들렁 읍니까, 징?

107076 #1 징하나 들르곡 또

107076 @ 설장고?

107076 #1 어, 장고도 아정을 때 잇고, 또 가지갱이. 영영영영

107076 @ 아, 바랑.

107076 #1 그거 바랑 잘 앓앙오더라고. 바랑을 영 바랑 치더라고. 바랑 치는 건 이 칠성제 노픈제 허는 거.

107076 @ 아, 저 스님 식으로?

107076 #1 금바랑 타고 느려웁서 은바랑 타고 느려웁서 허멍 광 광광 허당 획 잡 아데끼민 하난 얹어지고 하난 갈라지곡 허민 구진거. 다 얹어지나 다 갈라지나 해야. 하나 얹어지곡 헌건 구진거. 건 심방덜 그런걸로토 안블리민 어떻 허영 아나.

107076 @ 종재기 닳은거로 엽전 닳은걸로 허지 안해영?

107076 #1 것도 허여. 것ㄱ라 무시거엔 ㄱ라라마는 간제비엔 허더라. 간제비.

107076 @ 간제비.

107076 #1 간제비고 이 영영 흥글러가민 땡길땡길허잔아. 건 요랑, 요랑. 그 간제 빈 이, 그 돈 큰큰헌거 두 개예 그거 두 개예 탁 노민 이 다 얹어지당 하나 딱 갈라지민 왓다허는거, 좋은거. 나 그거 주로 해나부난 알암주 경 안허민 동네사름덜

토 잘 모르메. 안해부난 몰라.

107076 @ 보통 벨롱갱이는 마을 사는 사람 불르지예?

107076 #1 단골이 다 잇어.

107076 @ 단골이 이서?

107076 #1 단골 아니민 자기 허구정헌때 못해여.

107076 @ 거기 막 줄삿갓다예. 정월달 뛴은에.

107076 #1 그렇주. 정월달 넘으면은 이월달 삼월들 7지. 이월달엔 잘 아니허는디 영등할망 들어와부니까. 겨난 영등나시영 떡 혼반을 봐야.

107076 @ 여기도 영등나시. 음력 이월달에 돌아가신 분 제사할때도 영등나시.

107076 #1 그렇지. 아니 영등 들어오고 나가는거. 나가불민 아이봐도 들어온 때는 제스에도 봐야 혀.

107076 @ 영등 나가믄 메칠날?

107076 #1 여기는 이 그믐날 들어왕 이, 일레 일주일 시면은 소섬, 우도더레.

107076 @ 칠일 지나면 영등나시 안해도 뛴여?

107076 #1 아니혀. 영등 가분디.

107076 @ 초 일주일간이 문제다예.

107076 #1 아니 그믐날 들어와. 정월 그믐날.

107076 @ 글로부떠 칠일까지다예.

107076 #1 칠일날로부면 저 우도더레 가. 우도에선 십오일 뛴은 나와. 당신네 고향 가.

107076 @ 고향은 어딘고예.

107076 #1 몰라 어디산디. 그 영등할망도 이 막 어신 영등 들어왕은 딱시고 막 출려입고 오바입고 마후라 허곡 혼 영등 들어오민 막 언댄, 비바람치고.

107076 @ 그믄 당에 가지고 가는 떡은 돌래떡.

107076 #1 아니 믱물 신 사름은 믱물떡도 행 가곡.

107076 @ 믱물 돌래 예?

107076 #1 응. 경 안허민 흰것만 허곡. 또 어신 사름은 밥허곡 채소허곡 우력이나 굽곡 술이나 행가곡. 또 막 출리는 사름은 떡 만들곡.

107077 @ 굽떡이나 당에 가져가는 떡이 똑같습니까?

107077 #1 응. ㄴ따.

107077 @ 굽할때는 쪼끔 다르게 나까시리 떡을 행가야 뛴여?

107077 #1 나까시리떡은 큰굿 할 때 허주 그런거 안해. 그냥 돌래떡만 해. 나까시리 죽은 시리에다가.

107077 @ 굽할때도 고적이라는 거 안들어봤수과? 동글동글 방울떡이여.

107077 #1 아 그건 대신왕

107077 @ 그건 염라대왕 말허는 거?

107077 #1 응 염라대왕. 그거 딱 점을 보민 알아.

107077 @ 방울떡이 뭐짜?

107077 #1 그거 왜냐허민 이 큰 떡 만드아낭 방울방울방울 해연 거, 일곱방울일거라. 경행 속지에 싸. 댕섭 영 깎집고.

107077 @ 대접은 무사 꽃암신고예?

107077 #1 몰르주. 댕섭 영 깎줍더라 무신 이유산디. 계난 보기도 좋더라 그게 영 찢르니까.

107077 @ 일곱방울이 무슨 의미지도 몰르쿠와? 그거 방울떡이엔 햄수와 여기선?

107077 #1 응.

107077 @ 고적이랜은 안허고?

107077 #1 아니 방울떡. 동글동글 만드어.

107077 @ 만드어 봐수과?

107077 #1 만드아낫지.

107077 @ 돌래떡하고 똑같아?

107077 #1 응.

107077 @ 그믄 그거 대신 뭐 혈때는 시왕맛이를 말허는 거라예?

107077 #1 시왕맛이.

107077 @ 누가 죽었으네 큰굿혈 때.

107077 #1 그렇지 경도 허곡 이신 사름은 펜안허게 해줍생 헨 그냥도

107077 @ 불도맞인 해도

107077 #1 불도맞이 허는딘 할마님상에.

107077 @ 할마님 상에도 방울떡 헉디다. 구할망? 삼승할망? 방울떡은 누구를 위해서 경?

107077 #1 방울떡은 큰 대신 낡 혈 때.

107077 @ 대신 낡 혈때도 허고 불도맞이도 허고?

107077 #1 어, 두 가지. 다른 것엔 안해여.

107077 @ 무사 속지를 싸고 이런건 모르쿠와?

107077 #1 몰라 그거는 .

107077 @ 그믄 굿떡은 방울떡 허고 돌래떡 두가지가 잇다는 거짜? 나까시리하고?

107077 #1 나까시리허고.

107077 @ 큰굿에서는예?

107077 #1 큰굿에서는 방울떡이 들어가야허.

107077 @ 사발에 보시떡도 이십디다. 하얀거.

107077 #1 그거는 할망 굿혈 때. 불도맞이혈 때. 일곱 개.

107077 @ 것도 일곱 개?

107077 #1 그거 이 불도맞이 혈때는 딱 일곱 개 올려. 또 그냥 할망네시도 올리고.

107077 @ 조상할망?

107077 #1 아니아니  
 107077 @ 삼승할망? 일곱갹 올려야돼어?  
 107077 #1 응.  
 107077 @ 무사 일곱갹고예?  
 107077 #1 아니 일뤼할망이난 일곱 개를 올리는거지. 거 할망덜이 옛날 어른덜토 뭐가 이시니까 다 경허는거주 무신.  
 107077 @ 새벽이 일어낭 그 떡을 다 장만허갹다예.  
 107077 #1 무신 새벽이 일어낭 혈말이라. 그거 허젠 허민 오후 돼사 갹혈건디. 또 그날 아척이 허젠 허민 듯날 저녁이 부짱 허고. 또 저녁의 허젠 허민 아춤부떠 제물허고. 시간에 딸랑.  
 107077 @ 시간 보멍예?  
 107077 #1 거 행 놔두민 빠작빠작 식으민 이 좋지 안허지게. 금방 허영 올리는 것 보단. 경허난에 저녁에 혈건 아침에 허곡 널 아침 혈건 저녁이 허곡. 이젠 그런 불도갹 허는 사름도 엇고. 허도 안허곡. 그거 허도 안해도 애기덜 너무사 잘 키웁시난. 하나만 나도 뱅원더레만. 옛날엔 이 경 하도 일러부난 경 혈수배끼 엇어.  
 107077 @ 삼촌도 불도맞이 따로 해봣수과 애기아판?  
 107077 #1 우린 불도맞인 안해봐서. 그냥 철갈이혈때는 할망내시 빌지.  
 107077 @ 삼촌 뭇살때까지 벨롱갱이 했수과?  
 107077 #1 나는 스물 여섯... 혼 서른 넘어강 해실거라. 혼 오십돼가난 설러부렀지.  
 107078 @ 다른 떡들, 집에서 심심혈 때 떡 행 먹고 이런건 어섯수과?  
 107078 #1 엇어.  
 107078 @ 개떡이여 쑥떡이여.  
 107078 #1 아니 이녁만 떡쟁은 떡 안허여.  
 107078 @ 절대?  
 107078 #1 제사때나 허주 이녁만 떡젠 떡 안해.  
 107078 @ 명절에는 또 떡 엇수과 ?  
 107078 #1 무사 안해여. 멩질에 청묵허고  
 107078 @ 묵? 떡은?  
 107078 #1 떡도 시리떡도 허고 곤떡도 허고 지름떡도  
 107078 @ 똑같은게, 제사랑.  
 107078 #1 똑 경행 올려.

#### 소와 고물

107079 @ 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떡에 따른 소 종류=팔/깨/완두콩/설탕 등) 떡에 들어가는 소는 팔 깨 완두콩 설탕,  
 107079 #1 좁쌀, 세가지

107079 @ 강돌와리, 터럭조, 흐린죽썰 세가지  
 107079 #1 응.  
 107079 #1 건 제스에 들어가는 거고 곳에 들어가는 건 그런거 안써. 혜영케만 허지. 제스에 들어가는 건 풋도 있고 녹디도 있고 께도 있고,  
 107079 @ 어느게 쥔 많이 썰수과?  
 107079 #1 뭐 간단허게 허젠허민 께가 간단허주게. 맛도 있고. 그거 솔마그네 허는거민 께 확 보까그네 확 저 설탕에 버무리민 돼는데  
 107079 @ 옛날에 설탕이 어딴수과?  
 107079 #1 옛날엔 우리 계역해 먹을 때 그레 골드라 우리할머님네. 그때는 뉴슈간가 똥글똥글헌거 그리에 농곡 소곰에 난 골아가난 돈거 나오더라. 우리 할마님네 허는 거 봤지. 우린 안허고.  
 107079 @ 풋에도 소곰만 놓지 안행 그런거 난?  
 107079 #1 뭐?  
 107079 @ 뉴슈가?  
 107079 #1 뉴슈간 거 계역할 때. 미숫그리 할 때.  
 107079 @ 지금은 떡 속에 놓는거. 솔망 뽕앙 허민 돼어?  
 107079 #1 떡 놓는것도 그렇지게. 께 놓는 사름 있고, 녹디허는 사름도 있고, 풋 허는 사름 있고.  
 107079 @ 녹디가 맛죵니까 풋이 맛죵니까?  
 107079 #1 녹디가 맛죵주게.  
 107079 @ 젠디 녹디는 양이 죽으난 풋으로 많이 해신가?  
 107079 #1 녹디 허는 사람 베랑 엇어. 풋으로만 했지.  
 107079 @ 무산고예?  
 107079 #1 계난 녹디 가는 사름이 베랑 어시는 생이라.  
 107079 @ 잘 안돼신가?  
 107079 #1 풋 가는 사름은 하도 녹디 가는 사름은 거 어떻 일일이 타나 그거게.  
 107079 @ 줄아부난?  
 107079 #1 녹딜 갈민 이 까망케 익어가는냥 타사. 풋사 그냥 혼뽕에 비여냥 혼뽕에 장만허주만 녹딘 계속 타야 허여.  
 107079 @ 아, 틀리구나.  
 107079 #1 틀리지. 녹딘 익어가는냥 안허민 몬딱 베 베르싸정 알러레 다 털어져부러. 뛰여부러 뛰여부러. 딱딱딱딱.  
 107079 @ 계난 녹디방울이 그치록.  
 107079 #1 그 아이가 무시거 주지 안해영 지만 먹는 아이덜이 이서 욱앙 이. 요아인 톱 벤주룽 녹디 담다 경허여. 벤주룽해듬서 놔 아이 쥔덴.  
 107079 @ 벤주룽은 쳐다보다는 뜻이지예?  
 107079 #1 벤주룽 녹디가 이, 물 끌영 막해도 솔마지지 안허영 벤주룽허여. 거니

까 벤주룽눅디. 벤주룽 눅디는 슬망 막 흰들어야 그 눅디가 나지 경허지 안허민 안나. 말안듣는 아이ㄴ라 벤주룽눅디엔 허는거.

107079 @ 완두콩도 좋아예. 강낭콩.

107079 #1 강낭콩은 옛날은 이 백케에 조 불리젠 허민 돔비덜이영 눅디 해민 이런 돌담더레 올령 놔두민 그것이 자락자락 자락 열려가믄 타당덜

107079 @ 돔비하고 눅디 뭐가 달라마씨?

107079 #1 눅디가 맛잇일거라 아마.

107079 @ 돔비는 빨간색이피?

107079 #1 응 빨간색. 돔비는 밥에 낱 먹는거주게.

107080 @ 고물이 똑같네예. 고물은 밖에 묻히는 거. 떡을 밖에 묻히는 거, 풀허고 그 오메기떡처럼

107080 @ 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떡에 따른 고물 종류=팥/콩가루 등) 고물이 똑같네예. 고물은 밖에 묻히는 거. 떡을 밖에 묻히는 거, 풀허고 그 오메기떡처럼

107080 #1 오메기떡이주게 그거.

107080 @ 풀허고 콩가루도 묻혀놔수과?

107080 #1 그렇지. 부뜨지 못허게 희리니까. 찰찰 희리니까 걸 미쳐야 안 부뜨지 떡을,

107080 @ 꿰도 햇수과?

107080 #1 꿰는 못허여.

107080 @ 음 게믄 콩가루도 햇수과? 보릿가루나?

107080 #1 보릿가루도 안웨고, 보리 볶앙 곶앙 허는건 웨도, 보리도 못해여. 질 그게 허는 건 풋, 풋배끼.

107080 @ 풋 막 으깨영?

107080 #1 풋 막 삶앙,

107080 @ 삶앙 백상,

107080 #1 백상 그거 허민 이제 오메기떡 그 풋더레 영영영영 무청, 경행으네 이제 바구니더레 차룽이나 바구니더레,

107080 @ 지금 시장에 파는 오메기떡이 모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거과?

107080 #1 응. 꼭 같은거. 건 옛날식으로 허는거.

107080 @ 아아 옛날식으로 오메기떡은 고망똥랑 허는건가 해신디?

107080 #1 아니 무신 고망똥라?

107080 @ 풋 허기는 했구나.

107080 #1 오메기떡엔 현 건 희려부니까,

107080 @ 바로바로?

107080 #1 영 그걸 무쳐사 떡에 떡을 놔도 안부터. 경안허민 떡이 혼덩어리 웨불어.

107080 @ 팔십프로가 찹쌀 오메기인데? 조는 해끔 놔, 찹솔이렌 험디다?

107080 #1 이제 오메기떡 하는 사람 어서.

107080 @ 다 가짜주게 시장에서도 지금 워낙 비싸부난 ?

107080 #1 그거이 헝깁 해도 찹솔 낱 햄주.

107080 @ 옛날에는 조엿잖아예?

107080 #1 맛이 뜰려. 흐린 찹솔 오메기떡하고 냄새 코시롱 떡으로부터 뜰려.

107080 @ 그른 떡할때는 어떻게 똑같아? 익반죽 해영

107080 #1 물 끓일 때,

107080 @ 드리청 익으민 끝?

107080 #1 물할 때 몰아그네 만들앙 솟더레 드리치는거주게.

107080 @ 익으민 끝나는 거 고물만 묻히민웨는 거?

107080 #1 게. 설민 못먹어 우트레 올라와. 골라아징건 선거라 떡이 익으민 우트레 다 올라와

107080 @ 어만큼씩 크게 햇수과? 크기가 ?

107080 #1 건 죽게 허고정 허민 죽고 크게 허ㄴ정허민

107080 @ 시장에서 현 건 막 커 하나에 천원씩 폴아?

107080 #1 건 역불로 하나에 천원이나 크게

107080 @ 양꼬 놔?

107080 #1 옛날엔 양꼬 안놔 상웨떡이나 양꼬 넣주.

107080 @ 콩가루는?

107080 #1 엉? 콩가루 어떻허느니?

107080 @ 콩가루 인절미추록 육지?

107080 #1 콩가루도 막 즘질게 골드라 이제. 부드럽게

107080 @ 이젠 막 맛종긴 해여. 옛날 제주에서는 그추록 콩가루 안햇지예?

107080 #1 무사 허는 사람은 허여. 볶양으네 볶양, ㄴ레에 곶앙

107080 @ 뭐예? 오메기떡예?

107080 #1 맛종게 허젠허민 콩을 볶양, 볶으민 돌ㄴ레에 영영 곶아.

107080 @ 아아 볶은 곶로예. 고소해 ?

107080 #1 옛날 기계방 어서부니까

107080 @ 그걸 오메기떡에 무쳤수과? 아니면 뭐에 무쳤수과?

107080 #1 오메기떡에

107080 @ 오메기떡에도 콩가루 무천?

107080 #1 그래. 부뜨지 못허지 오메기떡에는. 찹솔이난 다른 떡에 다른 떡에 부뜨민 안웨지. 못부트게, 콩가루 막 즘질게

107080 @ 무사 오메기엿수과? 찹쌀을 오메기떡?

107080 #1 오물락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이엔 안햄서?

107080 @ 오물락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

107080 #1 몰라. 오메기떡이엔 허난 오물락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이주 무신 오메기떡여?

107080 @ 오메기떡이 좁쌀로 해야 오메기떡인가 생각했수다. 무사 오메기고 했주게??

107080 #1 응. 오메기떡은 좁쌀, 희린 좁쌀

107080 @ 좁쌀 이름이 오메긴가? 무사 오메긴고 했주게??

107080 #1 모르주게. 일름이 상웨떡, 곤떡 허듯이 이름이 그 떡 오메기상웨떡 곤떡 일름이 오메기,

107080 @ 그 오메기 어떤 때 먹엇수과? 제사 때 했수과?

107080 #1 제사때 자기 쉬어부러 빨리 쉬어부러 겨울에 배끼.

107080 @ 빙떡처럼 멍절 제사 상난디 다 썰수과?

107080 #1 오메기은 먹젠이나 허주 그런디 쓰젠 안해여. 상웨떡 ,

107080 @ 제사엔 안 올런?

107080 #1 올리긴 올런 겐디 겨울에 그런것에 주로 허는건 상웨떡허고 송편허고 빙, 침떡허고.

107080 @ 어떤 날 별미로 행 먹어신고예? 오메기떡은 ? 이것도 특별헌 날에?

107080 #1 오메기떡은 식계할 때 그 먹젠 허는거 달마.

107080 @ 게른 그거 삼촌은 맛종게 먹어낫수과?

107080 #1 뭐 맛종게 먹엇주게.

107080 @ 어머니 잘 했수과?

107080 #1 응.

107080 @ 무신 떡이 상웨떡, 젤 맛종덴 했잔아예. 그때예?

107080 #1 이젠 떡도 배랑 먹고정 안해여.

107080 @ 어렸을 때 놔뻘 놓고 호박놓고예 그 침떡 질질질질허는거. 색깔이 너무 시커멍행 맛 어실거 달문디 먹어보민 맛종아.

107080 #1 거 희린 조떡,모인 조떡은 혜삭혜삭 허고 히린 조떡은 찰찰허곡.

107080 @

107080 #1 거 희린 조떡, 모인 조떡 혜삭혜삭허고 희린 조떡은 찰찰

107081 @ 만들긴 어려웠겟다예. 떡에 얹힌 속담이나 금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107081 #1 아, 거 시리떡이주게 시리떡이 쳐보민 알아. 팍팍 그 이 떡을 만들엉 팍팍시릿구멍 짐으로 익이는거난, 팍팍 터질때가 잇고 집이 종젠허민 체얌 막아온 델로 심방긋할 때 경험 점을 허는 사람, “야 좋다”심방보다 더 알아. 제물해보면, 송편해보민이 부뜨지 안행부뜨민 비실비실해가민 좋지 안해여. 제물해보민 안덴해여, 겐 제물허는그런 할망덜 다 죽어불언



## 별식

107082 @ 순대 수애 담그는 거 곱아봔써.(과정~이용) 피도 넣고 쓸도 넣고

107082 #1 찹쌀 컷당으네 그거 시리에 청으네 그거 이제 피에 막 섞엉  
뭐 거세기 소금 농곡해영 경행 수애 담그는 거.

107082 @ 것뿐?

107082 #1 것뿐이주 무시거.

107082 @ 뭐 파나 뭐?

107082 #1 파도 넣고 후추도 넣고

107082 @ 그른 옛날에는?

107082 #1 옛날에는 그런 거 있나게. 옛날에 경 무신 거 먹을 거 셔? 수애도 그  
죽과ㄴ튼 거, 그런 거나 썰어 낱 허곡,

107082 @ 소금허고 피허고 찹쌀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이외는? ,

107082 #1 별거 어서.

107082 @ 걸 어만큼 놔야 담야? 물 찰찰허지 안해?

107082 #1 거민 배설에 맞게 걸 해야지.

107082 @ 피를 다 써?

107082 #1 다 써야지. 피 어시민 맛으서

107082 @ 그른 이만한거에 까득행 다? 찹쌀도 어마어마하니 많이 들켜예?

107082 #1 그 이 준 배설은 담기 힘들어. 홀근 배설이라야. 준배설은 거  
일일이 담긴 힘들어. 홀근 배설은 빨리 허는데.

107082 @ 여자덜이 험니까 남자덜이 험니까?

107082 #1 남자가 허지

107082 @ 씻는 건 여자덜이 험거 아니?

107082 #1 남자덜이 허여. 그것도 대창이 맛

107082 @ 바당에 강 씻어?

107082 #1 돌에 강 막 문대. 똥창이라노난. 켜디 그 대창이 맛있서이. 솔르민. 막  
은창도 맛 잇고.

107082 @ 대창 막은 창은 먹고, 순대 안 담양?

107082 #1 대창은 안돼도 막은창은 순대 담드라. 반을 두 개 딱 벌렁 썰언게. 크  
니까.

107082 @ 그 거 몹국 끓일 국물에 낱 삶는 거 아니?

107082 #1 도세기 삶아난 국물에 몹 낱 끓이는 거.

107082 @ 순대는 안삶고?

107082 #1 순대도 습지. 도세기 삶아난 물에 순대 삶앙 그난 지름 빠  
질대로 막 빠정

107082 @ 경행 몹 놓는거잔아예. 도세기부터 삶고 순대 삶는거잔아예. 어느것

부터 삶아?

107082 #1 도세기부터 믋녀 습지. 도새기 삶아냥 건저동 그 물에.

107082 @ 그 물에 순대 삶고. 순대도 대창은 오래걸리켜예?

107082 #1 대창은 안해여. 대창은 썰어그네 삶앙이. 술안주 허곡.

107082 @ 수애. 수애랜 햇지예. 맛종아예 것도. 제주도 수애는 간단하다예. 피만 노민 뽕신게.

107082 #1 피 농곡 양념 봐야.

107082 @ 북한엔 아바이순대여 뭐여 막,

107082 #1 거 이 순대에도 양념 많이 들어가.

107082 @ 계란 육지는?

107082 #1 잡채도 농곡,

107082 @ 겐디 제주도는 경,

107082 #1 아니 잡채 봐.

107082 @ 제주도도?

107082 #1 게.

107082 @ 옛날에?

107082 #1 옛날에 잡채 해서.(전화)

107083 @ 두부, 둬비는 바당에 가서 간수대신 짬물을 해수과?

107083 #1 응. 겐디 이젠 이 짬물 질레 가는 사름이 어딴나.

107083 @ 옛날 식으로.

107083 #1 이젠 이 소금물로 해볼테.

107083 @ 소금물.

107083 #1 누게가 바당 오염웤 바당에강 질어당 먹나 예구 추접허여. 소금물로 햄 네.

107083 @ 믋른 둬비를 좋아해예, 제주사람들은?

107083 #1 믋른 둬비는 우린 못먹어. 야게 걸영.

107083 @ 게때예 무사 경 제주도사람들은 꼭 둬비를 제사상에 올리드라구예.

107083 #1 겐디 둬비도 이 그렇게 믋른 둬비가 잇고, 물둬비가 잇어이.

107083 @ 제주도에도.

107083 #1 그렇지. 그것이 콩을 담갓다가 ㄴ레에 곶아. 물 노명

107083 @ 삶앙 곶아.

107083 #1 썩콩.

107083 @ 썩콩을 곶아?

107083 #1 썩콩을 해사주 슬믄콩 허믄 뽕나게. 썩콩을 이제 물노명 곶아. 곶아그 네 그거 이제 받찾다그네 아래에 소금물 봐. 아래에 지름 블라봐. 놀카부덴. 지름 블화냥 그 다음에 소금물을 봐. 소금물 노민 이제 그 두부가 물 짬걸 두 불 물을 비와놀거 아냐. 비와봐가믄 그때는 소금을 쪼끔씩 꿰지 못허게. 왓락허게 부껴부러.

래지 못허게 자꾸 영 놔줘야 혀. 게민 거의 익어가민 왁왁왁 안해여.

107083 @ 약헌 불에?

107083 #1 응 약헌 불에. 경안허민 막 부꺼부러. 경해그네 그거 이젠 자루 이 무슨 베치메 ㄴ뜨거. 그런거로 그레 이 물을 비와. 게민 영영행 물을 짜져. 게민 포에 다가 영 누르떠그네 우에 무신 남반인가 무싱거 들이청 우에 또 ㄴ랫돌 누르뜨잔아. 물짜지랜. 그렇게 허민 둬비지. 다른 둬비가 어딿나.

107083 @ 말로 들은은 몰르겟다예. 콩 숨지 안허고 콩을 그냥 물에 담갔다가?

107083 #1 담갔다가 곶아.

107083 @ 뗏시간 동안 담가마씨?

107083 #1 막 풀어지도록. 거 두루 허민 곶아지지 안해여.

107083 @ 열시간은 담가야 뗏켜.

107083 #1 아맹해도 오래 등가야헐거라. 영 보민 콩이 짹 풀어져 오래 등그면.

107083 @ 경행 ㄴ레로 곶면 가루가 뗏는거라?

107083 #1 물.

107083 @ 물같이 이렇게

107083 #1 ㄴ루둬비는 ㄴ루로 그냥 놀리고, 이 둬비는 물로 ㄴ는거. 물 노멍 곶아. 게난 ㄴ루 둬비는 막 목에가 걸고, 물둬비는 흐랑흐랑허잔아.

107083 @ 아 ㄴ루둬비는 물에 안큰 콩을?

107083 #1 ㄴ루둬비는 ㄴ루로 곶아다가 만드는거. 놀령.

107083 @ 그믐 ㄴ루는 옛날에는 이걸로 찌어수와 아니면 뗏돌로 갈아수와?

107083 #1 뗏?

107083 @ 콩가루.

107083 #1 아까 모인건 허젠 허믐 ㄴ루로 곶아당 놀리는거 허고, 또 콩 물에 등갓당 ㄴ는거허곡 두가지. 물에 등갓당 허는 것이 뗏 잇어. 이 ㄴ루로 헌건 모이어.

107083 @ 경해도 적갈 헐 때는 그 모인걸로 험디다.

107083 #1 건 그딿따랑 허지 이세계는 그 가게에덜 강 사당 헌댄허난.

107083 @ 물둬비?

107083 #1 응. 옛날엔 아까식으로 허고. ㄴ레에 곶앙.

107083 @ 물둬비도? 경행 적꼬지에 꽃이고예? 다섯 개 꼬집니까, 세 개 꼬집니까? 꼬지잔아예?

107083 #1 네 개는 하, 세 개, 세 개.

107083 @ 세 개 꽃아?

107083 #1 것도 하영 썰고 죽게 들어. 조그만씩 썰민 네 개 들어가고. 호뎡 하영 썰어지민 세 개 들어가고.

107083 @ 둬비는 무사 꼭 놔신고예?

107083 #1 어디 이제 청목허주 두부 안해여.

107083 @ 옛날에는 꼭

107083 #1 이젠 청묵허주.

107083 @ 그거 저 찰라가지고도 어디

107083 #1 옛날엔 청묵 못허니까 두부로 헛잔아. 이젠 청묵으로 허주 두부를 안해여.

107083 @ 청묵도 사당덜 해봅디다.

107083 #1 아니 이녁쿠로 허여.

107083 @ 아,

107083 #1 우리 이녁쿠로 허여. 산 것이 이, 전부 이녁쿠로 해사혀.

107085 @ ‘청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메밀 즙/이용)

107085 #1 왜 거 저 청묵도 못허냐?

107085 @ 청묵하고 메밀묵?

107085 #1 메밀묵이 청묵이지.

107085 @ 메밀묵은 메밀가루로 하는거고, 청묵은?

107085 #1 청묵은 그냥 솔로.

107085 @ 솔로 허는거예?

107085 #1 청묵은 므멸솔로이 그 주머니 잇잖아. 걸로 늘린 것이 청묵이라. 그거허면은 나 아피 들어라, 그거허니까 늘영 못허킵디텐, 아이고 그걸 막 멧돌 막, 솟을 끌영, 막 솟밀창이 막 뜨겁게 해영, 거 해영 비와똥으네 그 므물그루 해영으네 저시민 늘지 안허난 “성님 머리도 좋수다” 아 냉물에 허민 늘게 똥거지. 늘민 그근내 낭 못 먹어.

107085 @ 그걸 다른거를 말해줘야 똥텐 여긴.

107085 #1 그 솔로 이 주머니 이서 청묵주머니가. 줌진줌진헌 샤헌거. 걸로 이제 영해그네 줄라매영 무웃정 그 무을어야 놀릴거 아냐. 무웃찌민 그 물이 쫘 누리롱헌 물이 있어, 그건 비와부러야 혀. 청묵 허민 해영 안해. 불그롱해부러. 그니까 찻물은 빠진걸로 비와동 새물 낵 놀려야 헤양허지. 그거 초물 아니헛당은 이, 묵이 불그롱허여. 헤양허지 안해여.

107085 @ 그믄 한시간 정도 담강났당?

107085 #1 혼시간 든든히 등가야 혀. 게민 물을 등그민 주머니가 뽕뽕해여. 그 무을솔이 무을어가니까

107085 @ 무웃땡?

107085 #1 무으니까. 건디 그 등가난 물을 비와부러. 비와동 놀려야혀. 경안허민 그 물 노민 묵이 불그롱허여. 똥긴 똥디 색깔이 헤영안해여.

107085 @ 쟁 그것도 막 놀리면 물이 빠져?

107085 #1 놀리는 것도 영 해봐그네 이거 질질질질 내린 건 좋고이, 그것이 영 해봐그네 뚝뚝 떨어지민 안똥거.

107085 @ 것도 어렵다예.

107085 #1 청묵 아무나 못해여.

107085 @ 갱 그 다 빠쥐난 다음 찌꺼기는 버리고  
 107085 #1 버려볼지.  
 107085 @ 그다음 국물을 가정 냄비에 넣? 젓어 한쪽으로만?  
 107085 #1 혼쪽으로나 양쪽으로나 놓지 못허겐 젓어야지.  
 107085 @ 약헌 불로 젓어가면 묵이 돼어?  
 107085 #1 그게 চে암은 술을 물을 넣 막 끌여. 끌이민 솟이 뜨겁잔아? 비와똥 이젠 그 솟이 뜨겁지 아녀믄 늘어부러. 냄새나고. 이 아래 늘어부러. 게니깐 놓지 못허게 막 솟을 뜨거웁게 끌여. 비와똥 이젠 솟을 바싹 밀려 불에서. 밀류민 이 찰지름 조끔 넣 이레돌력 저레돌력 다 놓지 못허게 다 해영 그때는 그 놀린걸 그레 넣 막 때려. 막 때리지 안허믄 막 벌러지곡 스팡스망허여. 막 때려두민 문작허게 이쁘잔아. 거난 이 아무나 못해 저 청묵ㄹ뜬거. 거 간단헌거 아니. 벌써 청묵 해논거 보민 아 야이는 그만큼 잘허는 아이로구나. 묵 쏜거 봐. 잘못허민 찰 방상덜 썩썩허는 디쭈은 이거 누게 췌느냐 옛날엔 남즈가 호랭이질 했잔아.  
 107085 @ 메밀묵보다 청묵이 맛중구나.  
 107085 #1 메밀묵은 그냥 카냥 쭈는 것도 메밀묵이고 청묵은 놀령.  
 107085 @ 메밀묵은 가루로 마찬가지로 물에 탕 그냥 영 허믄 돼어?  
 107085 #1 그렇지 그냥 타그네 너무 돼여도 막 벌러져볼고 그거를  
 107085 @ 물을 잘 조절해야 돼겟네.  
 107085 #1 그거를 타는걸 잘 조정해사. 거 잘못허믄 흘러부렁도 안돼고.  
 107085 @ 소금 살짝 넣고?  
 107085 #1 소금은 다해가사 소금 놓는거.  
 107085 @ 다해가사? 그문 저 청묵이 더 맛중다는 거지예? 부드러와? 더예. 가루보다 더?  
 107085 #1 잘 쭈민 이 청묵 맛 이서. 잘못허민 비실비실허고.  
 107086 @ 미숫가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보리, 콩) 그문 이번 미숫가루. 개역?  
 107086 #1 개역은 어떻허나  
 107086 @ 옛날식으로 솥뚜껑에  
 107086 #1 보강. 옛날엔 그 솥뚜껑에서 거 못허민 산에 강 이 줌진줌진헌 소낭 잇잔아. 그거 기쳐져 잇느거.  
 107086 @ 삭다리?  
 107086 #1 삭다리 해당 그걸로 지저 빙. 돛지름에.  
 107086 @ 돛지름에? 아 빙이 아니고 개역.  
 107086 #1 아, 개역? 개역은 솥뚜껑이에서 보끄나 또시 헌 솥엘 보끄나.  
 107086 @ 헌솥에? 뚜껑으로예 어평?  
 107086 #1 건 솥뚜껑이 영 갈라정 보끄는거주 무신. 솥은 이 그냥 밥 못허는 솥이 잇어. 그것에 해여그네 작박으로 영 글거그네 놓고 비치락으로 썰고

107086 @ 경행 그것도 ㄴ체로 곺아?  
 107086 #1 경 개역으로.  
 107086 @ 대체 합체 중체  
 107086 #1 그건 ㄴ는체로 치고 또 그다음은 중간체로 치고 말제는 무신 막 홀근  
 결로  
 107086 @ 켈 나중예가 ㄴ는체예?  
 107086 #1 ㄴ녀가 ㄴ는체.  
 107086 @ 모녀가?  
 107086 #1 말제라가든 중간 똤가든 또 곺아야 헐거. 모녀것이 최고.  
 107086 @ 아아!  
 107086 #1 말제에 가가민 질기가 어서.  
 107086 @ 아, 처음예께 맞잇구나.  
 107086 #1 그렇지.  
 107086 @ 처음부터 ㄴ는체에 나온게. 그게 진짜 개역이다예?  
 107086 #1 말제라가난 이 그 격적이 많이 들어가잔아. 게니까 비실비실허지.  
 107086 @ 비실비실. 그 개역은 어디 향아리에 놔둬니까?  
 107086 #1 개역? 단지에 놓주. 무신.  
 107086 @ 단지에.  
 107086 #1 그때 무신 비니루가 잇나 뭐 잇나. 옛날엔 단지에 무신 두껍 더꺼그네.  
 107087 @ 지짐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적이렌 허지예? 비올 때 지지미도 지  
 정 먹어놋수과?  
 107087 #1 그건 그냥 먹구정허든 지정먹고  
 107087 @ 뭘 지정먹습니까? 새우리 놓고 뭐  
 107087 #1 새우리 놓고  
 107087 @ 밀가루가 없으면은 뭘로?  
 107087 #1 보릿ㄴ르 곺앙.  
 107087 @ 보릿ㄴ루에 뭐 낭 먹습니까?  
 107087 #1 뭐 낭 먹나? 소금 낭  
 107087 @ 아니 야채는 뭐 놔? ㄴ떨이나 새우리나 이런것도 안놔?  
 107087 #1 거 낭 먹어.  
 107087 @ 뭘 주로 놓니까 지지미 헐때?  
 107087 #1 파 같은거. 새우리도  
 107087 @ 쪽파?  
 107087 #1 그런거 놓고.  
 107087 @ 김치도 놓고?  
 107087 #1 김치 안놔. 김치 이제 먹젠 허든 그런거 놓주.  
 107087 @ 호박이나 ㄴ물은 안놔?

107087 #1 아이와 안싸.

107087 @ 새우리하고 파가 좋았대예?

107087 #1 응.

107087 @ 친구들이영 행도 먹고 비올 때?

107087 #1 에이구 옛날엔 탕관허젠허민 그런거 헐 즈리가 어서. 탕관 혼장동안 하나 해사 풀앙 졸받아 먹을거난. 그런거 저런거 허느냐? 밥도이 못먹어 탕관허젠허민. 빨리 두어숫가락 먹어야. 오래 먹젠허민 탕관 못헌디.

107088 @ ‘오메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과정 등)

107088 #1 오메기는 이, 그 희린 좁쌀 해다가 물을 끓여. 끓여가지고 반죽을 하여. 반죽을 허면은 그걸 떡을 요만씩 만들엉 해가지고 끓인 물에다가 익혀. 가지고 우쑈 떠. 골아징거 식혀 물 노명 끼어. 뜨거울때민 잘 안돼어. 식형으네 누룩 물 어느정도면 어느정도 놔가지고 뜨신디 놔두민 빨리 익고, 차가운디 노민 자게 껴질 안해여. 방에 노민 빨라. 뜨시니까. 남자덜이, 걸러그네 막걸리 행 먹 영양 이신거여. 걸려난 주신 그디 낳으네 빨리 익고 방에 낳 걸렁 술행 막걸리 발이 죽어가. 또 밥행 너무해가민 우깅우깅 올라와. 경안허민 죽어분다고, 누룩도 놔주고,

107088 @ 계속 남자 위해서 해야돼는거,

107088 #1 실프민 안해 네불어 신경 써

107088 @ 아저씨도 술 잘 먹엇수과?

107088 #1 밥은 저레 밀리고 술은 앞더레 땡기고 초상때부터 경 술을 좋더라고, 큰아덜은 잘먹고, 작은 아덜은 잘허민 혼두잔

107088 @ 아저씨 좋아하는 술을 만들엇수과?

107088 #1 아저씨 돌아가분디

107088 @ 살아계실때

107088 #1 술바가지 걸이는 거 자꾸 그거만 먹젠허난 난 안헛어

107088 @ 좁쌀을 상 와야겟대예?

107088 #1 우리가 허여. 밧데 옛날은 물로 불리지 않혀. 조로 남태란거 말 도쩌가지고 아방이 그거 꼬령 끓아.

107088 @ 오메기술 잘행 먹어났구나예?

107088 #1 잘 안해여. 내가 힘들어. 바당에가지, 밧디 가지 밤에 지치지 한결해야지. 것도 못헐 비 온 날은 지쳐 자불지.

107088 @ 행 놔두민 드섯구나?

107088 #1 응. 불쌍헌 기가 잇더라. 일에 지치니까 거 먹으민 잠이 잘오지.

107088 @ 오메기술허고 고소리 닦으는 거하고 달라?

107088 #1 다르지. 거 오메기 고소리거에는이 좁쌀을 이제 골아당 친 떡에 쳐, 이만헌 시리에다가 쳐그네 그놈을 막 식혀. 명석 것에 낳 요만헌 그레에다 가 낳, 식혀. 식히민 이제 그 밥에 물에 누룩에 섞으네 담아낳

107088 @ 밥은 즈밥? 그냥 보리밥

107088 #1 즈밥이지 보리밥은  
 107088 @ 시리에는 떡이고  
 107088 #1 시리에는 떡으로 허는 게 왔다지.덕으론 허는건 술도 잘 나.  
 107088 @ 명석에 부떠불지 않해여마씨  
 107088 #1 안부떠 왜 부뜨냐  
 107088 @ 아아 줍쓸가루 흐랄흐랑?  
 107088 #1 부뜨지 안허드라고, 비니루가 잇나 뭐 기지가 잇나게  
 107088 @ 명석허민 쥔덜 들어가지 않나?  
 107088 #1 뭐 말리나? 안에서 부엌에서 식혀 그냥  
 107088 @ 식으민 바로?  
 107088 #1 누룩에 섞으네 항더레 물 비왕,  
 107088 @고소리 닦으는 건 틀리지예? 무슨 항아리 닦은거예?  
 107088 #1 많이해사. 건 많이해사, 그거 이제 독주를 빠면은 술이 얼마 거 안 나  
 고 물을 많이노민, “싱겁다 싱겁다” 해. 아방이, 와네 영영해네 하르방 “술 자시는  
 어른 입에 낵 무싱거 얼마나냐 남을거냐? 그거게, 그거 물 타야 해여”자기네 아방  
 입에 맞게 허젠허민 술 얼마 안난텐 술마시는 어른안티 맛보렌 허민 싱겁텐 허주,  
 술이 어마 안나. 그게 고소리\*쟁이 닦은거 이서. 우에 영 허민 물이 드뚝허면은 시  
 끄시끄허고 그것이 물을 그것이 뜨근뜨근허민 시고 좀 딱딱해가민 제라헌 술이  
 돼는거라. 물로 조종허잖아.  
 107089 @‘췌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재료, 과정 등)  
 107089 #1 보리밥 쉬영 못먹은 거 췌다리 맨드는 거, 보리밥 해영  
 저 식혀 누룩낵 물노민웨고 누룩어신민 줍쓸잇잖아. 보리쌀 벌러난 줍쓸 서팅 허여.  
 107089 @ 췌다리는 쉽지예?  
 107089 #1 췌다린게, 밥 쉬어가민게 누룩 낵 물노민게 췌다리주. 사까린이나 설탕  
 이나 낵 막 끌영. 춤 것도 누룩 봐야.  
 107089 @ 뽕아?  
 107089 #1 누룩? 누룩 봐야 것이 잘 퀴여.  
 107089 @ 밥에다 봐?  
 107089 #1 어.  
 107089 @ 메칠 정도 봐두면? 뽕 시간?  
 107089 #1 누룩을 봐두민 부글부글 퀴여가민 돼는거지. 그것 잘 퀴여야 혀. 그냥  
 은 맛 어서.  
 107089 @ 물 안노코?  
 107089 #1 물 노양. 밥을 물 노아그네 누룩 봐그네 막 퀴여가야 영 먹어보른 새콤  
 새콤허여.  
 107089 @ 췌디 우리어머니 헌건 새콤새콤을 안헉디다.  
 107089 #1 그냥 해부난 거주.



107089 @ 달콤해 그냥.

107089 #1 거 혈충 물론거. 새콤새콤 해야 거 원다리지.

107089 @ 그니까.

107089 #1 그렇지.

107089 @ 하난 또 달기만 험디 호썸 이시난 또 너무 시어부러.

107089 #1 거 오래 놔둬부난 거지.

107089 @ 식초같이

107089 #1 그게 이 영혈때에 부글부글 켈때에 막 끌여.

107089 @ 따시 그걸 끌여?

107089 #1 막 끌여야 혀.

107089 @ 아.

107089 #1 끌여야 혀는디 그냥 혀민 이 시큼지고 시어부러.

107089 @ 시어북디다게.

107089 #1 어어, 그거 잘 끌여야 혀.

107089 @ 끌영 바로 먹어야 됩니까? 놔두지 못허지예 오래?

107089 #1 놔둬도 어떻 안해여 잘 끌이민.

107089 @ 이상허다.

어떻 잘못해부난 거지. 느네어떻 잘못했다. 것도 못허는 어명이 어딴나.

107089 @ 계난. 맛은 좋읍디다.

107089 #1 맛은 게 설탕맛이주게.

107089 @ 새콤을 안해.

107089 #1 원다리는 이 새콤져사 원다리라. 에이구. 새콤새콤 안허든 원다리가 아니라.

107090 @ 누룩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누룩은 무슨 누룩으로?

저 밀누룩, 밀누룩이 보리누룩보다 영양가치가 잇고, 밀누룩이 왔다지. 근디 보리누룩도 잇고, 또 보리 곱아난 돼지 먹는 거, 그런 걸로도 만들고, 건 누룩이 좋아야. 영 누룩 거이 땡 영 벌렁 보민이 소곱에이 진누렁허고이 막 꽃이 뽕경헌 꽃이 피엇드라고, 영 벌렁보민, 그거 안행 시커멍이나 어땡허민 누룩이 안웨면은 술도 잘 안웨여. 그거 원료라 원료, 그걸 놔야허주 그걸 안노민 안웨.

107090 @ 누룩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듭니까?

107090 #1 누룩 아무나 맨들주게. 보리 잇잔아 보리. 까끄지 말앙. 것에 돌ㄱ레로 이 발발발발 거퍼. 거퍼민 치지 말앙

107090 @ ㄱ레로?

107090 #1 그렇게 영 거퍼. 거퍼그네 이

107090 @ 꺾데기 벗긴다는게 거핀다는 거?

107090 #1 꺾데기 벗기지 말고 누룩허는 건 꺾데기 벗경은 안웨여. 꺾데기 이젠 발발발발 맏돌로 곱아. 곱아놔그네 물에, 물 잇게 허지 마랑 영 사룩사룩허게 해여

그네이 그 챗망 잇잔아 챗망, 그 체치는 챗망, 그 체 어신 것이 잇어 챗망. 체로 만들지 안허영 그 똥글락헌거. 그걸로 이레 막 담아놔. 걸랑 가운데 낵. 그 챗망 소꿉에. 너네어멍 잘 헐걸.

107090 @ 못해.

107090 #1 못해? 거 뭇말이냐?

107090 @ 어디장 사당.

107090 #1 그거이 경허곡 돌래떡으로 만들야도 뉘고.

107090 @ 납작납작?

107090 #1 어,

107090 @ 거 시장에서 파는것처럼?

107090 #1 어, 그렇게 헛 것도. 또 하영 술허는 건 이 챗망에 걸려. 거 하영 이서 사 술 헐거 아냐? 우리 술장시도 다 해낫져 걸로.

107090 @ 게른 그거 싹트지 안헛 그냥 놔두른 누룩이파?

107090 #1 놔두민 무싱거 뭇 푸대나 더경 내불민 그것이 곰팡이 피멍 허지. 쟁 고만이 낵 내불민 그것이, 거 애기덜토 애기구덕에 누룩 놓지 안허나? 몰라? 어멧도 몰라? 옛날엔 이 병원에도 아이강 그 애기구덕에 누룩을 놔 머리맛디 거난이 애기가 왁 허게 울지말고 누룩 트듯 애기가 믋음을 잔잔허게 누룩을 낵놔뉘 성냥허고

107090 @ 누루뜨란 말로 들언.

107090 #1 왁왁왁 허지말랜. 애기가 팔딱팔딱 허잔아 올 때. 쟁디 경허지 말랜 다 방법으로.

107090 @ 아, 그 누룩이란 이름이. 육지에도 누룩이랜 안허여?

107090 #1 몰라 육지는

107090 @ 이렇게 누르뜨라는 말로 누룩?

107090 #1 누르뜨건 트는거. 터야 누룩 뉘지.

107090 @ 튼다는 건 곰생이가 펴야 된다는거지예.

107090 #1 응 것이 드뚝해가멍 트메.

107090 @ 애기구덕에 놓는거는 방법으로?

107090 #1 방법으로게 요만이 돌래떡 ㄴ찌 만들앙. 쫄글락허게.

107090 @ 쟁 뉘에 싹 형겼에 싹 거기 밑에 놔두면?

107090 #1 아니 싹 아니 그냥 물르민 그냥 머리맡에 애기구덕에.

107090 @ 그른 애기가 무싱거 해지라고 마씨?

107090 #1 애기가 이 와달부리멍 우는 애기가 이서. 거 누룩을 노민 이 쟁 못허게 행 방법으로 노는거.

107090 @ 아오야!

107090 #1 그거 어멍 안굴아쥬냐? 우리 애기덜토 몰람실거여게. 그거 애기구덕에 노른 애기가 이 줌도 곱게 자곡, 와달지지도 안허곡, 방법으로 허는거.

107090 @ 방법으로. 거 뭇파 보리싹나가지고 허는거

107090 #1 골, 골  
107090 @ 골이파 거?  
107090 #1 건 얹혀는거.  
107090 @ 건 또 다르구나.  
107090 #1 건 얹혀나 감줄 허나.  
107090 @ 얹이나 감주는 그거는 물 주어가든 싹 나?  
107090 #1 그거 물 켜 놔두면  
107090 @ 아, 물 켜 놔  
107090 #1 물 켜 놔두면은 것이 무을어. 무을든 건젓다그네 다라에나 뭐 놔두든 뽕족뽕족 순 나. 경허민 이젠 순나가면은 걸 이제 넣어. 혼뽕에 넣든 맛어서 들지 안해여. 그걸 막 넣었다 똥쌌다 막 즈들리멍 넣어야 들주 경안허민 심심해. 그 물류는 것도.  
107090 @ 싹 나면?  
107090 #1 싹나면. 싹 나든 막 불리덜토 나잔아게.  
107090 @ 뽕리도 나고  
107090 #1 어. 경허영 이젠 그것이 혼뽕에 물류지 말고 서서히 물류와야 들지 혼뽕에 물류민 들질 안해여.  
107090 @ 그 싹 초록색깔이영 불리영 다 물려? 거든 죽어버리는거네예?  
107090 #1 죽어부는거주게. 게난 물르는거지.  
107090 @ 그든 그게 골이 돼는거?  
107090 #1 어. 그거 즈꿋디 므물썰 넣은 안돼여. 그거나 미깥이나. 절대 묵이고 청묵이고 빙이고 못지저.  
107090 @ 므물썰허고 미깥 놓지말랜 현 말은 들어수다마는 골허고  
107090 #1 골도 ㄴ찌 서꺼정은 안돼여.  
107090 @ 골허고 밀감 놓지 말라고?  
107090 #1 밀감이나 골이나 절대 므물썰 여피 아저댕기지 말라고. 므물썰 버려부러. 그런거 해가든 와르를 해부러. 지지질 못해여.  
107090 @ 참 나 이런것도 공부함수다예.  
107090 #1 여러 사름 나암피 배와가서.  
107091 @ 옛 종류와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91 # 보릴 물에 등강 놔두민 구덕에 바쳐 놔두민 순이 나와 그것이 덩어리져.  
107091 @ 옛이 골이지예?  
107091 #1 그래 골놔야 옛 돼주. 골 아니넣은 , 골도 너무 노민 목썰렁 못먹어.  
107091 @ 너무 노민 목썰려?  
107091 #1 골이 너무 하면은 목이 와썅와썅해여. 목썰려.  
107091 @ 목썰려. 그든 익모초 옛이여.

107091 #1 익모춘 거 배아픈디 먹는거라. 거 옛 해여.

107091 @ 닭으로 옛을 많이 하지예? 토끼옛이여.

107091 #1 이제는 보약 이서부난 그런거 안먹어. 옛날에는 그 독이 보약이라이. 옛도 행 먹곡 제골도 빵 먹곡 죽도 끌영 먹곡 하잔아. 이제는 독 7 뜯거 먹지도 아녀. 옛날엔 독으로만

107091 @ 지금도 치킨 그런 건 잘먹어, 아이들예. 그 옛을 허젠 허민 꼭 골이 필요허파?

107091 #1 게. 골 어성은 옛 안돼어.

107091 @ 골 만드는 거 혼변만 골아봅서. 간단허게.

107091 #1 아, 윤변이 온때 골아주니까.

107091 @ 계도 그거를 어떻게?

107091 #1 그 이 솔오리골이 들긴 허여. 걸보리 골보다. 건디 그 골이 보리가 물에 등가. 물에 등강 놔두민 혼 아침에 등그민 듯날 아침이 건져야 헐거. 그게 쑥 풀어져 물에 등그민. 풀어지민 구덕에 받쳐. 물 다 빠지민 다라에 낱 그냥 놔두민 그순이 나와.

107091 @ 하루에?

107091 #1 응. 그거 놔두민 이, 듯게 너무 듯게 해도 썩어불고 하여튼 이 은근헌데 노민 이 빨리나. 빨리 나면은 이젠 그것이 덩어리져. 막 그냥 빨리낭. 게민 그게 이젠 막 찢어. 막 찢어그네 물류당 또 시들류당 오늘 물류건 아니헛당 또 조들류명 조들류명 그걸 물려야 돌아. 지청허든 들지 안해. 즈들랴야 돌아. 빨리 물류지 말앙 텃날도 물류곡 또 밤의 좀 해쌍 내불곡 허명 조들류명 헌건 들곡 즉시 그냥 바싹 물류건 들지안해.

107091 @ 이슬도 맞치고, 뭐

107091 #1 이슬은 안맞치고, 거 너무 질어가든 퍼렁해부러.

107091 @ 응 적당히

107091 #1 계난 그걸 못허게 넣어, 넣어.

107091 @ 갱 그거 잘 낫당

107091 #1 뭘 잘 낫당?

107091 @ 골을 잘 낫당

107091 #1 골을 물려야지. 바싹 물류와. 막 영 이빨에든 딱딱 씹어질 정도로 물려야 해. 거든 거 기겟방에강 바르르 내료와불민.

107091 @ 바르르 내료다는건 가루로 만든다는 거지예?

107091 #1 가루로만 허지 말고 혼변만 내료렌 허든 그 사름덜 알앙 해줘. 기겟방에서. 이거 골이난 양 혼변만 내려줍서 허민 그냥, 그 사름덜 다 알앙 해줘.

107091 @ 반짝씩 별러진다는거지예?

107091 #1 응.

107091 @ 경허민 그걸 가정 옛을 허는거 아니예?

107091 #1 그렇지.

107091 @ 엿을 할땐 닭엿은 어떻습니까? 닭을 삶아?

107091 #1 독을 미루듯 팔려볼문 나무ㄴ찌 못먹어. 독은. 팡팡해볼어. 엿을 허쟁허믈  
 땃시간을 해살거 아냐. 겨민 그게 엿을 허쟁허민 솥에 반 이상 즈까가민 막내려가  
 부러 물이. 게가믈 이 독을 들이쳐. 들이쳐그네 건져부러. 건젓당 이젠 찌정 낫다그  
 네 엿 거의 불탁불탁 해가믈 그때 놔야 부드럽지이 그냥 낡 딸렁은 못먹어 팡팡.

107091 @ 그믈 그 엿을 만들때는 뭘 삶아마씨?

107091 #1 히린좁쌀이나 좁쌀이나, 모인건 안돼어.

107091 @ 아, 다 좁쌀이로구나.

107091 #1 모인건 엿이 비실비실해부러. 좁쌀이라사.

107091 @ 모든게 다 히린좁쌀이다예.

107091 #1 좁쌀도 좁쌀이라사.

107091 @ 쌀하면 찹쌀

107091 #1 좁쌀로.

107091 @ 산디찹쌀

107091 #1 응.

107091 @ 조는

107091 #1 히린 좁쌀. 히린거.

107091 @ 그거를 놓고 팔리다가 익모초를 놓는다.

107091 #1 걸 해영 밥을 해여.

107091 @ 아 먼저 밥을 해여.

107091 #1 그렇지. 밥을 해여. 밥을 해여그네 식혀. 다라예 낡. 식히믈 씨늘허민  
 이제는 골을 그레 낡 허겨. 허끄민 물 호끔 낡 허겨가민 물 뒤퍼러 그거. 이 골이.  
 화르르 행 허민 이젠 그거 솥더레 비와그네 물 어느정도 노민 엿 땔거여 것에 알맞  
 칭 낡

107091 @ 아, 것 뿐이파? 간단헌게게.

107091 #1 간단허지.

107091 @ 거믈 그치록 어려운걸로 생각허니까 어려운거구나.

107091 #1 아니아니. 경해그네 거 짜그네 짱 끌여가민 엿돼는거.

107091 @ 짜서?

107091 #1 체에

107091 @ 체에?

107091 #1 다마네기찰리로 놀려야. 놀령 주시로 막 해영 그 다마네기 찰리안에 물  
 로 체에 받춰야 해.

107091 @ 체에 받쳐 깨끗허게 그 걸로 거를

107091 #1 응 경안허민 그 체가 이 빠져부러. 이 대로 영 헌거니까. 게난 물만 비  
 와야지 그 건더기 비우믈이 무거우니까 그 총으로 만든거니까 털어져부러. 체 판나

부러. 가맹이 차로 놀령 막 짜냥 물만 걸러야해.  
 107091 @ 옛날엔 체로 해신디?  
 107091 #1 아, 옛날도 마찬가지.  
 107091 @ 다마네기 찰 리가 어디서 옛날에?  
 107091 #1 아 옛날엔 구덕에 받쳐놔네.  
 107091 @ 아, 구덕에.  
 107091 #1 구덕에 받쳐그네 막 짜놔그네.  
 107091 @ 체 빠져볼카부덴  
 107091 #1 체 빠져볼잔아. 바로 건더기 노문게. 그거 총으로 헛거 얼마나 약헌중  
 아나. 불탁해부러.  
 107091 @ 지금은 플라스틱이라도 옛날엔 말총으로 헛수게예?  
 107091 #1 이젠 프라스틱 햄주게. 거 이 물에 가가문이 그냥 카부러. 프라스틱.  
 107091 @ 아, 건 허지도 못허켜.  
 107091 #1 말총만이 좋질 안해여.  
 107091 @ 쟁 끌영 익모초는 언제 놔?  
 107091 #1 익모초를 막 팔려야 허여 물로. 경 딸령 걸 체로 받쳐다그네 밥 해여.  
 밥을 해 그 물에다가. चु솔로 밥 해여.  
 107091 @ 아, 먼저 익모초를 팔려난 다음 그 국물에 밥을 한다?  
 107091 #1 그 국물에 밥을 해여야 허지 그 주시레기 어떻 허랜 말이냐? 경허영  
 엇허는거. 익모초는 막 썬. 썬도 썬고.  
 107091 @ 아, 썬도 낭해마썬?  
 107091 #1 썬도 엇해여. 배아픈 사름덜. 배아픈 사름덜 그냥 돌른 썬 팔려먹잔아.  
 이제는 배아픈디 먹는약 잇주마는 옛날에 썬 먹잔아. 썬 고령근 뽕 것ㄴ라 무시거  
 옰 해라마는 썬달문것ㄴ라 아까 무시거옰? 익모초. 그거 먹어 배아프민.  
 107091 @ 그거 말고는 또 엇엇구과? 거기다 놓는거.  
 107091 #1 뽕 놓는거?  
 107091 @ 익모초가 많이들 먹긴 먹엇다예.  
 107091 #1 그렇지 배아프니까. 애기나고 막. 이젠 약 이시난.

## 기타

107092 @ 이외에 이 마을에서 해 먹엇던 음식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7092 @ 막걸리하고 고소리가 다른게 뽕파?  
 107092 #1 막걸리는 자기 먹젠허민이 꿔도 넣고 ,  
 107092 @ 오합주 무시거여?  
 107092 #1그런 식으로 수로 다끈건이 술푸대덜은 그것도 막 종텐헛 먹드라. 그것  
 이 우에꺼 건저먹으민 술 안나. 우에 남자덜이 우에 디끈 골라 안자나? 그거  
 먹으어볼민 술 잘안나더라.

107092 @막걸리는 막거릴해야돼고?

107092 #1막걸리는 이제 그냥 먹젠허는거고 고소리에 닦으는 건 밥을 허던가 크게 떡을 허던가 해여.

107092 @ 제사상에 올리는 건 막걸리보다 소주가 더, 청주 이런거?

107092 #1 소주, 소주,청주는 막걸리글라아진게 청주고, 소주는 뻔거고, 청주는 막걸리글라아진게 청주, 것도 알앙해여. 요셋아이덜은 청주엔해도 몰라.

107092 @ 오합주여 오양주여?

107092 #1 오합주는 그게 인삼, 꿀, 꿔 그렇게 들어가지. 난 안해봤져. 말만 들어봤주.

## 8. 주생활

### 구조

108001 @ 집을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8001 #2 석수와 목수를 잘 빌어야돼어.

108002 @ 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초가, 기와, 흙, 돌 등)

108003 @ 집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안거리/박거리/모커리 등)

108004 @ 삼간집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구체적으로)

삼간집 지을려면 부역으로 전부 동원해서 집을 지엇어.나중에 돼가니 나무도 동원해서 산에가서 해오고

108005 @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부분 명칭/ 재료 등)

지방 끝은데 난간같은데 다 들어잇어. 무신낭, 굴무기낭이 상당히 좋주., 서까래는 가시낭이 상당히 좋아. 지붕에 올리는 서까래, 주춧돌은 허염직헌 거 봉가당 밑에다 놓고,

108006 @ 외, 산자, 인방, 반자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엮기, 흙 바르기 등) 흙으로 보릿짚 섞엉 블랏수과?

108006#1좋은 흙을 파다가 마당에 놔가지고 소로 막 블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벽을 바르고 돌우이도 바르고 찌뿌락 놔가지고 블르고 했어.

108007 @ 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꿔, 이불상, 아랫목, 위목 등)시렁 시렁이?

108008 @ 마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널마루/부엌/공간 활용)

108009 @ 고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향/창곰/안칠성 등)

108010 @ 부엌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술/재/물항/살레/찾방 등)

108011 @ 문설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문얼굴, 돌쩌귀, 문지방 등)

108012 @ 동그락헌 거는 걸쇠, 돌쩌귀 이제 알쿠다. 거문 문 또는 창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문 달기/지게문/상기둥 밑/뛰창문/창 바르기 등)  
 108013 @ ‘호령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서귀포시 지역)  
 108014 @ ‘굴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굴목 때기/연료)  
 108015 @ 어머니가 주로 땃지예? 그든 풍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달린 풍채/선 풍채)  
 108015 #2 햇빛도 받고 비도 받고, 집집마다 잇다시피 했어.  
 108016 @ ‘물팡’은 마씨.(물허벅, 대바지, 물구덕 등)  
 108015 #2 허벅 부리는디  
 108016 @ 아아 돌이 고와사되어마씨?  
 108017 @ 아이구 참말로 올레, 골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형태 등)  
 108018 @ 올레예. 문간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형태, 기능 등)  
 108019 @ 가리 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가리 틈/숨바꼭질)  
 108020 @ 돼지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돼지집/함지박/깃 주기/우리 뛰어넘기/가시담 등)  
 108020 #2 돼야지 질루는디, 사람이 불일보는디 집집마다 잇주,  
 108021 @ 변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부춘돌/인기척/휴지?/설사)  
 108022 @ 헛간에 뭐렌 헛니까 ?  
 108022 #2 허득헌 거 논는디주.  
 108023 @ 외양간을 제죽말로  
 108024 @ 장 독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5 @ ‘춤’ 또는 ‘춤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초가 지붕이기 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제주시 지역/서귀포시 지역)  
 108027 @ 새, 각단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7 #2 새가 진 것은 지붕을 덮고, 째은 것은 각단이주.  
 108028 @ ‘집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진 줄/쯔른 줄)  
 108029 @ ‘집줄’ 만들기에 쓰이는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호랭이/뒤치기 등)  
 108030 @ 평고대에 말씀해 주십시오.(대나무/긴 막대/철사)  
 108031 @ ‘집줄 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횃수)  
 108032 @ 다 남은 ‘집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32 #2 정지방식.

### 연장

108033 @ 집 짓는 연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허고



108034 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쓰임)  
 108035 못뽑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배척/장도리)  
 108036 @ 대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8036 #2 낭 각으는 거  
 108037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종류)  
 108038 먹통, 먹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39 흙손, 흙받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쇠/나무)

## 10. 세시풍속

### 12월

110033 @ 친구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0034 @ 이사 갈 집은 어떻게 구합니까?  
 110035 @ 무엇부터 가지고 갑니까?  
 110035 @ 아아 쓸담앙예. 재미잇다예. 새각시가 가정가는 거.  
 110036 @ 집알이는 어떻게 합니까? 집알이가 집들이 아닌가?  
 110037 @ 집알이할 때 선물은 무엇으로 합니까?  
 110037 #0037 #10 응, 성냥 영 팍허민 팍허게 불 나오라고 잘 살라고,  
 110038 @ 절기: 소한, 대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1. 놀이

111001 @ 어릴땐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11001 #1 나? 낮인 흑교허고 밤인 탕건허고,  
 111001 @ 일만 했수과? 놀 때 곱을락이여 무신베들락이여?  
 111001 #1 건 어릴 때  
 111001 @ 어떤놀이?  
 111001 #1 어릴땐 베들락허고 이렇게 영 헤영으네 영 둘이 췌연 그른 영 이렇게 막 뛰곡, 이렇게 둘이 고무줄 잇잖아. 게른 고무줄로 막  
 111001 @ 고무줄놀이 노래라도 불렀수과?  
 111001 #1 거 이,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허명 일본말로, 무시거 이제 그깃 지배끼 몰라.  
 111001 @ 생각행 놔둬서. 일본말로 고무줄놀이 했고, 공기를 뒤편했수과 돌맹이?  
 111001 #1 돌맹이 공기렌배기 더허여 그거 이 다숫겐가 멧개? 또 그 영 튀우는 거 오지다마 엔 현 거, 그거 콩이나 보리슬이나 낱이 이렇게 올리잖아.

111001 @ 오지다마 오재미렌 안행 ?

111001 #1 오지다마가, 세개 네 개ㄱ진 우리 올려나서. 경허믄 고무줄해가민 남혹생덜 빼가불고 그것떡분 썩고, 하이고 얼마나 남자혹생허고 싸왕 만날 빼가불고 공허믄 공 빼가불고이 그렇게 허드라고.

111001 @ 남학생들 다 어디갓수과?

111001 #1 하나토 어서 이제. 다 죽어불언 4·3사건에 죽어불언

111001 @ 다 4·3때?

111001 #1 원 하나토 어서. 4·3때도허고 아광도 죽고 일본도 가고 외국도 가고

111001 @ 4·3때 산 사람도 잇긴 이섯지예?

111001 #1 4·3때 다 죽여불언. 이덕구세계라노난. 여자도 다 심어당

## 12. 통과 의례

### 출생

112001 @ 태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뱃속에 들어갓을 때 그 가지는 그런 거 잇수게. 뭐 먹으민 구진 과일은 먹으민 안웬다 뭐 이런 거?

112001 #1 아, 그거는 날 ㄱ비에. 나기 전에는 어떻 안허여. 아기 혼들 쫘 날 ㄱ비에는 이, ㄱ루음식 먹으민 애기가 다 ㄱ루 썩 나와. 그전인 어떻 안허여. 애기 그 태번, 날 ㄱ비에 먹엇당은 ㄱ루음식은 먹지 말아야 허여.

112001 @ 닭고기도 잇지 안해?

112001 #1 독고기는 애기가 독술나. 애기가 나민 이런디 독술 ㄱ치 막 난덴 독고기 먹지말렌, 독술산덴,

112001 @ 뭐가 맛 좋게 먹고 뭐 조심허는 거는 어디 막 나상 텅기거나 이러지도 앓고?

112001 #1 혼 오개월쫘 똥가민 쫘 자리잡히는데 그전인 애기가 물 아니냐 물, 우리 똥지 잡아보민 그 중이 ㄱ치 그축해 사람도 그거 혼깁흔 물터진덴 조심해야. 뎃들똥민

112001 @ 뎃들이 뎃달이파?

112001 #1 육개월 ㄱ라 뎃들이랜 허주. 그축해가민 괜찬애고, 애기어명도 입덧도 아녀고, 석들나민 막 입덧 허는 사름은 입덧행 무시거 먹도 못해.

112001 @ 게믄 물질 들어가는 것도 삼개월까진 조심은 해야켜예?

112001 #1 아이구 물질허는 사름은 그런거 아이생각헌다. 죽지아녀믄 살기로게 애기 생각 경 허느냐? 애기 막 죽어불렌 내리렌 해도 안내려, 해녀애긴. 꺼꾸리 놔도 막 숨벼도 아무충도 안허여. 꺼꾸리 갓다 ㄴ다 갓다, 해녀 애기덜은 죽으렌 해도 죽지도 안해여.

112002 @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어디서 출산합니까?

112002 #1 옛날은 이 이녁집이서 보리낭 낄아그네 그 애기내우는 할망덜이서, 그런 할망 데려당으네,

112002 @ 삼촌 다 경했수과? 보리낭 낄앙했수과?

112002 #1 아니, 우린 그런 시절 넘었지. 옛날 우리 나이고비에 그 뭐,

112002 @ 봐놏수과? 복덕자리엔 험니까?

112002 #1 복덕자리라? 그거 애기 나나민 태슬림. 태가 뭇줄아나? 애기 나난 붓 잇잔아. 그거 슬 레 가는거.

112002 @ 어디강 슬아마씨?

112002 #1 바당의 가나, 산. 그거 잘 안했당 복삭흔디 아니했은 애기가 태독 올라.

112002 @ 태독?

112002 #1 막 그냥 뽀죽뽀죽나멍 얼굴에고 머리에고 태독 나. 거 잘못했당은 애기

112002 @ 삼촌은 어떻해수과? 삼촌도 병원에서 안했지예?

112002 #1 아니여, 그땐 병원이 어섯어.

112003 @ 그 태를 어떻했수과? 바당에 강 삼촌이 직접 슬안?

112003 #1 아니, 우리 대에는 이, 단지에 그 태를 해여그네 접시나 뭐, 전복껍질 그거나 두 개 영 해영 묶영으네 망아리이서 물질허는 망아리, 그런 형겔 끈어당으네 그 소굽에 돌 돌아매영 데끼민 돌이영 꺾치 곶아앗아.

112003 @ 바당에?

112003 #1 응, 바당에가 질 깨끗허여. 꺾디서 잘못 슬민 아기 막 태독 올란.

112003 @ 계난 삼촌은 거 다 바당에강 던젏수과?

112003 #1 응, 다 바당에 데껴붙어

112003 @ 그거 허민 막 많지안험니까?

112003 #1 아이구 경 하도 아녀. 저 전복껍질이 더끝쪽에 무신 하나? 그계. 거 쉼 물 댜지 꺾든 하도 사름은 경 하지 안해여.

112003 @ 땃줄이영 그 끈어난거영.

112003 #1 땃줄허고 애기붓은 그냥 그 단지에 담던가 뭐 조갱이에 담은 바당에 들이차불민

112003 @ 단지채?

112003 #1 단지차 그냥.

112003 @ 아, 항아리 더경 영 무경?

112003 #1 경허든가 조갱이에 덮영 영 그디 무신 망아리나 경안허민 돌 돌아매

112003 @ 아, 돌 돌아매영.

112003 #1 경안허민 곶라앗지도 앓곡 등등 명.

112003 @ 망아리라는 건 망사리, 그물같은 거 예?

112003 #1 응, 그런걸로 행. 옛날은 스느 사름은 슬아이. 경헌디 우리 난땐 우리

할망네 바당더레 다 데견. 바당이 질 깨끗허텐.

112003 @ 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산 준비허젠 허민 112003 @ 뭘뭘을 준비합니까?

112003 #1 이신 사름 준비허주 어신 사름이 뭘 준비허나? 있는 사름은 믰밀ㄱ루도 준비허고,

112003 @ 메역도

112003 #1 메역은 뭘 죽장 나는 거난 허주마는. 뭘 애기 기저귀ㄱ뜬거 그런거 다 준비허주. 그런거 무시거 혈거 이서.

112003 @ 집의서 출산했다예.

112003 #1 그 믰밀ㄱ루 이 피가 삭으렌. ,

112003 @ 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는게 믰밀ㄱ루구나.

112003 #1 믰밀ㄱ루. 그것에 미역. 믰밀ㄱ루고 미역이고 우리가 먹으민 피가 죽지 안행 깨끗헌 피 허랜 그거 먹는거. 또 믰밀ㄱ루 어신 사름은 보릿ㄱ루 곶아당도 허고. 또 아무것도 어신 사름은 메역국만도 들이씨고.

112003 @ 보릿ㄱ루보단 믰밀ㄱ루가 더 비싸지예?

112003 #1 믰밀ㄱ루 거 신사름덜이나 먹주 어신 사름덜은 . 이젠 막 하 믰밀ㄱ루. 그땐 믰밀ㄱ루가 귀해여.

112003 @ 게도 이제도 비싸.

112003 #1 게난 집 가난헌 것이 서러와.

112005 @ 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

112005 #1 목욕은 곳 나명사라 목욕시켜야지. 핏덩어리가 막 뱉여진디?

112005 @ 어떻게 아픈디 그 애기를 어떻 목욕을 해?

112005 #1 뜯사람이 시키지, 어명이 어떻게 시치나.

112005 @ 땃땃헌물?

112005 #1 그 쭈물 술마다가.

112005 @ 애기도?

112005 #1 어, 어떻게, 어명은 혼 스일은 뭘허고 일주일 땡야 어떻게 완전히 그 쭈물로 다 곬고. 애기도 쭈물로 곬고.

112005 @ 게문 땃줄은 누가 찰라?

112005 #1 건 애기 나오는 사름이 허주.

112005 @ 무슨 썰로 무꺼?

112005 #1 땃줄로 박박 애기신더레 홀터낭 배설을, 경허연 실로 딱 즐라매연 딱 끈으지.

112005 @ 삼촌도 해봤수과 그런거?

112005 #1 난 안해봐서. 아방이 다 허주. 아방이 다 내웁지.

112005 @ 게난 아기내우는 할망 어실땐 아저씨가 해본 적도 이수과?

112005 #1 그런 사람 우리 애기 난땐 어서나서.

112005 @ 아이구 지독허다예.

112005 #1 야, 보리비단도 왕 나나서.

112005 @ 동네 친헌 삼촌이나 성님신디 부탁도 안해마썸?

112005 #1 어떻 애기낳는 사름이 그냥 막 죽게 된디 그딜 돌아가나.

112005 @ 아니, 아저씨가.

112005 #1 아니 그냥 아방냥으로 현덴.

112005 @ 아이구야.

112005 #1 겐디 이 아방이 이서사 애기가 나주, 아방 엇으민 생전 나오도 안허여.

112005 @ 무사마썸?

112005 #1 그 췌 애기가 아방 봐나믄이, 계속. 아방 와야 나와. 거 춤 희한허더라. 애깃배 맞추와도 절대 아방 아니오민 나오질 안허여.

112005 @ 손이라도 잡아 줘디가? 금방 나마썸?

112005 #1 아이구 우린 아깃배 맞추민 이 아팜 막 허당 눅이민 막 줘자. 막 자당 혼 사흘도 가고 이틀도 가곡. 어떤 사름은 그냥 낳는 사름도 이신디 우린 기영 안혀.

112005 @ 배가 아파?

112005 #1 배 아픈는 사름도 있고 허리아픈는 사름, 엉치 아픈는 사름도 이서. 겐디 이 엉치로 나는 애기가 막 못전더.

112005 @ 딸 아들 똥나지예?

112005 #1 똥나지. 아덜은 배가 툃툃허곡, 딸은 이디덜이 쏙 흔들려. 뜰려뜰려.

112005 @ 먹는것도 틀려?

112005 #1 아니 우린 이 애기가 들어사민 무시거 경 먹어지질 안해여. 냄새나. 겐디 입덧 아니허는 사름은 물론덴. 애기 나는 줄도 모르고 배는 중도 몰르고. 난 막 입덧행이 절로저레 냄새제왕 막 코더레만. 우린 경헌디 다른 사름은 그런거 엇넨.

112006 @ 깃저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6 #1 붓뎃저고리지 무신 깃저고리가 이서. 아기 낳 곧 입지는 건 붓뎃저고리, 베적삼. 왜냐하면이 이 광목이나 무시거 입지민이, 베는 노시니까 이런디 굵지 안허나. 게난 이디 등굼지 말랜 베로 입지고, 물론 사름은 광목 입지고. 그 베에다가 싹때기문 애기가 ㄴ롭질 안해여. 붓뎃저고리, 베로.

112007 @ ‘할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7 #1 할망상엔 뭐, 물거려놓곡, 쌀 놓고, 썰 놓고, 돈 하나 놓곡 허는거지.

112007 @ 거 누가 가져가?

112007 #1 아니 가져가. 집의

112007 @ 집의 그냥 놔두는거, 애기나면?

112007 #1 거 놔두는 사름도 잇곡 없애부는 사름도 잇고. 없애부는 사름은 그냥 해낭 밥을 행 먹든가.

112007 @ 옛날 심방 이실땐 삼싱할망이랜 행 그런걸 또

112007 #1 그런걸 모사이.  
 112007 @ 그런것도 가져가고.  
 112007 #1 아니 아저가진 안해. 절대 애기 어떻 신디로 해야주.  
 112007 @ 돈만 만원?  
 112007 #1 돈 만원이나 옛날엔 천원?  
 112007 @ 향까지도 밥에 찢릅니까? 쌀에?  
 112007 #1 밥에, 메에. 상까질 허나 새 잇잔아, 집이는 새. 그런걸 끈어당 해.  
 112007 @ 무사 그걸 햄신고예?  
 112007 #1 거 우리 마뜨민 하시로 밥 줘아먹듯 그 할마님도 걸로 먹으렌 꼭꼭 찢르느거야. 다 이유가 잇는거지. 똑 골아야만 아냐?  
 112007 @ 상까지하고 새는 그거엿구나.  
 112007 #1 그래, 밥먹는 젓가락. 손으로 영 먹냐?  
 112008 @ 배넛머리는 어떻게 합니까?(시기/누가)  
 112008 #1 거 무신말고?  
 112008 @ 애기 머리를 까릅니까?  
 112008 #1 애기 곧 나민 건정 고만이 내불어. 뭐 돌이나 넘어야 가끄나 내부나. 초파일날이나 돌아와야.  
 112008 @ 한번 짹 까까주지예?  
 112008 #1 거 정신이신 사름은 허곡, 경 아니헌 사름은 어느 때사 까깁신디. 무신 그 애기는 키웁서? 이젿사름마찌 애기를 안키와. 내불어 기냥. 죽고살고.  
 112009 @ 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병원/민간요법)  
 112009 #1 옛날은 예방이 어섯어이. 그거 열, 홍역이 열이라. 그 열 버치민 죽는 애기도 잇잔아. 거 허당. 이젠 주사 딱딱 놔부난 그런거 엿잔아. 옛날엔 그 예방주사가 엿언 이 우두이, 우리 어릴 땐 우두. 이제고뜨민 아마도 멘 직원덜 왕 놔줘실 거라. 무신 물 닳은 소독 해놔그네 이 칼 닳은 걸로 싹싹 열십즈로 썸 하나허나 두 개허나 여섯 개허나 행. 그거 왜냐허면이 그 소님마라 마누라엔 헐 옛날 마누라. 그 거 열 처지랜 그거 허는거. 그거 막 열버치는거.  
 112009 @ 큰마누라 죽은마누라 이런 것도 이섯수과?  
 112009 #1 거 옛날 말이주. 이젠 큰마누라가 어딿나. 그땐 무신 원장도 엿고 뵈도 엿곡 허난 심방 빌어단 할마님아 할마님아 이렇게만 해여났네.  
 112009 @ 마마랜 안행 마누라랜 헛구나예?  
 112009 #1 소님이엔 허더라.  
 112009 @ 무섭긴 무서운거주게.  
 112009 #1 그 열게 열.  
 112009 @ 꿈보 만들어부난.  
 112009 #1 계난게 이젠 다 예방주사 맞아부난 그런거 하나도 엿어. 옛날엔 나는냥 고만이 내부난 열버천, 열로 죽는 애기가 얼마나 한 중 알아.

112010 @ 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112010 #1 거 아기 나사 허주 아기 나기전인 안허여. 애기 나면은 애기 낳당 죽는 사람 그런 사름도 방비허고, 또 몸 구친 사람, 그런것도 방비허고

112010 @ 세이레옌 해수과? 스물 하루까지는 조심허랜 해가지고 오지 못허게 한 다든가.

112010 #1 그건 이, 그런 집이 있어. 북작북작 허는 집은 그냥 내부러. 사름이 오 던가 말던가. 경헌디 그걸 조심허여야 해. 아이난 디는 그 아기어멍이 막 약허고 핏 내난디 이, 구친 것이 조차와. 거 사람 죽은덴. 게른 애기 우일 가나 애기어멍 우 일 가나. 경허니까 못오게 선을 긋는거. 건 잘허는 거라, 옛날 어른덜.

112010 @ 삼촌네 금줄 그런건 안달아봐수과? 아덜나면 고추걸고 숯걸고 또 소나 무 걸고 그런거.

112010 #1에구에구 거 옛날어른덜이 거여게. 옛날엔 아덜난에 지꺼전 늬덜 이디 아덜낫젠 자랑힘으로 거 돌아맹.

112010 @ 뭘 돌아매마씨, 아덜나면?

112010 #1꼬치에, 숯에 해여그에 것ㄹ라 금줄이옌 허더라, 금줄. 저 올레에 사름 못댕기게.

112010 @ 제주도도 허엿구나.

112010 #1허여.

112010 @ 여자아이 나쁜?

112010 #1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그 어멍이 약헌 떡분에

112010 @ 여자옌 숯은 안달고?

112010 #1아니달고.

112010 @ 소낭가진?

112010 #1소낭가진 허는 사름이나 허고, 경안허민 숯만 매는 사름은 숯만 매고. 거 애기어멍 조름에 뭘 조차왕 애기신더레나 애기어멍신디 가카부텐 숯 매는거.

112010 @ 삼촌은 태몽을 꾸다든가, 애기날때 송 뵈다던가 그런건 어수과?

112010 #1무신 애기나명 송보는 거 잇나?

112010 @ 경허곡 물질헐 때 암만해도 임신해서 할때는 힘들텐데

112010 #1막 나도록 해녀덜 스뭇 바다에 가 작업해여.

112010 @ 막 죽도록 힘든 기억은 어수과?

112010 #1아니여. 바당에 들뎌 그런거 어서. 좀 숨은 바빠이. 애기배른 숨은 좀 바 빠.

112010 @ 물옧도 안맞잔아. 배불뎌.

112010 #1 아니 우린 배가 경 크지 아니해부난 그냥 입어 그냥. 다른 사름덜은 이 만이해도 우린 이 애기 배에 뵈줄도 몰라 배가. 밥 먹어도 몰르곡, 배가 바짝해부 난.

## 혼례

112011 @ 구식 결혼식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112011 #1 옛날 결혼식은 이, 가마, 가마 새각시 모실 하인이엔 현 쌍놈덜. 그사람덜은 이 마당에 덕석폐왕 밥 맥여서. 그런사람덜 빌어다그네 새각시. 그믐 우시가 썸 사람 새각시 조름에 바짝 안조치민 이 그 놈덜 벨 말을 다굴아. 어느므을 좇이 목상 흥창흥창햄져 허멍 막 추접헌 말 ㄱ난 그 우시가 딱 조차야해. 말 못 굴게.

112011 @ 우시는 새각시썸 친척이파?

112011 #1 새각시 허멍 우시도 아무나 못가. 팔제긋엉 이 각시 엇는 사람이나 서방 엇는 사람은 아이웨고. 딱 제 혼불에 강 아기난 사람배긴 안가. 그렇게 애기가 팔자 그르쳐분덴이. 복좋은 사람배끼 아니가.

112011 @ 여자집에 갑니까, 남자집에 갑니까?

112011 #1 여자집으로 모시례 가지 무신 남자집으로 갈말이나게. 가마를 앓앙강 새각시칩의 강 새각시 태와아전 남자집의 들어오주.

112011 @ 결혼식을 어떻게수과 삼촌.

112011 #1 우리?

112011 @ 족두리?

112011 #1 그런거 아니헐. 멘사포.

112011 @ 멘사포 해수과, 사진도 찍언?

112011 #1 그때 사진이 어딴나. 그냥 걸영가고 걸영오고. 사진 찍는 사람도 원간 부제사람이나 허주이 보통헌 사람은 그런거 안허여.

112011 @ 계도 영 맞절허고 절차는 이서실거아니? 옛날식으로.

112011 #1 거 옛날식허주이 중간엔 그런거 어서서. 멘사포만 씨영.

112011 @ 닭 날리고 이런건 어선?

112011 #1 그런건 막 아주 옛날.

112011 @ 그냥 새각시만 데려가든 끝?

112011 #1 데려왕 쫓이주게.

112011 @ 새각시밥은?

112011 #1 그땐 곤솔이 귀해여. 그믐 통보리쌀에 풋에 밥을 해영 곤밥이엔 현 건우에 혼술가락만 더꺼.

112011 @ 새각시 밥예?

112011 #1 아니 새각시는 완전히 곤밥 흥난 허고. 그냥 사람덜은 통보리쌀에 솔믈 밥에 우이 곤밥 더꺼그네.

112011 @ 계난 새각시 곤밥 다먹엇수과? 아이덜 들려들지 안헐?

112011 #1 아이구아이구 그 새각시 앓은 방엔 아무도 아이가. 복좋은 할망덜 돌아당 앓지주. 경허믈 할망덜이 대관상이엔 허주. 대관상. 새각시 ㄱ치 출령 새각시 ㄱ쫓디 아진 할망. 계믈 손지덜 가민 이레오라 이레오라 해영 당신 밥사발에꺼 혼수 까락씩 영. 늙은 아이간다게. 할망네 이신 아이덜이 가주. 늙이가 어떻게 그디 가나.



게난 아이덜은 그 할망꺼 얻으민 할망은 당신 먹도 안허고 손지덜 다 주고. 다 거려줘부러.

112011 @ 새각신 다 먹어?

112011 #1 새각시? 잘 안먹어. 혼 반 먹는 사름도 있고, 두수까락썸 먹는 사름도 있고.

112011 @ 게민 아이덜 츠진게게.

112011 #1 어떤 새각시덜은 늑웃치게 밥 잘먹는 새각시도 서. 부끄러왕 어떻 입을 놀려고. 난 이녁신더레 브렘시카부덴이 밥도 아이먹엇져. 나신디레만 다 브렘시카부덴. 영 움막움막 먹는 사름 이서. 아이 다 쳐다보는디 어떻 부끄러왕으네.

112011 @ 삼촌은 어디 와홀인디, 어떻 조천에도 가지 않고,

112011 #1 와홀은 그때 사삼사건에 불태와분디 집이 잇나? 다 조천서 내려왔지.

112011 @ 게난. 어디서 결혼헌거?

112011 #1 조천서.

112011 @ 그때까진 씨어머니 씨아버지 이서시난예.

112011 #1 어어, 다 살았지.

112011 @ 그른 거기서 하룻밤 장 또 일로 완? 메칠 잇단?

112011 #1 경해실거라. 남자집의서 흐룻밤 자앗잔 뒷날은 새각시침.

112011 @ 말 탕 읍니까? 새시방은?

112011 #1 아니야, 돌 탕오는 집인 막 아주 옛날이주. 옛날엔 막 돌 타그네 사랑 사랑사랑

112011 @ 옛날 제주도에도 막 창구멍 뚫렁 보곡 허는 것덜이 이서신가?

112011 #1 거 이서. 옛날에. 새시방 새각시 밤에 무시거옴 곤는거 들젠 막 창호지로 막 터주왕 영행 보잔아.

112012 @ 중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신이엔 험니까?

112012 #1 중진애비.

112012 @ 중진애비?

112012 #1 중매 잘허민 술이 삼잔이고 못허민 빼얌다가리 세대고. 거짓말했당.

112012 @ 빼얌다가리 맞는다고.

112012 #1 빼얌 세 번. 중진아비 잘허면 술이 삼잔, 석잔 먹곡, 중진 못허당은 빼얌 세대 맞는덴. 귀싸대기. 우린 이 새시방이영 얼굴도 아이반 중매말만 들엉 헤세. 새시방 얼굴도 아이반. 옛날엔 이 중매말만 듣주 새시방 안봐. 겐디 자이네 아방은 날 보고랜 해라. 야 사람 아이팡 누게가 결혼헌덴 해니, 경 골안게. 남자가 이. 난 이 그런거 저런거 그리지 안해. 자긴 다 보고랜. 보지도 안행 장개간덴 누게가 골아넌. 또 우린 그때 이 막 한창일 때 훈련받앗잔아. 게난 그 학교 마당에서 본거주게, 남자가. 난 어느 남잔중도 몰르곡, 그 남잔 알아네. 막 훈련허는 것도 보고 막 허고랜.

112012 @ 그렇구나.

112012 #1 구늬 좋다 해서, 나원.

112013 @ 막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3 #1 막편지가 무시거라?

112013 @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혼하겠습니다 행 보내는거.

112013 #1 아 문우짱.

112013 @ 문호짱?

112013 #1 그거이 결혼행 씨집장개 아이가가든 그거 좇으레 막 오느네. 문우짱 좇이레.

112013 @ 결혼 안허켄 허든?

112013 #1 결혼 안살며는. 거 좇이레 와.

112013 @ 뭐 이혼 식으로?

112013 #1 그 여자가 안살자고 해가든 이 남자가 거 좇이레 와. 거 이, 어느날짜 결혼허는 거 다 약속, 계약서지. 경헐 그 새각시 도망해볼면은 새시방이 거 좇이레 와.

112013 @ 주위에서 그런거 봐놔구나예. 막편지.

112013 #1 우리덴 아년디 우리 후대예. 우리 이모님 헐 때 봐놔다.

112013 @ 막편지 받으면 여자입장에서는 저사람이영 결혼해라 허는거랜.

112013 #1 그게 심방 덕답에 그거 잇어이. 그건 애기 어실 때 불도굿헐 때 그거허더라고. 애기 나와주렌. 그거 쯔청국이 애기 알아져? 그게 옛날에 비단을 짜는디, 비단을 사랑사랑 막, 문도령이 다른 디 결혼허젠 헐디 그 쯔청국이가 어떻게신곤 허난에 어떻아방이 사는 애기가 어서. 애기 어시난 애기 헐나라도 이서야 우리가 사는 맛이 즐긴디 이렇게 행 어떻허리 허난에, 게건 경허랜 허난 아방은 쯔청허영 낫젠 쯔청국이라 지으랜 허고, 어명은 또 뉘헐 ㄱ랏젠 해라마는. 게난 아방이 이것주. 쯔청국이엔 해연예. 쟁 그 아방이 지은거. 게난 그 쯔청국이가 어떠해신곤 허난, 아까 하늘옥황 문도령인가 누젠가 이제 장개가는디 비단을 달캉달캉달캉 그 수노명 짜는디, 그 쯔청국이가 어떻헐 부모의 눈배끼 나신곤 허난, 그 물 아홉바리 쉼 아홉바리 헐루에 먹는 장남이 잇어. 것ㄱ라 정이어신 정수냄이. 경허난 그것이 이젠 주쟁이 썩연 아자둬서 쯔청국이 장거리레 가든 그레 막 쳐다보고, 막 하도 해가난, 어떻아방 몰르게 게걸랑 니허고 나허곡 구경가게. 게난 얼싸좋다 헐거 아냐? 얼싸 좋다 행 가서이. 가난 이젠이, 밤의 눅젠 허민 그 여자가 머릴 썩거라. 밤의 눅젠허민 미여지벵뒤서 어떻 자냐고, 집이라도

112013 @ 미여지벵뒤?

112013 #1 미여지벵뒤. 그 산에 가민 벵뒤 잇잔아. 집도 아무것도 엇고 허난 미여지벵뒤.

112013 @ 여기 일상적으로 미여지벵뒤엔 쓰는 말이구나예?

112014 @ 이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품목, 수량 등) 뭘 가정갑니까? 이바지.

112014 #1 이바지는 이

112014 @ 여자가 가정가는 거우파, 남자가 가정가는 거우파?

112014 #1 남자가 가정가지. 그땐 광목이영 미녕 혼필에 그 각서 이, 결혼허는 날 짜, 문호장, 그거 해다가 빨강한 포에 싸. 싸그네이 그 호옹- 헐 때 흥세지는 여자가 이서. 물탕 그 여자가 흥셀 지여. 게민 내리민 이, 그 흥세를 받는 사름이 잇져.

112014 @ 뭘 타는거 남자가 타는게 아니고?

112014 #1 여즈. 여자가 타? 여자가 그 빨강헌 붓 지여아정.

112014 @ 무사지?

112014 #1 게민 그 새각시칩의 저가면은 거기서 흥세받는 또 남자가 잇서. 막 복존 사람. 복 어신사름은 안ㄴ까. 경 그 사름이 반앙. 받으면 이 그 흥세펜은 여자펜에서가 가. 그 들러리로 가는 것ㄴ라 뉘엔 ㄴ라낫저마는 잊어부런. 경 가민 흥센 그 흥세 헌 사름이 남자가 딱 반안 문전 아피 딱 싸. 방에 들어가는 문전아피 딱 사면은 그때는 이젠 상을 영 마주 대여. 마주대면은 배운사람은 걸 알앙 허는디 못배운 건 이레젓억 저레젓억 허민 창피보지. 게난 그 사름이 탁 그 흥셀 노면 이제 영해 영 반앙 허민 또 흥셀 받는 사름이 있어. 그 안에. 상반앙. 경행 그 문전에 가그네 절 시켜. 경행 들어와.

112014 @ 문전에 두 번?

112014 #1 혼번허지 무신. 죽은 사름이 두 번 허주, 산 사름은 혼번. 거 다 배와. 안배와다근 이 산 사름신디 두 번허민 실수라. 산 사름은 무조건에 혼번.

112014 @ 문전에 성 이시든 그 사름안티 절허는 거로구나.

112014 #1 절 받젠 그디 있어. 거민 절 해여. 이제 사돈을 맺이는거라. 그사름 그 사름. 경 맺영 절 해여그네 성통명 해연 새각시 스춘이든 스춘이우다, 육춘이든 육춘이우다, 해영 성통명해영 우시 들어가는 방 뜰루 출려.

112014 @ 우시, 우시.

112014 #1 응 경해영 허는디 새각시 펜에 오라방 강 누이 주어동 오젠 허민 막 울멍 온뎡 해여. 섭섭해영. 그집의 주어동게 빈차 오젠 해난. 게난 딸 아진 사름은 막 울멍 오곡, 아덜집원 지쁜덴. 게난 여즈 나민 나는날부떠 우는게 죽는날까지 울어. 복이나 조민 허곡 복이나 안조민.

112014 @ 게난 이바지랜 헌건 남자집서 여갓집의 가져가는거?

112014 #1 어, 건 미녕.

112014 @ 뭐 웨지고기 한다리여 이런 건 어서?

112014 #1 그거는 듯날 사돈잔치헌 듯날, 듯다리 하나에 이스루 술 한뽕에, 쫄 한말에 경행 정가.

112014 @ 건 이바지가 아니고 뒗날?

112014 #1 뒗날. 잔칫날에 무시거 거 흐느니?

112014 @ 이바지는 잔칫날.

112014 #1 잔치 념영. 거 사돈이 집알아보래 가는거지. 이제 그런거저런거 어서.

112015 @ 혼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품목, 수량 등) 남자집에 들어가니까 여자가 뭘 가정가지예?

112015 #1 여즈 이 이불.

112015 @ 이불 흔채?

112015 #1 옛날은 흔채주게. 이불 두채가 어딴나. 이불 하나에 베게 진진헌게 하나. 둘이영 베게. 베게 진진헌거 하나이 해야정. 부젓칩인 이 이불 두 개 노메. 부젓칩 산건이. 가난헌 사름덜이 이불 흔채허곡 베게 이만이 진진행 둘이 꺾눌곡. 예 이구 나 베게 봐가민.

112015 @ 재밋다예.

112015 #1 이만이 혀, 꼭 이만이. 지레기 이불광 꺾따. 둘이 꺾 누렌. 베게 하나.

112015 @ 계난 삼촌은 그 하나짜리 베영 살아수과?

112015 #1 아니. 우린 두 개. 거 옛날이여게 옛날.

112015 @ 이불한채 하고 또? 요강이나

112015 #1 이불 흔채예, 요강예, 우리 옛날엔 이 거울, 경대 이 경대대신 영 경대 아니난 때난 이 요만이헌 즈락 돌은 거울에 무신 낭얼레기 그것에 정헸 낫더라.

112015 @ 솟이나 이런건 안허고 요강만? 요강에도 뭐 담양간덴 헷디다.

112015 #1 쓸담양 요강이? 거 무사 요강 노는 중 알았나? 새각시가 저 남군 새각씩 해여오게 뻘어. 경허민 거 오줌 므류민 가마에서 우줌누렌 요강 노는 거 마씨.

112015 @ 그렇구나.

112015 #1 그렇지. 무신 쓸담양 갈말이라. 거 새각시 가마 소곶예. 그 가가운딘 안 놓고 먼디뵈 오줌 므류면 그것에 누렌. 쟁 새각신 메칠 밥 아니먹주게. 오줌 뉘지카 부덴.

112016 @ 예장(禮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내용, 일화)

112016 #1 그 예장이 그거지.

112016 @ 그거 안가져왔져 댕져 씨집이션 경허지 안허여?

112016 #1 그거 허면 이불안 허는 사름은 이불안 허곡, 옛날엔 미녕을 그 중간엔 광목, 광목허곡, 발래영 이불안허곡, 또 보선. 이제 꺾뜨민 양말 산 허는디 그걸로 보선 주어가 씨집의. 시누이, 씨아주방네

112016 @ 아, 예장이.

112016 #1 응 여자는 다 보선으로, 그 씨어명이여 허멍 그 수정에 다 광목으로

112016 @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주는구나.

112016 #1 계난 그 씨어명이 댕겔 주어오라 행 연락을 해여.

112016 @ 계도 잘도 소박허다예. 보선만?

112016 #1 보선.

112016 @ 치마저고리는 아니고?

112016 #1 아니. 보선. 거 선사, 선사.

112016 @ 지금ㄴ트민 중간에 이불로 해수게.

112016 #1 이불 현디 그땐 보선, 보선.

112016 @ 그른 거 누가 만들어? 돈 쥘 말경?

112016 #1 아니 그 허는 사름덜 잊지. 보선 허는 사름덜. 옛날엔 미싱이 이서서?

112016 @ 옛날엔 예단이 보선이로구나.

112016 #1 광목 광목. 그걸로 이젠 새각신 보선 줘가메.

112016 @ 잘도 소박허다예.

112016 #1 예구 야, 이런 양말 막 ㄴ진거 신어? 막 터지곡. 이거 우의 이것만 ㄴ  
지민 만날 주멍입어, 주멍 에이고. 만날 양말 주어.

112017 @ ‘가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참석 범위/음식/부조 등) 가문잔  
치는 언제 허는것파?

112017 #1 가문잔치는 널 잔치헐 때 오닐 저녁에.

112017 @ 저녁에 하는거?

112017 #1 돛베설 술마놓고 무신 꿰기 썰단 주시레기나 쟁반에 놔그네 것이 가문  
잔치주.

112017 @ 계민 그때도 마을 사람덜 많이 옵니까? 도와주레도 오고?

112017 #1 켤당이 다 오지, 켤당이.

112017 @ 계민 부주는 가문잔칫날 헉니까, 다음날 헉니까?

112017 #1 잔칫날 헉테주. 이제는 미룻 허는디, 그때는 잔치살사 앓아가더라.

112017 @ 가문잔칫날?

112017 #1 가문잔치 돛날 잔치아냐. 그날

112017 @ 계민 가문잔칫날도 가고 잔칫날도 갑니까? 도와주레.

112017 #1 켤당게. 켤당덜은. 늬은 안가. 친척덜만.

112017 @ 계민 돛베설 행 친척덜이 먹는구나.

112017 #1 그거 꿰기 썰안 주시레기. 그거허주게.

112017 @ 그문 진짜잔치는

112017 #1 진짜잔치는 돼지 너불너불 썬거.

112017 @ 뭍국 놓고?

112017 #1 뭍국은 그거 가문잔치예 술망 내놓는거.

112017 @ 잔치예는 무싱걸로 대접헉니까?

112017 #1 두부. 두부에 돛 꿰기에 썰어놔그네.

112017 @ 국은?

국으로. 메역 아니앓아댕겨.

112017 @ 돛 꿰기국?

하여튼 잔칫날은 메역 아니앓아댕겨. 닝끼려분덴.

112017 @ 아, 닝끼려분덴. 제삿날은 쓰고예?

112017 #1 제삿날은 쓰지.

112017 @ 몐은 씨도예.

112017 #1 몐은 가문잔치예 노는거. 잔칫날은 몐 안허곡. 두부에 듯케기 뗏점 뇌 그네 국 흥곡. 아메도 빼딸린 물예 그것예 놓는 것 닙아.

112018 @ 위요(圍繞)(우시)예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참석 범위, 수, 일화)

112018 #1 우시는 새각시 조름예 우시가 가지.

112018 @ 잔칫날 오는거지예 우시가? ㄴ치 안장 밥먹고.

112018 #1 우시 간 사름은 뜯 방예 앓져. 새각시는 큰방예 썽풍청 앓고, 또 그디 복존 할망덜 당할망이나 씨할망이나 그런 할망덜 앓지고.

112018 @ 여자들만? 남자도 오지예?

112018 #1 남잔 우시 가민 뜯방 출려.

112018 @ 아

112018 #1 여자 들레 간 사름덜이 우시 잇어이. 그 사름은 새각시 방예.

112018 @ 친구나 이런 사름들?

112018 #1 친구나 우시 ㄴ치 들레간 사름덜이 이서. 그런 사름은 이제 새각시방예.

112019 @ 대반(對盤)이나 중방(中房)예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일화)

112019 #1 아 대방이 그놈의 방이주게. 고기 주는 잔칫날, 대관상이엔 현건 잔칫날 맥이는 것 ㄴ라 대관상이엔 허곡. 할망덜. 할망덜 대관상.

112019 @ 새각시에 할망? 같이간 할망 우시?

112019 #1 아니 잔칫날 누게가 사돈침의 할망이 가느니? 그 이녁침의. 대관상이엔 현건 할망덜. 대관상은 여자 침이서. 남자침의선 남바펜이 대관상 허곡. 여자침원 여자켄당할망덜 대관상.

112019 @ 거난 자기집의 웃어른덜을 안져놓는거구나.

112020 @ 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112020 #1 옛날엔 봉투가 어성 그냥 손으로.

112020 @ 돈으로?

112020 #1 봉투가 엇지 옛날엔.

112020 @ 쏘이나 뭇 이런걸로 해본 적은 어수와 부주를?

112020 #1 그런 걸로 해가는 사름사 이신디사 몰라도 우리대엔 그냥 돈으로덜. 쏘 허고 해가는 사름덜 잇기 실거라. 막 생가헌 사름덜. 큰 부젠 쏘 혼말이라. 이젠 돈 까치 어서부난 쏘 혼말이. 옛날엔 제일 사정 종양 아져가는데 쏘 혼말이라. 이젠 쏘 이 아무것도 안답아도. 옛날은 하도 쏘이 귀해노난.

112021 @ 암창개예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12021 #1 암창개는 새각시 죽어불민 암창개가 돼주. 맞추왓당 새각시 죽어불잔아. 게른 새시방이 암창개로 들어가. 새각시 어신 암창개. 여자가 맞춤지 안허나. 옛날엔 일년 이년 맞화. 그 사이에 여자가 죽어부러.

112021 @ 결혼행?

112021 #1 결혼허기 전에.

112021 @ 아오야.

112021 #1 허기 전에는 그 잔칫날은 아무도 아이강 그 새시방만 강 암창개를 들  
아와.

112021 @ 죽은 사람을 데려와?

112021 #1 응.

112021 @ 그냥 파혼시키든 안돼여?

112021 #1 안돼여. 이제 날짜 나니까 자기집의 구신이엿. 쟁 데려와.

112021 @ 데려와? 그 남자 일생은 어떻게 되는거라?

112021 #1 남주 일생은 이년이고 삼년이고 해어나민 또 두 번 장개 갈테주.

112021 @ 그 여자 집에서는 또 사위라고 생각행 허고?

112021 #1 게. 암창개. 새각시 어시. 계난 얼마나 쪽 아플거니 그거행. 여주 어시  
구신으로 쟁 데려올거. 예구 이젠 그런 것이 심이랑마랑.

112022 @ 사혼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112022 #1 것ㄴ라 무신 잔치엔 허더라마는. 죽은 혼스. 죽은 혼스는 그냥 잔치ㄴ  
찌 해여. 옷덜 해놓고.

112022 @ 사람도 없는데? 제사 하듯이?

112022 #1 옷덜 해놓고, 그 옷덜 주고 받고 해여.

112022 @ 혼수 그런거 주고받고 허고? 아이구춤.

112022 #1 얼마나 가슴아플 거니?

112022 @ 계난.

112022 #1 거춤 혈짓이 아니지.

112022 @ 경해도 안허는 것보단 마음이 영 허난 허는거 아니?

112022 #1 남자집원 안해도 여주집원 구신 맺기쟁 꼭 허여. 자기꼴 그냥 아녀민  
이, 뭇허카부덴 큰 구신 맺기쟁 여자집의서 따올령 해여. 남주침의선 시나마나주  
게. 거민 여줄 쟁 딸 시집을 보내노민 다음 사름이 큰각시 구신으로라도 큰각시 생  
긴거.

112022 @ 경해시민 재산도 주고 뭇 허겟다예.

112022 #1 시께도 다 허고. 또 사가될 침이서도 이불 다 헐와. 딸 죽어부난. 이불  
다 해여놓고.

112023 @ 혼례와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결혼허젠 허민 뭇뭇 조심  
해라 허는거.

112023 #1 새각시가 밥을 딱 놓쟁허면 고평더레 돌아앗은 새각신 잘산다 해여. 배  
깃더레 영 돌아앗인 새각신 배깃디 가고. 고평더레 돌아앗이민 아니구 잘살켜. 배깃  
더렌 저거저거 곧 나감직 허다. 거는 새각시 앓는 걸로 뺑 알아.

112023 @ 아오야.

112023 #1 새각썬 뭇 분시 알앙 햄시카부덴. 거 재수주게, 재수라. 부모나 아니시  
키민 모르지. 옛날엔 고평이엔 허민 이 구들 주꿋디가 고평이라게. 쫄창고난 잘살암

주게.

112023 @ 계난 이 음식 만들레 온 친척들이나 다 새각시보고 막 말곤는구나예?

112023 #1 무신 초라니 닥다, 무시 미구력 닥다 허멍 그 켜당덜이 왕 봐그네, 새각시난 땡긋허민 아따 술칩의 가시민 장사 잘허켜 허고. 그자 고와도 승 곳어도 승 이거 원. 고민 이젠 술칩새각시나 낫이민 곱닥헌 새각시, 또 그냥허민 아이구 미꾸력 ㄴ치 에이구에이구.

112023 @ 미꾸력이 뭇과? 물구력?

112023 #1 미꾸력이엔 헌건 바당에 물토새기 닥은 미꾸력이 이서.

112023 @ 문어가 아니고?

112023 #1 응 미꾸력. 물토새기 ㄴ찌 혼드랑 헌거.

112023 @ 먹을 수 잇는거?

112023 #1 거 먹으메, 미꾸력도. 구워그네. 물토새기 구면 이만 거라도 요만배끼 안해.

112023 @ 물토새기를 굴멍이랜도

112023 #1 굴멍이. 여기선 물토새기.

112023 @ 계난 문어도 여긴 뭇게랜 허곡, 서쪽에서는 물구력이랜 해.

112023 #1 여긴 뭇게. 에이구 물꾸력 닥은 서방님에 술치 닥은 씨아주방에 졸락 닥은 동세예 코생이닥은 씨누이에 허멍 곱잔아. 그 탕관헐 때 막 곱메. 무시거? 고 치장을 땡텐 말라 씨집살인 더 메와라 장독 ㄴ튼 씨아방에 암독 ㄴ튼 씨어멍에 졸락 닥은 씨누이에 코생이닥은 동세예 밀꾸력 닥은 서방에 막 헛고 곱잔아.

112023 @ 거른 물꾸력 아니고 미꾸력이 따로 잇구나.

112023 #1 물꾸력이엔 헌거 이신생이라. 저 바당에

112023 @ 서쪽은 물구력이 뭇게라.

112023 #1 뭇게도 요망진건 톤톤해여. 밀구력 밀씩헌 뭇게도 잇곡.

## 상례

112024 @ 죽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죽으면 혼 불르는거 이수게.

112024 #1 그 혼은 왜 불르느냐 허면은 그게 내 이치적으로 허는 말인데, 사름은 신첸 고만이 누워도 혼은 빠가분거지. 거난 신첸 고만이 이서도 혼은 다른디 가부니까 신체가 속안에 없어. 그렇찬아게.

112024 @ 혼불르는거. 누가 돌아가시민 심장이 멎이민 죽은 거파?

112024 #1 그렇지. 심장 뛰지 았으민 죽는 거지. 심장이 멈춰불민 그냥 가는 거라. 가심이 딸락딸락 뛰잖아. 그거 못뛰민 가는거.

1112025@ 복부부르는 어떻게 합니까?(지붕 위/저고리 처리) 지붕 위에서 부르는 거. 봐낫수과?

112025 #1 어, 옛날에 봐낫지.

112025@ 어떤 식으로 합니까?



112025 #1 거 이, 죽은 사람 이 웃도리 적삼 있어이. 그거 들렁 강으네 그 심방덜 삼흔 불르잖아. 거는 이 사람이 체시 돌아가부니까 혼이 나가부럿어이. 거니까 혼이 나간 걸 집더레 데려 오는 거야. 그 사람 일름 부르면서 삼흔, 우리도 이 녀 디릴 때 삼흔 들이잔아. 초녓, 이녓. 삼녓. 거난 죽어도 마찬가지로야.

112026 @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1 뭐 날 봐그네 허는거주 뭐.

112026 @ 정시 빌어당?

112026 #1 정실 빌어당을 허나 날 보는 철학관이 이시난, 그런디강 존날 택해서, 감장허는 날도 조은 날에 다 허는거야. 또 나쁜 날에 허면은 자식덜이 좋질 안허여. 자식을 위해서 존날에 가잖아. 죽은 사람 무신 존날 구진날 아나.

112027 @ 관(棺)과 횡대(橫帶)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7 #1 관은 집이엔 허주게. 우리 사는 집이나 관이 집이라. 집이엿 허메.

112027 @ 집닐을 횡대렌 허는구나?

112027 #1 집닐,

112027 @ 거는 어디 강, 사서?

112027 #1 낭 오리는 디 잇잖아? 그런디 강 사당 허는거, 또 잇는 사람은 미릇 다 준비하고. 옛날은 관도 다 짱 놔뒀.

112027 @ 어디다 놔뒀?

112027 #1 집에. 옛날에 이제는 그런 거 어서.

112027 @ 무슨 낭이 좋고 이런 건 엿고?

옛날은 그렇게 관도 다 짱 놔두곡이. 자기 산때 다 준비허는거야.

112028 @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남자/여자)

112028 #1 수의는 뭔데?

112028 @ 호상옷 아니? 수의는 죽영 갈 때 입는 옷, 그런 거 아니우파?

112028 #1 상복이란 거는 죽은 사람 아덜이 상복을 입는거야. 거난 상복이 어떠냐 허민 느 젊으니까 알아뒀 이. 두건 잇잖아 두건. 두건을 안으로 주어가지고 이렇게 현거는 조카덜 복친, 두건으로 알아이. 직계상제는 이렇게 우이로 줘. 이거 거끄지 안행 우이로 줍고 또 뒤에다가 실밥허고, 그걸 보민상제 알고, 또 이제 복옷을 입잖아. 여즈 죽은 거 남자 죽은 거 땃나. 복옷이. 남즈는 이렇게 거끄지 안해서. 그냥 푼 양, 단 푼 양 그냥 입고, 또 여즈는 단 꺾어. 그니까 단 거끄민 여즈가 죽엇구나. 또 단이 풀어가지고 그냥 영영 현건 남즈 죽엇구나. 거 복옷보민 다 알아

112028 @ 무사 산디 몰르고예? 웬지는 모르고예?

112028 #1 복옷보민 남즈 죽은 거 여즈 죽은 걸 다 알아.

112028 @ 풀고 믱작 지고 햄신고예?

112028 #1 믱작은 안지와. 죽은 사람은, 이 오장을 다 풀영 나가렌, 믱작지면은 그 사람이 다 풀고 나가렌. 그 사람이 몽니가 나쁜민 믱작이 지잖아. 죽영 갈

뎌 다 풀영가라고 그 막작을 안 지와. 다 풀영. 죽은 사름 헐 뎌 막작 아니지와.  
다 옛날어른이 다 틀림어신 어른덜이라 그게.

112028 @ 호상웃은 마련헐니까? 뎛살쥬?

112028 #1 이신 사름은 일찍 마련허고 어신사름은 죽어사 사당 입지고.

112028 @ 호상웃은 뎛지가 좋아마쥬?

112028 #1 뎛지가 좋지.

112028 @ 무사 뎛지를 헐신고예?

112028 #1 뎛지는 죽영 술이 다 빠지잖아. 술에 빼에다가 닥 부튼단다.  
뎛지가. 다른 건 다 떼어져분덴. 비단ㄱ튼것도 다 떼고 광목 ㄱ튼 것도 다 뎛디 뎛  
지는 빼에 딱 부튼덴, 철리허멍 봐도 뜨난덴. 그러니까 신체는 뎛지 옷 이상 어서.

112029 @ 상장(喪杖)과 쥔동에 대해서 말쑼해 주십시오.

112029 #1 머구냥은 어멍, 대막댕인 아방, 그 이유가 알아져? 그 대막댕인 아방이  
라. 이 아방은이 막 큰일나사 “아이고 아버지” 허지만은 어멍은 네려져도 “아이구  
어멍아” 호쑼 감기 아파도 아이구 어멍아, 계속 어멍 불르잔아 이. 게난 머구냥이  
가시가 계속 불르는 거. 가시가. 대막댕인 막디막디. 막 큰일나야 아이구 아버  
지 해곡 어멍은 계속 불르니까 어멍은 머구냥, 아방은 대막댕이.

112029 @ 그렇구나

112029 #1 그렇지.

112029 @ 쥔동은 어떤 거파?

112029 #1 쥔은 산디쥔 잇잖아. 산디쥔이 이마니 놔. 돌아가시민 그 앞이 방장대  
허고 산디쥔 놓잖아. 거니까 산디쥔은 우리가 죽으면은 묶으는 거 아냐. 그니까 묶  
으는 식으로 상제 앞이 놓는 거야. 그게 쥔댕이, 거난 소상날 대상날은 다 술아  
불지안허나, 쥔댕이광 대막댕이나 머구냥은 소상날은 다 술아부러.

112029 @ 소상은 1년?

112029 #1 1년허는디 그전인 3년허잖아. 근디 옛날엔 몸에 다 니가 난다 왜 니가  
나냐허든 3년간을 목욕도 안허고 머리도 안곰고 상을 딱 모시는거라. 겨든 ㄱ만  
이 허든 머리에 니도 께곡 옷도 안뵈아불민 그대로고. 이제 사람 그냥 이 자기  
부모를 목욕시켜불민 도망가분덴 허여. 그니까 목욕도 안허고 머리도 아이곰곡. 게  
난 니가 떨어지잔아. 거난 옛날은 그런 효자가 어딴나.

112029 @ 게메마쥬. 삼년상을

112029 #1 이제ㄱ뜨민 그냥 오명사라 모욕헐걸, 장밧디 강 오명사라. 옛날은 모욕  
을 아니헐덴.

112030 @ 두건과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112030 #1 복친덜, 스촌, 육촌, 칠팔촌, 당상제는 그냥 이 복으로 입고 그런 복  
친덜은 두건하나씩 수건, 막 생각허민 치마도 주고,

112030 @ 치마도 주고, 속바지도 주고 저 저 몸빼, ?

112030 #1 어? 몸빼는 치마대신 주는거. 광목으로, 치마대신 몸빼로 주는 거. 이제

나 경협주. 옛날은 치마로 쥐낫져. 또 이 당부모가 죽으면 당자식은 산디짚 들이  
잖아. 산디짚. 채얌은. 산디짚 왜 묶으냐하면은 부모가 관소곶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디짚 묶어. 잇당 날 봐그네 어느 날 좋으면 그거 클러두고 머리창. 관 소곶에 논  
후에는 머리창 들어. 이제 뭐 경협나. 다 불더레 팡팡 솜앙

112031 @ 팔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1 #1 팏죽은 팏 잇잖아. 팏은 방법이야. 게니까 사람이 죽으면  
팏죽허잖아. 잡신을 못 부트게 팏죽으로 다 먹는 거야. 그니까 심방 빌어당  
뒤흔때는 팏으로 뿌리잖아.

112031 @ 누가 팏죽썰가지예 사돈?

112031 #1 사돈 썩가는데 사돈이 돈으로도 으저가고 팏죽 썩드렌, 또 그  
상제네 집도 팏죽을 썩. 방법으로,

112031 @ 바로 돌아가시민 바로 썩?

112031 #1 아냐. 팏죽은 혼 날 뺑 혼 사흘이나 날 보멍 이틀인가 사  
흘인가. 날 보멍 빨리 허면은 죽는 날부터 팏죽 들어가고, 혼 오일장 삼일장 허  
민 뒷날 삼일차날,

112031 @ 누가 먹어마썩?

112031 #1 그디 가는 사람덜, 방법으로 죽으로 주잖아. 그 잡신 방법이야.

112031 @ 밥도 주고? 죽만?

112031 #1 밥 먹구정 현 사름은 밥먹고 죽먹고정 현 사름은 죽 먹고. 죽은 사돈  
덜, 썩가서. 허벅에다가. 게난 다 빙당 그 허벅속에 두 사발썩 냉경 주메.

112031 @ 무사마썩?

112031 #1 그디 죽썩 사름 너무 섭섭허잔아게. 죽 강 먹으렌. 더러 안비와. 너무  
복복 비우면 미안허니까 냉기는거. 사돈칩이 죽썰가는 허벅은 어떻사 이쁜  
허벅을 가느디. 아무 허벅이나 못가. 곱닥헌 허벅이라야. 게난 사돈칩이 죽썰갈 허  
벅은 물도 안질어, 벌러불카부텐, 딱로 나뒤.

112031 @ 겐 또 허벅은 가져와?

112031 #1 그 죽비와똥 아져오지. 게난 그 허벅 소곶에 두 사발썩은 냉겨.

112031 @ 아, 그말이로구나. 비와똥 온다.

112032 @ 성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2 #1 날 봐야 성복허지. 날 안 보민 성복 못해여. 그 사람이 날 안보면은 성  
복 못허여. 그냥 산 사름광 곱아. 거민 이제 성복제는 죽은 사람 혼 불러내고  
다해내는데

112032 @ 성복이란 말이 뭐파?

112032 #1 복입고, 복, 두건을 상제마니 해영 췌당 그 복입는 날은 상제두건이 제  
라허게 우의로 줍아. 이만이헌 통두건 썩. 우의 그냥 튼냥. 건디 이제 날본날은 제  
라허게 두건 썩곡 복 입고. 통두건만 썩잔아, 날 아이본 뎌.

112033 @ 일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3 #1 일포제는 큰딸이 출려.

112033 @ 원래? 무사마씨?

112033 #1 아덜은 계속 그걸 허주마는 딸은 이 하루 걸린 떡분에. 계난 딸도 빗나지. 계난 옛날 딸이 그렇게 옥아. 옛날 딸이. 이제는 이 딸이고 아덜이고 똑 그찌 허잔아. 옛날 딸은 이 늙이엔 해. 남의 집의 갈거니까 남이엔 해. 혼번은 그 하르부지가 딸이 너무 옥으니까 딸네집일 갖어. 큰딸네 집일 가니까 아바지 그레 앓아십서 앓아십서 허멍 자기만 일출리고 이, 아자십서 아자십서 허멍 호꿈도 무시거 안주니까 하르방은 딸네집이강 무시거 먹고싶으니까 간 거겠지. 그런 무두막질헌 년이 어딴게. 뭐 출령강으네 뭐 밥을 행 안네나 죽을 썰 안네나 해신가 말로만 아바지아바지 허난 아바진 꿔쌌해가지고 요년 허랜헨 집의완 이제 아덜ㄴ라 메누리ㄴ라영 저 나 죽엇쟁 해그네 연락허렌. 갱 이제 죽은체 눈거라. 누니까 딸이 완 아이구 아바지 아이구 아바지간때 맞존것도 잘 해 맥이고 고기도 갈랑 다 맥이고 막 해여수께. 아이구 정존밧도 나 주켄 현 아바지 허멍 막 현거라. 아방은 이제 고만이 들은거라. 통대 잇잔아, 담배통 진진헌거. 이년 어는제 너 나 정존밧 주켄허곡, 어는제 나 죽원 쫓느냐. 천장만장 돌아나. 계니까 딸은 못밧아. 거니까 이제 하르방이 날을 보는 거라이. 날을 보는데 아무날 아 딸이 아자부니까 늙 이서부난 말을 못허켄. 다 죽어가명. 늙은 암만 봐도 딸배긴 어신거라. 아무도 어신디. 경허난 딸은 아나가 늙이로구나. 나가 나가불민 아버지 곧ㄴ정 현냥 급생 헨. 갱 딸이 어떻게 옥은디 이젠 굴묵 소곱에강 들언. 옛날엔 굴묵 짓잔아. 고만이 굴묵 숨언 허난에 아무디 강 묻으민 조니까 느네가 앞으로 막 펜안허디 그디 강 봐시메. 요년은 들엇단 그밤에 이녁네 씨아방을 천리해당 낫단다. 계난 딸은 도독년. 이쥬 사람은 경 안허지. 옛날 사람 게 지만 잘웨젠게.

112034 @ 부조와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떡/돈)

112034 #1 동넛사람덜 손에 췌영강. 옛날은 엽전 이.

112034 @ 뭇 냥 해신지 기억 안남수과

112034 #1 그런건 난 몰라. 닻냥 옷냥은 허는가.

112034 @ 곡식으론 안주고예?

112034 #1 옛날 할망덜이 공불 아니해노니까

112034 @ 떡도 주지 안합니까? 부조로.

112034 #1 야, 옛날엔 떡이 어딴나. 떡이 귀해여. ㄴ레에서만 곶앙 기겟방 어션. 떡이 귀허지. 상에 논거배끼 엇지.

112034 @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112034 #1 조문은 동넛사람이나.

112034 @ 동넛사람, 친척들 예.

112035 @ 토신제에 말씀해 주십시오.(언제/누가)

112035 #1 토신제는 집의 집 짓젠 해도 날뵙 허곡, 또 죽영강 무덤 멩길때도 토신제허고, 밧덜로, 또 산때도 집짓젠 허민 토신제 허고 경허지. 새로 집짓젠 해도 토

신제 해사, 장밋디강 들어가젠 해도 토신젤 하여사 꼭 ㄴ따.

112035 @ 아, 집짓는 거나

112035 #1 게난 죽영 가는 사름도 집짓영 가난에 토신젤 해야주.

112035 @ 땅에 뭔가 기운이 중요허니까.

112035 #1 그렇지.

112036 @ 상여꾼은 어떻게 부릅니까?(동네/마을/놈)

112036 #1 옛날엔 그냥 밥 맥이면은 영장을 해다줘. 해다준디 이제는 동넨 안부럼 잔아. 그냥 돈 주영 뗏겨. 옛날은 막 상여 빌어. 메여가단 막 멀면 이 영장을 노앙 쉬여. 쉬면 그때는 떡 안주에다가 술을 맥여. 맥영 이젠 호끔 배불르민 장밋디까지 막 모사가. 막 소리허멍 모사가메 옛나엔. 이제는 이 허여주도 안허곡 허도 안허여, 이제는.

112036 @ 그렇지예. 옛날엔.

112036 #1 옛날엔 인심이 좋잔아.

112036 @ 동네 젊은 사람덜이 다 도왔다는 거지예.

112036 #1 이젠 인심 어서. 우알력집의도 그런일 엇고.

112037 @ 운상(運喪)은 어떻게 합니까?(집→장지)

112037 #1 그거는 이제 기와집 올르는 거, 그거이 과일 소주 다 그 소꿍에 낱 모 사가는 거라. 게민 장밋디 가민 그 모사가는 걸 빼연에 장 아피다 과일 놓잔아. 거 경허는거. 행상보다 모녀가 그게.

112037 @ 설베가?

112037 #1 아니 그 모녀 들렁가는게.

112037 @ 상여?

112037 #1 어 모녀 들어강 준비 딱 해여. 장보단 모녀 들어간거. 또 옛날은 이 영 장허고 결혼해영 딱 맞따가릴거 아냐. 기분 나쁘지. 옛날은 가메 들렁 가잔아게. 또 행상이 영 씨영 메여가고. 그런 때는 이 쌀을 썰야 해. 이 우시가 썰고 또 영장 현디, 영장도 우터레 가져, 잔치도 웃질로 가져 막 싸와. 경허민 잔치 우시가 썰여 야, 이겨나가. 강 영장이 우로 가불민 좋지가 안해여. 게난 이 될 수시민 죽은 사름 이 좀 양볼 해야지. 옛날은 기냥 권리로 다 돼여, 권리로.

112038 @ 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112038 #1 가면은 그 사람덜 공꼴로 해주메, 밥만 맥이민. 이젠 안해줘. 게민 이제 관들여갈 디 개광을 파. 파면은 딱 맞게 관이 들어가는 거라. 게민 우이 개관 더꺼. 개관 더꺼난 우에는 또 명견이 잇어이. 그 죽은 사름 일름. 빨경헌 거. 그 멧전이 죽은 사름 일름이야. 게민 이 그 멧전 비추민, 보민 몸 구치는거라. 먼디서 멧전만 봤다면. 거난 제사고 날 냉기는 거고 그거 보면 못해여. 제사도 이 몸 구쳐젠 허연 뜬 사름이 허고 켜당이라도 시키고 자긴 안해여. 멧전 보민 몸 구친다는거라. 그사 름 일름 봐부니까. 나 이 뱍지 아니해도 무식이라도 그거 영 보민 다 알잔아.

112039 @ 호충(呼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분 만들어놓고 뭐 허는 거 님

은디.

112039 #1 아 봉분 만들어놓고 마지막제.

112039 @ 마지막제 마씨?

112039 #1 봉분 묻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보는거.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112040 #1 그냥 뭐 돼지고기 술망 썰어놓고, 술 놓고, 밥이영 뭐, 국도 돼지고기 국 끌리고, 옛날엔 그릇이 어서 이. 이만한 대막댕이 믋디므디 끈어. 쟁 그것에서 밥 주고, 낭푼 해다가, 낭푼도 어시난

112040 @ 차룽

112040 #1 차룽도 아니. 나무

112040 @ 남박?

112040 #1 남박 그런것에 밥줘.

112040 @ 보리밥? 쌀밥?

112040 #1 보리밥에 서경 햄지. 풋에다가. 쫄은 밥을 우에만 걸치고. 쫄이 어시니까. 경행 맥여. 경행 어시니까 배고프니까 밥먹으레도 가는 사름 이서. 빌지 아니혀여도. 장밋디. 밥이 어시니까.

112041 @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12041 #1 특별히 수고헌 사름은 밥 혼낭푼에다가 돼지고기허고 술허곡, 그렇게 아져가. 그건 인정 가프는거, 공 가프는거.

112042 @ 상식(上食)은 어떻게 합니까?

112042 #1 상식은 죽으민 상 올리는 것이 상식이지.

112042 @ 상예? 매일?

112042 #1 매일 출리는 사름도 있고, 보름 뉘민 설러부는 사름도 있고. 삼년간 허는 사름도 있고.

112042 @ 상식은 죽은 사람안티 밥 안네는 것이 상식. 아침 점심 저녁?

112042 #1 그렇지. 자기 먹을때까지 삼시 거려와 삼시.

112043 @ 삭망제(朔望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특히 현대와 비교해서)

112043 #1 색일이엔 곶아난.

112043 @ 삭일에?

112043 #1 색일은 초하루 보름.

112043 @ 초하루 보름마다 상식을 올리는 거로구나.

112043 #1 아니 매날 자기 먹듯 올리는데 초하루 보름은 삭일로. 삭일은 과일 올리고 막 아이고아이고 허고

112043 @ 걸 삼년동안 허는거라? 십오일마다 소상때까지?

112043 #1 그렇지. 경허는거.

112044 @ 소·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특히 현대와 비교해서)

112044 #1 소상 대상은 일년 돌아오면 소상이고, 또 이년채는 대상이고. 게난 삼

년.

112044 @ 게른 대상이 더 커마씨?

112044 #1 대상이나 소상이나 똑같지. 이젠 당일제 허잔아 산에서. 구신 말이 저 알더레 오지말렌 허민 아니와. 이젠 구신 말 잘 들어.

112044 @ 삭일도 이젠 안허잔아예.

112044 #1 이젠 그냥 산에서 탈상해부렁. 오지말렌.

112045 @ 토롱(土壟)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 묻는거?

112045 #1 여기는 그렇지 안해. 저 서촌덜은 그렇게 토롱해. 서촌더레는 죽으면 날이 아니나. 안나기 덕분에 토롱 해여. 토롱 해듬서 집의서 상봐.

112045 @ 여기는 그런

112045 #1 여기선 경안해 그냥 죽으면 삼일장 행 그냥 강 묻어.

112045 @ 날 안나와도?

112045 #1 안나와도 뭐 삼일장이니까. 왜 삼일장 허난 상제 하나는 날짜가 재기나 와. 상제 여서 일곱 나가민 그 상제 전부 놓젠허민 힘들지 날짜가.

112046 @ 이묘(移墓)는 어떻게 합니까? 이묘가 철리지예?

112045 #1 철리. 이묘는 철리허는거.

112046 @ 건 어떻습니까? 무사?

112045 #1 나쁘덴 허민 철리허는거지. 집에 잇잔아, 즈순 잘못허민 초상을 헌덴. 어느 초상이 즈순 안웨게 헐 사름이 어딿나.

112047 @ 복은 언제 벗습니까?

112047 #1 일년에 벗어부는 사름도 잇고, 삼년에 허는 사름도 잇고.

112047 @ 대상지난 다음 한 일년 더 입고?

112047 #1 아니 한 일년에 해여부는 사름 이서. 경안허민 산에서 다해부는 사름도 잇고.

112047 @ 사십구재에 허는 사름도 잇고?

112047 #1 사십구재에도 허곡, 사십구재 전에도 이 산에서 오지말렌 다 해부러. 축으로 오지말렌.

112048 @ 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영갈 때 뗏살은 보지말라든가.

112048 #1 그거 다 나와. 왜냐하면은 뗏 살 보지 말라 무시거 허라 다 나와이. 그 사름이 끌린단다. 보지말라 헌 사름이. 경 만약에 그런 사름이 이시면은 그 하관할 때는 아무선친 뗏술 여기 잇소 허면은 이서도 없소 해부러야 해. 그 사름 끌려들어가. 그런디 가지 말아야 켜리는 사람덜은. 요새도 주의헐건 주의해사 허여.

## 제례

112049 @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112049 #1 옛날엔 콩늬물이 풀질 안허니까 콩늬물 집의서 키와. 키와그네 허고,

또 묵, 묵 ㄴ뽕거 허고.

112049 @ 여긴 콩주름이렌 안허영 그냥 콩나물이엔 해수과?

112049 #1 콩주름이엔 허여. 콩주름, 녹디주름

112050 @ 제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112050 #1 이신사름은 막 출리구정 출리고, 어신사름은 못출리는디, 밥만 거려놓는 때도 잇고, 힘이 어시니까.

112050 @ 경해도 옥돔이라도 하나 꼭 올리젠 허지예?

112050 #1 예구 옥돔인가 무싱경가, 것도 이신 사름 허주 어신사름은 것도 힘들어. 불락 허나 구워놈도 힘들어. 자기 먹는 쫄이 어신디, 금방 애기들 밥해줄 것도 어신디 구신까지 생각허냐? 그 부자ㄴ뽕 녀넌 사름덜은 경 왕창 출리주마는 엇는 사름은 그날 밥해먹을 것도 어신 사름은

112050 @ 옛날엔 돛래기 쉼래기 상어래기 이런것도 혼가지도 못해수과?

112050 #1 돼지고기 배끼 더허나. 상에 고기 소고기가 어덜나.

112050 @ 돼지고기 하나?

112050 #1 응

112050 @ 옛날 바닷고기로 적혈 때 상어고기 많이 해낫수과

112050 #1 부제나 허지 어디 가난뱅이도 상어고기 허나?

112051 @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시루에서 키우기)

112051 #1 콩나물 키와야지.

112051 @ 시루에서 어떻게?

112051 #1 집의서 콩 등갓다가 거 물 빠주와. 빠주민 슻락스락 허민 사기 영 코돈은 것이 이서. 것ㄴ라 무시거랜 현다? 무시거엔 허여. 그것에 놔. 그것에 키와.

112051 @ 딱뽕헌디 노민 잘

112051 #1 아니 건 철에 따라. 추우민 딱신디 놓고, 유월에쫄은 베끗디. 썩어부러. 계절에 따라. 그것이.

112052 @ 제육(祭肉)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2052 #1 제육은 게 세가지 허는 사람도 잇고 어시민 돼야지고기 하나만 허는 사름 잇고.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하며, 누가 합니까?

112053 #1 옛날엔 돼지고기 하나배끼 안해여.

112054 @ 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종류와 꺾는 순서/5종이 갖추어진 떡)

112054 #1 이신 사름은 이신냥 막 출리곡 어신 사름은 하나토

112054 @ 게도 이신사름을 기준으로 행 굴아봔서.

112054 #1 신촌에는 이 설기떡허고 곤떡허곡이, 상웨떡, 그거빠끼 어서. 지름떡허고.

112055 @ 과일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

112055 #1 세가지. 또 어신 사름은 혼가지만.



112055 @ 혼가지엔 헌건 땡유지?

112055 #1 혼가지엔 헌거는 이제 돈이 어시니까 배 하나 사과 하나 땡오지 옛날엔 땡오지 경행 올려. 세가지를. 이젠 막 이만씩 올리잔아.

112055 @ 과일도 귀했주게.

112055 #1 과일도 귀허여. 계란도 귀허여.

112056 @ 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112056 #1 콩나물허고 고사리. 옛날엔 거 두가지배끼 아니허여.

112056 @ 꼭 세가지 안올려도 돼는구나. 무사 제사상엔 고사리 꼭 올리렌 험니까?

112056 #1 그 고사리는 나도 몰르는데, 고사리가 세가지로 별리잔아. 그것에 음식을 쌓간단다. 고사리. 옛날엔 무신 비니루가, 종이가 있나. 어시니까 고사리에 거 쌓간덴.

112057 @ 진설은 누가 합니까?

112057 #1 그디 아덜이 출리지 누게가 출려.

112057 @ 큰아덜?

112057 #1 큰아덜이 허나 작은아덜이 허나. 또 아덜 어신 사름은 딸냥으로.

112057 @ 딸이라도 그냥 올리믄 돼는거?

112057 #1 응.

112058 @ ‘매’, ‘갱’은 누가 뜯니까?(시어머니/며느리)

112058 #1 이제는 아무라도 떠도 그때는 큰메누리.

112058 @ 씨어멍이 떠도 돼고?

112058 #1 그 씨어멍이 늙으민 메누리 허랜 주지.

112059 @ 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특히 초헌관) 초헌관이여 이헌관이여 들어봤수과?

112059 #1 초헌관 이헌관은 장때나 허주 어디 초헌관? 그거는 포제혈 때. 믯을에 큰 제. 그런 건 상제관 중제관 하제관 허잔아. 건 믯을제.

112060 @ 파제(罷祭)는 몇 시에 합니까?(子時/당일제)

112060 #1 계난 열두시에 허주. 딱 열두시. 열두시 딱 돼어사 이 구신이 조용혈 때 먹영간덴. 사람 와글와글 이젠 시갯밥을 저녁밥으로 헌텐 허난. 옛날은 이 고요헌 때. 열두시. 옛날식이 어디 셔.

112061 @ 문전제(門前祭)는 어떻게 지냅니까?(제사의 전후, 제반 걷기 등)

112061 #1 문전제는 이 들어가는 거 보고 문전이라고 허여. 건디 상을 চে얌 모녀 문전상부터 몬저 출리는거. 그다음은 초상상.

112061 @ 열두시쯤에 파제허기 전에 문전제를 지냅니까?

112061 #1 파제혈 고비에 문전제도 ㄴ짜 봐.

112062 @ 제반은 어떻게 합니까?

112062 #1 제반을 걸으민 옛날은 초가집 잇잔아.

112062 @ 문전제 제반?

112062 #1 그거는 문전 허고 조왕에 어멍아덜이니까 문전꺼 걸어당 조왕더레 강 놓잔아. 조왕허곡 문전허곡 큰아덜에 어멍.

112062 @ 큰아덜에 어멍? 걸어당 어멍해.

112062 #1 걸어당 부엌더레 놔. 겐디 부엌에는 바닷고기 안써. 바닷고긴 안놔.

112062 @ 무사마썸?

112062 #1 춤 이상허여. 조왕에는 바닷고기 안들어가.

112062 @ 물에 빠져부난 경험신가?

112062 #1 무신 떡분산디 몰라. 거 이 역사가 이서. 어멍이.

112062 @ 식계 파제헌 제반은 초가집에 올리고?

112062 #1 어, 또 문전제 해난 건 조왕에.

112063 @ 지제(止祭)는 언제 합니까?(4대 봉사)

112063 #1 지제는 자식 여신 사름 지제해부러. 오지말랜. 자식 이신 사름은 지제 안허여. 뗏대 선조들까지 허잔아.

112063 @ 제사가 없어지는거로구나, 대가 끊기면.

112063 #1 대 끈어지민 그냥 아녀는거. 겨니까 아덜 나민 좋다좋다 허곡, 딸은 나민 피목스. 놈의 집의 가부니까. 애기엿개로. 딸은 애기로 아이생각해.

112063 @ 웨손지가 웨할아버지 제사를 하기가 어렵겠다예.

112063 #1 딸보단 낫넝 해. 웨손지가. 산을 옛날엔 놈의 맥산을 강 씨여부러. 게문 막 산우에 싸움덜 막 칼들르명 막 해도 웨손지가 나강 싸운단다. 산싸움을. 웨손지가 앞상 헌텐 성손지보다.

112064 @ 묘제(墓祭)는 어떻게 합니까?(준비→음복)

112064 #1 그냥 여러대 뒤편 묘제로 들어가.

112064 @ 합청?

112064 #1 아니 묘제는 산으로 강 해부는 것이 묘제.

112064 @ 제사를 산으로 강?

112064 #1 그렇지. 묘제는 이 집의서 허당 이제 즈순덜이 뗏 가지덜이 넘어가민 산으로 가부러. 지네가 . 삼대까지는 집의서 허주마는 사대 뒤편 산으로

112064 @ 아 한꺼번에 모아서.

112064 #1 거난 친인척덜이 다 한뼘에. 거난이 이제 스춘 념영 육춘으로 가민 친척 아니냐게. 거난 이녁이 육춘칠춘 뒤편가민 산으로 들어가.

112065 @ 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2065 #1 제삿날은 몸 구치민 그 초상이 안먹어가. 냄새 나뎡해.

112065 @ 게문 어멍해? 메누리가 그날 멘스가 오민?

112065 #1 멘스 오면은 뜯사름이 해야주. 동넛사름을 빌어당을 허던가. 켜당을 허던가.

112065 @ 정말마썸?

112065 #1 그렇지. 냄새낭 무신 제삿밥을 허나게. 거니깐 옛날에도 날레닐젠 허당  
그거오민 설리부렁게. 재수 굿젠 허민 그것이 꼭 그 ㄴ리에 와.

### 13. 민간요법

113003 @ 비듬

113003 #1 비듬은 머리에 비듬.

113003 @ 계난 건 어떻 치료해?

113003 #1 머리 아이굽아가민 비듬 생기주게.

113003 @ 방법이 어섯수과?

113003 #1 옛날엔 뭐 머리에 니가 털어정 머털 굵냐? 빨래비누도 엇고, 옛날엔 이  
요름에 꿰 잇잔아 꿰. 그거 해단 영 물거런 허민 푸달푸달헌 물이 나와. 그것에 머  
리굽아. 옛날에 요름에. 비누도 엇곡 그냥 맨 물에다가 굵지.

113004 @ 버짐(진버짐, 마른버짐):

113004 #1 버짐은 옛날 조 잇잖아. 조를 쓸로 즈쓰로 골때에 그 조채,  
조채 해당그네 그 지름을 빠. 게문 그것이 알로 노랑헌 물이 나와. 그거 볼르문 좋  
는거. 조채지름. 옛날 무신 약이 잇나 뭐 잇나게. 그런걸로 허지안행.

113005 @ 백선(白癬)

113005 #1 날은 무좀이 생기면은 무엇이 허냐 허면 그 소금물에다가 누룩낭잇잖  
아. 가신세뿌리, 들에가문 잇어. 그거해여다가 물 딱 뜻허게 막 끓영 식히  
면은 그냥 등가. 누룩낭 (구진물 빠는 거)에 가신세빨리(균 죽이는 거). 종기나  
민 누룩낭 해당 막 구진물 뽑잔아. 가신새빨리엔 현건 균 죽이는거. 경허난 가신새  
빨리허곡 누룩낭 막 비싸잔아.

113006 @ 여드름:

113006 #1 여드름 나민 거 기냥 내불주 무신.

113007 @ 기미:

113007 #1 지미도 내불고.

113007 @ 어떤때 지미가 납니까?

113007 #1 지미는 애기 낭으네 몸조리 못허민 지미진댕허주.

113008 @ 주근깨:

113008 #1 프리춤 잇는 사름이 이젠 어서. 옛날엔 데닥데닥 허연. 약으로 헨 다  
고썸신가. 거 씨로 가메 종류로. 프리춤 이신 집은 거 이서 또.

113009 @ 사마귀:

113009 #1 사막은 다 얼굴에 신거. 내불어. 눈아래 신거, 눈물사막. 눈물사막은 질  
나쁜거. 요런디 부뜰건 복사막.

113010 @ 다래끼:

113010 #1 눈에 나는거. 것ㄴ라 뭐엔 골아라마는  
 113010 @ 여기서도 깨집이엔 험니까?  
 113010 #1 눈에이 드랭이 난건 깨집이엔 허곡. 그런 사람 이젠 못봐.  
 113011 @ 눈 충혈: 눈 빨경허면  
 113011 #1 빨경헌걸 어떻혀. 열생겨도 빨경허지 감기사.  
 113012 @ 치통: 이빨 아픈건?  
 113012 #1 이빨 아픈 걸 어떻해. 소금에다 죽저사.  
 113013 @ 헛바늘: 셋가시나민 어떻험니까?  
 113013 #1 셋가시나민 소금에 세우리 잇잔아 것에 박박 문대여 피나게. 경허민 좋  
 아부러.  
 113014 @ 천연두:  
 113014 #1 옛날엔 예방주사가 잇잔아. 게문 그냥 올라.  
 113014 @ 읊기면 어떻게 할거라.  
 113014 #1 읊기문 어떻허여게. 그냥 내불어사주.  
 113015 @ 홍역:  
 113015 #1 옛날엔 마누라도 솓매잔아. 그 마누라엔 헌건 이 홍역. 그거 혈 때 다  
 솓매여.  
 113015 @ 솓이 뭐파?  
 113015 #1 올래예  
 113015 @ 금줄?  
 113015 #1 그런 줄.  
 113015 @ 거 솓이랜 험니까?  
 113015 #1 그걸 솓매는거. 금줄 심방덜은 금줄이엔 해여.  
 113015 @ 아, 그걸 솓이랜 허는구나.  
 113015 #1 솓 놓곡, 아픈사름은 솓매영 그 진 나무 정낭, 정낭 놓고 솓 놓곡. 솓도  
 막 알더레 지랭이 현 집은 무시거 해난 집이고, 또시 바짝허게 맨 집이는 날 냉길  
 집이고.  
 113015 @ 날 냉긴다는 건 뭐파?  
 113015 #1 심방 빌어다그네 기도허는거. 정월나민.  
 113015 @ 소나무가지나 이런거 꺾고 솓 꺾고 이런건 아니고 새끼만?  
 113015 #1 소나무가지는 애기난 때에 고추 솓 그런건 애기난 때 허는거.  
 113015 @ 새끼줄만?  
 113015 #1 솓은 이제 열병ㄴ라 소님이엔 허여. 그거 혈 때에 솓 매불어. 몸 구친  
 사름 들어가문 이 그냥 아기가 병신 돼불어. 박박 굶어부러. 게민 곰보 돼잔아. 게  
 난 그거 못들어오게 방비허는거. 몸 구친 사름이나 또 마누라 허당 애기덜 죽은 사  
 름이나. 옛날은 열병허단 많이 죽엇네. 이젠 주사로 다 읊기고. 옛날은 열병 허멍  
 막 죽엇다고.

113019 @ 땀띠:

113019 #1 땀띠는 이 땀나가민 켜켜헌거 냇. 건 바당의 찐물에 강 드러누워야. 그 건 찐물에만 들어얏이민 들어가. 막 끈적끈적 ㄴ롭지 건.

113020 @ 부스럼:

113020 #1 부시럼 나민 궤약을 부찌던가. 궤약이 있어 옛날엔. 옛날은 이 탕관청에 강 비리엔 헌거 올라와. 막 ㄴ로와. 무신거 뽕족뽕족 일어나고. 거 이 혼이불덜 녹잔아 옛날엔. 그런거 그냥 올라와. 아이구 혼났젠허난.

113020 @ 빈데?

113020 #1 빈데가 아니고 것ㄴ라 비리, 비리. 빈데 아니곡. 빈데는 사름 뜯어먹는 것이 빈데고 비리 올랐젠 혀. 이런 손가락에도 막 나고. 막 끈적끈적해.

113021 @ 헌데:

113022 @ 종기:

113022 #1 또시이, 함박허물 나잔아. 함박허물 아나? 몸에다가 종기 나잔아 종기, 그거 나쁜 바당에 강 그것ㄴ라 무신 조개엔 혼다마는 바당에 그런 조개가 있어. 그거 테당 부찌. 옛날엔 욱혈 때 “느네 어멍x에 함박허물이나 나라” 무사 경 어멍x에 함박허물 나랜.

113022 @ 종기가 뭐가 좋덴 해수과?

113022 #1 종기에도 궤약.

113024 @ 생손앓이:

113024 #1 생손 알리는거? 생손 알릴 땐 이 소곰 짜게 노앙 웬장 잇잔아. 것에 싸매야 해. 거난 그것이 이, 팡팡행 죽어부러.

113024 @ 웬장이 좋긴 좋은거다예.

113024 #1 웬장이 약이라.

113025 @ 두드러기:

113025 #1 빼비엔 헌 것이 있어이. 개미끓은 것이 있어. 그것이 사름을 쏘아붙어. 그거 물어불민 굼어가민 두드레기 닳은 것이 막 나잔아.

113025 @ 고치는 방법은?

113025 #1 막 굼당보민 허당 버치민 소곰에다가 박박 뭉개여. 게난 이거 질여져불민 ㄴ롭지 안허는거지.

113027 @ 경기(驚氣): 아이덜 깜짝깜짝 놀래가민?

113027 #1 의원신디강 침맞아야지.

113027 @ 옛날엔 의원이 이수과게.

113027 #1 아, 침노는 의원은 있어.

113028 @ 화상: 데면?

113028 #1 열 소곰에 들으민 요샌 주사로 그 열을 다 뽑지만 옛날엔 바당에 가민 메역 잇잔아. 그걸 막 감아. 게민 메역이 파랑케 익어. 경해가든 빼어당으네 또 그거 허곡.

113029 @ 동상:

113029 #1 동상 걸린거는 둠비 물 잇잔아 둠비물 빌어다가 뜨뜻하게다가 발을 커. 손이고 뭐이고. 옛날에 약이 잇나?

113030 @ 감기:

113030 #1 감기는 옛날엔 주사도 엇고 뵈도 엇고 허민 계란 잇잔아. 계란에 술 것에 타그네 들이써민 뜨신 방에 누민 막 뚫으로 나. 뚫으로 나민 감기가 좋아.

113031 @ 기침:

113031 #1 기침은 어떻허는고 허면 배 잇잔아 배, 배에 꿀 노아그네 딸령 먹어. 배에 꿀을 막 딸리잔아. 물에 끌어. 그거 먹어야.

113031 @ 도라지 그런건 애기 안들어 봤수과?

113031 #1 안들언. 배나 땡오지. 두가지 막 딸령 먹어.

113032 @ 딸꾹질:

113032 #1 툇국질엔 존 약이 있어. 먼 약이 있는곤 허민 이거 진짜 나가 당해난 일인디, 우리어머님 산때 아 툇국지가 죽어도 안내려 물 먹어도 안내려가고 애야 우리어머님 돌아가기전에 느 무사 느 우리 오래비가 이젠 죽어부럿주마는 일름이 원택이라. 무사 느 원택이 주젠 현 떡 빌어단 놔두난 그거 움막 먹언디? 어느제 나 먹엇수과? 막 어멍이, 나 안 경. 아 그냥 싸우노랜 허난 툇국질이. 약은 다 뵈신게 게. 미신약 말이과? 나 언제 먹엇수과? 툇국질 들어가신게. 아이구 어떻사 웃어신 디. 아이구 어멍이영 잘도 싸와낫젠 허난. 먹엇져 아이먹ㄴ라 허멍. 경 쪽이는 거라 라 그거. 이제도 그런거 혼번 해봐봐시른 조커라. 약쓰지 말고이 툇국질 나가게. 씹젠 막 신경써가민 그놈의거 돌아나부러.

113033 @ 코피:

113033 #1 코피나면 측 해당 막 영 보비영 지렝이 막앙.

113034 @ 가래:

113034 #1 가래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113036 @ 설사:

113036 #1 설사는 이 옛날 불숨아나민 솟강알에 시꺼명헌거 잇잔아. 그거 해다그네 물에 물에 탕 먹어야 허. 시꺼명헌거. 거 좋아 그것도. 거 왜 조냐면은 우리가 밥행먹젠 허면은 산에강 나무도 해오고 이 검질도 해당 막 습잔아. 경허난 그 기운이 솟 우에 기실어. 것이 다 약에 기시령 들어간덴. 약이. 거니까 설새낭 굼어당 먹으민 좋은 것이 바로 그거엔.

113037 @ 이질:

113037 #1 이질은 이 똥은 ㅁ롭고 안나오는거 바직바직 해그네. 그거 현때는 뭐 먹어신고?

113038 @ 괘란:

113038 #1 체가 했는지 배아과가민 괘란이 걸럿젠 행이 드러누랜 행 갈라지민 배똥 막 돌리는거. 게민 괘란이가 돌라가문이 손가락이 배똥에 막 들어가부러. 바직.

거난 외우 아옴번 요덥번 아옴번을 둘러야 그게. 게문 손가락이 배똥 소꿉에 막 들어. 것이 곱란이엔 허여.

113038 @ 곱란? 그거 허는 사람 잇겟다예.

113038 #1 아 우리도 거 해나서.

113039 @ 체헛을 때:

113039 #1 옛날은 무식해노난 그런거 알아도 대부분 체 느리는 거 집마다 허는디 옛날엔 몰라.

113039 @ 체헛을때는 뭐 뒤로 두들려 준다든가

113039 #1 거 이제나 뒤로 두들주 옛날엔 곱란이 걸렛쟁 뱃똥만 들르곡. 옛날엔 연친것도 몰랑 이 본뽕 걸렛쟁 허곡.

113039 @ 본뽕이 뭐파?

113039 #1 배아프는 사람 잇어. 그런거 걸린 사람. 아이고 옛날엔 약도 엇고 원장도 엇곡.

113040 @ 베인 데:

113040 #1 아 보리비당 꼬르면은. 소앵인가 잇어. 소앵이 해다그네 보비영 처매어 야 허여. 썩을 해당 보비나. 썩도 해당 보비영 처맷곡 또 소앵이도 해당 처맷곡.

113041 @ 모기 물린 때:

113041 #1 뭐 막 굵당 보민

113042 @ 뱀 물린 때:

113042 #1 베염 물린데는 옛날엔 발에 잘 물려이. 갈중이꿈이나 소중이꿈이나 거 방법이라. 이런디 무꺼. 이레 올라오지 못허게. 경 무끄민 여기서만 뽕뽕해. 거문 이 우터레 올라오민 죽지 사람이. 거난 못올라가게 여기 막 무꺼. 경행 의원신디 가민 이만이헌 침으로 막 빠.

113043 @ 벌 쏘인 때:

113043 #1 벌 쏘인땀 이, 뜨신 오줌 허더라. 겐디 얼굴엔 못허지. 손에 ㄴ뜬디 브르민 어명헐티.

113044 @ 옷 오른 때:

113044 #1 칠낭 조꼴디 가민 칠 올란 이 문둥이 똤여. 게문 그 칠낭 굵에다가이 막 불을 살라야 똤.

113044 @ 죽여부러? 약은 엇고?

113044 #1 어. 약은 없지. 본지 잇잔아 본지, 찜진게 막 복작복작 굵으는거. 것도 본지낭에강 불부썤불곡.

113047 @ 허리 빠엿을 때:

113047 #1 침이나 맞곡

113048 @ 발목 빠엿을 때:

113048 #1 침 맞곡

113049 @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113049 #1 귀에 물들어간땐 귀에 물 질엉 영허민 그냥 곧즉 빠져. 그 모녀 들어간 물이 뜨겁잔아. 거를 말제 귀더레 물을 질어. 영영영영 영영영여 허민 따뜻한 물 나와. 경 빠져부러.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1 #1 물에 들었던 죽을뻔 헌건 세 번 죽을뻔 허당 살아나서.

114001 @ 삼촌?

114001 #1 완전 죽엇단 살아난. 것도 혼번은 이 박 잇잔아 테왁. 테왁 꺼내젠 소라는 골라앗아불곡, 테왁은 도망가난 바당에서 어떻게거라. 이제 그 동이엔 헌 아이가 살려서. 소라를 이빠이행 골라앗아부난. 우리아시 가이 보민 미안행이 우리아시에 동이에이 나 땅아릴 건진거라. 건전에 이 둘이가 허곡 난 그냥 회어오곡. 건 둘이가 거 건져완. 혼번은 이 닻 이디 걸련. 걸리니까 이 숨은 지니까 이것 혈거 아니? 아니 영 나오젠 허니까 일로 알로 땡겨부난 뭘 숨은 다먹고. 살려주는 법이 이서. 앞이선 좀녀덜 숨비는 디 나를 보아줘야 나를 살릴건디 날 안본거라. 아, 오늘로 나 이거 곳이로구나 아무생각도 안나. 눈이 빨경헨 숨 다 먹으니까. 게난 가까운디 왕 귀 뗏개 허젠 허당 나오젠 허난 이디 걸령 나와지나? 나 이젠 곳이로구나 허는디 저디 갓단 테왁이 나아피 온거라. 테왁을 짹 노리난 요만큼 숨을 콕! 그냥 하늘도 별경 바당도 별경. 숨 다 먹어부난. 한 참 한 참 이섯어. 한참 이션 이젠 그 걸 강 풀엇어. 또 올라왔어. 야 숨쉬라 이젠 허연 그 닻줄을 테왁에서 클러부럿어. 클령 내껴부룬 그냥 완. 나 바당에서 뗏 번 죽을 뻔. 또 혼번은 옛날엔 실갱이 듬복이 이서. 이젠 오염헨 듬복도 아무것도. 그땐 실갱이 듬복이 이만이 이션. 혼번은 이만이헌 전복 텡오르단 실갱이에 그냥 눈 걸령 그냥 뺏겨져부니까 숨이 다 먹어분거라. 아이고 숨 먹언. 그때도 테왁이 조꼳디 온거라. 경 그때도 이제 허! 이젠 물질 설러불주 이 물질 안허민 나 못살리. 물질 안허젠 문딱 다 아정와부러서. 아저완 허난 아방이 채무허랜 허난 채물 죽어도 안허더라게. 돈 꾸레 땡기기 실편. 늑신더레 사정허기 실편. 재무만 허민 당신허고 나 밧디가그네 일허켄. 늑ㄴ찌 ㄴ찌 들엉. 대답을 안허더라게. 바당에 가몬 그날그날 돈 올라오주게. 거난 대답을 아녀. 또 울멍 테왁 질머정 또 바당에 간. 나 이 살아온 역사 아무도 모른다.

114002 @ 도깨비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2 #1 도깨비덜토 아이만나보고, 거 무신 밤에 땡겨야 그런거 만나주 무신.

114002 #2잘못대접허민 대번 망해부러. 없는 사람은 모실랴고 도깨비 좋아허는건 뭇냐허믈 대죽떡허고 셋머심을 도깨비가 지일 좋아해여.

114003 @ 참외나 수박을 서리헸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4 @ 어렸을 적 들엇던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4 #2 나 옛날 저 꿈본 얘기나 할까?

114004 @ 예 무슨 꿈?

114004 #2 여기 호열자 들어오젠 해도 꿈꾸고, 육이오 일어나젠 해도 꿈을 꾸고,

114004 @ 아, 큰일 있젠 허난 삼촌도 꿈을 꾼디가?

114004 #2 저 육이오 일어나젠 허니까 저 인천서 꿈을 꾸는데 나가 어욱뱃디강미를 빠먹어보질 아니허였는데 어욱뱃이 큰 너른 뱅뒤가 잇는데 이놈의 고고리가 나올까말까 헌데,

114004 @ 뭐가 마씨 무슨 고고리?

114004 #2 어욱 고고리가 나와야 하얏게

114004 @ 미, 미,

114004 #2 미빠쟁이, 나가 미도 경 아이 빠랐는디 꿈에 그냥 어욱이 그 너른디 그냥 막 왕상했는데, 그놈을 막 찢르고 그냥 밧 하나 또 넘으니까 그 머들 우에다 이렇게 긴 어욱이 바람에 흔들흔들 허고 있는데 하이구 이런걸 해야 뒤흔구나 해영헌 것이 깨나니까 꿈인데 막 그 어욱을 찢르고 그냥 빠고 했는데 깨어나니까 아 저 혼 육이오가 새벽 세시쯤에 일어나실거야. 혼 네시 다섯시쯤. 그 꿈을 봐서 동세백이 별꿈을 꿔네이. 밖에 나오니까 사람소리 드난 사람소리가 나길래 밖에 나와 보니 나오니까 북쪽으로 우르릉 허는 소리가 나. 우르릉 우르릉 허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둥 헌다허. 보니까 천둥은 혼번 우르릉허민 꼬치는디 계속 나니까 아 이거 이상허다. 거 육이오 전쟁 터진 거.

114004 @ 아, 인천에서?

114004 #2 인천에서 나 그 꿈 꿔는데. 아, 그니까 북아와가니까, 그날은 공일날인데 전쟁 터졌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덜이 스몏

114004 @ 꿈자리 보는 뭇도 있구나예?

114004 #2 저 나가 꿈본 말을 하자는 건 나가 동생이 세 번쨌 동생이 형무소에 가서 죽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면 전부 빨갱이로 육지에서 인정을 했어. 저 서울서도 많이 죽었어, 제주도 사람. 그냥 빨갱이 아니라도 막 죽였다니까. 겐디 우리 친구가 하나 죽었어. 서울서. 제주면 다 빨갱이로 인정했던거주, 육지에서. 그러니까 나가 그냥 육이오 나니까 여기서 빨갱이로 취급해서 말이야, 나도 경찰에서 잡아갓어. 겐디 유치장에 요만헌 방에다가 혼 뗏십명사 앓아신지 앓일수가 없어. 짝 허게 사람이 앓아노니까 만딱 죄인들 잡아다가 겐 이 한 밤 열두시 뒤흔까 다 좁져가지고 앓아서 곧 첫날 저녁에 꿈을 꾸는디 말이야 혼 열두시 뒤흔까 아자서 좁이 들어. 꿈에다가 세상에 원 사진에도 봐나질 안했는데 백발노인이 이 육각 관을 켜고 하얀 수염이 이까지 착 늘어졌어. 그 도복을 입고 얼굴은 아주 그냥 눈이 크고 수염이 하얀 수염이 이까지 착 늘어졌고. 나앞이 탁 허게 앓아서 느 조심허라. 위험허다. 잡귀가 많다. 아 그 하르방이 게난 들어오는 건 알고 가는 건 몰라. 겨니까 그때부터는 잡귀가 많다고 허길래 거 내가 잡귀쫓는 경을 아니까, 그걸 입속으로 자꾸 웨왔어. 겐디 그거 춤 뭇야 하마 죽을건데 살아서. 스십삼일만에 유치장에서

나오니까 세발짝을 못 걸어가. 그냥 박아져가지고. 건디 그 하르방이 제주와서 또  
흔번 봤어, 꿈에. 우리집의 큰아덜이 지금 저기이신 아덜 날 때 이제 흔 들쭈 이시  
민 이제 아이를 낳때가 됐는데 우리가 어머니가 큰방에 살고 우리가 작은방에 사는  
데 하르방이 꿈에 문이 그뚝허게 들어와 나앞이 딱 허게 앓아서 너 이방에서 아이  
나쁜 좋지 안허니까 방을 옮겨라. 하하, 그 하르방이 나 죽을 때 뵈면 또 흔번 볼는  
지 두 번 봤는데 저 인천살 때 흔번 보고, 이디완. 게서 춤 방 옮겨. 하르방이 와  
서 그렇게 허는디 방 옮겨 저 큰아덜 낳고 그때가 서른 두살, 내가. 게난 그게 난  
산신으로 생각을 허는디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도 었고,

114004 #2 해방후에 호열자 여기 들어오젠 허니까 저 하르산까지 그냥 내창이 물  
이 그냥, 곱닥헌 조수 돈 배덜이 하르산더레 그냥 쪽쪽 올라가며데. 이 배 들어가민  
병 들어온거라. 어디서나 아무 때도. 배가 들어가민 거 병들어온 거여. 경 호열자  
들어완. 배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난 그거구나?

## 제2절 어휘

### 1. 인체

####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대맹이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꼴
201005	제비초리	생이꼴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턱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땅다	다우다
201014	비녀	빗네대
201015	고수머리	꼬시레기
201016	가마[旋毛]	상고방띠, 가매
201017	쌍가마	쌍가매
201018	가르마	앞갈름
201019	이마	임덩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빼기	임덩이, 이마뺨
201022	솜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양지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싸게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색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얌
201032	뺨따귀	뺨얌테기

201033	때리다[打]	딱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뻐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뼈	광대뻐
201038	보조개	보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자
201043	눈꺼풀	눈두꺼
201044	거적눈	거적눈, 쌍거풀
201045	눈썹	눈썹
201046	길다[濃]	검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눈바위에 있는 거)
201048	양미간(眉間)	눈썹사이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가롭다
201052	눈곱	눈뽀뽀기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사팔이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지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썩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
201066	입	입, 주둥이
201067	쓰다[苦]	쓰다(칼칼)
201068	참말	춤말
201069	거짓말	거짓깬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달하다
201072	입술	입술
201073	헐다[毀]	헤싸지다
201074	입놀림	주둥이놀림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주둥이놀림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침
201080	삼키다[吞]	삼지다
201081	가래침	게침
201082	뱉다[吐]	마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훅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든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사랑니
201095	옥니	오그라진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옥물다	악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자락
201105	귓볼	귓볼리
201106	귓구멍	귓ㄱ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호개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밑
201112	구레나룻	녹디쉬염
201113	목	야개기
201114	굶다[飢]	슬지다
201115	모가지	야개기
201116	먹살	멕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뚫데가리
201119	꼭뒤	상고방띠
201120	뒷덜미	뒷고개

#### 상체

201121	어깨	우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짱
201123	어깨죽지	우뚝지, 푸는체짱
201124	겨드랑이	저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
201132	팔목(=손목)	홀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켁이
201137	오른손	ㄴ단켁이
201138	왼손잡이	웬켁이
201139	손등	손등얼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시름
201145	할퀴다	굶다
201146	손가락	손까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까락
201148	검지손가락	안조웨기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까락
201150	약손가락	논웨기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 손까락
201152	손살	손꺼림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젓가심
201156	멍치	멥치짱
201157	멍자리	오목ㄴ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울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옴갈리
201168	갈비뼈	갈리뼈
201169	등	등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멥이
201173	가렵다[癢]	ㄴ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걸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뒷짱(~에 물지지라)
201177	찬물	냉수
201178	등마루	등ㄴ를

201179 등뼈 등짱

**하체**

201180	허리	즌등이
201181	잔허리	ㄴ는 즌등이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둥이
201184	살집	잠지폐기
201185	볼기	잠지폐기
201186	엉덩이뼈	엉둥이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고망
201191	더럽다[汚]	추집흐다
201192	가볍다[輕]	가불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살강
201195	가래뿔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동무릅
201201	무릎뼈	동무릅뼈
201202	뼈다[櫪]	ㄴ목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애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오금테기
201208	복사뼈	귀마리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凶]	긋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ㄹ모까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뿌리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귀ㄹ롭다
201220	간지럼	저굽
201221	발가락	발까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자발까락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까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가운디발까락
201221-4	넷째발가락	논웨기발까락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까락

201222	발살	발꺼름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퀴눈이
201225	고린내	ㄱ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척이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ㅁ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배설
201232-1	큰창자	대창
201232-2	작은창자	준배설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다웨다
201235	한숨	흔숨

## 2. 육아

###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태
202007	탯줄	베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묻이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놈
202015	계집아이	지지빠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개
202018	엿저지	애기엿개
201019	품다	쿰다
202020	오줌	오죤
202021	오죤독	오죤항.
202022	오죤버캐	오죤정갱이
202023	오죤쌈개	오죤쌈기
202024	누다[便]	누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리다
202026	지렁내	찌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꾸지람
202029	배냇저고리	붓디저고리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배불레기
202032	포대기	포대기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풀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포데기

202038	떠	걸렁이, 지성귀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 터진 바지

####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줌매줌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걸음대대 걸음대대
202046	걸음마	삼매삼매야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삿가닥질
202049	곤두서다	삿가닥질헛다
202050	가동가동	바당바당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애고개
202054	흥내	승
202055	흥내질하다	승털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통매기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애
202060	참다[忍]	참다
202061	심술	계웁쟁이, 몽니다리.
202062	밉다[憎]	밉상블르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헛깡이
202065	구슬치기	담아치기
202066	딱지치기	빠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곱음자기
202069	숨다	곱다
202070	소꿉놀이	손꿉장난, 자파리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문이	*
202074	줄넘기	베틀락,
202075	줄다리기	줄 등 기기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기돌
202079	던지다[投]	던지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뺨기	땅따먹을락
202082	사금파리	사금파리
202083	말놀음질	말탈래기
202083-1	생말타기	말탈래기, 말타기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몽둥이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저루다
202087	제기차기	쩍기찰락
202088	헤엄치다	헤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젖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젖혀졌을 때	캐
202090-3	걸	세 짝이 젖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젖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동매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한 동매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동매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202092    막동                      \*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줄목(계속 모가 여러번)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실랭이
202097	싸우다[鬪]	싸움박질 한다
202098	패싸움	태싸움
202099	모다기령	태싸움, 모다치기 싸움
202100	편백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래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춤연
202107	가오리연	개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대
202108-2	콩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가운디대
202108-3	긱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연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허릿대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갈개발
202112	벌이줄	연술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벌이줄, 머릿줄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긱줄
202112-3	콩숫줄	연의 콩숫구멍에 꿰어서 콩숫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줄음에줄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가운디줄

202113	얼레	실패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연싸움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신개	발판
202121	굴렁쇠	*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트는 거.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기히다
202132	놀라다[驚]	놀라다
202133	졸음	졸음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잠
202137	귀잠	짚은잠 (반대:선잠)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잠귀
202141	잠꾸러기	잠꾸대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틀국지
202146	재채기	허깅이
202147	개치네췌	허깅이
202148	방귀	방귀, 똥 끼는 거.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박재기

202151	구린내	똥내
202152	노린내	누린내
202153	사레들다	스레들다
202154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
202162	독창	*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웃	칠
202165	버짐	버짐(도리버즘:동글락동글락 돌라지멍)
202166	마른버짐	군버짐
202167	진버짐	츄버짐
202168	주근깨	프리츄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말축
202171	여드름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ㅎ다
202174	굳은살	캘이
202175	부스럼	부시럼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비듬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물빨
202180	다대	허멀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애옥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앓리는 거
202187	앓다[痛]	앓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 데기
202190	소경	눈봉사
202191	청맹과니	눈봉사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사통이
202194	사팔뜨기	*
202195	다래끼	개씹(아래),
202195-1		개씹(아래)
202195-2		둘럿(우에), 개좃(우에)
202196	언청이	청보(입 타진 거)
202197	외언청이	청보(입 타진 거)
202198	쌍언청이	청보(입 타진 거)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몰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터듬쟁이
202203	혀짤배기	세쫄레기, 세다데기.
202204	입비뚫이	입트래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말자제기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곰사등이	곰세
202209	절뚝발이	전태, 절름발이
202210	얇은뱅이	아즌뱅이
202211	문둥이	용달이

###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무니
203003	아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할아부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무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부부, 두깃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젧아덜
203012-4	막내아들	막둥이, 죽은 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젧아덜
203012-8	넷째아들	죽은 말젧아덜
203012-9	막내아들	죽은아덜, 막둥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죽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죽손
203021	어비딸	이세끼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이딸
203025	어이아들	에이세끼
203026	말이	큰 거(말이)
203027	막내	막둥이
203028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 웨아덜)
203034	외딸	단딸, 외딸, 동궁딸
203035	쌍둥이	굴루기(지집아이 ᄃ나 스나이 ᄃ나인 경우),
	쌍둥이(성별이 꼭같이 나면)	
203036	다르다[異]	달르다
203037	같다[如]	똑글다
203038	양자	양채
203038-1		양들다
203038-2		양채드는 거
203039	처녀	처녀, 애기씨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진
203045	권당	웬당
203045-1	답덜	*
203045-2	방상	친척, 웬당
203046	얹은잔치	안팏잔치
203046-1	암창개	암창개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며느리
203049	시아버지	씨아부지
203050	시아머니	씨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아부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무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지방
203057	아주머니	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늡으신네	어르신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ㅎ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꼰롱팔십
203063	병추기	벵쭈시
203064	거동하다	으뭉ㅎ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뜰
203067	친손자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종내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시누이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죽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죽은어무니
203080	조카	조캐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할아버지
203087	넋할머니	넋할머니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웁딸	비런뜰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남

#### 4. 의복

#####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꿇다	끈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실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어불다
204007	무명	민영
204008	무명실	민영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매
204016	숨	소게, 멘네소게.
204017	폴숨	멩지숨
204018	숨틀	숨틀
204019	숨틀집	숨틀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드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데기	*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닙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산뽕낭
204029	오디	뽕낭올매
204030	다듬잇돌	다듬잇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서답마깨
204032	퍼다	페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게꿈
204035	물거품	물게꿈
204036	빨랫돌	빨랫팡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깨
204038	빨랫바구니	빨랫구덕
204039	헝구다	헝구다
204040	빨랫줄	빨래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몰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대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브래다
204046	헝겂	헝겂세기, 헝겂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헝겂세기

####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매
204053	치맛자락	치맷즈락
204054	풀치마	둘름치매
204055	옷고름	곰
204056	옷깃	옷깃
204057	옷섶	옷섶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막작
204060	동정	동정
204061	소매	소매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포

204066	두루마기	두루마기
204067	장옷	장옷(시집, 죽영갈 때)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토시, 손도메(죽영갈 때 쓰는 장갑).
204070	누더기	두데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뽕쟁이
204073	잠방이	잠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끈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보게트, 게와.
204077	넣다[入]	들여놓다
204078	버선	브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브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브선, 뒷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브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브선코

204079	길목버선	길목 브선
204080	버선발	맨발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얹다	알루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잇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대기
204096	보풀	보풀레기
204097	홀청	이불겹죽, 이불홀청,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옷잇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앉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머리말디
204108	베갯모	베개모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밑짚모자	밑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짚신, 초신
204117	제충박이	*
204118	딴충박이	깍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죽신	가막창신
204123	부르트다	북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치수, 몽수
204127	부채	부채
204128	미선	선재
204129	부치다[扇]	부치다

###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농쌍지
204131	가위	ㄱ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손골미
204134	실	실
204135	실꾸리	실꾸리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줄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주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줍다
204145	곶치다	*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췌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 5. 음식

###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괴다
205007	빠다[渴水]	빠다
205008	조밥	조밥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폴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밥
205013	고두밥	고들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지, 누냉이
205016	눌은밥	눌은밥
205017	더운밥	뜨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파래밥
205020	밥보	밥푸대
205021	밥술	숯가락
205022	밥알	밥개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송냥	송냥
205029	화독내	그끈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느멀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폴죽
205042	섞다[混合]	섞으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강이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느멀짐치

205051	무김치	늪배김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김치
205055	갯김치	갯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등그다
205060	간장	간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된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뎡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하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늪배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병뎡이, 고사리순
205075	꺾다[切]	꺾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총각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나리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숫수세
205087	만물	챗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잘귀
205090	원두막	웨막
205091	깻잎	유잎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치ㄴ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죽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ㄴ레호박(넙적한)
205099	호박잎	호박넙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알게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 별식

205108	흰떡	곤떡, 설기떡
205109	백설기	백시리
205110	부스러기	뽀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고물(세세로 허끄다)
205114	도래떡	돌래떡, 심방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두
205117	가루	ㄴ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봉지	봉다리
205127	과줄	과줄
205128	엿기름	꿀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205134	기울다[傾]	지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술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대
205140	술독	술항아리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씨다
205146	갑시다	연치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니림이
205149	산적	적깔

####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지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숯망굴
205154	불뚱	초불뚱
205155	부엌비	정지 비치락
205156	내[煙氣]	네, 연기
205157	낮다[低]	낮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기시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이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붓돌	*
205166	술	숫
205167	옹달술	오막숫
205168	무쇠술	무쇄술
205169	끓다[沸]	웨다
205170	술뚜껑	숫뚜껑이
205171	술귀	숫전
205172	술전	숫전
205173	술바닥	숫창
205174	술밑	숫창
205175	술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갈레
205177	군손	군손
205178	군일	군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깥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지방석
205182	성냥	불곽
205183	성냥개비	불곽살
205184	성냥갑	불곽
205185	부시	부술
205186	부싷돌	부싷돌
205187	부싷깃	불찍
205188	부시쌈지	불집
205189	부시통	불집
205190	등잔	등잔불
205191	관술	술각
205192	호롱	등잔
205193	남포등	호야
205194	접싷불	지름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덩이
205199	뜬숯	숯
205200	숯검정	숯검덩이
205201	불타다	불태우다
205202	탄내	기시령내
205203	불태우다	불스르다
205204	불티	불똥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불화리
205207	들화로	들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봉덕불
205210	화롯불	화리불
205211	불쪼다	불츠다
205212	화상(火傷)	화상
205213	부손	불수까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까락
205215	다리쇠	세발쇠
205216	석쇠	적쇠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우뜨리만 나타나는 풍경)
205217-2		지실물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뱃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물뿌리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털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발
205234	뚜껑	두껍이
205235	접시	젍시
205236	굽달이	눈 든은 젍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숯까락
205242	젓가락	젓까락
205243	수저통	수제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진물
205246	도시락	점심차룽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족박세기
205250	박	족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족, 족박, 조롱박
205253	쪽박	족박
205254	양푼	밥낭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전복거평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ㄴ망
205260	시룻번	시리마개
205261	경그레	시릿징
205262	함지박	낭도구리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차룽
205265	대[竹]	대낭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수릿대 왕대(장인들). 수리대(할머니들)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왕대
205271	무른대	수리대
205272	항아리	암통게(둥굴락), 솥통게(아가리 위로 주짝)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썰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굴다
205281	솥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솥뚜껑이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술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지름떡판
205290	밀판	안반
205291	밀개	홍짓대
205292	소줏고리	*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웃통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알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술고소리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바지쟁

205293	빚다	술등그다, 술다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
205295	삼발이	세발쇠
205296	달이다	딸리다

## 6. 가옥

###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가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넓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오막살이
206011	외채	단채, 웨채
206012	안채	안꺼리
206013	바깥채	밖꺼리
206014	안팎채	안팎꺼리
206015	문간채	먼 문간
206016	결채	목꺼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독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집뒤, 장항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몰막
206025	변소	통지, 돛통
206026	부춘돌	디덜팡, 치칸돌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맞서다
206029	냄새	냄새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낭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람지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엮으다

####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길풍채
206043-2		*
206044	디딤돌	디딤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상방
206047	마루문	상방문
206047-1	‘호령창’	셋문, 죽은문
206048	마룻널	마리널, 마리방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롭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이방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받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찾방
206062	방문	지계문, 창문

206063	비[霽]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빗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206067	바람벽	축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훼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폴솔
206075	폴비	폴비치락
206076	찾방	챗방
206077	광	고팡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고팡문
206080	간수하다	놔두다
206081	안뒤결	집독깡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대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맛기슭	지붕가생이
206089	낙숫물	지실물
206090	댓돌	이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출흑
206093	찰흙	춘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뀌은 혁
206096	흙길	흑길
206097	이기다[沓]	뀌다
206098	산자(撒子)	*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포지둥
206101	틔기둥	틔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
206110	외(櫻)	*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
206116	문머리	*
206117	문흙	*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계문
206120	닫다[閉]	닫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경
206125	구멍	ㄱ망
206126	미단이	미단이
206127	여단이	돌채귀문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대문
206130	덧문	*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돌채귀
206133	암틀쩌귀	암돌채귀
206134	수틀쩌귀	숫돌채귀
206135	문고리	문걸췌
206136	배목	통췌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시다
206143	서랍	설랍

####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큰툽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찍게.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뿔다[鑿]	뿔르다
206162	굽자	고분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줄
206165	먹칼	*
206166	흙손	췌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줄호랭이

## 7. 생업

###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엮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들 령이
207006	병작(竝作)	벙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지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잠대무쿨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쇳조각	보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쇳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땀’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
207011	벧밥	흑덩어리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양명에
207014	밭두둑	밭두둑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밭이렁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팽이

207022 곡팽이 곡팽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쉼시렁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초불씨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씨망탱이, 땀망탱이

207034 콩게 섬피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불매기

207041 세벌매기 식불매기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글라

207043 호미 골쟁이

207044 흥아기 사대소리

207045 눅 눅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샅	쿰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죽하고 긴 부분	호미늘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호미감는 쇠줄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낫공치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늘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췌기	*
207055	새끼	스끼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끈애기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췌앗베
207061	짐바	짐페
207062	질빵	질빵, 짐페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췌질메
207066	말길마	돌질메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ㄴㄴ리
207072-1		이석, ㄴㄴ리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도깨
207076	벼훑이	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 ㄴ고리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산디 ㄴ고리

207078	타작하다	도깨질 한다, 마당질 한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진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 힘
207083	겨를	저를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어시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톨레

207085	여물	쉐것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꼴	출
207088	꼴발	출왓
207089	꼴꾼	장남
207090	꼴단	출뭇
207091	싣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북두	쉐앗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명석, 덕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ㄴ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대거름체, 거름체, ㄴ는체 순)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웨
207112	되	웨
207113	관되	관웨
207114	사샷되	웨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방앗간에서)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다
207118	고무래	군데
207119	불당그래	굴묵군데
207120	먹둥구미	맥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긋다[引]	긋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긋다
207125	자루[袋]	푸대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일간세둥이
207129	노라리	춤추웨기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리다
207133	끓다	끓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솔
207136	보릿겨	보릿겨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솔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낭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팻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숙다	숙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솔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ㄴ고리
207157	볍씨	볍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ㄴ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솔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ㄴ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ㄴ래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쪽	웃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쪽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ㄴ레ㄴ망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죇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래즈룩

207165	맷방석	ㄴ랫방석
207166	매함지	ㄴ랫도고리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세역
207170	방아	방애
207171	쌍방아	두콜방애
207171-1		식콜방애
207171-2		네콜방애
207171-3		다섯콜방애
207172	방아확	방애톡
207173	방앗간	방앗간
207174	븀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애꾸
207176	남방아	남방애
207177	연자매	믈방애
207178	방앗돌	방앗돌
207179	연자맷간	믈방앗간
207180	절구	남방애
207181	절긋공이	방애끼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조 일 경우)
207184	고르다[擇]	굴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닙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각지	콩각지,

207191	콩짚	콩꼬질
207192	꼬투리	콩깍매기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뜨겁다
207196	비지	비재
207197	찌꺼기	찌끄레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팔	폴
207202	팔알	폴방울
207203	팔밥	폴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퀘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깻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흐다
207210	메밀	모멸
207211	메밀밭	모멸밭
207212	나깨	막멸는쟁이
207213	메밀껍질	막멸체
207214	메밀국수	모멸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멸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모멸칼국수
207217	메밀떡	모멸떡
207218	메밀묵	모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대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실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대가리

207225-3	마늘중	마농쥬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밀동	패마농불리
207228	무	눔빠
207229	무청	눔빠섭
207230	시래기	시래기(제주에서 먹지 않음)
207231	장다리무	*
207232	열무	열무, 츠마귀늑덜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깡이(배추)	배추속
207235	나물	늑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퍼대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냉이, 대죽부럭
207240-1	옥수수	옥수수
207241	수수	사당대죽
207242	쌀수수	대죽찰
207243	비목수수	빃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

#### 어업

207246	잠녀(潛女)	즘네
207247	물길	물길
207248	물웃	물속곳,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죽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재기
207255	뜯채	족바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압코지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배사공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배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돛줄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네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네착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네앞
207270	노뒤	네뒤
207271	노손	*
207272	돛구멍	*
207273	돛줄	*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돛가지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돌	*
207278	돛걸이	*
207279	키[舵]	키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

기타

207285	이웃	*
207286	더불다[與]	어울리다
207287	마을	믄실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시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산간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갯것, 해변
207293	마을가다	믄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마실
207295	가게	점방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댕겨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우수리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주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홍정	홍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벨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왕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불미
207315	모루	모릿쉐
207316	모루채	물메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맹긴
207319	망건골	맹긴골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탕견( 𪛗지다), 양태(줄다)
207322	사냥	사능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바치
207325	쏘다[射]	맞추다
207326	꿇잡이	꿇바치
207327	고	코고리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췌다

##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 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요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요덥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스물	스물
208004-2	(30)서른	서른
208004-3	(40)마흔	마흔
208004-4	(50)쉰	쉰
208004-5	(60)예순	예순
208004-6	(70)일흔	일흔
208004-7	(80)요든	요든
208004-8	(90)아흔	아흔
208004-9	(100)백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식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니 말
208005-5	(5/닷)	다섯 돼	다섯 말
208005-6	(6/엿)	말가웃=요숫 돼	요섯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 두 개	흔 두 돼	흔 두 말
208006-2	(2-3/두세)	두 세 개	두 석 돼	두 서 말
208006-3	(2-3-4/두서너)	두 서너 개	두 서 녀 돼	두 서너 말
208006-4	(3-4/서너)	서너 개	서 녀 돼	서너 말
208006-5	(4-5/네댓)	너댓 개	너댓 돼	너댓 말
208006-6	(5-6/대여섯)	대여섯 개	대엿 돼	대엿 말
208006-7	(6-7/예닐곱)	예닐곱 개	예닐곱 돼	예닐곱 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요덟 개	일고요덟 돼	일고요덟 말
208006-9	(8-9/여덟아홉)	요덟아홉 개	요덟아홉 돼	요덟아홉 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개 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개 남은

단위

208009 뺨                      흔뺨  
 208010 집게뺨                흔조리  
 208011 발[單位]            흔발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민영 40자, 민영 스물댓자
208014-2	명주	멩주
208014-3	광목	광목
208014-4	베	베 25자

208015 마지기(평)        말지기  
 208015-1                  신촌(150평=흔 말지기)  
 208016 뭇                  뭇  
 208017 묶다[束]            묶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동  
 208019-1                뭇  
 208020 조짐                흔줄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

208021-1	보리	*
208021-2	조(이삭 있음)	*
208021-3	콩	*
208021-4	밭벼	*
208021-5	꼴	*
208021-6	띠	*
208021-7	각단	*
208021-8	어옥	*

208022 모금                흔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15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두
208028-2		마리죽
208029	축	축
208030	웨미	웨미
208031	쌍(돼지)	흔 자리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결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 9. 민속

###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디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벳속에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시방
209009	가마	가매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개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개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남자펜), 들러리(여자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樛]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돈
209022	겹사돈	가시사돈
209023	상갓집	상집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상주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매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아버지(왕대 막뎡이)
209031-2		어머니(머구냥)
209032	짚동	짚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209035	뒗자리	묘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낙양광,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계
209042	상두꾼	상두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뻗
209045	광중	괘관터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209055	묘위전	*
209056	고충	글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갯집
209059	편틀	정반(나무), 펜대(돛그릇)
209060	퇴물	툼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편
209067	웃기떡	지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태우다
209070	몫	반
209071	면례(緬禮)	천리

####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검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살장구
209080	뽕과리	깡매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살뜸질
209085	추석	추석



##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멩김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밧
210008	명두	멩두
210009	추다[踊]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허깨비
210017	어둡서니	기신세, 헛거, 그시린닥세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고시레
210022	포제	포제

## 11. 자연

###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화
211004	불다[點火]	불다
211005	내[川]	넛창
211006	넛가	넛ㄱ

211007	물가	물ㄱ
211008	따르다[從]	따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엉덕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가참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불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돌백해
211016	갈림길	삼거리, 스거리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굴렁질
211019	벼랑길	지름길
211020	내리막길	굴렁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길
211022	길가	질ㄱ
211023	큰길	한길, 대한길
211024	분화구	*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산굴렁
211028	산바람	마프름
211029	산꼬대	*
211030	상고대	서리
211031	구렁	굴렁밧
211032	고랑창	고랑창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넘어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호갱이물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

####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갯것디

211041	바닷물	바닷물
211042	바닷바람	낫브람
211043	깊다[深]	깊다
211044	얕다[淺]	얕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작지
211049	갯가	갯것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큰절
211056	굼늬	*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즌물절
211059	무수기	*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음력)아흐레부터, (음력)스무나흘날부터	(음력)9일, (음력)24일
211059-2	두무날		10, 25
211059-3	서무날		11, 26
211059-4	너무날		12, 27
211059-5	다섯무날		13, 28
211059-6	여섯무날		14, 29
211059-7	일곱무날		15, 30
211059-8	여덟무날		16, 1
211059-9	아홉무날		17, 2
211059-10	열무날		18, 3
211059-11	열한무날		19, 4
211059-12	열두무날		20, 5
211059-13	(열서무날)		21, 6
211059-14	아끈췌기		22, 7
211059-15	췌기		23, 8
211059-16	한조금		스무사흘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써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 시후

211066	오늘	오닐
211067	내일	닐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닐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즈낙날
211072	어제	어저께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벽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이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벧
211079	아침	아척
211080	낮	낫
211081	저녁	즈낙
211082	저녁거리	즈낙꼬심
211083	초저녁	초즈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미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성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향고지
211100	쌍무지개	향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ᄃ실
211104	겨울	저실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ᄃ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엿새
211110-7	이레	일레
211110-8	여드레	요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엿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즈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섣달	섯달
211120	올해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후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하다
211128	땡별	즈작벧
211129	가을별	ㄹ실벧
211130	양지받이	*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개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븜
211137-1	바람위	븜우이(남쪽)
211137-2	바람아래	븜아래(북쪽)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바람꺾지
211140	바람살	븜쌀
211141	회오리바람	도쟁이주제
211142	동풍	셋븜
211143	남풍	마포븜
211144	서풍	하늬븜(서쪽), 셋갈븜(서남쪽)
211145	북풍	놋븜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5월장마
211149-2	가을장마	*
211150	곰팡이	곰상
211151	소나기	쉐네기
211152	여우비	쉐네기주제
211153	가랑비	꺾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선선ㅎ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꺾물다
211158	가뭄	가뭄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븜
211161	안개	으납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내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레기눈
211170	도둑눈	도둑눈
211171	내리다[降]	느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고드름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 방향

211182	앞	앞이
211183	뒤	두이
211184	결	결이
211185	옆	옆이, 즈깁띠
211186	위	우이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븡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ㅎ다
211190	왼쪽	웁쪽
211191	오른쪽	느단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에
211195	밖	배꺀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ㄴ생이
211198	가[邊]	ㄴ
211199	가장자리	어염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 12. 동물

###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숫췌, 부룽이
212005	쇠소	식췌,
212006	불까다	불불르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부룽이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소망울
212011	쇠고삐	췌줄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매염췌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근심송애기	근심
212015-2	이듭/두듭(2)	다간송애기	다간
212105-3	사릅(3)	사릅췌	사릅
212015-4	나릅(4)	나릅췌	나릅
212015-5	다듭(5)	다듭췌	다듭
212015-6	여듭(6)	*	*
212015-7	이릅(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듭/구릅(9)	*	*
212015-10	열릅/담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여물, 췌것
212018	구유	도구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죽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말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불금물
212028	얼룩말	얼룩말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물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곰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말
212034	달리다[走]	달리다
212035	마소	물믈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말석
212039	당기다	등기다
212040	낙인	낙연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드랭이
212048	비루먹다	*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고냉이
212051	수고양이	숫고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쟁이	식고냉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숫득
212057	멀떠구니	멍터구리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득망
212060	닭장	득망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른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끓다
212063	병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숫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헛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성머리
212072	생둥이	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자릿도새기, 도새기새끼
212074	돼지우리	통시
212075	돼지고기	돛괴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식육점
212080	기르다	기르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장벼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푼리
212091	쇠파리	쇠푼리
212092	똥파리	똥푼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각대귀
212096	장구벌레	*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서캐
212100	서캐훤이	*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송백충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
212106	굼벥이	굼벥이
212107	땅강아지	*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콩벼랭이
212110	노래기	노래기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일다
212114	하루살이	눈에눈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옷입은 들팽이
212117	민달팽이	옷버신 들뱅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심방말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주애기
212126	귀뚜라미	말축
212127	풍뎅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무당벌레
212130	쇠뚝구리	쉐동버랭이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짹제기 벌레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잘잘
212140	고추잠자리	*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흘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
212147	방개	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꿀벌
212151	꿀	칭
212152	땅벌	땅벌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
212155	진드기	진독, 부그리
212155-1		진독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솔충버랭이

212157	개구리	가게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테비
212161	뱀	베엄
212161-1	뱀띠	베엄띠
212161-2	뱀허물	베엄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해치
212163	도마뱀	장칼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돛줄레(줄란줄락), 물폐기(대가리가가 납작)

####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루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뿔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괌다	괌다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오소리
212176-1		*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피
212179	멧돼지	산뿔야지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원숭이띠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랭이

####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	------	----

212186	꿩지	꿩랑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새가심
212190	참새	참새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소로기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로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빼꾸기	빼꾸기
212200	종달새	종달새
212201	올빼미	으뺨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득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애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 바다 동물

212210	고등	구쟁기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매홍이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대소알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굼벵
212225-1		*
212226	진주담치	*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전복
212228-2		숫전복
212229	전복갑	전복거평
212230	오분자기	오분재기
212231	게	강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참강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게들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어금발
212240	갯강구	*
212241	말미잘	물문주리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물토새기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해팍리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뭉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닷괴기
212255	맑다[淸]	몹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타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게우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낙싯대
212266	만들다[造]	맹글다
212267	낙싯줄	낙싯줄
212268	붕돌	뿡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레미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옥돔
212288	흑돔	*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감성돔

212291	벵에돔	벵에돔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돔
212293-1		*
212294	고등어	고등어
212295	전갱이	각재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
212300	불바리	불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깍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볼락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
212307	독가시치	*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세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검은 머구낭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 품	*
213005	화승(火繩)	화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
213027	쇠비름	췌비름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
213030	땅빈대	*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질쟁이

213035	쑥	속
213036	캐다[採]	*
213037	쑥떡	속떡
213038	토끼풀	튀끼풀
213039	개자리	*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랭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
213049	별꽃	*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싯넙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
213063	살갈퀴	*
213064	차풀	*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하늘래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
213069	부처손	*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냉이풀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꼭
213074	췌덩굴	꼭줄
213075	췌뿌리	췌불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 ㄱ장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
213093	땃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
213096	달래	평마농
213097	췌마귀	*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추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동매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붓꽃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맨드라미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수국
213134	산수국	산수국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제비꽃
213137	복수초	복수초
213138	수선화	수선화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리
--------	----	----

213142	잔뿌리	즌불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잎상귀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잎
213151	솔가리	솔잎
213152	솔방울	똥
213153	땨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풍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벌경흐다
213161	멀구슬나무	먹구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아카시아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옴나무	*
213167	삼나무	쑥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사오기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묵이
213173	주목	*
213174	종려나무	*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낭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저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느릅낭
213198	두릅나무	두릅낭
213199	향나무	*
213200	웃나무	웃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귀똥나무	*
213208	섬귀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뽕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
213220	좀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
213227	천선과나무	*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
213237	산딸나무	산탈낭
213238	초피나무	*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불나무	*
213247	협죽도	협죽도
213248	담팔수	*

####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겉질	겉죽

213251	깎다	깍그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베염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머뤼
213264	개머루	*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산머뤼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로미
213270	다래	드래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
213279	밀감	밀감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탕주
213282	탱자나무	개탕주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풋감

213288	청미래덩굴	청미래덩굴
213289	맹감	*
213290	찹레나무	찹레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도애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줄갱이
213307	오미자	오미자

####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과래	꼭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
213317	다시마	다시마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몐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